

2019

정책연구 2019-20

전라북도 인구유입활성화 (제2고향만들기) 정책연구

연구진 김동영 · 이종섭 · 송용호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20

전라북도 인구유입활성화 (제2고향만들기) 정책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 김 동 영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 중 섭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송 용 호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이 민 수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이 지 훈 ·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 상 현 ·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 강 열 ·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연구관리 코드 : 19JU1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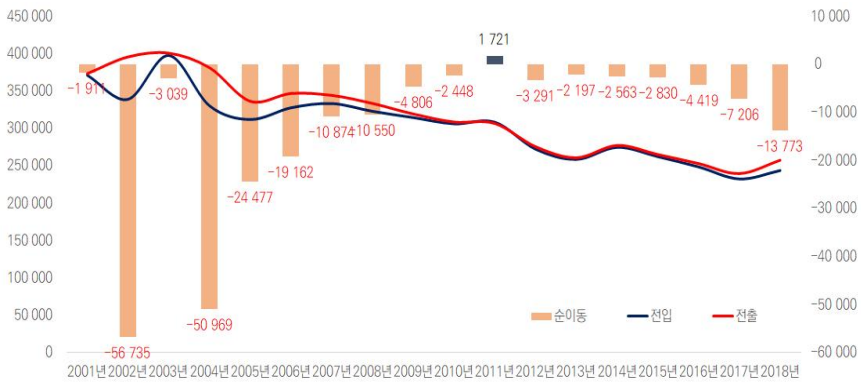
-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인구증대정책과 인구관리정책으로 구분
 - 인구증대정책은 출산율과 출생아수의 증대 및 이민자 확대 등
 - 인구관리정책은 경제활력인구(특히, 청년인구)의 균형배분과 인구감소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관리정책 등
 - 기존 인구기본계획은 종합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구유입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 대두
- 단순지원이 아닌 장소의 매력증진을 통한 인구유입정책 필요
 - 인구유입정책은 현재 주소이동에 따른 현금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단시일적 인구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유입정책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통한 단시간적 인구유입이 아닌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전라북도의 생활입지선택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 지방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전통적 매력을 토대로 청년세대나 출향인, 공공기관 은퇴자들의 전복 회귀정책 추진

2. 인구유입 대상현황

□ 전북 출향인

- 전라북도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순이동인구에서 2011년만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고, 2012년 이후 인구유입보다 유출이 더 커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

〈그림-1〉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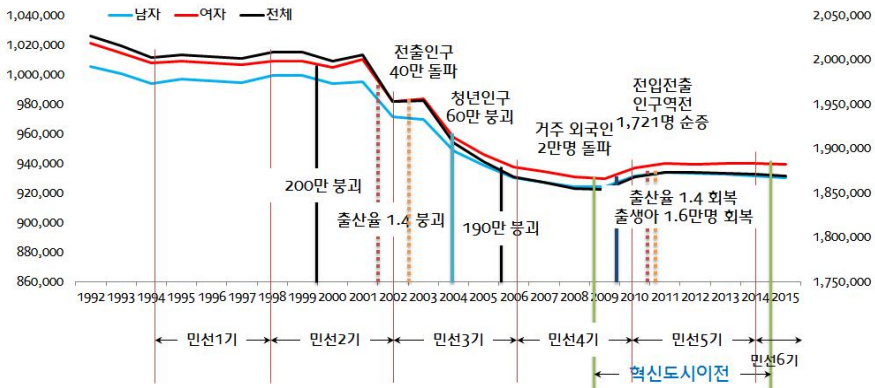


- 전라북도 향우회원 및 출향도민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에 의하면 향우회원은 122,440명, 출향도민은 3,46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추정해본 결과 출향민은 180.4만명으로 추정됨
- * 전라북도의 출생주민 중 전라북도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은 152.5만명이고 전라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도민은 180.4만명으로 추정

□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 전북혁신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주가 전라북도 인구감소율을 낮추고 인구유출을 감소하는 인구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

〈그림-2〉 전라북도 인구추이와 시기별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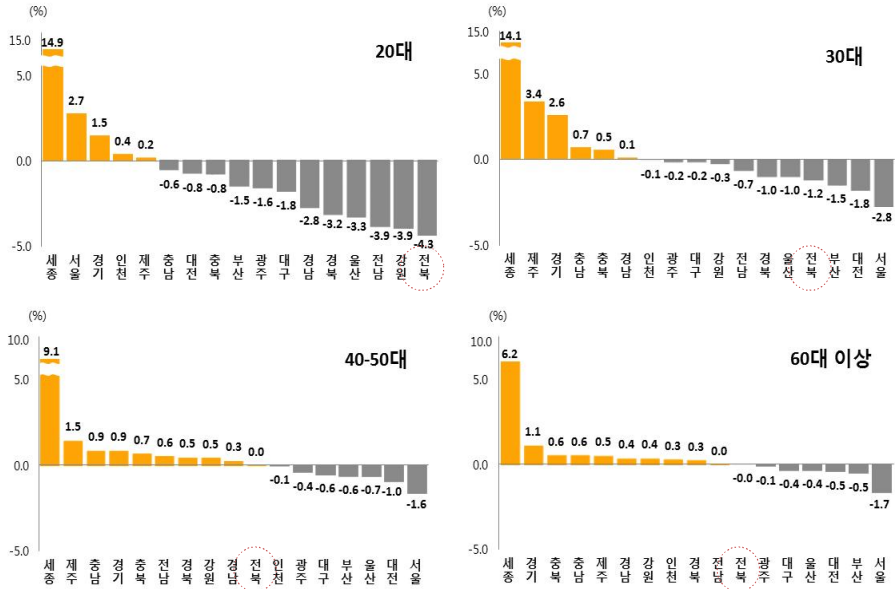
자료 : 김동영 외(2016)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 전북연구원

- 전라북도에는 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외에도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주와 군산세관 등 24개 공공기관 소재
- * 예를들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80명 종사자 중 타지역종사자는 226명에 달함

□ 도내 및 수도권 대학생(청년)

- 전라북도 인구유출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마이너스 순이동을 보이고 있음
- * 세대별 순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전북(-4.3%), 강원·전남(-3.9%)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14.9%), 서울(2.7%), 경기(1.5%)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나 전북이 20대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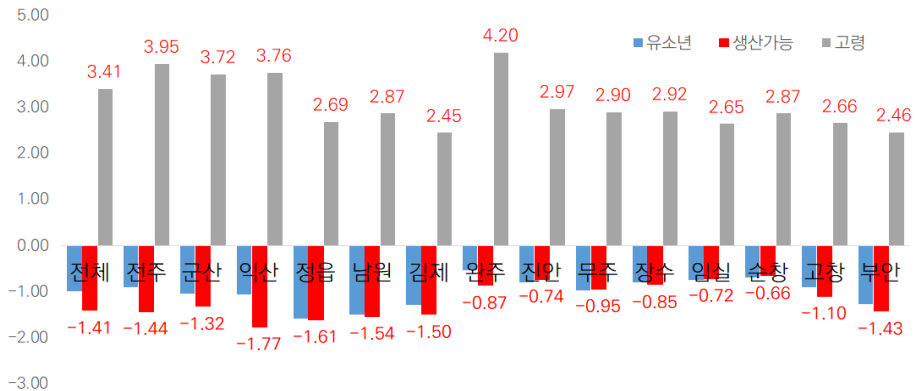
〈그림-3〉 지역별 세대별 순인구 이동율



자료 : 통계청(2019) 국내인구이동 현황(2018년 말 기준)

- 특히, 전라북도는 20세에서 29세의 청년이 2018년 한해에만 약 9.5천명 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았고, 다음으로 30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도 약 2.5천명 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4〉 전라북도 시군별 평균 증감율 추이(2020~2023년)



3. 인구유입 추진전략

□ 단계별 추진전략

- 전라북도 인구유입정책은 귀농·귀촌인과 청년의 이주단계를 고려하여 관심단계, 방문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추진
 - * 청년허브의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2018)연구에서는 청년의 지방이주를 탐색, 이주, 정착의 세 단계로 구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귀촌정책 진단 및 성과 평가 보고서(2018)에 의하면 귀농·귀촌은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
- 관심단계는 지역이주를 위한 교육 및 지역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방문단계는 단기방문이나 중장기 체류와 같은 지방이주 경험제공, 정착단계는 거주지 및 일자리 제공과 같은 정주지원 필요
 - * 현재 추진 중인 전라북도 인구유입정책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 전라북도 시군별 평균 증감율 추이(2020~2023년)

단계	지원방향	주요사업
관심 단계	○ 지역 정보제공 ○ 지역이주 관련 교육 ○ 지방이주의 가치와 의미파악 ○ 도시생활의 자원 활용 ○ 진로탐색	○ 귀농·귀촌지원센터 ○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귀농박람회 ○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 농촌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방문 단계	○ 현장 방문 ○ 중장기체류 ○ 지방이주 경험 ○ 일자리연계 지역생활 경험	○ 귀농인의 집 ○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 도농교류 산촌 마당캠프 ○ 청년세어하우스 ○ 청년 직무인턴 ○ 출향인 및 출향자녀 고향방문
정착 단계	○ 거주지 확보 ○ 정착을 위한 자문문제 해소 ○ 비즈니스모델 개발 ○ 창업 및 취업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보 ○ 정착 애로사항 해소 ○ 전문역량 활용 ○ 지역문제해결	○ 귀농귀촌 주거지원 ○ 농촌다움 복원사업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전북 스마트공장배움터 ○ 전북청년 지역정착 수당 ○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 계별 주요사업

- 본 연구에서 주요대상으로 선정한 출향인,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은퇴자, 대학생 및 청년이 지방이주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제시



- 관심단계에서는 지방이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매칭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제비(JB) 고향회귀센터조성을, 방문단계에서는 체류도시 시범사업,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공유농업, 청년참여형 리빙랩 사업을, 정착단계에서는 하늘·바람·물 전북청정지역 지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사업을 제안

〈표-2〉 단계별 인구유입 제안사업

단계	사업명	세부사업
관심단계	◦ 제비(JB)고향회귀센터	제비(JB)로컬카페 & 콜센터 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전북이주 업무협약
방문단계	◦ 체류도시 시범사업	사이버 도민증 발급 논밭 소셜 다이닝 동부권 대지예술제
	◦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베이비붐 노후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베이비붐 직업훈련 교육관 및 직업 체험관 전북이주자 인재은행
	◦ 공유농업	공유농업 지원조례 제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유형별 공유농장운영: 배당 공유형, 생산물 공유형
	◦ 청년참여형 리빙랩	지역대학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혁신기업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정착단계	◦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유형별 조성: 정주형, 체험형
	◦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지역 선정 ICT기업의 전북지부 유치 5G 인프라 구축 ICT 청년업무지구 지원단 구성·운영

4. 세부추진사업

① 제비(JB) 고향회귀센터

□ 필요성

-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전라북도이주지역을 확장하고 농업이나 어업 등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문직,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군의 전라북도 유입을 위한 종합적 지원센터 역할 필요
- 서울에 소재를 둔 제비(JB)고향회귀센터를 설립하여 전북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
- * 제비(JB)고향회귀센터를 전북이주 컨트롤타워로 하고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을 연계기관으로 14개 시군에 전문 상담원을 두고 연계추진

□ 주요사업

- (제비(JB) 로컬카페 & 콜센터) 전라북도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공간과 다양한 음료나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카페형으로 조성하여 전라북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담 상담원을 통한 전문상담 추진
- (교육 및 일자리 매칭) 교육 및 세미나를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전라북도나 14개 시군의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혜택 또는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 및 농촌형 일자리 외에도 서비스업, 첨단제조업, ICT 등 경력연계를 통한 일자리 매칭 지원
- (전북이주 업무협약) 공무원연금공단,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건설기술인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은행연합회는 물론 대기업 등과의 전북이주 상호협력을 위한 은퇴 후 전북이주 업무협약 체결

□ 사례: 일본 고향회귀지원센터

- 단카이 세대의 은퇴후 지방에서 생활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
- 도쿄와 오사카에 운영사무소를 두고 지자체는 전속상담원을 배치하거나 홍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18년 현재 352개의 지자체 참여
-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주 지원사업이나 빈집, 유흥지 정보제공 및 ‘고향회귀순환운동’ 주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② 체류도시 시범사업

□ 필요성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거주인구의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유동인구를 반영한 체류인구 정책의 필요성 증가
 - * 서울시의 생활인구, 제주도의 관광객을 포함한 계획인구, 프랑스의 체류인구, 일본의 체재교류인구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인구개념이 확산되고 있음
 - * 전라북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산한 관광객 중심의 체류인구를 보면 2014년 30,111,036명, 2015년 31,529,214명, 2016년 32,865,949명, 2017년 38,831,676명, 2018년 39,929,84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주요사업

- (사이버 도민증 발급) 주된 생활은 현거주지에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거나 교육기관이나 군부대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사이버 도민증을 발급하고 도민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향후 지역이주로 유도
- (논밭 소셜 다이닝) 좋은 사람들과 풍경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소셜 다이닝을 전라북도의 매력상품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할 수 있는 신규 체류인구를 발굴하고 마을단위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새로운 경제활력 도모

- (동부권 대지예술제) 동부권의 6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부권 특별회계사업 중 일부예산을 투자하여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예술과 자연을 결합한 대지예술제 제안

□ 사례: 일본 에츠고츠마리 대지예술제

- 에츠고츠마리는 니가타현 남단에 위치한 도오카마치시와 츠난마치시를 합친 지역으로 760km²에 75,000명이 사는 대표적 인구과소지역으로 65세 인구가 3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지역
- 예술을 통해 지역을 매력을 끌어내고 교류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시작되었으며, 3년에 1번 끝인 트리엔날레형식으로 개최 중
- 예술로 지역자원의 발견과 지역의 지혜를 학습하여, 주민과의 협동, 공간을 숨쉬도록 만든다는 원칙하에 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색(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매 행사마다 산과 강, 밭과 그림 같은 것이 주제인 예술 작품들이 뿔뿔이 흩어져 광대한 지역에 전시)
- 예술전사와 함께 빈집을 미술관이나 갤러리, 레스토랑, 숙박시설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와 폐교를 예술가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지역식재료를 이용한 메뉴개발 등을 도시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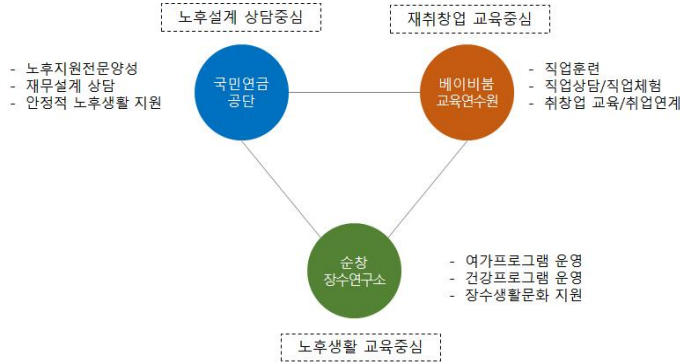


③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 필요성

- 2020년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대량은퇴로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지원체계는 부재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설계 뿐만 아니라 전직 경험을 활용한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후설계 인프라 기반인 국민연금공단과 연계 베이비붐 세대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교육연수기관 필요

〈그림-6〉 베이비붐 세대 교육연수원 연계방안



□ 주요사업

- (베이비붐 노후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 여가, 교육, 노동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연수기관 설치 운영
- (베이비붐 직업훈련 교육관 및 직업체험관)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 유망직종 직업훈련, DB활용 적합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전북이주자 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과 연계하여 전북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전북이주자들의 경력을 토대로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취업, 창업, 사회적공헌, 봉사활동 등과 연계

□ 사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만50~64, 베이비부머/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
- 기관별로 산재한 일자리, 복지, 교육, 상담 등의 중장년정책을 통합해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경력과 취미, 관심거리가 교육과 결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50플러스캠퍼스 및 정책수요 유형별 맞춤 정책지원

4 공유농업

□ 필요성

- 공유경제는 공유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을 중간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공유
- 농업종사자와 농지가 많은 전라북도는 농지를 공유하여 농지로부터 생산된 식품이나 파생되는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농업추진
 - * 공유농업은 농업인에게는 필요한 자금확보와 판로개척을 도시민에게 재배과정 참여와 생산품 공유로 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 주요사업

- (공유농업 지원조례 제정) 공유농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방정부가 농지라는 사유자산을 소비자와 연계하여 그 생산물과 서비스를 공유하는데 있어 신뢰담보역할을 수행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
-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와 마찬가지로 공유농업은 농장 소유자와 농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플랫폼 비즈니스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회원가입 및 대금결제 등이 가능한 IT앱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농업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자로 지정
- (배당 공유형 농장) 배당공유형 농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농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농장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참여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
- (생산품 공유형 농장) 공유농업 참여자인 도시민들은 농작물 재배에 직접 참여하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공유하며, 농장주는 공유

농업 참여자들에게 농업관련 교육이나 농장캠프 등 문화이벤트 등의 체험제공

□ 사례: 당신의 과수원

- 당신의 과수원은 사람들과 꿀농장을 공유하는 제주도의 '쉐어 과수원'으로 1년단위 또는 3~5년 단위로 꿀나무를 공유하고 꿀나무에서 생산된 꿀을 공유
- 회원들에게 꿀농장 무료체험, 농장 오두막 무료사용, 주변펜션 및 렌트 할인 제공, 생과일 및 가공품 수령 등을 제공

⑤ 청년참여형 리빙랩

□ 필요성

- 전라북도 인구유출에서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인데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를 직접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한다면 도내유출 청년인력의 방지에 기여
- 대학생이나 청년이 직접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발굴, 필요한 기술연계 또는 기술개발, 프로토타입 개발, 현장에 접목, 피드백을 통한 개선,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전체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은 물론 창업이나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 정주의 효과를 높이는 전략 필요

□ 주요사업

- (대학별 1사업단 1지역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운영) 지역대학(학부나 대학원)이나 대학교내 연구소 및 산학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운영에 관한 공모사업 추진

- * 전라북도 리빙랩 네트워크와 공동주관으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창업 인센티브 및 마케팅과 판로 개척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지역기업으로 성장
- (도내 혁신기업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운영) 도내 혁신기술(4차산업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 또는 청년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전라북도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실증 지원
-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사례: 테스트베드 서울

- 서울시는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추진
- 총 100억원을 과제당 5억원까지 연중 상시접수를 통해 2개월내 심사를 통해 결과발표하며 예산이 소진될 시 사업을 종결하며 실증에 필요한 제품설치, 유지보수, 개선, 철거비용은 물론 공공 수요처 명의의 성능확인서 제공

⑥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의하면 귀농과 귀촌의 첫 번째 이유로 “자연환경이 좋아서”를 선택할 정도로 이주지역 선택시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
- 악취 없는 맑은 공기, 오염 없는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전라북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개발규제 필요

□ 주요사업

-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 지정)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구와는 별도로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 지정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 지정 조건(안)

- 하천, 산간계곡, 해양 등 자연적경관이 우수한 지역
- 주변에 환경훼손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지역
 - * 환경훼손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축사, 공장, 쓰레기매립장, 발전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원회에서 결정
- 하천수질이 1급수인 지역
- 식수오염(붉은수돗물, 냄새 등)이 없는 지역
- 악취가 없는 지역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지역(미세먼지 $20\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10\mu\text{g}/\text{m}^3$)
- 기타 등등

- (정주형 마을조성) 사람들의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형의 경우 친환경 건축 및 오폐수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생태적 환경을 보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생태적 정주성의 지속적인 보존
- (휴양형 마을조성) 생활환경을 활용한 휴양과 힐링 및 생태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정지역을 전북의 대표적 브랜드로 홍보하고 체류매력을 높임

□ 사례: 생태경관보전지구 및 생태마을

-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우수지역을 발굴하여 생태경관보전지구나 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부지정 9개소, 시도지사지정 24개소 운영
 - * 출입제한 및 훼손 금지 등의 행위규정과 주민에게 하수처리 및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등과 같은 규제와 지원정책을 동시에 추진 중

7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 필요성

- 최근 청년들은 생태나 전통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서 살면서 IT기반의 첨단산업에 종사하고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음
 - * 미국 포틀랜드의 키포크시티 또는 일본 가미야마의 IT분야 위성사무소 콤플렉스 등
- 전라북도차원에서 자연친화적 환경과 IT첨단산업이 결합된 청년업무지구를 조성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종의 전북진입과 그에 따른 전문인력의 유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지역 선정) 생태적 환경이 우수하면서 ICT첨단산업유치에 적극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사업을 추진 한 후 성과를 보고 14개 시군으로 확대
 - * ICT청년업무지구는 업무공간, 숙박공간, 문화공간, 휴식공간, 텃밭공간, 생태공간 등 업무와 휴식 및 주거가 가능한 생태적 라이프스타일 복합지구로 조성
- (ICT기업의 전북지부 유치) 초기 ICT관련 전북지부 사무소 유치를 통해 그에 따른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등 개인 전문인력 또는 소규모 업체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체류와 비즈니스가 가능한 공동사무공간 지원
- (5G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통신부와 기가코리아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5G융합 서비스 시범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간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5G 빌리지 구축
- (ICT청년업무지구 지원단 운영) ICT 청년업무지구에 적합한 장소물색, 유희공간과 빈집 조사 및 리모델링 지원, 업무지구에 맞는 앵커기업 지부유치, 청년창업과 연계기업 지원,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유치, 자연과 전통적 삶에 대한 교육과 실습, 문화적 활동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추진

□ 사례: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 지방소멸 1위지역인 의성군을 일자리와 복지를 두루갖춘 인구증가 시범마을로 만들기 위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여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추진 중
- 식품특화농공단지 및 반려동물 산업단지 조성, 선·후주민 공동창업지원, 농촌의 예술화를 목표로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청년주거단지 300세대 조성, 중간지원조직 이웃사촌지원센터운영, 출산통합지원센터 및 경북 미래학교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시범마을 청년유치 등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8
4. 연구 기대효과	9
 제2장 선행연구검토	11
1. 연구논문분석.....	13
2. 정책연구분석.....	15
3. 인구유입정책사례	19
 제3장 전라북도 인구현황	31
1. 인구추계.....	33
2. 전라북도 인구현황 및 추이	35
 제4장 정책수요 분석	67
1. 조사개요.....	69
2. 조사결과.....	70
 제5장 정책방향 및 대상선정	121
1. 인구유입 정책의 전제조건.....	123
2. 인구유입 대상선정	129
3. 인구유입 대상현황	130

제6장 인구유입 추진전략	145
1. 제비(JB) 고향회귀센터	151
2. 체류도시 시범사업	158
3.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166
4. 공유농업(공유농장)	172
5. 청년참여형 리빙랩	178
6.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185
7.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191
 제7장 요약 및 결론	 199
 부록	 209

표 목 차 | Contents

〈표1-1〉 분야별 추진사업	5
〈표2-1〉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1-20위)	19
〈표2-2〉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사업추진 방향	21
〈표2-3〉 시범마을 일자리 창출 방안	22
〈표2-4〉 시범마을 주거단지 조성 방안	23
〈표2-5〉 시범마을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	24
〈표2-6〉 이웃사촌지원센터 주요사업	25
〈표3-1〉 전라북도 지역별 인구추계	34
〈표3-2〉 시도별 인구 및 가구현황(2017년 기준)	35
〈표3-3〉 전북 시군별 인구 및 가구현황(2017년 기준)	36
〈표3-4〉 시도별 총 인구 추이	37
〈표3-5〉 전북 시군별 총 인구 추이	38
〈표3-6〉 전국 시도별 성별 인구추이	39
〈표3-7〉 전국 시도 연령별 인구 현황(2018년)	41
〈표3-8〉 전국 17개 시도 연령별 인구 구성비	42
〈표3-9〉 전라북도 시군 연령별 인구 구성비	43
〈표3-10〉 시도별 청년층 인구(2000년-2018년)	44
〈표3-11〉 전라북도 시군별 청년층 인구(2000년-2018년)	45
〈표3-12〉 전국 청년층 1인 가구 현황	45
〈표3-13〉 전라북도 청년층 1인 가구 현황	46
〈표3-14〉 전국 사업체 현황	47
〈표3-15〉 시도별 청년고용률	48
〈표3-16〉 시도별 가임기 여성 인구(2000년-2018년)	49
〈표3-17〉 시도별 출산율(2001년-2017년)	50
〈표3-18〉 시도별 혼인 수	51

〈표3-19〉 전국 성별 초혼연령 추이	52
〈표3-20〉 시도별 평균 출산연령	53
〈표3-21〉 시도별 출생 수	54
〈표3-22〉 전라북도 출산모 연령주기 변화	54
〈표3-23〉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56
〈표3-24〉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56
〈표3-25〉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56
〈표3-26〉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57
〈표3-27〉 시도별 귀농 가구 현황	58
〈표3-28〉 2018년 귀농가구주 연령별 현황	59
〈표3-29〉 귀농가구구성 현황	59
〈표3-30〉 전라북도 시군별 귀농 가구 현황	60
〈표3-31〉 귀농가구구성 현황	60
〈표3-32〉 귀농전 거주지역 현황	61
〈표3-33〉 귀농가구원 이동유형 현황 2018년도	62
〈표3-34〉 시도별 귀촌 가구 현황	63
〈표3-35〉 2018년 귀촌가구주 연령별 현황	63
〈표3-36〉 귀촌가구구성 현황	64
〈표3-37〉 전라북도 시군별 귀촌 가구 현황	64
〈표3-38〉 귀촌가구구성 현황	65
〈표3-39〉 귀촌전 거주지역 현황 2018년도	65
〈표3-40〉 귀촌가구원 이동유형 현황 2018년도	66
〈표4-1〉 정책수요 조사 대상자	69
〈표4-2〉 출향민 대상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70
〈표4-3〉 전라북도 전출시기	71
〈표4-4〉 전라북도에서 전출한 지역	71
〈표4-5〉 전라북도에서 전출한 사유	72
〈표4-6〉 현거주지 만족도 - 1	72
〈표4-7〉 현거주지 만족도 - 2	73

〈표4-8〉 현거주지 만족도 - 3	73
〈표4-9〉 현거주지 만족도 - 4	74
〈표4-10〉 현거주지 만족도 - 5	74
〈표4-11〉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지역 정체성	75
〈표4-12〉 전라북도로 귀향 의향	75
〈표4-13〉 귀향의 이유	76
〈표4-14〉 귀향 시 가장 걱정되는 것	76
〈표4-15〉 귀향 의사가 없는 이유	77
〈표4-16〉 출향민의 귀향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77
〈표4-17〉 본인의 자녀를 전라북도로 귀향하게 할 의사	78
〈표4-18〉 전북소재 대학교 대학생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79
〈표4-19〉 전북소재 대학교 대학생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80
〈표4-20〉 졸업 후 전라북도 생활을 계획한 이유	80
〈표4-21〉 결혼 후 전라북도 생활 여부	81
〈표4-22〉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	81
〈표4-23〉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이동 하려는 시기	82
〈표4-24〉 전북지역의 대학생들이 타지로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	83
〈표4-25〉 졸업 후 전라북도에서 생활 여부	83
〈표4-26〉 결혼 후 전라북도 생활 여부 및 생활여건 고민	84
〈표4-27〉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유	85
〈표4-28〉 이동하고자 하는 타지역	85
〈표4-29〉 전라북도 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	86
〈표4-30〉 현재 거주지(전라북도) 만족도 - 1	86
〈표4-31〉 현재 거주지 만족도 - 2	87
〈표4-32〉 현재 거주지 만족도 - 3	87
〈표4-33〉 현재 거주지 만족도 - 4	88
〈표4-34〉 현재 거주지 만족도 - 5	88
〈표4-35〉 향후 결혼여부 및 생활 지역	89
〈표4-36〉 결혼 이후 생활하고자 하는 타 지역	89
〈표4-37〉 결혼 이후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유	90

〈표4-38〉 결혼 이후 전라북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유	90
〈표4-39〉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전라북도에서 근무할 의향 여부	91
〈표4-40〉 타지역 근무: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91
〈표4-41〉 전라북도가 가진 최고의 강점	92
〈표4-42〉 전북출신 대학생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93
〈표4-43〉 대학 졸업 후 귀향 의향	93
〈표4-44〉 대학 졸업 후 귀향 이유 및 귀향시 걱정 되는 것	94
〈표4-45〉 귀향의사 없는 경우 그 이유	94
〈표4-46〉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	95
〈표4-47〉 전북이 대학생의 귀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95
〈표4-48〉 향후 결혼 의향	96
〈표4-49〉 향후 결혼 이후 생활하고 싶은 지역.....	96
〈표4-50〉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전라북도에서 근무할 의향 여부	97
〈표4-51〉 동일 급여 수령 시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97
〈표4-52〉 고향(전북)에 대한 소식 및 정보제공 수요	98
〈표4-53〉 고향의 정보제공 받고 싶지 않은 이유.....	98
〈표4-54〉 전라북도가 가진 최고의 강점	99
〈표4-55〉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1	99
〈표4-56〉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2	100
〈표4-57〉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3	100
〈표4-58〉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4	101
〈표4-59〉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5	101
〈표4-60〉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1	102
〈표4-61〉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2	102
〈표4-62〉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3	103
〈표4-63〉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4	103
〈표4-64〉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5	104
〈표4-65〉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근로자 응답자 일반적 특성	105
〈표4-66〉 전라북도 고향 여부 및 근무기간	106
〈표4-67〉 전라북도가 고향이 아닌 경우 가족형태	106

〈표4-68〉 전라북도로 진출 시 이주 형태	107
〈표4-69〉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구 형태	107
〈표4-70〉 자녀와의 생활형태	108
〈표4-71〉 향후 가족과 전라북도 생활 의향	108
〈표4-72〉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1	109
〈표4-73〉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2	109
〈표4-74〉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3	110
〈표4-75〉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4	110
〈표4-76〉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5	111
〈표4-77〉 공공기관직원이 전라북도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11
〈표4-78〉 향후 전라북도 거주 의향	112
〈표4-79〉 전라북도 거주 의향 없는 이유	112
〈표4-80〉 은퇴 이후 희망 거주지	113
〈표4-81〉 현재 거주지역	113
〈표4-82〉 현재 거주지 전북인 경우 시군	114
〈표4-83〉 태어난 고향	114
〈표4-84〉 태어난 고향 전북인 경우 시군	115
〈표4-8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115
〈표4-86〉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북인 경우 시군	116
〈표4-87〉 은퇴 후 희망거주지 1순위	116
〈표4-88〉 은퇴 후 희망거주지 1순위 전북인 경우 시군	117
〈표4-89〉 은퇴 후 희망거주지 2순위	117
〈표4-90〉 은퇴 후 희망거주지 2순위 전북인 경우 시군	118
〈표4-91〉 은퇴 후 희망거주지 3순위	118
〈표4-92〉 은퇴 후 희망거주지 3순위 전북인 경우 시군	119
〈표4-93〉 은퇴 후 주거지역으로서 전북의 매력	119
〈표4-94〉 전북에 공공기관 종사자 위한 공동거주지역 조성시 입주 의향 ...	120
〈표5-1〉 지역별 인구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지원내용	126
〈표5-2〉 전라북도 인구정책 핵심과제	128

〈표5-3〉 전라북도 인구유입·유출 대상 선정	129
〈표5-4〉 지역별·출생지별 거주인구 비율	130
〈표5-5〉 지역별 전입 및 전출자 현황(2015년 기준)	131
〈표5-6〉 지역별 순이동인구 현황 (단위 : 천명)	132
〈표5-7〉 전라북도 전출지역 추이	133
〈표5-8〉 시도별 3대 전입지 및 전출지(단위 : 천 명, %)	134
〈표5-9〉 시도 전입사유별 순이동자 수, 2017~2018 (단위: 천명)	135
〈표5-10〉 혁신도시 유형별 인구 현황	137
〈표5-11〉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현황.....	137
〈표5-12〉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현황	138
〈표5-13〉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자 수와 순이동률, 2018	140
〈표5-14〉 전라북도 세대별 인구구성비.....	143
〈표6-1〉 단계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현황	148
〈표6-2〉 인구유입 대표사업 및 세부사업 제안	150
〈표6-3〉 귀농·귀촌인의 현 거주지 선택이유	153
〈표6-4〉 단체회원 현황	156
〈표6-5〉 전라북도 체류인구 현황	164
〈표6-6〉 공유경제 주요 국내 서비스 사례.....	172
〈표6-7〉 평가기준	184
〈표6-8〉 초미세먼지(PM2.5) 도시별 오염도	186
〈표6-9〉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188
〈표6-10〉 생태마을 지정현황	190
〈표6-11〉 청년지방이주 관련 정책현황.....	192
〈표6-12〉 타지역출신 전북창업 정착사례.....	193
〈표6-13〉 전라북도 지방소멸 위험지수.....	194
〈표7-1〉 전라북도 인구유입·유출 대상 선정	202
〈표7-2〉 인구유입 대표사업 및 세부사업 제안	207



〈그림1-1〉 인구정책 방향	4
〈그림1-2〉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	4
〈그림2-1〉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체계도	20
〈그림2-2〉 2018년 은퇴자 마을 시범운영 실적	26
〈그림2-3〉 2019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현황	27
〈그림2-4〉 2019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신청현황 및 입주자 선정기준	28
〈그림2-5〉 2019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입주자 선정결과	28
〈그림2-6〉 2019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방식	29
〈그림2-7〉 은퇴자 공동체마을 발전방향	29
〈그림3-1〉 전국-전라북도 인구추이	37
〈그림3-2〉 전라북도 성별 인구추이	39
〈그림3-3〉 2008년-2018년 전라북도 인구변화	41
〈그림3-4〉 전국 시도 연령별 인구 구성비	42
〈그림3-5〉 인구 구성비	44
〈그림3-6〉 전라북도 청년 1인 가구 현황	46
〈그림3-7〉 전국-전북 청년 고용률 추이	47
〈그림3-8〉 전국-전북 가임기 여성인구 추이	49
〈그림3-9〉 전라북도 인구 및 출산율 추이	50
〈그림3-10〉 전라북도 성별 초혼연령 추이	51
〈그림3-11〉 전라북도 출산연령 및 출생아 수 추이	53
〈그림3-12〉 전국-전북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변화추이	55
〈그림3-13〉 전국-전북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57
〈그림3-14〉 전국-전북 귀농가구주 연령별 구성 현황	58
〈그림3-15〉 전북으로 귀농전 거주지역 현황	61

〈그림5-1〉 전라북도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현황	123
〈그림5-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이동	123
〈그림5-3〉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이동 추이	132
〈그림5-4〉 전북-전남 주요 전입 및 전출지	133
〈그림5-5〉 전라북도 인구추이와 시기별 경향	136
〈그림5-6〉 지역별 세대별 순인구이동을	139
〈그림5-7〉 전라북도 연령대별 인구감소추이	141
〈그림5-8〉 전라북도 시군별 평균 증감율 추이(2020~2023년)	141
〈그림6-1〉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과정	147
〈그림6-2〉 전북이주 단계별 사업	149
〈그림6-3〉 시도별 귀농귀촌 현황	151
〈그림6-4〉 은퇴자마을 운영계획	155
〈그림6-5〉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인구 현황	158
〈그림6-6〉 프랑스 인구분포(左)와 체류인구(右) 현황	159
〈그림6-7〉 베이비붐 세대 현황	166
〈그림6-8〉 베이비붐 세대 교육연수원 연계방안	167
〈그림6-9〉 베이비붐세대 취창업 지원체계	169
〈그림6-10〉 전북이주자 인재은행 지원체계	170
〈그림6-11〉 공유경제 플랫폼	172
〈그림6-12〉 공유경제 플랫폼	174
〈그림6-13〉 경기도 공유농업 개념도	174
〈그림6-14〉 경기도 공유농업 추진계획	176
〈그림6-15〉 리빙랩 운영과정	179
〈그림6-16〉 리빙랩 운영단계와 각 주체의 활동	180
〈그림6-17〉 혁신기업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추진과정(안)	182
〈그림6-18〉 오정동농수산물시장 리빙랩 진행과정	183
〈그림6-19〉 귀농귀촌 이유	185
〈그림7-1〉 전북이주 단계별 사업	206

1

장

연구 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기대효과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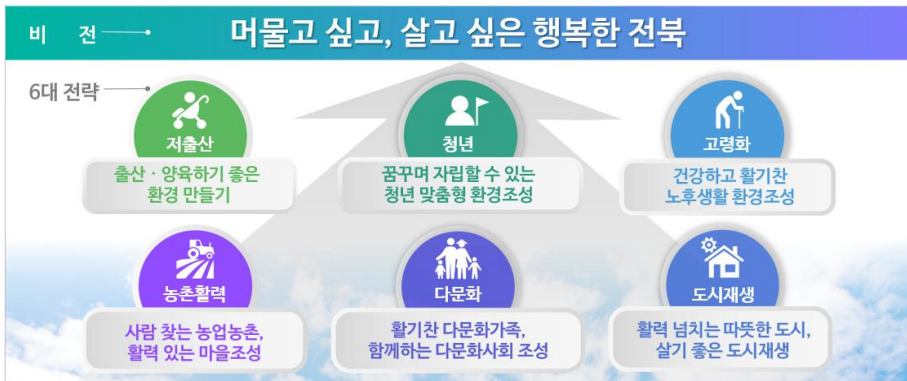
- 지방도시의 인구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자연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있으며 자연적 요소는 출산과 사망이 가장 큰 요소이고 사회적 요소는 전입과 전출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라북도 2016년도부터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행하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출생아수 10,240명, 사망자수 14,753명으로 4,513명의 자연감소가 발생
 - 전라북도 전입전출인구는 2018년 현재 전입자 59,978명, 전출자 73,751명으로 순유출 13,773명의 인구감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20~39세 청년의 전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인구감소에 대응한 인구정책은 크게 인구의 증대를 위한 정책과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관리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인구증대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출산율과 출생아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차원에서는 전입인구의 증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
 - 인구관리정책은 경제활력인구 특히 청년인구의 농촌지역 유입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의 국토정책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요인 또한 자연 증감과 사회적 증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최근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삶의 질의 문제로 규결되는 경향이 있음
 -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과 비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보육서비스와 인프라부족, 고령자 증가에 따른 고령자 사망률 증가 등의 요소가 작용
 - 인구유출의 원인은 통계청 조사결과 직업, 교육, 자연환경, 주택, 가족, 주거환경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직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임

〈그림1-1〉 인구정책 방향



- 전라북도는 최근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적인 전략으로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인구정책의 분야를 출산·양육, 청년, 고령화,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6대 분야로 설정

〈그림1-2〉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



- 전라북도는 6대 분야별 인구감소의 최소화를 목표로 대표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2019년 목표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 제시
- 출생아수 10,240명→10,500명, 청년일자리 7,400개→7,600개, 노인일자리 29,384개→39,914개, 농촌체험객 95만명→110만명, 글로벌마을학당참여자 7,154명→7,324명, 도시재생사업 9개소→15개소

〈표 1-1〉 분야별 추진사업

분 야 (6)	세 부 분 야 (12)	프로젝트 (27)
저출산	1.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 ⇒	① 임신출산 지원확대 및 결혼부담경감
	2. 맞춤형 돌봄 확대 ⇒	②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③ 직장맘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④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3.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⑥ 일·가정 양립실천 분위기 확대 프로젝트
청년·일자리	1. 맞춤형 청년 취업 지원 ⇒	⑦ 전문분야 기술인력 교육 ⑧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⑨ 청년농업인 종합지원
	2. 성공 가능한 청년 창업 지원 ⇒	⑩ 창업인재 양성 프로젝트 ⑪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3. 청년 문화·복지 제고 ⇒	⑫ 문화관광 활동지원 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화 중장년	1. 노인 일자리 확대 ⇒	⑭ 노인 사회활동지원 프로젝트 ⑮ 노인 일자리 프로젝트 ⑯ 4060 취업지원 프로젝트
농촌활력	1. 귀농귀촌 유입 확대 ⇒	⑰ 귀농·귀촌 활성화
	2.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	⑱ 농촌 과소화 대응 프로젝트 ⑲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⑳ 마을경관 개선 프로젝트
	3. 활력있는 농촌관광 육성 ⇒	㉑ 생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㉒ 농촌관광 육성 프로젝트
다문화	1.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	㉓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㉔ 다문화가족자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프로젝트 ㉕ 다문화 수용성 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
도시재생·활력	1. 지역 정주여건 개선 ⇒	㉖ 낙후지역 도시재생 ㉗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 연구 목적

-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지자체의 인구정책 또한 종합적인 형태의 계획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야별 계획과 인구계획으로서 부분계획의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번에 추진되는 정책연구는 분야별 종합계획 성격의 인구정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구유입이 가능한 타겟을 설정하고 이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집중하는 타겟형 인구유입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음
- 전북출향인 및 출향2세, 도내 대학생 및 전북출신 수도권 대학생,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은퇴자 대상으로 전북을 제2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정착과 이주사업 발굴

2. 연구내용

가. 주요 연구내용

1) 대상별 전북이주 수요분석

- 조사대상은 4개 집단의 표집틀에 기초한 비례할당 유의표집으로 진행
- 전북출향민 및 출향2세(전라북도 자치행정과), 전북출신 수도권 대학생(전북장학숙 이용대학생),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전라북도의 행정자료를 표집틀로 각 집단별 200개씩(case) 조사
- 설문조사의 문항은 전라북도로의 귀향의사, 귀향을 위한 정책수요, 귀향시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책대안과 연계

2) 대상별 지역이주 사업분석

- 출향인, 도내 대학생 및 전북출신 수도권대학생,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별 지역이주를 추진하기 위해 계획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별 전북이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발굴에 활용
- 지자체별로 출향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고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은퇴후 고향으로 재이주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
 - 전라남도도 출향인, 대기업은퇴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명절기간 귀성객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지원정책 현장 상담실운영 및 대기업 은퇴자를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팸투어 진행

- 담양군은 출향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고향 유적지 순례행사를 진행하고 강진군은 향우 자녀 초청 하계 수련회 등을 개최하는 등 출향2세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
- 도시은퇴자의 지방유치를 위한 노력 또한 지자체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 은퇴자 등 액티브 시니어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음
- 충청남도도는 도시 직장은퇴자를 충청남도내 정착시키기 위해 살기좋은 도농상생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 자치조직이 시군지자체와 연계해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도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진료소, 공원, 태양광발전시설, 도로, 상수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
- 해외사례의 경우 뉴질랜드의 불러(Buller)시는 은퇴자 지역이주 캠페인을 통해 부동산 매물안내, 주택구매희망자 숙소무료 및 지역명소 무료입장권 제공 등 편의제공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남 신안군과 경남 거창군 등과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공무원연금생활자의 모집 및 추천, 체험형 주거공간 제공 및 교육 지원, 지역농산물 판매지원 등을 추진 예정

3) 대상별 전복이주 정책제시

- 전복을 제2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대상별 정책발굴을 위한 현황과 수요분석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전략 제시
- 3개 분야별 전복이주를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세부적인 추진전략 발굴을 위한 방향설정으로 활용
- 대상별 전복이주를 위한 세부적 사업발굴 및 추진전략제시로 제안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성과 도모
- 전라북도의 경쟁력 있는 자원분석과 대상별 전복이주의 수요를 토대로 대상별 전복이주를 위한 구체적 사업 제시
- 전복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상별 전복이주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전략, 전복이주자를 위한 기반 및 인프라 조성, 지원체계 및 제도적 정비 등

3. 연구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조사) 광역 도단위의 인구종합계획 및 대상별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연구사례조사를 통해 전라북도에 맞는 대상별 이주정책 제시
 - 베이비부머 은퇴자, 출향인의 재이주, 청년의 지방이주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각 대상별 특성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례조사) 대상별 지역유치를 위해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지역을 방문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전남, 충남, 강원, 제주 등 지역이주정책을 추진 중인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성과와 한계 분석
 - 해외 사례의 경우 문헌을 통한 사례조사를 통해 사업의 배경과 정책현황 및 성과 등을 새롭게 발굴제시

2)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인구집단(3개 인구집단)별 유의 할당표집
 - 3개 인구집단별 200개의 조사대상자를 할당하여 조사진행
 - 조사방식은 우편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 조사결과는 각 집단별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별 인구유입방안 도출
 - 분석방법은 각 집단별 교차분석
 - 교차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각 집단별 인구정책 과제 도출

3) 전문가 자문방법

- 국내 인구정책관련 학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기존정책의 성과분석은 물론 전복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에 초점을 두고 운영
- 국내외 지방이주관련 사례와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복 이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의견수렴

4. 연구 기대효과

- 분야별 추진 중이거나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고려된 사업을 위주로 인구정책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의 관점에서 분야를 고려한 정책발굴에 초점을 둔 인구를 상수에 둔 정책발굴이라는 의미가 있음
 -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 청년, 노인, 일자리, 귀농귀촌 등 인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형태로 사업을 발굴
 - 전라북도 인구기본계획 또한 기존 부서별 정책추진 중 인구와 연계된 사업을 모아놓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전북출향인 및 출향2세, 전북출신 수도권 대학생, 이정공공기관 종사자 및 은퇴자들의 전북 제2고향만들기를 통해 실제적인 인구유입에 기여
- 지방이주의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또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방이주정책의 완결성 추진

2

장

선행연구검토

Jeonbuk Institute

-
1. 연구논문분석
 2. 정책연구분석
 3. 인구유입정책사례

제2장 선행연구검토

1. 연구논문분석

- 인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분석을 위해 국내학술지, 학위논문등을 대상으로 인구, 저출산, 과소화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연구논문을 분석함
- 연구논문의 흐름은 크게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의 과소화현상, 정주여건의 개선을 통한 인구정책대응, 저출산의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대안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 인구이동에 따른 과소화 진단과 대응방안

- 인구과소화의 요인 중 인구이동요인은 모든 선행연구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요인, 사회경제적특성 등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음
- 임동일 외(2017), 송용찬 외(2016), 김병석 외(2014), 이정섭 외(2014), 이민관(2010) 등의 연구에서 사회 및 환경적 요인에 따른 인구변화, 인구이동의 결정적 요인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짐
 - 이정섭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를 사례로 이전 세대의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그리고 그 이후 젊은 세대가 도시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출하는 단계적 인구이동에 따라 출산력 및 인구성장감소로 이어지는 원인을 도출함
 - 송용찬 외(2016)에 따르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측면과 교육환경, 공공서비스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이민관(2010)은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는데 1995년에는 주택 및 공공재 등의 물리적 시설 공급과 취업환경이, 2005년에는 지역의 문화의료 및 사회복지, 지자체 재정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적 인프라구축의 중요성과 다양한 도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 성장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함

나. 정주여건진단과 개선방안

-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지역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과소화에 대한 분석과 도시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짐
- 이희찬(2009), 이창우(2014), 이병기(2010), 노세희(2017) 등의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소화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한인구 외(2014), 김광주 외(2014), 문태훈(2011), 노화동(2018) 등은 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분석하여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짐
 - 이희찬(2009)은 농촌인구의 감소율과 고령화율을 지표로 과소화지역을 구분하였으며 전국 1417개 읍면 중 846곳(61%)이 과소화지역으로 구분되었고, 농촌사회의 적정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적정한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 또한 농촌사회의 질적 양적 과소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사회의 정주권 조성 및 소득기회 창출, 도시민의 향촌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함
 - 이창우(2014)는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방안으로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상품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사업과 농어촌 체험시설, 노후주택·빈집 정비,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의 하드웨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분석한 사례 중 한인구 외(2014)는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감소형 도시는 시가화용지를 시가화에정용지나 보전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축소형 도시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함
 - 김광주 외(2010)에 따르면 성장을 전제로한 계획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계획들이 필요하며 기성 시가지에 대한 관리와 정비 프로그램, 1인가구와 고령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 인구감소에 따른 공간구조의 재편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함

다. 저출산사회 대응방안

- 저출산은 인구감소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현대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의 국가단위의 계획과 정책들도 시행되고있음
- 우해봉(2018)은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방향으로 출산 부문의 인구정책 목표인 합계출산율을 지양하고 인권에 기초한 인구정책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권(복지권)의 강화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함.
- 이난희 외(2018)는 저출산시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고위험임신 관리방안의 연구를 통해 가임기여성의 임신소모현황을 분석하였고 임신소모의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함
- 유현종(2016)의 경우 미래인구예측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실천적 대안 연구를 통해 사회적철학의 변화속에서 경제적 성과경쟁 중심에서 가족친화적인 사회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계획을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분리하여 각각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정책연구분석

- 인구관련 정책연구분석을 위해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개 시도연구원 등의 정책보고서를 대상으로 인구, 과소화, 지방소멸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
- 정책연구 검토결과 인구정책연구는 인구증가시대, 인구저성장시대, 인구감소시대 이렇게 3단계의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 중인 것으로 나타남

가. 인구증가 대응

- 인구증가 대응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1970년대와 1990년대까지 국토종합계획 및 하위의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도시의 도로, 공항, 철도, 문화, 복지, 의료 등의 도시생활인프라 구축에 반영한 연구가 있음
 - 국토연구원은 1979년 제2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구, 산업배치, 교통체계 등의 재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을 통해 인구증가율과 일구밀도가 높은 국내상황에서 한정된 국토공간상에 인구증가를 고려한 국토이용계획 수립일 필요함을 역설
-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계획과 인구구조에 따른 대응 및 적정인구의 산정을 위한 시나리오예측연구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0년대를 향한 인구정책 구상(홍문식, 1991)에서 2020년까지 인구증가를 염두 해두고 인구구조변화에 초점을 두었고 한국의 적정인구 증가율에 관한 연구(이번송, 1990)와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연구(최병호, 2013)은 적정인구의 개념과 측정사례를 토대로 시나리오에 의한 시뮬레이션 시행
- 시도연구원의 경우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정책인구를 산정하여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외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인구증가연구를 수행한 곳은 제주연구원을 들 수 있음
 - 제주연구원은 순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의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고태호 외, 2015)를 추진하여 현재의 인구증가를 고려한 미래인구 추계와 이에 따른 경제, 사회문화,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별 대응전략 모색

나. 인구저상장 대응

-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에서 첫 번째 이슈는 지방인구의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구조를 조절하기 위한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및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연구가 시작됨
 - 1980년대 들어 서울대도시권 인구재배치개발안(박수영, 1981), 인구지방 정착을 위한 성장거점도시육성연구(이정식, 1981), 대단위시설물의 인구영향평가기준 연구(최진호, 1985),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제도 분석 및 과밀억제부담금 제도에 관한연구(유영희, 1992),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연구(권용우, 1999) 등이 있음

- 인구구조 두 번째 이슈는 인구저성장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주거 및 도시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연구가 추진 됨
 - 2000년대 들어 인구저성장과 인구고령화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는데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연구(이왕건 외, 2005),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세타 후미히코, 2006),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윤주현, 2004),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김창현, 2008), 인구구조 변화에 대양한 교통정책 수립(김준기, 2011) 등이 있음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전략연구(조준모 외, 2016), 고령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연구(이삼식, 2015),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개발(정홍원, 2012) 등이 있음

다. 인구감소 대응

- 인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은 농촌지역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한 시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일본의 총인구 감소와 지역간 인구 양극화의 진전(김준영, 2016)이라는 이슈분석을 내고 일본의 지방소멸 이론을 국내에 대입해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라고 볼 수 있음
- 인구감소대응은 크게 인구감소를 인정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분야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하는 방향과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증가 정책을 모색해야한다는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
- 인구감소에 따른 분야별 대응전략으로는 도시계획 등의 국토활용계획 수립, 사회보장체계 수립, 농촌과소화지역 대응 등으로 볼 수 있음
 - 국토연구원은 인구감소시대 빈집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연구(강미나, 2017),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민성희, 2017),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박세훈, 2017),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변필성, 2014), 인구감소기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김광익, 2014),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권규상 외, 2018) 등 인구감소에 따른 국토활용계획 중심의 연구수행

-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이상림, 2018),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신화연, 2017), 인구변동의 국제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우해봉, 2017),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백해연, 2016) 등의 연구수행
- 인구감소에 대응한 인구증가정책을 위한 정책으로는 저출산대책, 청년 유입, 지역일자리창출, 귀농귀촌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음
 - 이상호는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016)에서 지방의 생존을 위해 젊은 여성이 살기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젊은 여성을 위한 문화와 여가 시설, 주거환경, 양육과 교육환경, 일자리 창출을 강조
 - 이 외에도 지역인구감소에 대한 인구로는 한국의 지방소멸(이상호,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이상림, 2018),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변필성, 2014) 등이 있음
 - 청년인구에 관한 연구로는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김준영, 2019), 안산시 인구청년정책 5개년계획 연구(지방행정연구원, 2018), 자치단체 청년지원 프로그램 사례연구(김종진 외, 2018), 청년층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구조의 적정성 확보 방안(성지미 외, 2018) 등이 있음
 - 농촌인구감소에 관한 연구는 농촌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정기환, 1999), 농촌지역 인구가동(김경덕, 2003), 농촌농가인구모형 개발연구(한석호, 2010),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영천시 인구증대방안(박시현, 2011),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KREI, 2017) 등이 있음
 - 시도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대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박상현 외,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8),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김도균 외, 2017), 서울시 생활인구고려 수요분석(윤민석, 문진영, 2018),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원광희 외, 2010), 인구감소시대 충남의 대응전략(충남연구원, 2018),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김동영 외, 2016), 인구감소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방향(광주전남연구원, 2018)

3. 인구유입정책사례

가. 경북 의성군 -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 지난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8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경북 의성군임

〈표2-1〉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1-20위)

순위	시도명	시군구명	2018년 6월			
			전체인구	20-39세 여성 인구	65세 이상 인구	소멸위험지수
1	경북	의성군	53,166	3,112	20,567	0.151
2	전남	고흥군	66,284	4,108	25,521	0.161
3	경북	군위군	24,386	1,522	9,008	0.169
4	경남	합천군	46,538	2,935	17,145	0.171
5	경남	남해군	44,386	3,845	15,931	0.179
6	경북	청송군	25,874	1,642	8,921	0.184
7	경북	영양군	17,482	1,137	6,074	0.187
8	경북	청도군	43,171	2,913	15,008	0.194
9	경북	봉화군	33,177	2,171	11,012	0.197
10	경북	영덕군	38,381	2,617	13,248	0.198
11	전남	신안군	41,960	2,778	14,022	0.198
12	전남	보성군	43,504	3,090	15,446	0.200
13	경남	산청군	36,183	2,467	12,035	0.205
14	경남	의령군	27,828	2,010	9,639	0.209
15	전남	함평군	33,973	2,410	11,479	0.210
16	충남	서천군	54,628	3,792	18,028	0.210
17	충북	괴산군	38,329	2,622	11,949	0.219
18	충남	청양군	32,228	2,311	10,471	0.221
19	전남	진도군	31,566	2,265	10,174	0.223
20	전북	임실군	29,139	2,174	9,647	0.225

자료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2018.07월호

- 또한 10위권내 소멸위기 시군 중 경북도의 시군이 의성을 비롯해 군위, 청송, 영양 등 7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북은 지방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경북은 이러한 소멸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복지체계가 갖추어진 청년마을을 의성군에 시범 추진하여 향후 확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2-1〉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체계도



자료 : 경북 의성군 시범마을조성과 내부자료

- 의성군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청년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유치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표2-2〉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사업추진 방향

구분	내용
1. 청년 일자리 창출	○ (산업육성) 식품특화농공단지 및 반려동물 산업단지 조성 ○ (창업지원) 창농(스마트팜), 문화예술 창업 (행복누리관-복합커뮤니티센터), 일자리지원사업
2. 주거단지 조성	○ (신규단지) 300세대 단계별 조성 (1단계 100세대, 2단계 200세대) - 30~50세대 소규모 단위로 추진 ○ (기존마을) 안계면 도시재생 추진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등)
3. 생활여건 개선	○ ‘농촌 3·6·5 생활권’ 구축을 통해 불편 없는 생활여건 조성 - (30분) 보건·보육체계, (60분) 문화교육·창업 체계, (5분) 응급의료 체계 구축 ○ 커뮤니티센터출산통합지원센터·어린이집 신축 / 경북미래학교 지정
4. 마을 공동체 강화	○ (중간지원조직) 유입 청년, 기존 주민, 공무원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체 마련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마을리더 양성
5. 청년 유인 마케팅	○ (홍보) 농업·문화예술 청년(벤처) 타겟 / 유튜브, 팟캐스트, SNS, 팸투어 등 ○ (유치) 영향력 있는 문화 명장(名匠), 핵심 청년 활동가 그룹 우선 유치

자료 : 경북 의성군 시범마을조성과 내부자료

-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청년 창업·창농 지원을 통한 자영업 일자리를 우선 창출하고 장기적 측면으로는 특화농공단지, 반려산업의 육성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한 취업일자리를 조성하고자 함

〈표2-3〉 시범마을 일자리 창출 방안

구분	내용
[단기] 청년 창농·문화예술 창업 일자리 확대	○ 스마트팜 4개동(1ha/동) 조성 - (작목) 딸기, 오이 (수경재배) / (부지) 안계서부초등학교 폐교 인근 - (교육) 청년 50명(의성출향인 8명 포함), 4월~8월 - (지원) 생산~유통까지 컨설팅 등 현장기술지원, 창업보육교육과 창업지원 - (일정) 청년 농가 임대 → 임대 기간 중 저축 → 토지 구입 → 자립 ○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 (대상) 시범마을에서 창업할 선·후 주민 공동창업팀 (8팀, 팀당 2~4명) - (지원) 사업화 자금 및 점포리모델링비 등 지원 (팀당 1억원 이내) ○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 - (운영자) 위탁 선정 (시설공사 과정에 운영자 의견 반영) - (부지)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380번지 외 (3.2만㎡) - (구성) 펫카페, 교육·체험장, 실내외 도그런, 도그풀장, 캠핑장 등 복합시설
[장기, 2021년 이후] 산업육성·기업유치 통한 취업 일자리 확대	○ 행복누리관(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청년창업·문화복지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 반려동물 산업단지 조성 - (방향) 기존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주변을 반려동물 산업단지로 확대조성 - (내용) ① R&D 추진(펫 케어, 펫 푸드 연구), ② 제조산업 육성(펫용품, 펫 공방거리, 펫푸드 등), ③ 펫교육 육성(펫 아카데미, 펫 사업체 창업지원 등) ○ 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 (내용) 식품가공, 유통, 체험·문화가 복합된 특화산업농공단지 조성 - (구성) 식품가공단지, 체험문화공간, 교육장, 농산물마켓, 편의시설 등

자료 : 경북 의성군 시범마을조성과 내부자료

-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신규단지는 단계적으로 조성하되 특색 있는 설계로 관광자원화를 유도하는 한편, 면 소재지의 빈집 리모델링, 스틸하우스 구입 등으로 초기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인구의 유입을 도모

〈표2-4〉 시범마을 주거단지 조성 방안

구분	내용	
[단기] 행정절차 이행 및 안계면 소재지 도시재생 추진	○ 빈집·빈점포 리모델링사업 - 안계면 소재지 내 빈집, 빈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가에게 제공 ○ Farm 문화빌리지 조성 - (구성) 주거시설(컨테이너형 하우스, 모듈주택 등), 작업 및 편의시설 - (내용) 안계 서부초등학교 폐교부지 내 신축 ○ 안계면 도시재생사업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국비 100억원)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 문화복지시설 신축, 주거정비 등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내용 확정	
[장기, 2021년 이후] 신규 주거단지 조성	1단계 • 2019년~2022년 • 100세대 (임대형)	2단계 • 2022년~ • 200세대 (임대,분양 혼합형)

자료 : 경북 의성군 시범마을조성과 내부자료

-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은 의료, 출산, 교육 등 기존의 안계면 인프라의 질적 제고를 우선 추진하고, 안계면 소재지의 도시재생을 통한 농촌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을 추진하여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표2-5〉 시범마을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

구분	내용
[단기] '3·6·5 생활여건'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 의료체계 구축 - 분만산부인과 전환 및 소아청소년과 공모 추진 - 응급의료기관(영남제일병원) 필수 운영비 추가 지원 ○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 (구성) 장난감대여실, 프로그램실, 베이비카페 등 출산·육아관련 시설 운영 - (위치)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16 (영남제일병원 인근) - (기능) 임산부, 영유아(0~5세) 대상 보육 서비스 제공 ○ 경북미래학교지정 - 안계초등학교 스마트교육환경(스마트교실 및 지역사회연계 체험교실) 구축 - 안계 초·중·고 지원 대책 다각도 검토 중 ○ 다함께 돌봄사업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교육·보호·놀이 등 제공 - 기존 안계복지문화센터 공간 활용 계획
[장기, 2021년 이후] 신규 주거단지 조성	○ 명품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신설 - 기존 군립안계어린이집 이전·확장 신축 - 영유아·초등 돌봄까지 포함하는 통합교육시스템 마련 - 농번기 또는 주말에 영유아 돌봄 가능한 시간제 보육반 운영 등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공공산후조리 인프라 제공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양육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 배려 이용료 감면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자료 : 경북 의성군 시범마을조성과 내부자료

-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체를 구성하고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과 함께 기존 주민과 유입된 청년 간의 협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이웃사촌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도시청년 유치사업, 도농연계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공동체 활성화 : 주민원탁회의 개최, 마을살림꾼 양성교육, 청년동아리 지원 등
 - 청년유치 : 도시청년단체와 MOU체결 및 팸투어 실시 등
 - 도농연계 : 도시지역과 상생교류협약 추진지원 및 소비자조직과 연계강화 등

〈표2-6〉 이웃사촌지원센터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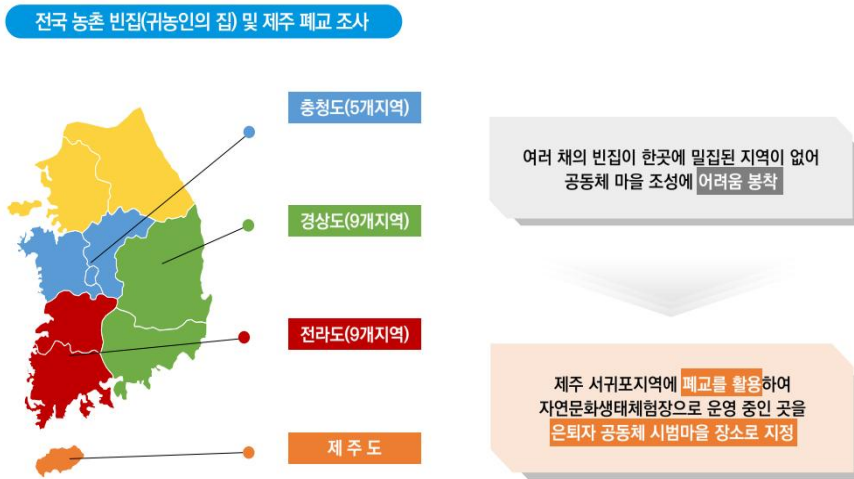
사업명	주요내용
주민원탁회의	○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이웃사촌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증진 및 협력방안 모색 - 일정 : 5월, 7월, 9월, 11월(총 4회) - 원탁회의 4회(청년, 이장단, 부녀자회, 직능단체)
이웃사촌 새꿈학당 운영	○ 지역리더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배양에 기여 - 당일교육 8회, 2박3일 교육 2회
청년동아리 모임 운영	○ 이웃사촌사업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기존 지역청년과의 화합 도모 - 5개 동아리(지역청년+유치청년) 운영, 통합워크숍 1회 개최
주민아이디어 경진대회	○ 이웃사촌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유도 및 지역발전 위한 아이디어 발굴 - 의성군민, 도시청년 단체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 2회 개최
주민대표·도시청년단체 합동워크숍 개최	○ 지역주민-도시청년 의견교환 및 상호소통 증진 도모, 사업개선방안 마련 - 합동워크숍 2회 개최
선진지 견학	○ 도시청년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 사례 분석으로 이웃사촌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 선진지 견학 2회 실시
도시청년단체와 MOU체결	○ 이웃사촌사업 홍보로 향후 연계 가능한 도시청년단체 확보 - MOU체결 단체 10개 목표
도시청년단체 팸투어	○ 도시청년단체 초청하여 이웃사촌사업에 대한 현장설명으로 도시청년 유입 촉진 - 팸투어 2회 실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이웃사촌사업 정보제공, 지역주민 및 도시청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이웃사촌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 세미나 개최를 통한 홍보로 이웃사촌사업의 대외적 관심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세미나 2회 개최

자료 : 이웃사촌지원센터 내부자료

나.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

-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공무원 은퇴자를 대상으로 공동체를 이뤄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체 생활을 통한 노노케어, 유휴자원을 활용한 주거공간의 마련과 도농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의 격차 완화 등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
- 2018년 제주 서귀포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자연문화생태체험장으로 운영중인 곳을 은퇴자 공동체 시범마을 장소로 지정하여 시범운영 실시 후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함

〈그림 2-2〉 2018년 은퇴자 마을 시범운영 실적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운영 계획

-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전국 8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정주형’과 ‘체험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정주형은 8~10개월, 체험형은 3개월로 다양화 함
 - 정주형은 경북 문경, 충북 제천, 전남 구례, 강원 홍천에 조성하였고, 체험형은 경북 문경, 경남 거창, 전남 신안, 제주 서귀포에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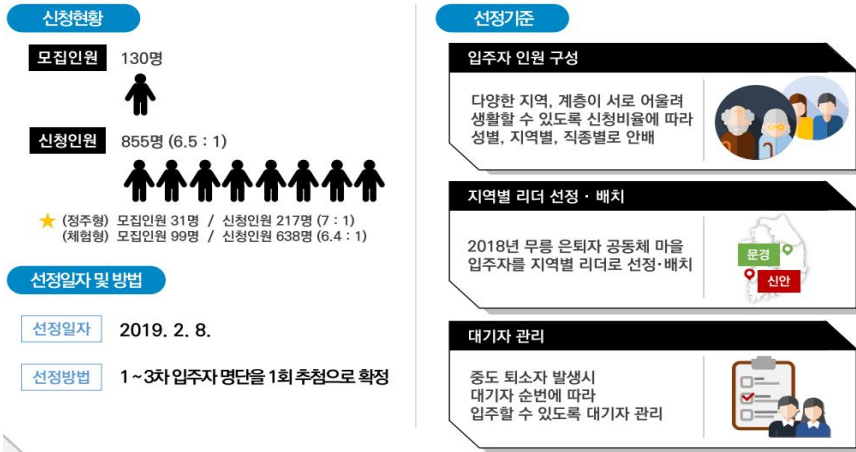
〈그림 2-3〉 2019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현황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운영 계획

- 2019년 2월 은퇴자 공동체마을 입주자 모집을 하였으며 130명을 모집하는데 855명이 지원하여 6.5:1의 경쟁률을 기록함
 - 정주형은 모집인원 31명에 신청인원이 217명으로 7:1의 경쟁률 기록
 - 체험형은 모집인원 99명에 신청인원이 638명으로 6.4:1의 경쟁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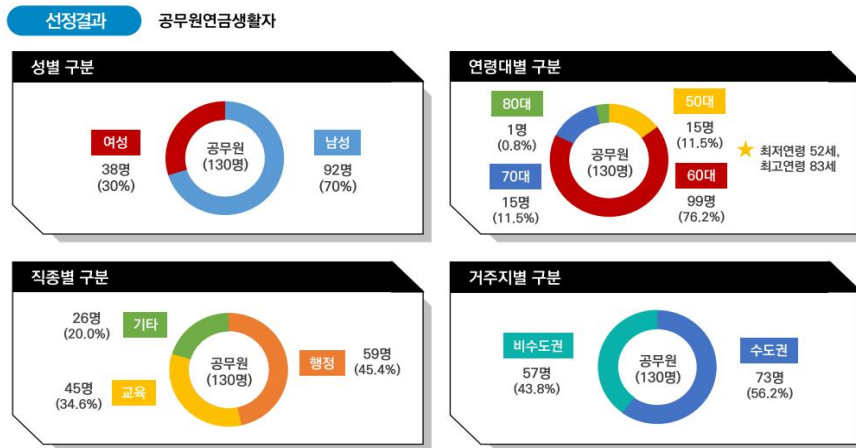
〈그림 2-4〉 2019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신청현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운영 계획

- 입주자 선정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70%)이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76.2%), 직종별로는 행정직 공무원(45.4%), 거주지별로는 수도권(56.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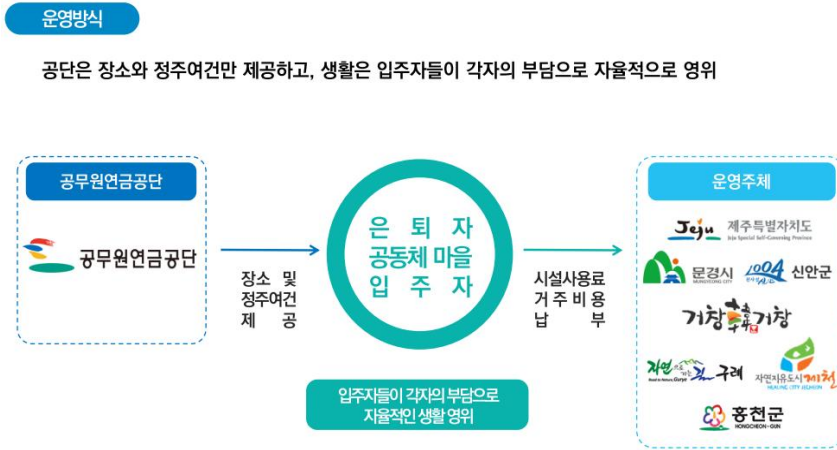
〈그림 2-5〉 2019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입주자 선정결과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운영 계획

- 은퇴자 공동체마을의 운영방식은 공무원 연금공단은 정주여건만을 제공하고, 생활은 마을 입주자들이 각자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영위하는 방식으로 운영

〈그림 2-6〉 2019년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방식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운영 계획

- 향후 은퇴자 공동체마을의 입주대상자를 공무원연금생활자에서 공제연금기관협의회 회원으로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은퇴자공동체마을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

〈그림 2-7〉 은퇴자 공동체마을 발전방향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운영 계획

3

장

전라북도 인구현황

-
1. 인구추계
 2. 전라북도 인구현황 및 추이

제3장 전라북도 인구현황

1. 인구추계

- 전라북도의 인구는 대체로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35년 이후에는 180만명의 인구도 위태로운 것으로 보임
- 전라북도의 인구는 2020년 183만명에서 2035년 약 180만명으로 연평균 0.09%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익산지역으로 익산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0.31%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다음으로 전주 0.29%p, 정읍 0.18%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진안(연평균 0.77%p), 순창(0.70%p) 등의 지역임
- 대체로 2035년까지의 인구감소는 주로 전주시를 포함하여 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전주가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반면, 완주군을 포함하여 8개 군부지역은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는 주로 고령화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전주를 비롯한 시부지역의 인구감소는 20대와 30대의 청장년층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전망이고 완주를 포함한 8개 군부지역의 인구증가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의 결과로 해석됨
-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지역별 인구의 구성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약 67.%,를 차지했던 전주, 군산, 익산의 인구는 2030년에는 65.8%로 감소하고 2035년에는 65.3%로 2020년에 비해서 약 1.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3-1〉 전라북도 지역별 인구추계

구분	2020	2021	2023	2025	2027	2029	2030	2031	2033	2035	연평균 증감율
전체	1,823,507	1,821,950	1,818,509	1,815,361	1,812,877	1,810,814	1,809,662	1,808,311	1,805,027	1,800,104	-0.09
전주	652,478	650,827	647,528	644,242	640,926	637,519	635,707	633,819	629,745	625,061	-0.29
군산	272,048	271,728	271,185	270,778	270,451	270,123	269,892	269,570	268,773	267,583	-0.11
익산	296,520	295,142	292,603	290,439	288,663	287,206	286,535	285,854	284,521	282,993	-0.31
정읍	107,684	107,317	106,611	106,005	105,543	105,233	105,118	105,027	104,891	104,745	-0.18
남원	79,189	79,120	78,940	78,786	78,680	78,658	78,684	78,727	78,829	78,903	-0.02
김제	82,252	82,105	81,861	81,710	81,688	81,745	81,788	81,857	81,989	82,101	-0.01
완주	100,576	101,440	103,019	104,468	105,850	107,092	107,648	108,140	108,975	109,537	0.57
진안	23,753	24,019	24,480	24,884	25,276	25,660	25,836	26,006	26,315	26,632	0.77
무주	23,789	23,968	24,282	24,573	24,852	25,119	25,246	25,375	25,627	25,856	0.56
장수	22,214	22,392	22,711	23,002	23,297	23,590	23,729	23,861	24,097	24,303	0.60
임실	27,155	27,425	27,892	28,273	28,615	28,938	29,099	29,248	29,556	29,849	0.63
순창	27,826	28,130	28,642	29,058	29,456	29,856	30,046	30,223	30,573	30,903	0.70
고창	56,243	56,543	56,980	57,366	57,756	58,150	58,348	58,547	58,935	59,307	0.35
부안	51,780	51,794	51,775	51,777	51,824	51,925	51,986	52,057	52,201	52,331	0.07

자료 : 통계청 인구추이

2. 전라북도 인구현황 및 추이

가. 인구구조의 변화

1) 전라북도 인구변화 추이

- 전라북도의 총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182.6만 명으로 17개 시도 전체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인구구성은 내국인 179.2만명, 외국인 3.3만명임
- 전라북도의 총 가구 수는 73.8만 가구로 이중 일반가구 72.8만 가구, 집단가구 672가구, 외국인 가구 9.2천 가구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가구는 17개 시도 전체 가구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음

〈표3-2〉 시도별 인구 및 가구현황(2017년 기준)

구분	총인구		내국인(명)	외국인(명)	가구(가구)	가구구성		
	(명)	(%)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전국	51,422,507	100.0	49,943,260	1,479,247	20,167,922	19,673,875	15,949	478,098
서울	9,741,871	18.9	9,397,944	343,927	3,948,850	3,813,260	2,246	133,344
부산	3,416,918	6.6	3,368,110	48,808	1,368,360	1,354,401	803	13,156
대구	2,453,041	4.8	2,421,676	31,365	958,273	948,030	566	9,677
인천	2,925,967	5.7	2,846,797	79,170	1,105,006	1,080,285	718	24,003
광주	1,496,172	2.9	1,470,120	26,052	583,068	575,732	389	6,947
대전	1,525,849	3.0	1,505,315	20,534	604,490	597,736	437	6,317
울산	1,157,077	2.3	1,130,476	26,601	437,889	428,720	221	8,948
세종	276,589	0.5	271,299	5,290	105,932	104,325	89	1,518
경기	12,851,601	25.0	12,354,512	497,089	4,773,632	4,602,950	3,948	166,734
강원	1,521,386	3.0	1,500,390	20,996	627,054	620,729	671	5,654
충북	1,611,009	3.1	1,562,772	48,237	643,006	629,073	786	13,147
충남	2,162,426	4.2	2,077,674	84,752	859,796	834,986	1,137	23,673
전북	1,826,174	3.6	1,792,410	33,764	738,801	728,871	672	9,258
전남	1,792,319	3.5	1,755,107	37,212	743,942	733,757	826	9,359
경북	2,677,058	5.2	2,613,080	63,978	1,105,213	1,087,807	1,118	16,288
경남	3,345,293	6.5	3,254,221	91,072	1,318,106	1,292,998	1,113	23,995
제주	641,757	1.2	621,357	20,400	246,504	240,215	209	6,080

자료 : 통계청(2017). 인구주택총조사

- 전라북도의 시군별 인구구성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약 67.3%가 전주, 군산, 익산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군 지역 중에서는 완주군이 5.4%로 가장 많은 인구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 가구 역시 전주가 2천 가구 이상, 군산과 익산이 천 가구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완주와 정읍, 김제에서 외국인 가구가 400가구 이상 분포되어 있음

〈표3-3〉 전북 시군별 인구 및 가구현황(2017년 기준)

구분	총인구(명)		내국인(명)	외국인(명)	가구(가구)	가구구성		
	(명)	(%)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전북	1,826,174	100.0	1,792,410	33,764	738,801	728,871	672	9,258
전주	656,956	36.0	648,671	8,285	254,504	251,668	162	2,674
군산	273,649	15.0	267,283	6,366	110,126	108,211	88	1,827
익산	298,928	16.4	292,963	5,965	120,375	118,594	113	1,668
정읍	109,263	6.0	106,529	2,734	46,089	45,458	58	573
남원	79,282	4.3	78,128	1,154	33,658	33,315	32	311
김제	82,358	4.5	80,111	2,247	35,240	34,726	49	465
완주	98,528	5.4	95,623	2,905	38,859	38,051	65	743
진안	22,998	1.3	22,582	416	10,332	10,211	10	111
무주	23,195	1.3	22,912	283	10,218	10,140	15	63
장수	21,395	1.2	20,935	460	9,221	9,094	13	114
임실	26,409	1.4	25,950	459	11,980	11,852	8	120
순창	27,017	1.5	26,606	411	11,616	11,518	13	85
고창	54,947	3.0	53,781	1,166	23,960	23,614	29	317
부안	51,249	2.8	50,336	913	22,623	22,419	17	187

자료 : 통계청(2017).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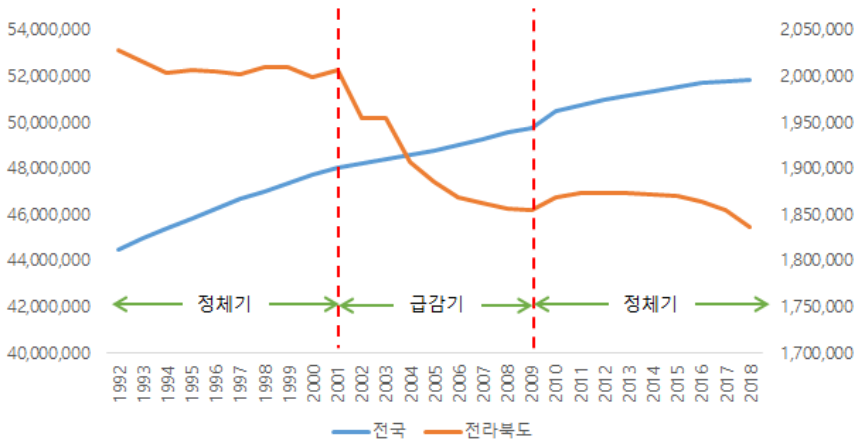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인구추이를 보면 1992년 202.7만 명 이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이후 20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2009년 185.4만 명에 이르기까지 급감기를 거침
- 2009년을 기점으로 약간의 상승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8년 183.6만명으로 전라북도의 인구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8년 기준 183.6만 명으로 1992년 202.7만 명에서 19만 명이 감소함
- 한편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는 1992년 4,450만 명에서 2018년 5,182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3-4〉 시도별 총 인구 추이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47,732,558	48,229,948	48,583,805	48,991,779	49,540,367	50,515,666	50,948,272	51,327,916	51,696,216	51,826,059
서울	10,311,314	10,207,295	10,173,162	10,181,166	10,200,827	10,312,545	10,195,318	10,103,233	9,930,616	9,765,623
부산	3,796,506	3,730,125	3,666,345	3,611,992	3,564,577	3,567,910	3,538,484	3,519,401	3,498,529	3,441,453
대구	2,524,253	2,525,803	2,524,712	2,496,115	2,492,724	2,511,676	2,505,644	2,493,264	2,484,557	2,461,769
인천	2,545,769	2,577,989	2,578,817	2,624,391	2,692,696	2,758,296	2,843,981	2,902,608	2,943,069	2,954,642
광주	1,371,909	1,397,452	1,401,172	1,407,798	1,422,702	1,454,636	1,469,216	1,475,884	1,469,214	1,459,336
대전	1,385,606	1,419,573	1,443,471	1,466,158	1,480,895	1,503,664	1,524,583	1,531,809	1,514,370	1,489,936
울산	1,040,225	1,065,037	1,081,453	1,092,494	1,112,407	1,126,298	1,147,256	1,166,377	1,172,304	1,155,623
세종	-	-	-	-	-	-	113,117	156,125	243,048	314,126
경기	9,219,343	9,927,473	10,462,920	10,906,033	11,292,264	11,786,622	12,083,299	12,357,830	12,716,780	13,077,153
강원	1,554,688	1,538,720	1,521,375	1,505,420	1,508,575	1,529,818	1,538,630	1,544,442	1,550,806	1,543,052
충북	1,497,513	1,492,713	1,488,945	1,494,559	1,519,587	1,549,528	1,565,628	1,578,933	1,591,625	1,599,252
충남	1,921,604	1,907,725	1,953,406	1,974,433	2,018,537	2,075,514	2,028,777	2,062,273	2,096,727	2,126,282
전북	1,999,255	1,953,846	1,906,742	1,868,365	1,855,772	1,868,963	1,873,341	1,871,560	1,864,791	1,836,832
전남	2,130,614	2,054,204	1,986,192	1,942,925	1,919,000	1,918,485	1,909,618	1,905,780	1,903,914	1,882,970
경북	2,797,178	2,756,744	2,695,917	2,688,577	2,673,931	2,689,920	2,698,353	2,700,794	2,700,398	2,676,831
경남	3,094,413	3,124,418	3,143,814	3,172,857	3,225,255	3,290,536	3,319,314	3,350,257	3,373,871	3,373,988
제주	542,368	550,831	555,362	558,496	560,618	571,255	583,713	607,346	641,597	667,191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1〉 전국-전라북도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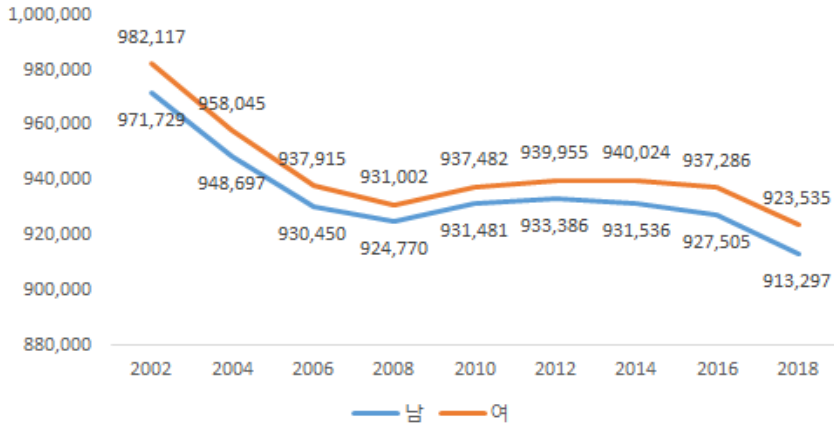
〈표3-5〉 전북 시군별 총 인구 추이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연평균 증감율
전북	1,999,255	1,953,846	1,906,742	1,868,365	1,855,772	1,868,963	1,873,341	1,871,560	1,864,791	1,836,832	-0.47
전주	620,521	624,485	622,472	624,849	631,532	641,525	648,863	652,877	651,744	651,091	0.27
군산	277,491	272,007	265,168	260,989	263,845	272,601	278,341	278,098	277,551	272,645	-0.10
익산	334,324	330,101	322,378	315,094	309,269	307,289	306,469	304,117	300,479	294,062	-0.71
정읍	152,022	139,133	132,285	126,249	122,842	122,000	119,392	117,183	115,173	112,169	-1.67
남원	103,571	100,392	96,243	91,265	88,356	87,775	87,000	85,643	84,188	82,554	-1.25
김제	115,865	110,989	105,195	100,238	95,807	94,346	92,317	90,108	87,782	85,331	-1.69
완주	84,009	84,626	82,482	83,199	83,757	85,119	86,164	90,377	95,480	94,444	0.65
진안	31,273	30,439	30,757	27,122	27,230	27,543	26,963	26,474	26,069	25,963	-1.03
무주	29,207	27,894	26,183	25,417	26,017	25,578	25,321	25,390	24,949	24,589	-0.95
장수	30,051	26,349	26,788	24,209	23,864	23,386	23,191	23,335	23,628	23,221	-1.42
임실	37,514	35,071	33,008	31,976	31,133	30,593	29,956	29,966	30,197	30,072	-1.22
순창	34,587	32,329	31,814	32,485	30,920	30,209	30,055	30,368	29,949	29,209	-0.93
고창	74,104	69,657	65,203	62,030	60,328	60,861	60,440	60,090	60,597	57,041	-1.44
부안	74,716	70,374	66,766	63,243	60,872	60,138	58,869	57,534	57,005	54,441	-1.74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 전라북도의 인구는 2000년 기준 199.9만 명에서 2018년 183.6만 명으로 16.2만 명이 감소하였고 연평균 0.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주시와 완주군은 2000년 인구 대비 2018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주시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18년 65.1만 명으로 약 3.0만 명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0.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완주군은 2000년 8.4만 명에서 2018년 9.4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0.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같은 시기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부안이 연평균 1.7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00년 대비 2018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익산으로 약 4만 명이 감소하였고 이어서 정읍 3.9만 명, 김제 3만 명 등의 순으로 감소인구가 많았음

〈그림 3-2〉 전라북도 성별 인구추이



〈표3-6〉 전국 시도별 성별 인구추이

구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계	48,229,948	48,583,805	48,991,779	49,540,367	50,515,666	50,948,272	51,327,916	51,826,059
	남	24,200,192	24,363,083	24,557,004	24,822,897	25,310,385	25,504,060	25,669,296	25,866,129
	여	24,029,756	24,220,722	24,434,775	24,717,470	25,205,281	25,444,212	25,658,620	25,959,930
서울	계	10,207,295	10,173,162	10,181,166	10,200,827	10,312,545	10,195,318	10,103,233	9,765,623
	남	5,108,964	5,074,686	5,062,107	5,061,809	5,111,259	5,041,336	4,979,768	4,773,899
	여	5,098,331	5,098,476	5,119,059	5,139,018	5,201,286	5,153,982	5,123,465	4,991,724
부산	계	3,730,125	3,666,345	3,611,992	3,564,577	3,567,910	3,538,484	3,519,401	3,441,453
	남	1,862,520	1,828,634	1,798,940	1,773,154	1,773,170	1,754,479	1,740,417	1,692,421
	여	1,867,605	1,837,711	1,813,052	1,791,423	1,794,740	1,784,005	1,778,984	1,749,032
대구	계	2,525,803	2,524,712	2,496,115	2,492,724	2,511,676	2,505,644	2,493,264	2,461,769
	남	1,268,530	1,266,254	1,250,849	1,246,873	1,255,245	1,249,320	1,241,119	1,219,342
	여	1,257,273	1,258,458	1,245,266	1,245,851	1,256,431	1,256,324	1,252,145	1,242,427
인천	계	2,577,989	2,578,817	2,624,391	2,692,696	2,758,296	2,843,981	2,902,608	2,954,642
	남	1,301,499	1,300,343	1,323,375	1,356,473	1,390,356	1,431,593	1,459,074	1,481,844
	여	1,276,490	1,278,474	1,301,016	1,336,223	1,367,940	1,412,388	1,443,534	1,472,798
광주	계	1,397,452	1,401,172	1,407,798	1,422,702	1,454,636	1,469,216	1,475,884	1,459,336
	남	693,937	695,479	698,664	705,817	721,780	728,406	731,339	728,137
	여	703,515	705,693	709,134	716,885	732,856	740,810	744,545	731,199
대전	계	1,419,573	1,443,471	1,466,158	1,480,895	1,503,664	1,524,583	1,531,809	1,489,936
	남	712,653	724,588	735,595	741,611	753,648	763,671	766,497	744,338
	여	706,920	718,883	730,563	739,284	750,016	760,912	765,312	745,598
울산	계	1,065,037	1,081,453	1,092,494	1,112,407	1,126,298	1,147,256	1,166,377	1,155,623
	남	546,847	555,660	561,611	572,815	579,071	590,424	600,904	593,819
	여	518,190	525,793	530,883	539,592	547,227	556,832	565,473	561,804
세종	계	-	-	-	-	-	113,117	156,125	243,048
	남						57,633	78,862	121,505
	여						55,484	77,263	121,543

〈표 계속〉

구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경기	계	9,927,473	10,462,920	10,906,033	11,292,264	11,786,622	12,093,299	12,357,830	12,716,780	13,077,153
	남	5,012,229	5,277,320	5,499,796	5,690,673	5,942,454	6,091,035	6,219,813	6,395,453	6,577,501
	여	4,915,244	5,185,600	5,406,237	5,601,591	5,844,168	6,002,264	6,138,017	6,321,327	6,499,652
강원	계	1,538,720	1,521,375	1,505,420	1,508,575	1,529,818	1,538,630	1,544,442	1,550,806	1,543,052
	남	771,945	764,803	756,894	759,282	769,807	774,273	778,007	781,146	776,456
	여	766,775	756,572	748,526	749,293	760,011	764,357	766,435	769,660	766,596
충북	계	1,492,713	1,488,945	1,494,559	1,519,587	1,549,528	1,565,628	1,578,933	1,591,625	1,599,252
	남	750,277	749,274	752,742	765,398	781,301	789,286	796,141	803,240	808,971
	여	742,436	739,671	741,817	754,189	768,227	776,342	782,792	788,385	790,281
충남	계	1,907,725	1,953,406	1,974,433	2,018,537	2,075,514	2,028,777	2,062,273	2,096,727	2,126,282
	남	958,290	982,648	995,826	1,020,317	1,049,363	1,026,812	1,045,892	1,064,765	1,082,009
	여	949,435	970,758	978,607	998,220	1,026,151	1,001,965	1,016,381	1,031,962	1,044,273
전북	계	1,953,846	1,906,742	1,868,365	1,855,772	1,868,963	1,873,341	1,871,560	1,864,791	1,836,832
	남	971,729	948,697	930,450	924,770	931,481	933,386	931,536	927,505	913,297
	여	982,117	958,045	937,915	931,002	937,482	939,955	940,024	937,286	923,535
전남	계	2,054,204	1,986,192	1,942,925	1,919,000	1,918,485	1,909,618	1,905,780	1,903,914	1,882,970
	남	1,022,322	989,227	968,861	958,491	958,624	954,354	951,975	951,889	943,000
	여	1,031,882	996,965	974,064	960,509	959,861	955,264	953,805	952,025	939,970
경북	계	2,756,744	2,695,917	2,688,577	2,673,931	2,689,920	2,698,353	2,700,794	2,700,398	2,676,831
	남	1,380,211	1,352,420	1,349,830	1,343,199	1,351,202	1,355,294	1,356,182	1,356,868	1,346,689
	여	1,376,533	1,343,497	1,338,747	1,330,732	1,338,718	1,343,059	1,344,612	1,343,530	1,330,142
경남	계	3,124,418	3,143,814	3,172,857	3,225,255	3,290,536	3,319,314	3,350,257	3,373,871	3,373,988
	남	1,564,368	1,576,357	1,592,610	1,622,127	1,656,042	1,670,545	1,687,114	1,699,219	1,697,412
	여	1,560,050	1,567,457	1,580,247	1,603,128	1,634,494	1,648,769	1,663,143	1,674,652	1,676,576
제주	계	550,831	555,362	558,496	560,618	571,255	583,713	607,346	641,597	667,191
	남	273,871	276,693	278,854	280,088	285,582	292,213	304,656	322,545	335,719
	여	276,960	278,669	279,642	280,530	285,673	291,500	302,690	319,052	331,472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성별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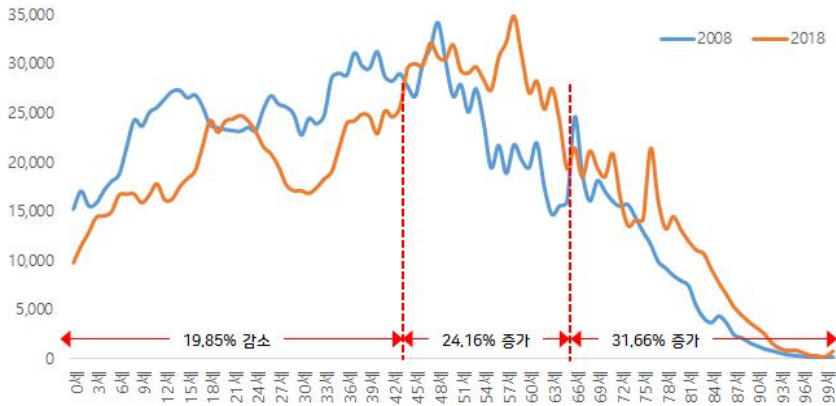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성별 인구는 2018년 기준 여성이 92.3만 명으로 남성 91.3만 명 보다 약 1만 명 이상이 많았음

- 성별에 따른 격차는 2002년 1만명 차이에서 2010년 약 6천명 차이까지 좁혀졌으나 201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 다시 1만 명 이상의 차이로 벌어짐

○ 전라북도의 인구 현황을 2018년과 2008년을 비교 했을 시, 0~44세 연령층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19.85%가 감소하였고, 45세~65세의 연령구간은 24.16%가 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단, 18~24세의 경우 2008년(16.3만 명)에 비해 2018년(16.8만 명)에는 1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2008년~2018년 전라북도 인구변화



-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183.6만 명 중 50대가 30.4만 명(16.6%), 40대 인구가 28.1만 명(15.3%)으로 40~59세의 중장년층이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31.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3-7〉 전국 시도 연령별 인구 현황(2018년)

구분	총 인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전국	51,826,059	4,303,062	5,131,153	6,823,973	7,270,143	8,488,587	8,615,884	5,949,639	3,497,936	1,745,682
서울	9,765,623	690,368	855,121	1,449,790	1,548,770	1,590,374	1,546,954	1,142,415	660,825	281,006
부산	3,441,453	251,442	296,145	444,737	454,711	527,047	593,189	488,127	272,992	113,063
대구	2,461,769	194,953	249,672	330,845	317,978	404,270	431,143	292,750	164,586	75,572
인천	2,954,642	251,301	292,324	409,794	433,669	494,723	514,229	315,032	164,392	79,178
광주	1,459,336	131,277	171,887	205,743	200,420	246,391	231,284	145,281	87,000	40,053
대전	1,489,936	128,497	160,537	213,955	209,040	249,652	242,983	159,155	84,756	41,361
울산	1,155,623	108,363	121,540	153,359	166,208	194,425	210,492	124,918	53,882	22,436
세종	314,126	44,452	36,695	34,031	58,381	58,247	38,373	24,261	12,533	7,153
경기	13,077,153	1,209,856	1,384,896	1,749,054	1,949,571	2,291,231	2,145,977	1,289,902	710,464	346,202
강원	1,543,052	112,664	150,060	182,891	175,578	233,996	271,635	207,147	136,550	72,531
충북	1,599,252	133,659	159,713	200,941	205,568	248,623	271,428	194,090	118,431	66,799
충남	2,126,282	189,024	213,551	248,443	288,943	331,657	338,050	248,096	164,280	104,238
전북	1,836,832	143,990	190,798	217,554	207,874	281,151	304,598	232,335	162,865	95,667
비율	100.0	7.8	10.4	11.8	11.3	15.3	16.6	12.6	8.9	5.2
전남	1,882,970	145,246	183,499	206,817	204,928	271,461	319,904	246,135	192,446	112,534
강북	2,676,831	207,609	245,099	300,125	319,542	399,573	467,650	365,286	235,036	136,911
경남	3,373,988	296,642	345,897	394,180	441,235	552,404	579,597	405,089	233,023	125,921
제주	667,191	63,719	73,719	81,714	87,727	113,362	108,398	69,620	43,875	25,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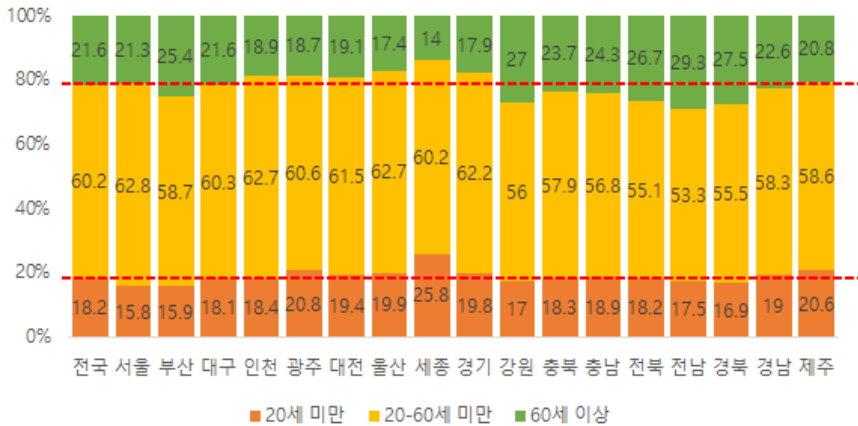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8년 주민등록인구현황

〈표3-8〉 전국 17개 시도 연령별 인구 구성비

구분	총 인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세대별 구성비		
											20세 미만	20-60세 미만	60세 이상
전국	100.0	8.3	9.9	13.2	14.0	16.4	16.6	11.5	6.7	3.4	18.2	60.2	21.6
서울	100.0	7.1	8.8	14.8	15.9	16.3	15.8	11.7	6.8	2.9	15.8	62.8	21.3
부산	100.0	7.3	8.6	12.9	13.2	15.3	17.2	14.2	7.9	3.3	15.9	58.7	25.4
대구	100.0	7.9	10.1	13.4	12.9	16.4	17.5	11.9	6.7	3.1	18.1	60.3	21.6
인천	100.0	8.5	9.9	13.9	14.7	16.7	17.4	10.7	5.6	2.7	18.4	62.7	18.9
광주	100.0	9.0	11.8	14.1	13.7	16.9	15.8	10.0	6.0	2.7	20.8	60.6	18.7
대전	100.0	8.6	10.8	14.4	14.0	16.8	16.3	10.7	5.7	2.8	19.4	61.5	19.1
울산	100.0	9.4	10.5	13.3	14.4	16.8	18.2	10.8	4.7	1.9	19.9	62.7	17.4
세종	100.0	14.2	11.7	10.8	18.6	18.5	12.2	7.7	4.0	2.3	25.8	60.2	14.0
경기	100.0	9.3	10.6	13.4	14.9	17.5	16.4	9.9	5.4	2.6	19.8	62.2	17.9
강원	100.0	7.3	9.7	11.9	11.4	15.2	17.6	13.4	8.8	4.7	17.0	56.0	27.0
충북	100.0	8.4	10.0	12.6	12.9	15.5	17.0	12.1	7.4	4.2	18.3	57.9	23.7
충남	100.0	8.9	10.0	11.7	13.6	15.6	15.9	11.7	7.7	4.9	18.9	56.8	24.3
전북	100.0	7.8	10.4	11.8	11.3	15.3	16.6	12.6	8.9	5.2	18.2	55.1	26.7
전남	100.0	7.7	9.7	11.0	10.9	14.4	17.0	13.1	10.2	6.0	17.5	53.3	29.3
경북	100.0	7.8	9.2	11.2	11.9	14.9	17.5	13.6	8.8	5.1	16.9	55.5	27.5
경남	100.0	8.8	10.3	11.7	13.1	16.4	17.2	12.0	6.9	3.7	19.0	58.3	22.6
제주	100.0	9.6	11.0	12.2	13.1	17.0	16.2	10.4	6.6	3.8	20.6	58.6	20.8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4〉 전국 시도 연령별 인구 구성비



-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8.2%로 전국 평균 수준이고, 20세~60세 미만 인구는 55.1%로 전국 평균 60.2%에 비해 낮은 편이나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6.7%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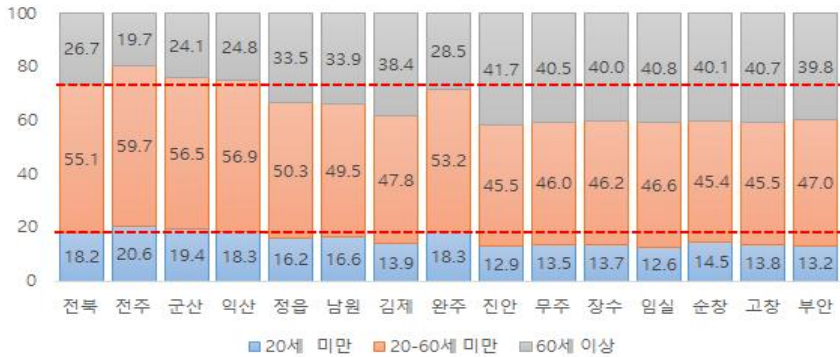
- 특히 60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전남(29.3%)에 이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인구는 전주(20.6%)를 비롯한 군산(19.4%), 익산(18.3%) 등의 도시지역의 비중이 전북 평균(18.2%)보다 높게 나타남
- 한편, 군부 지역에서는 완주(18.3%)만 전북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임실(12.6%)이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세~60세 미만의 청년층 및 장년층의 인구의 구성은 전주(59.7%)가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평균 55.1%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북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완주군(28.5%)을 제외한 7개 군부 지역의 비중이 4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시 지역에서는 김제(38.4%)와 정읍(33.5%), 남원(33.9%)의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9〉 전라북도 시군 연령별 인구 구성비

구분	총 인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세대별 구성비		
											20세 미만	20-60세 미만	60세 이상
전북	100.0	7.8	10.4	11.8	11.3	15.3	16.6	12.6	8.9	5.2	18.2	55.1	26.7
전주	100.0	8.8	11.8	14.0	13.0	16.7	16.0	10.5	6.2	3.0	20.6	59.7	19.7
군산	100.0	8.8	10.6	11.1	12.7	16.6	16.2	12.5	7.7	3.9	19.4	56.5	24.1
익산	100.0	7.7	10.7	13.2	11.2	15.4	17.1	12.5	7.8	4.5	18.3	56.9	24.8
정읍	100.0	6.5	9.7	10.1	9.0	14.3	16.9	14.0	11.9	7.7	16.2	50.3	33.5
남원	100.0	6.7	9.9	9.7	8.7	14.0	17.1	14.3	11.7	7.9	16.6	49.5	33.9
김제	100.0	6.0	7.9	9.2	8.8	12.7	17.1	16.0	13.1	9.2	13.9	47.8	38.4
완주	100.0	8.9	9.3	9.9	12.1	14.8	16.5	13.3	9.4	5.8	18.3	53.2	28.5
진안	100.0	5.8	7.1	7.9	7.6	11.7	18.2	16.9	14.8	10.0	12.9	45.5	41.7
무주	100.0	5.7	7.8	8.1	7.8	12.5	17.6	16.3	14.5	9.7	13.5	46.0	40.5
장수	100.0	5.8	7.9	8.7	8.1	12.1	17.3	16.7	13.9	9.4	13.7	46.2	40.0
임실	100.0	5.6	7.0	9.4	8.4	11.3	17.5	15.6	14.7	10.5	12.6	46.6	40.8
순창	100.0	6.3	8.2	8.1	8.5	12.3	16.5	15.2	15.1	9.8	14.5	45.4	40.1
고창	100.0	5.4	8.4	8.8	7.7	12.1	16.8	16.3	14.9	9.5	13.8	45.5	40.7
부안	100.0	5.4	7.8	8.8	8.3	12.3	17.5	16.8	14.1	8.9	13.2	47.0	39.8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5〉 인구 구성비



2) 청년인구변화 추이

- 전라북도의 20세~39세의 청년층 인구는 2018년 기준 42.5만 명으로 2008년 65.8만 명에 비해 약 23.3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연평균 감소율 2.4%)

- 17개 시도 중 청년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세종시와 경기도 두 개 지역뿐임

〈표3-10〉 시도별 청년층 인구(2000년~2018년)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연평균 증감율
전국	17,241,236	16,994,501	16,665,079	16,244,863	15,685,932	15,237,505	14,795,891	14,453,891	14,292,568	14,094,116	-1.1
서울	3,976,450	3,891,398	3,797,778	3,707,603	3,589,915	3,453,131	3,291,186	3,171,617	3,063,675	2,998,560	-1.6
부산	1,339,636	1,283,907	1,230,046	1,167,364	1,097,200	1,042,976	996,132	961,713	938,715	899,448	-2.2
대구	924,747	897,319	866,603	818,351	771,210	736,836	704,267	677,173	663,695	648,823	-1.9
인천	947,436	929,393	897,145	881,428	871,578	854,938	861,269	859,651	856,765	843,463	-0.6
광주	506,236	508,132	494,149	477,295	459,087	448,700	436,890	425,360	414,797	406,163	-1.2
대전	514,031	515,000	512,880	506,423	485,997	469,916	460,156	447,727	435,675	422,995	-1.1
울산	390,310	386,756	379,386	364,690	353,231	339,554	338,011	338,801	335,848	319,567	-1.1
세종							31,139	45,180	72,474	92,412	19.9
경기	3,476,652	3,634,079	3,723,522	3,757,153	3,705,723	3,683,012	3,633,171	3,599,981	3,643,196	3,698,625	0.3
강원	518,484	492,362	471,334	445,055	421,941	404,693	389,512	376,262	370,276	358,469	-2.0
충북	514,999	495,037	481,074	463,680	449,723	436,087	425,406	414,769	410,724	406,509	-1.3
충남	625,344	600,131	609,347	601,063	589,438	582,429	551,324	543,171	540,833	537,386	-0.8
전북	658,553	624,866	588,054	549,047	518,047	497,712	477,107	456,830	444,987	425,428	-2.4
전남	655,882	611,952	568,042	528,691	494,062	469,489	447,284	432,226	425,915	411,745	-2.6
경북	925,777	883,106	832,979	802,903	757,672	724,242	696,596	669,000	647,896	619,667	-2.2
경남	1,073,907	1,050,459	1,028,579	998,251	966,028	936,502	903,799	878,579	863,615	835,415	-1.4
제주	192,791	190,604	184,161	175,866	165,080	157,288	152,642	155,851	163,482	169,441	-0.7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20~39세

주 : 세종시는 2012년 대비 연평균 증감율

〈표3-11〉 전라북도 시군별 청년층 인구(2000년-2018년)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연평균 증감율
전북	658,553	624,866	588,054	549,047	518,047	497,712	477,107	456,830	444,987	425,428	-2.4
전주	221,872	216,756	209,083	200,423	193,447	189,030	184,410	180,175	177,648	175,478	-1.3
군산	95,575	91,159	85,615	80,635	78,677	77,933	76,386	72,094	69,517	64,847	-2.1
익산	115,912	110,944	104,001	96,479	89,512	84,640	81,318	77,845	74,968	71,570	-2.6
정읍	46,932	41,438	37,710	33,780	30,798	28,785	26,253	24,137	22,997	21,420	-4.3
남원	31,702	29,875	27,446	24,111	21,352	19,888	18,549	16,980	16,010	15,230	-4.0
김제	34,660	32,013	29,101	25,994	23,027	21,073	19,298	17,682	16,491	15,362	-4.4
완주	28,123	28,021	26,109	25,475	23,922	22,728	21,492	21,658	22,480	20,776	-1.7
진안	8,566	7,982	7,933	6,271	6,021	5,772	5,154	4,617	4,238	4,021	-4.1
무주	7,880	7,137	6,353	5,843	5,862	5,342	4,922	4,552	4,217	3,904	-3.8
장수	8,191	6,792	6,688	5,687	5,317	4,822	4,398	4,199	4,177	3,908	-4.0
임실	10,174	8,959	7,979	7,684	6,861	6,252	5,710	5,585	5,558	5,338	-3.5
순창	8,758	7,836	7,563	7,777	6,814	6,320	5,906	5,626	5,258	4,840	-3.2
고창	19,290	17,222	15,387	13,695	12,751	12,372	11,589	10,942	11,017	9,400	-3.9
부안	20,918	18,732	17,086	15,193	13,686	12,755	11,722	10,738	10,411	9,334	-4.4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20-39세

- 전라북도의 시군별 청년층 인구는 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김제(4.4%)와 부안(4.4%) 이었고, 정읍, 남원, 진안, 장수 등의 지역이 4%대의 감소율을 보이며 청년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표3-12〉 전국 청년층 1인 가구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1,840,345	1,094,992	745,353	1,878,045	1,111,075	766,970	1,930,252	1,138,550	791,702
서울	521,685	272,130	249,555	530,082	270,768	259,314	548,761	278,507	270,254
부산	109,318	60,852	48,466	110,960	60,968	49,992	116,397	64,405	51,992
대구	76,205	44,134	32,071	75,314	43,570	31,744	78,771	45,204	33,567
인천	78,631	49,604	29,027	80,518	50,590	29,928	83,114	52,021	31,093
광주	66,666	38,459	28,207	64,304	37,143	27,161	65,365	37,541	27,824
대전	75,645	44,371	31,274	80,210	46,980	33,230	83,412	48,545	34,867
울산	36,752	26,316	10,436	35,633	25,237	10,396	34,964	24,579	10,385
세종	11,153	6,697	4,456	14,852	8,980	5,872	16,645	9,773	6,872
경기	368,510	234,560	133,950	372,331	236,883	135,448	386,669	246,831	139,838
강원	58,014	39,000	19,014	59,599	39,952	19,647	56,498	36,666	19,832
충북	55,255	34,674	20,581	61,416	38,633	22,783	62,928	39,942	22,986
충남	79,779	50,990	28,789	83,498	53,585	29,913	86,159	55,472	30,687
전북	59,014	37,063	21,951	60,628	37,806	22,822	60,580	37,520	23,060
전남	43,084	27,732	15,352	44,814	28,769	16,045	44,452	28,623	15,829
경북	90,556	57,067	33,489	93,363	59,545	33,818	93,245	60,066	33,179
경남	93,664	61,893	31,771	93,318	61,686	31,632	93,355	61,800	31,555
제주	16,414	9,450	6,964	17,205	9,980	7,225	18,937	11,055	7,88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39세

- 전라북도 청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6.0만 가구로 2015년 5.9만 가구에 비해 0.1만 가구가 증가하였음(2015년 대비 증가율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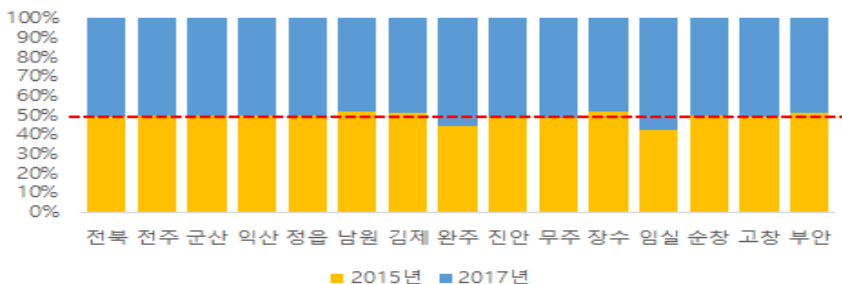
〈표3-13〉 전라북도 청년층 1인 가구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북	59,014	37,063	21,951	60,628	37,806	22,822	60,580	37,520	23,060
전주	26,514	15,543	10,971	26,751	15,597	11,154	27,065	15,788	11,277
군산	9,549	6,529	3,020	10,225	6,870	3,355	9,723	6,418	3,305
익산	12,181	7,899	4,282	11,879	7,653	4,226	12,181	7,724	4,457
정읍	1,846	1,141	705	1,803	1,154	649	1,843	1,180	663
남원	1,631	1,043	588	1,566	998	568	1,509	985	524
김제	1,194	782	412	1,129	759	370	1,145	749	396
완주	3,155	2,172	983	4,169	2,781	1,388	4,008	2,643	1,365
진안	280	185	95	266	173	93	295	198	97
무주	294	204	90	296	204	92	311	214	97
장수	234	155	79	230	149	81	217	145	72
임실	411	294	117	585	363	222	567	316	251
순창	267	162	105	287	182	105	268	179	89
고창	740	474	266	782	496	286	761	523	238
부안	718	480	238	660	427	233	687	458	22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39세

- 14개 시군별 청년 1인 가구의 현황을 보면 전주가 2.7만 가구, 익산이 1.2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군산 9.7천 가구, 완주 4.0천 가구로 많았음
- 2015년 대비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완주군으로 853가구가 증가하였고 이어서 전주(551가구), 군산(174가구), 임실(156가구) 지역에서 증가를 많이 하였음
 - 임실의 경우 2015년 대비 증가율이 38.0%로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뒤이어 완주군이 2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3-6〉 전라북도 청년 1인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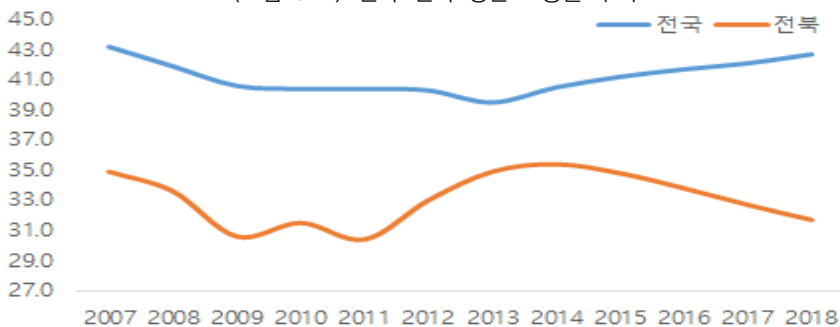
〈표3-14〉 전국 사업체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현황	구성비
전국	3,262,921	3,264,776	3,233,551	3,355,459	3,470,023	3,602,461	3,676,859	3,812,800	3,874,146	3,950,169	4,019,872	100.0
서울	728,614	719,687	723,086	729,731	752,285	780,887	785,094	812,798	820,658	820,156	822,863	20.5
부산	262,906	258,091	259,973	259,972	263,356	270,058	271,983	277,713	278,850	283,554	286,571	7.1
대구	179,904	178,629	178,765	183,115	188,300	192,599	195,716	198,762	200,069	205,318	209,376	5.2
인천	158,698	157,979	159,595	163,653	169,419	177,196	177,988	183,593	186,009	191,566	196,705	4.9
광주	97,111	97,511	99,148	99,976	102,386	105,931	108,808	111,285	113,424	116,046	118,409	2.9
대전	91,097	92,548	93,176	95,650	100,474	104,609	105,676	109,535	111,815	113,228	115,423	2.9
울산	67,169	67,843	68,654	70,746	73,417	74,578	76,993	78,638	80,805	82,948	83,872	2.1
세종	-	-	-	-	-	6,640	7,468	9,124	10,480	11,853	13,668	0.3
경기	640,490	651,427	660,007	687,021	720,850	751,107	773,215	810,259	827,982	856,162	878,275	21.8
강원	116,705	117,150	117,569	118,266	121,273	125,192	129,403	133,314	133,517	136,452	140,058	3.5
충북	101,386	101,861	102,969	105,756	109,256	112,649	115,610	119,498	121,492	124,834	126,224	3.1
충남	130,103	131,548	131,554	134,315	140,505	141,209	145,995	154,034	158,304	161,608	166,247	4.1
전북	120,061	119,820	122,657	124,703	128,738	135,997	139,654	144,900	146,652	147,502	148,269	3.7
전남	124,763	124,286	124,750	125,395	128,465	132,892	136,888	142,931	147,197	149,713	153,280	3.8
경북	183,388	183,406	184,151	186,690	193,361	199,544	205,730	213,809	218,791	222,536	226,079	5.6
경남	216,280	218,683	221,507	224,640	230,794	242,121	248,911	258,710	262,946	268,902	274,490	6.8
제주	44,246	44,307	45,990	45,830	47,144	49,252	51,727	53,897	55,155	57,791	60,063	1.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전라북도의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14.8만 개이며 전국 사업체 수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 17개 시도 중 경기도(21.8%)와 서울(20.5%)이 전체 사업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 전국-전북 청년 고용률 추이



- 전국의 청년 고용률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여 2018년 42.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전라북도의 청년 고용률은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2014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17개 시도 중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 47.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 46.1%, 제주 45.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전라북도의 청년 고용률은 31.7%로 전국 평균 42.7%에 비해 11%p가 적었음

〈표3-15〉 시도별 청년고용률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율
전국	43.2	41.9	40.6	40.4	40.4	40.3	39.5	40.5	41.2	41.7	42.1	42.7	-0.1
서울	48.7	47.1	44.9	44.2	45.5	43.9	42.7	42.9	43.8	44.6	45.3	46.1	-0.5
부산	40.0	39.3	37.0	34.7	34.8	38.4	37.3	38.2	38.8	40.3	41.2	40.4	0.1
대구	38.5	38.2	37.8	38.2	38.1	37.6	35.7	37.4	39.3	38.3	35.2	36.3	-0.5
인천	44.2	43.8	43.9	43.7	42.8	42.9	41.3	41.5	42.2	44.4	45.1	47.9	0.7
광주	36.4	36.4	37.0	37.9	37.3	35.5	33.9	36.7	35.3	34.1	36.3	39.4	0.7
대전	40.0	38.5	37.2	37.5	37.1	36.5	36.9	39.2	38.9	41.1	40.2	38.1	-0.4
울산	41.6	41.9	40.3	39.9	39.0	37.4	37.7	38.5	38.3	38.7	40.9	40.4	-0.3
세종	-	-	-	-	-	-	-	-	-	-	37.5	38.1	1.6
경기	44.5	42.8	41.2	41.7	41.8	42.1	41.3	42.4	43.9	44.0	44.8	45.3	0.2
강원	37.3	38.5	38.4	37.3	36.3	35.6	34.3	33.3	33.3	35.6	41.2	42.4	1.2
충북	36.3	35.2	37.2	38.1	38.6	36.4	38.9	41.6	41.6	42.0	43.4	45.5	2.1
충남	46.2	42.3	40.3	43.4	43.3	43.0	42.0	42.5	44.0	42.5	40.4	43.7	-0.5
전북	34.9	33.6	30.6	31.5	30.4	33.0	34.9	35.4	34.8	33.8	32.7	31.7	-0.9
전남	40.3	37.9	38.5	36.5	36.2	36.1	38.0	36.6	36.9	36.7	35.8	36.6	-0.9
경북	42.6	41.3	39.1	39.9	37.8	38.3	36.9	42.1	41.1	40.0	39.4	37.3	-1.2
경남	39.3	39.0	39.8	36.8	37.6	37.1	36.4	36.0	36.9	40.0	39.0	38.7	-0.1
제주	49.5	47.9	44.4	39.4	41.2	42.2	41.4	41.9	43.2	46.5	47.8	45.9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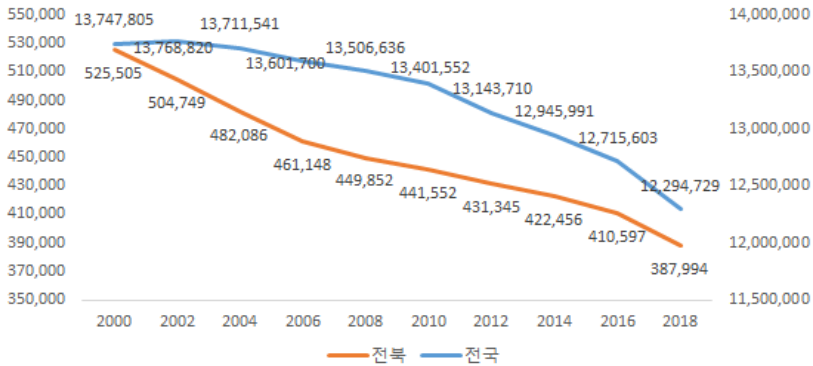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2018. 15~29세

3) 출산인구변화 추이

○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인구도 청년인구의 감소와 동반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2018년 기준 38.7천 명으로 2000년 52.5천 명 대비 13.7만 명이 감소하였고 연평균 1.7%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0.6%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그림 3-8〉 전국-전북 가임기 여성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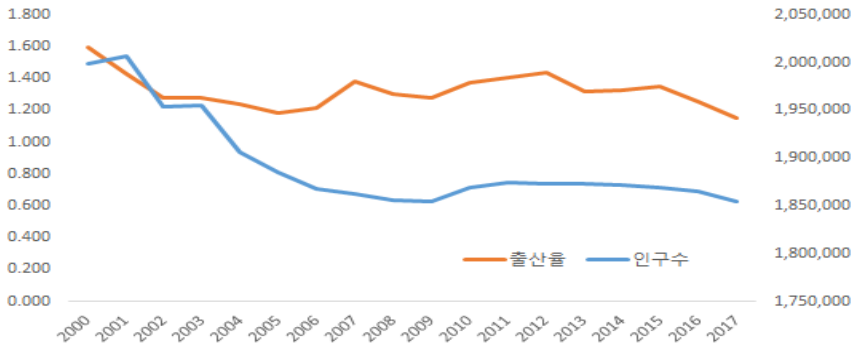
〈표3-16〉 시도별 가임기 여성 인구(2000년-2018년)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연평균 증감율
전국	13,747,805	13,768,820	13,711,541	13,601,700	13,506,636	13,401,552	13,143,710	12,945,991	12,715,603	12,294,729	-0.6
서울	3,178,055	3,117,249	3,066,620	3,014,597	2,962,343	2,905,748	2,804,778	2,727,845	2,635,718	2,539,155	-1.2
부산	1,147,489	1,105,802	1,063,572	1,014,573	968,729	928,424	882,668	852,138	822,351	774,871	-2.2
대구	756,888	744,533	731,512	706,879	691,906	676,150	652,106	629,842	608,937	577,800	-1.5
인천	753,186	763,274	759,932	764,638	773,591	770,737	770,593	764,614	752,008	725,499	-0.2
광주	406,226	410,097	406,663	403,026	402,229	403,117	399,984	394,835	383,361	367,410	-0.6
대전	417,097	424,927	426,697	425,966	422,664	417,659	411,690	405,000	390,744	370,315	-0.7
울산	313,017	317,684	318,845	316,603	316,073	311,907	307,177	303,351	293,520	274,021	-0.7
세종							25,392	38,361	63,409	82,716	21.8
경기	2,673,238	2,881,666	3,034,420	3,143,045	3,214,531	3,284,708	3,287,352	3,287,127	3,298,188	3,269,301	1.1
강원	418,386	407,947	394,949	380,729	370,069	361,608	350,933	342,351	333,392	317,319	-1.5
충북	407,392	402,399	394,706	388,294	387,896	385,330	377,660	372,993	364,511	349,166	-0.9
충남	490,331	481,767	491,691	487,647	490,250	493,469	471,866	470,034	467,329	456,551	-0.4
전북	525,505	504,749	482,086	461,148	449,852	441,552	431,345	422,456	410,597	387,994	-1.7
전남	518,245	488,317	461,371	441,935	427,838	416,587	404,896	395,811	386,051	365,917	-1.9
경북	737,275	714,083	681,960	666,214	646,904	628,945	609,853	592,480	571,966	536,985	-1.7
경남	856,518	855,207	848,861	840,844	838,055	832,079	812,011	800,017	780,907	745,002	-0.8
제주	148,957	149,119	147,656	145,562	143,706	143,532	143,406	146,736	152,614	154,707	0.2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15-49세

-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는 낮은 출산율과 연동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01년 1.426명에서 2017년 1.151명으로 기 기간 동안 평균 합계출산율은 1.306명에 불과함
- 한편, 전라북도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전국 1.193명 보다 0.11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3-9〉 전라북도 인구 및 출산율 추이



〈표3-17〉 시도별 출산율(2001년-2017년)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평균 출산율
전국	1.309	1.191	1.085	1.259	1.149	1.244	1.187	1.239	1.052	1.193
서울	1.111	1.014	0.932	1.068	0.962	1.014	0.968	1.001	0.836	0.995
부산	1.103	0.988	0.887	1.024	0.940	1.078	1.049	1.139	0.976	1.022
대구	1.216	1.116	1.001	1.137	1.029	1.146	1.127	1.216	1.067	1.117
인천	1.324	1.213	1.075	1.257	1.143	1.232	1.195	1.216	1.007	1.187
광주	1.421	1.278	1.105	1.262	1.137	1.234	1.170	1.207	1.053	1.210
대전	1.330	1.221	1.107	1.274	1.156	1.261	1.234	1.277	1.075	1.215
울산	1.423	1.280	1.186	1.403	1.308	1.393	1.391	1.486	1.261	1.347
세종	-	-	-	-	-	-	1.435	1.893	1.668	1.628
경기	1.437	1.321	1.183	1.361	1.226	1.314	1.226	1.272	1.069	1.272
강원	1.413	1.279	1.188	1.356	1.248	1.338	1.249	1.311	1.123	1.277
충북	1.426	1.270	1.195	1.398	1.317	1.428	1.365	1.414	1.235	1.340
충남	1.532	1.358	1.267	1.506	1.408	1.496	1.442	1.480	1.276	1.421
전북	1.426	1.274	1.184	1.380	1.279	1.405	1.320	1.352	1.151	1.306
전남	1.566	1.389	1.290	1.542	1.445	1.568	1.518	1.549	1.325	1.463
경북	1.402	1.253	1.173	1.369	1.274	1.434	1.379	1.464	1.256	1.331
경남	1.417	1.290	1.189	1.434	1.323	1.446	1.367	1.437	1.227	1.351
제주	1.564	1.438	1.310	1.489	1.378	1.487	1.427	1.477	1.305	1.43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청년인구의 감소, 결혼지연 현상, 혼인 건수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혼인건수는 2000년 11.3만 건에서 7.2천 건으로 4.1천 건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감소율은 2.5%를 나타내고 있음
 - 전라북도 혼인건수의 연평균 감소율은 2.5%로 전국 평균 감소율인 1.4% 보다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 전남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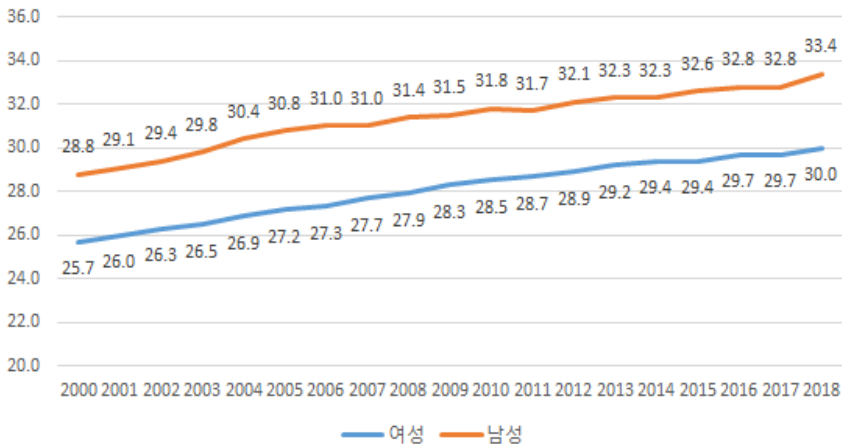
〈표3-18〉 시도별 혼인 수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연평균 증감율
전국	332,090	304,877	308,598	330,634	327,715	326,104	327,073	305,507	281,635	257,622	-1.4
서울	78,745	72,696	71,553	73,924	71,753	70,466	71,695	64,823	57,643	52,005	-2.3
부산	23,343	20,916	19,898	20,017	20,149	20,195	20,362	18,927	17,113	14,781	-2.5
대구	16,124	13,741	13,792	13,892	13,743	13,479	13,642	12,552	12,216	10,967	-2.1
인천	17,857	16,851	15,900	17,261	18,108	17,407	18,079	17,251	16,092	14,850	-1.0
광주	9,557	8,230	8,012	8,487	8,472	8,566	8,596	8,213	7,468	6,632	-2.0
대전	9,664	9,131	8,857	9,502	9,499	9,351	9,745	9,118	8,325	7,377	-1.5
울산	6,890	6,512	6,647	7,493	7,837	7,660	7,887	7,674	7,006	5,894	-0.9
세종	-	-	-	-	-	-	634	920	1,612	2,038	21.5
경기	69,160	68,330	70,236	77,231	78,004	78,471	79,449	74,306	70,052	66,877	-0.2
강원	9,898	8,378	8,235	8,731	8,517	8,365	8,225	7,785	7,468	6,994	-1.9
충북	9,586	8,684	8,534	9,291	9,512	9,171	9,275	8,774	8,334	7,827	-1.1
충남	12,097	10,421	11,418	13,373	13,354	13,185	12,849	12,040	11,792	10,970	-0.5
전북	11,362	10,687	10,111	10,429	10,399	10,525	10,022	9,211	8,216	7,219	-2.5
전남	12,069	10,039	9,675	10,507	10,480	10,461	9,827	9,357	8,554	7,587	-2.5
경북	17,061	14,600	14,000	16,178	15,634	15,592	15,383	14,183	13,363	11,687	-2.1
경남	19,900	17,905	18,375	20,789	20,497	21,170	20,140	19,056	17,580	14,996	-1.6
제주	4,022	3,574	3,325	3,576	3,445	3,515	3,482	3,593	3,705	3,638	-0.6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향조사

- 전라북도의 평균 초혼연령은 2018년 기준 남성은 33.4세, 여성은 30.0세로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연령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 같은 초혼연령의 증가는 주로 청년실업으로 인한 결혼의 지연현상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3-10〉 전라북도 성별 초혼연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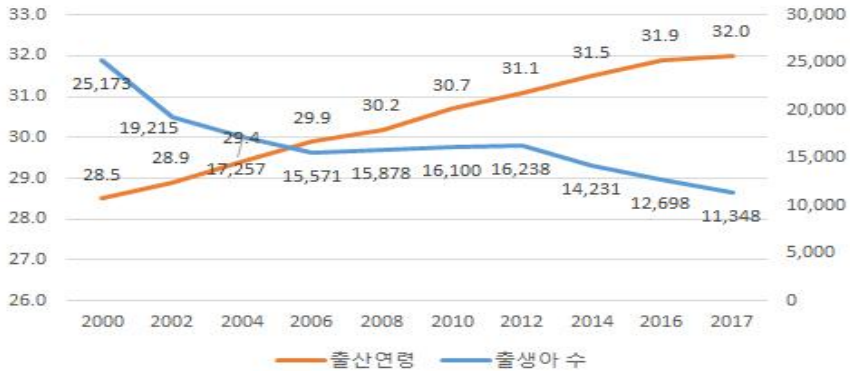
〈표3-19〉 전국 성별 초혼연령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여자	전국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28.3	28.7	28.9	29.1	29.4	29.6	29.8	30.0	30.1	30.2	30.4	
	서울	27.3	27.5	27.8	28.0	28.3	28.6	28.8	29.0	29.3	29.6	29.8	30.0	30.2	30.4	30.7	30.8	31.0	31.2	31.3	
	부산	26.7	27.0	27.3	27.6	27.9	28.1	28.4	28.6	28.9	29.2	29.5	29.7	30.0	30.1	30.4	30.5	30.6	30.7	30.9	
	대구	26.5	26.8	27.1	27.3	27.7	27.9	28.1	28.4	28.7	29.0	29.3	29.6	29.7	29.9	30.0	30.2	30.3	30.4	30.5	
	인천	26.4	26.6	26.9	27.1	27.3	27.7	27.8	28.0	28.4	28.7	29.0	29.2	29.5	29.5	29.6	29.9	30.1	30.2	30.4	
	광주	26.2	26.5	26.7	27.0	27.4	27.6	27.9	28.1	28.4	28.7	29.0	29.2	29.6	29.7	29.9	30.1	30.1	30.3	30.4	
	대전	26.3	26.7	26.9	27.2	27.5	27.7	27.9	28.1	28.4	28.8	29.0	29.2	29.5	29.5	29.7	29.8	30.0	30.0	30.3	
	울산	26.2	26.5	26.6	26.9	27.1	27.5	27.6	27.9	28.3	28.6	28.9	29.2	29.4	29.5	29.6	29.7	29.7	29.9	30.1	
	세종	-	-	-	-	-	-	-	-	-	-	-	-	28.9	29.5	29.8	30.3	30.0	30.3	30.4	
	경기	26.5	26.8	27.0	27.3	27.6	27.8	28.0	28.3	28.6	28.9	29.3	29.4	29.6	29.7	29.9	30.0	30.2	30.3	30.5	
	강원	26.0	26.3	26.5	26.9	27.1	27.4	27.6	27.9	28.3	28.6	28.9	28.9	29.2	29.3	29.4	29.6	29.8	29.9	30.2	
	충북	25.7	26.0	26.3	26.5	26.8	27.1	27.4	27.6	27.9	28.2	28.5	28.7	28.8	29.0	29.1	29.5	29.6	29.7	29.7	
	충남	25.4	25.7	26.0	26.3	26.5	26.8	27.1	27.3	27.6	28.1	28.2	28.4	28.7	28.8	29.0	29.2	29.3	29.6	29.7	
	전북	25.7	26.0	26.3	26.5	26.9	27.2	27.3	27.7	27.9	28.3	28.5	28.7	28.9	29.2	29.4	29.4	29.7	29.7	30.0	
	전남	25.4	25.7	25.9	26.3	26.4	26.9	27.2	27.4	27.7	28.1	28.3	28.6	28.8	29.0	29.2	29.3	29.5	29.8	30.0	
	경북	25.9	26.2	26.4	26.8	27.0	27.3	27.4	27.7	28.0	28.4	28.6	28.8	29.1	29.2	29.5	29.5	29.8	29.8	30.1	
	경남	26.0	26.4	26.6	26.8	27.1	27.4	27.6	27.9	28.2	28.6	28.8	29.0	29.3	29.4	29.6	29.8	29.9	30.0	30.2	
	제주	26.7	27.0	27.1	27.5	27.7	28.0	28.3	28.3	28.7	29.2	29.2	29.4	29.6	30.0	29.8	30.1	30.4	30.5	30.8	
	남자	전국	29.3	29.6	29.8	30.1	30.5	30.9	31.0	31.1	31.4	31.6	31.8	31.9	32.1	32.2	32.4	32.6	32.8	32.9	33.2
		서울	29.7	29.9	30.1	30.5	30.9	31.2	31.3	31.5	31.7	32.0	32.2	32.3	32.4	32.6	32.8	33.0	33.2	33.4	33.5
부산		29.4	29.7	30.0	30.4	30.6	30.9	31.1	31.2	31.5	31.7	31.9	32.1	32.3	32.3	32.7	32.9	33.0	33.2	33.3	
대구		29.1	29.4	29.7	29.9	30.3	30.7	30.9	30.9	31.2	31.4	31.8	31.8	32.1	32.1	32.3	32.5	32.7	32.8	33.1	
인천		29.2	29.4	29.6	30.0	30.4	30.7	30.7	30.9	31.2	31.4	31.7	31.8	32.0	32.1	32.3	32.5	32.7	32.8	33.0	
광주		29.0	29.2	29.5	29.8	30.3	30.5	30.8	30.8	31.2	31.4	31.7	31.7	32.1	32.2	32.5	32.8	32.9	33.1	33.3	
대전		28.9	29.3	29.5	29.8	30.2	30.5	30.7	30.8	31.1	31.3	31.6	31.6	31.8	31.9	32.1	32.3	32.5	32.4	32.7	
울산		29.1	29.4	29.6	29.8	30.1	30.4	30.6	30.7	30.9	31.1	31.4	31.5	31.7	31.8	32.0	32.0	32.4	32.4	32.8	
세종		-	-	-	-	-	-	-	-	-	-	-	-	32.2	32.1	32.9	32.5	32.7	32.9	32.8	
경기		29.3	29.6	29.8	30.1	30.5	30.8	30.8	31.0	31.3	31.6	31.8	31.9	32.1	32.2	32.4	32.6	32.8	32.9	33.1	
강원		29.1	29.4	29.7	30.0	30.3	30.7	30.8	31.0	31.2	31.6	31.9	31.9	31.9	31.9	32.2	32.2	32.4	32.7	32.9	
충북		28.7	28.8	29.2	29.5	29.9	30.3	30.4	30.6	30.9	31.2	31.5	31.4	31.6	31.7	31.9	32.2	32.4	32.3	32.6	
충남		28.6	28.9	29.2	29.6	29.9	30.2	30.4	30.6	30.9	31.2	31.3	31.5	31.6	31.8	32.0	32.1	32.3	32.6	32.9	
전북		28.8	29.1	29.4	29.8	30.4	30.8	31.0	31.0	31.4	31.5	31.8	31.7	32.1	32.3	32.3	32.6	32.8	32.8	33.4	
전남		29.0	29.1	29.4	29.9	30.2	30.8	31.2	31.1	31.4	31.7	31.9	32.0	32.2	32.2	32.3	32.6	32.9	33.1	33.4	
경북		28.8	29.1	29.4	29.7	30.1	30.5	30.7	30.8	31.0	31.2	31.5	31.5	31.8	31.8	32.0	32.3	32.6	32.8	32.9	
경남	29.0	29.2	29.5	29.7	30.1	30.5	30.9	30.9	31.0	31.3	31.5	31.6	31.9	31.9	32.2	32.3	32.5	32.8	32.9		
제주	29.1	29.5	29.6	30.1	30.4	30.6	30.9	31.1	31.5	31.8	32.0	32.0	32.4	32.5	32.4	32.8	33.2	33.4	33.7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향조사

- 전라북도의 초혼연령 증가는 고연령 출산모의 증가를 전인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2000년 28.5세에서 2017년 32.0세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출산연령은 크게 증가한 반면, 출생아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둘 간에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1〉 전라북도 출산연령 및 출생아 수 추이



〈표3-20〉 시도별 평균 출산연령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연평균 증감율
전국	29.0	29.5	30.0	30.4	30.8	31.3	31.6	32.0	32.4	32.6	0.7
서울	29.5	30.0	30.5	31.1	31.5	31.9	32.3	32.7	33.1	33.3	0.7
부산	29.2	29.7	30.2	30.7	31.0	31.5	31.9	32.3	32.7	32.9	0.7
대구	29.1	29.6	30.0	30.5	30.8	31.4	31.8	32.2	32.6	32.6	0.7
인천	29.0	29.4	29.9	30.4	30.8	31.2	31.6	32.0	32.2	32.5	0.7
광주	28.9	29.3	29.7	30.2	30.6	31.1	31.5	31.9	32.3	32.4	0.7
대전	29.0	29.5	29.9	30.4	30.7	31.2	31.6	31.9	32.3	32.4	0.7
울산	29.0	29.5	29.9	30.1	30.5	31.0	31.4	31.8	32.2	32.3	0.6
세종	-	-	-	-	-	-	31.2	32.0	32.6	32.8	1.0
경기	29.2	29.6	30.1	30.5	30.9	31.4	31.8	32.2	32.5	32.7	0.7
강원	28.7	29.2	29.7	30.1	30.4	30.9	31.2	31.5	31.8	31.9	0.6
충북	28.6	29.0	29.4	29.9	30.1	30.7	31.0	31.4	31.7	32.0	0.7
충남	28.4	28.8	29.3	29.6	30.0	30.4	30.8	31.3	31.6	31.8	0.7
전북	28.5	28.9	29.4	29.9	30.2	30.7	31.1	31.5	31.9	32.0	0.7
전남	28.5	28.9	29.4	29.8	30.1	30.5	30.9	31.3	31.8	31.9	0.7
경북	28.7	29.1	29.6	29.9	30.2	30.6	31.0	31.5	31.9	32.1	0.7
경남	28.8	29.3	29.7	30.0	30.3	30.9	31.3	31.8	32.1	32.3	0.7
제주	29.5	30.0	30.4	30.8	31.2	31.4	31.7	32.0	32.4	32.6	0.6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향조사

- 2018년 기준 전라북도의 평균 출산연령은 32.0세로 이는 전국 평균 32.6세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31.8세), 강원(31.9세), 전남(31.9세)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임

〈표3-21〉 시도별 출생 수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연평균 증감율
전국	640,089	496,911	476,958	451,759	465,892	470,171	484,550	435,435	406,243	357,771	-3.4
서울	133,154	102,008	99,828	93,922	94,736	93,266	93,914	83,711	75,536	65,389	-4.1
부산	41,222	30,767	28,231	25,881	26,670	27,415	28,673	26,190	24,906	21,480	-3.8
대구	32,477	24,260	23,259	20,360	20,562	20,557	21,472	19,361	18,298	15,946	-4.1
인천	34,433	26,775	25,092	23,711	25,365	25,752	27,781	25,786	23,609	20,445	-3.0
광주	21,148	16,036	14,729	13,679	13,890	13,979	14,392	12,729	11,580	10,120	-4.2
대전	19,570	15,631	15,024	14,489	14,856	14,314	15,279	13,962	12,436	10,851	-3.4
울산	15,816	11,666	11,151	10,740	11,365	11,432	12,160	11,556	10,910	9,381	-3.0
세종	-	-	-	-	-	-	1,054	1,344	3,297	3,504	27.2
경기	141,704	116,854	117,812	115,111	119,397	121,753	124,746	112,169	105,643	94,088	-2.4
강원	19,482	15,314	13,776	12,455	12,373	12,477	12,426	10,662	10,058	8,958	-4.5
충북	19,628	15,329	14,331	13,366	14,064	14,670	15,139	13,366	12,742	11,394	-3.1
충남	24,733	19,059	18,640	18,625	19,749	20,242	20,448	18,200	17,302	15,670	-2.6
전북	25,173	19,215	17,257	15,571	15,878	16,100	16,238	14,231	12,698	11,348	-4.6
전남	26,046	19,242	17,256	15,905	16,363	16,654	16,990	14,817	13,980	12,354	-4.3
경북	35,190	26,022	23,553	22,567	23,538	23,700	24,635	22,062	20,616	17,957	-3.9
경남	41,680	32,203	30,922	29,524	31,493	32,203	33,211	29,763	27,138	23,849	-3.2
제주	8,633	6,530	6,097	5,853	5,593	5,657	5,992	5,526	5,494	5,037	-3.1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향조사

〈표3-22〉 전라북도 출산모 연령주기 변화

구분	모의 평균 출산 연령(세)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명)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0년	28.5	1.595	25,173	381	4,070	12,831	6,180	1,412	205	16
2001년	28.7	1.426	22,192	290	3,418	10,897	5,843	1,356	245	16
2002년	28.9	1.275	19,215	252	2,970	9,005	5,491	1,210	207	16
2003년	29.1	1.274	18,437	243	2,569	8,457	5,674	1,204	214	16
2004년	29.4	1.239	17,257	219	2,155	7,455	5,875	1,264	206	16
2005년	29.7	1.184	15,745	200	1,694	6,569	5,628	1,340	228	19
2006년	29.9	1.213	15,571	214	1,588	6,284	5,727	1,471	224	23
2007년	30.0	1.380	17,228	218	1,688	6,823	6,381	1,834	232	16
2008년	30.2	1.305	15,878	145	1,514	6,187	6,032	1,717	238	12
2009년	30.4	1.279	15,233	144	1,404	5,602	6,014	1,762	260	22
2010년	30.7	1.374	16,100	175	1,330	5,547	6,504	2,196	292	15
2011년	30.9	1.405	16,175	179	1,315	5,215	6,799	2,279	348	21
2012년	31.1	1.440	16,238	165	1,250	4,827	7,156	2,422	398	12
2013년	31.4	1.320	14,555	144	1,089	3,792	6,751	2,352	401	20
2014년	31.5	1.329	14,231	153	1,042	3,629	6,554	2,448	373	17
2015년	31.7	1.352	14,087	113	1,002	3,452	6,383	2,717	401	11
2016년	31.9	1.251	12,698	90	926	2,929	5,748	2,592	391	18
2017년	32.0	1.151	11,348	74	770	2,720	4,758	2,625	380	16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향조사

- 2008년 까지는 모의 출산연령이 25-29세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30-34세 연령대의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출산연령의 증가에 따른 출생아 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남

4) 다문화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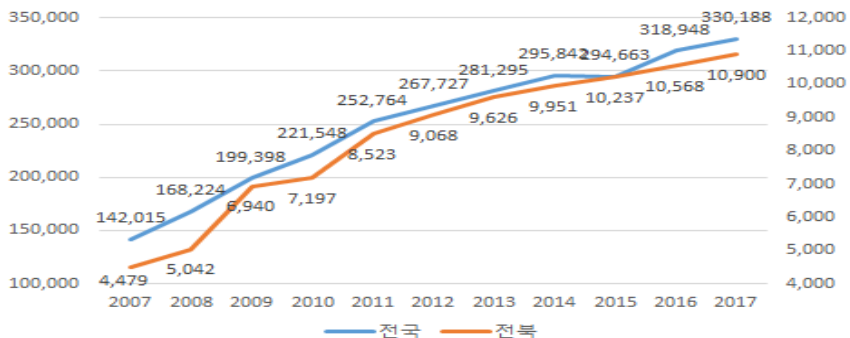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다문화 인구는 2017년 기준 10.9천 명이며 이중 결혼 이민자가 5.8천 명, 국적취득자는 5.0천 명이며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11.2천 명임

〈표3-23〉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연도	계(자녀 제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다문화가족 자녀 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30,188	65,507	264,681	160,653	30,745	129,908	169,535	34,762	134,773	222,455	113,686	108,769
서울	73,753	22,490	51,263	32,061	9,768	22,293	41,692	12,722	28,970	31,052	15,598	15,454
부산	12,337	1,753	10,584	6,841	1,096	5,745	5,496	657	4,839	10,181	5,227	4,954
대구	8,815	1,178	7,637	4,943	759	4,184	3,872	419	3,453	7,501	3,721	3,780
인천	22,626	5,306	17,320	10,143	2,268	7,875	12,483	3,038	9,445	13,609	6,958	6,651
광주	6,284	655	5,629	3,372	416	2,956	2,912	239	2,673	5,597	2,963	2,634
대전	6,106	805	5,301	3,346	465	2,881	2,760	340	2,420	5,255	2,672	2,583
울산	6,296	901	5,395	3,346	480	2,866	2,950	421	2,529	4,962	2,554	2,408
세종	1,225	191	1,034	691	122	569	534	69	465	973	500	473
경기	100,529	23,366	77,163	47,161	10,416	36,745	53,368	12,950	40,418	56,584	28,961	27,623
강원	6,989	565	6,424	3,538	301	3,237	3,451	264	3,187	6,824	3,527	3,297
충북	9,882	1,203	8,679	5,005	615	4,390	4,877	588	4,289	8,381	4,246	4,135
충남	15,636	1,919	13,717	8,162	916	7,246	7,474	1,003	6,471	13,021	6,640	6,381
전북	10,900	735	10,165	5,817	433	5,384	5,083	302	4,781	11,256	5,852	5,404
전남	11,906	577	11,329	6,514	304	6,210	5,392	273	5,119	13,167	6,757	6,410
경북	13,990	1,217	12,773	7,507	746	6,761	6,483	471	6,012	13,721	7,029	6,692
경남	18,725	1,985	16,740	9,738	1,288	8,450	8,987	697	8,290	16,720	8,565	8,155
제주	4,189	661	3,528	2,468	352	2,116	1,721	309	1,412	3,651	1,916	1,735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7

〈그림 3-12〉 전국-전북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변화추이



○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2017년 기준 10.9천 명으로 2007년 대비 약 6.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전국 평균 8.8%보다 높은 수준임

〈표3-24〉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시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8.8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68,093	73,914	73,753	4.9
부산	6,556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11,380	11,853	12,337	6.5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7,743	8,403	8,815	8.3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18,552	20,988	22,626	10.9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5,603	6,001	6,284	9.4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5,610	5,899	6,106	8.8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5,759	6,217	6,296	11.2
세종	-	-	-	-	-	-	653	650	894	1,053	1,225	17.0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86,327	95,848	100,529	11.0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6,571	6,768	6,989	7.6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9,126	9,433	9,882	9.8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35	14,863	15,636	11.3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37	10,568	10,900	9.3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11,502	11,749	11,906	8.8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12,986	13,640	13,990	9.7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16,799	17,929	18,725	11.5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3,446	3,822	4,189	15.8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7

○ 전라북도의 외국인 주민 자녀의 현황은 2017년 기준 11.2천 명이며, 2007년 3.2천 명 대비 7.9천 명이 증가하였음(연평균 증가율 13.1%)

〈표3-25〉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7	11,256	5,802	4,252	754	448
2016	9,751	5,706	2,609	838	598
2015	9,744	5,606	3,155	662	321
2014	10,316	6,163	2,473	986	694
2013	9,989	6,244	2,255	941	549
2012	8,766	5,533	2,064	768	401
2011	7,755	4,948	1,911	583	313
2010	5,849	3,898	1,366	330	255
2009	5,474	3,369	1,476	357	272
2008	4,283	2,634	1,344	200	105
2007	3,275	2,090	1,007	125	53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7

〈표3-26〉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시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201,333	222,455	17.5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30,447	30,761	31,052	19.3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9,022	9,157	8,852	10,181	16.2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6,305	6,423	6,388	7,501	14.0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11,964	11,845	12,440	13,609	19.4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4,997	5,090	4,881	5,597	16.4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561	4,594	5,255	20.4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4,437	4,376	4,400	4,962	18.8
세종	-	-	-	-	-	-	563	660	729	829	973	14.7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50,313	52,446	56,584	23.9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6,917	6,042	6,046	6,824	11.2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7,718	7,089	7,424	8,381	13.9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10,908	11,574	13,021	14.3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10,316	9,744	9,751	11,256	13.1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11,524	11,590	13,167	12.2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12,578	11,775	11,755	13,721	15.4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14,476	14,388	16,720	16.6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2,600	3,051	3,214	3,651	24.9

자료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7

-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선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3〉 전국-전북 다문화가족 자녀 수 추이



5) 귀농귀촌가구변화 추이

가) 귀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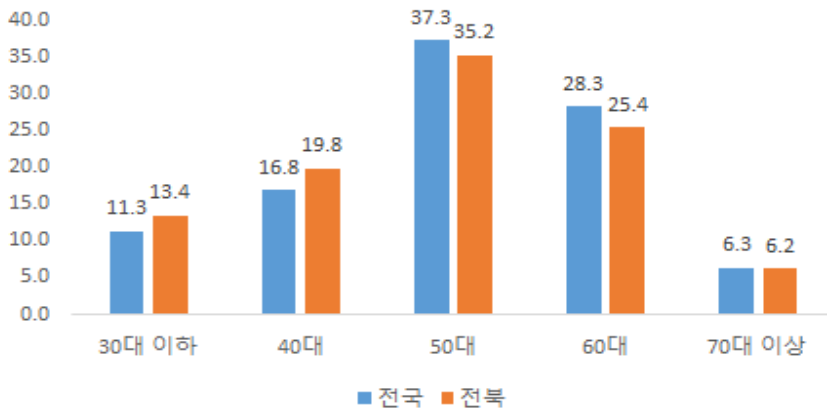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귀농가구는 2018년 기준 1,325 가구로 2013년 1,131가구에 비해 194가구가 증가하였고 이 기간 동안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임
 - 2018년 전북의 귀농가구는 1,325가구로 전국 귀농가구의 11.1%를 차지하고 있음
 - 귀농가구의 비중이 많은 지역은 경북(18.2%), 전남(16.9%), 경남(12.6%), 전북(11.1%), 충남(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3-27〉 시도별 귀농 가구 현황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전국	10,202	100.0	10,758	100.0	11,959	100.0	12,875	100.0	12,630	100.0	11,961	100.0	3.2
부산	22	0.2	30	0.3	31	0.3	27	0.2	33	0.3	25	0.2	2.6
대구	56	0.5	70	0.7	72	0.6	92	0.7	89	0.7	59	0.5	1.0
인천	81	0.8	88	0.8	103	0.9	122	0.9	138	1.1	134	1.1	10.6
울산	69	0.7	82	0.8	84	0.7	87	0.7	90	0.7	83	0.7	3.8
세종	73	0.7	68	0.6	64	0.5	84	0.7	71	0.6	85	0.7	3.1
경기	876	8.6	890	8.3	1,061	8.9	1,283	10.0	1,171	9.3	978	8.2	2.2
강원	836	8.2	792	7.4	986	8.2	1,058	8.2	1,074	8.5	1,048	8.8	4.6
충북	824	8.1	887	8.2	928	7.8	1,052	8.2	944	7.5	915	7.6	2.1
충남	1,108	10.9	1,202	11.2	1,374	11.5	1,423	11.1	1,384	11.0	1,317	11.0	3.5
전북	1,131	11.1	1,152	10.7	1,164	9.7	1,263	9.8	1,361	10.8	1,325	11.1	3.2
전남	1,675	16.4	1,758	16.3	1,869	15.6	1,923	14.9	1,925	15.2	2,026	16.9	3.9
경북	1,931	18.9	2,112	19.6	2,221	18.6	2,323	18.0	2,316	18.3	2,176	18.2	2.4
경남	1,270	12.4	1,337	12.4	1,612	13.5	1,631	12.7	1,668	13.2	1,510	12.6	3.5
제주	250	2.5	290	2.7	390	3.3	507	3.9	366	2.9	280	2.3	2.3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그림 3-14〉 전국-전북 귀농가구주 연령별 구성 현황



○ 전라북도의 귀농 가구는 2018년 1,325가구이며 가구주의 연령구성을 보면 50대가 35.2%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5.4%로 그 뒤를 이어 많았음

- 전국 평균과 비교 했을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40대 이하인 경우는 전북이 전국 구성비보다 높았으나 50대 이상 고령가구주의 구성비는 전국보다 적었음

〈표3-28〉 2018년 귀농가구주 연령별 현황

시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11,961	8,241	3,720	1,366	1,020	336	2,015	1,350	665	4,456	2,865	1,591	3,382	2,500	882	752	506	246
부산	25	13	12	X	X	X	6	4	X	7	4	X	6	X	X	X	0	X
대구	59	42	17	10	10	0	11	8	X	21	14	7	13	8	5	4	X	X
인천	134	85	49	6	5	X	19	14	5	56	30	26	44	31	13	9	5	4
울산	83	59	24	12	10	X	8	6	X	35	24	11	22	15	7	6	4	X
세종	85	58	27	10	8	X	13	9	4	30	21	9	26	16	10	6	4	X
경기	978	642	336	144	114	30	151	100	51	355	216	139	263	172	91	65	40	25
강원	1,048	705	343	95	65	30	155	95	60	445	281	164	294	218	76	59	46	13
충북	915	654	261	64	46	18	128	86	42	387	258	129	281	221	60	55	43	12
충남	1,317	891	426	155	118	37	195	129	66	474	288	186	401	287	114	92	69	23
전북	1,325	899	426	178	126	52	262	172	90	466	304	162	337	250	87	82	47	35
전남	2,026	1,407	619	249	185	64	387	276	111	733	484	249	545	395	150	112	67	45
경북	2,176	1,563	613	241	190	51	345	233	112	819	546	273	634	496	138	137	98	39
경남	1,510	1,041	469	147	107	40	253	172	81	536	334	202	459	352	107	115	76	39
제주	280	182	98	42	34	8	82	46	36	92	61	31	57	36	21	7	5	X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표3-29〉 귀농가구구성 현황

시도	2017					2018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전국	12,630	8,240	2,792	878	720	11,961	8,244	2,354	758	605
부산	33	17	9	4	3	25	17	6	X	X
대구	89	39	13	17	20	59	36	7	7	9
인천	138	101	30	4	3	134	90	30	8	6
울산	90	59	16	11	4	83	58	15	4	6
세종	71	55	10	1	5	85	65	11	6	X
경기	1,171	748	243	95	85	978	661	177	68	72
강원	1,074	712	237	73	52	1,048	735	207	56	50
충북	944	601	227	70	46	915	626	199	53	37
충남	1,384	916	306	90	72	1,317	924	255	81	57
전북	1,361	881	308	84	88	1,325	884	253	94	94
전남	1,925	1,316	383	119	107	2,026	1,442	373	110	101
경북	2,316	1,564	491	146	115	2,176	1,489	468	125	94
경남	1,668	991	443	137	97	1,510	1,022	312	111	65
제주	366	240	76	27	23	280	195	41	34	10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 전라북도 귀농가구의 가구구성은 2018년 기준 1인 가구가 884가구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253가구, 3인 가구와 4인 가구 이상 94가구 순으로 많았음

〈표3-30〉 전라북도 시군별 귀농 가구 현황

시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감률
전북	1,131	1,152	1,164	1,263	1,361	1,325	3.2
군산	36	35	35	46	44	44	4.1
익산	63	62	59	88	106	92	7.9
정읍	110	105	114	114	129	131	3.6
남원	124	112	97	101	118	116	-1.3
김제	69	74	80	88	109	112	10.2
완주	106	109	136	141	133	118	2.2
진안	89	87	99	106	123	100	2.4
무주	59	88	78	77	80	73	4.4
장수	97	93	85	76	66	67	-7.1
임실	72	55	67	75	93	78	1.6
순창	60	101	89	85	91	98	10.3
고창	185	176	150	163	143	189	0.4
부안	61	55	75	103	126	107	11.9

자료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전라북도의 귀농가구는 2017년 대비 2018년 귀농가구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고창군의 경우 전년대비 46가구가 증가하였고 1인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임

〈표3-31〉 귀농가구구성 현황

시도	2017					2018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전북	1,361	881	308	84	88	1,325	884	253	94	94
군산	44	30	3	3	8	44	34	X	5	X
익산	106	64	24	12	6	92	62	13	10	7
정읍	129	92	24	7	6	131	89	28	5	9
남원	118	74	29	9	6	116	73	23	8	12
김제	109	80	24	2	3	112	86	14	7	5
완주	133	76	33	10	14	118	64	24	17	13
진안	123	85	22	10	6	100	73	22	X	X
무주	80	56	15	4	5	73	51	13	4	5
장수	66	47	12	2	5	67	53	12	0	X
임실	93	61	25	5	2	78	56	18	X	X
순창	91	48	32	5	6	98	49	29	10	10
고창	143	88	29	11	15	189	118	37	14	20
부안	126	80	36	4	6	107	76	17	10	4

자료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전라북도에 귀농하기전 거주지역으로는 전북(44.1%)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17.4%), 경기(15.3%)등의 지역에서 이주한 귀농가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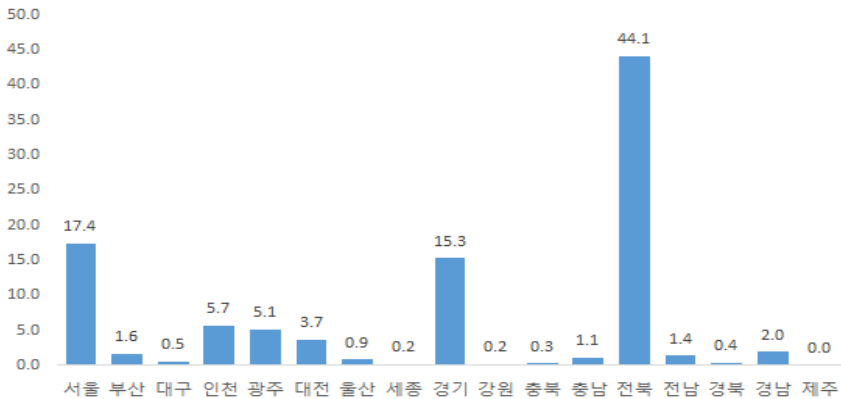
- 귀농가구원 이동 현황은 시도간 이동이 1,163명, 시도내 이동이 917명 이었으며 시
도내 이동의 경우 시군간 이동 674명, 도농통합시내이동 243명 이었음

〈표3-32〉 귀농전 거주지역 현황

구분	이동 전																		
이동 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7,866	2,843	1,126	1,384	1,006	1,230	652	475	78	3,574	495	418	437	1,045	622	999	1,252	220	
부산	36	X	19	0	0	0	0	X	0	X	0	0	0	0	0	X	13	0	
대구	113	X	X	100	0	0	X	X	0	X	0	0	0	0	0	4	X	0	
인천	201	74	0	0	78	0	X	X	0	43	0	0	X	0	0	0	0	0	
울산	127	4	24	4	X	0	X	79	0	5	X	0	0	0	0	X	X	0	
세종	120	25	X	0	X	0	29	0	22	17	0	5	15	0	X	X	0	0	
경기	1,534	528	12	8	88	8	7	X	0	830	12	9	5	X	X	10	X	8	
강원	1,536	405	7	16	127	X	6	14	X	461	426	18	7	X	X	4	36	0	
충북	1,341	218	19	22	116	0	149	14	13	364	9	347	28	4	4	16	15	X	
충남	1,921	373	34	9	220	4	303	10	20	533	11	11	315	39	4	21	14	0	
전북	2,080	361	34	11	119	106	77	18	5	318	5	7	23	917	29	9	41	0	
비중	100.0	17.4	1.6	0.5	5.7	5.1	3.7	0.9	0.2	15.3	0.2	0.3	1.1	44.1	1.4	0.4	2.0	0.0	
전남	2,963	366	86	19	135	1,091	40	26	X	453	8	4	18	51	565	21	57	22	
경북	3,205	288	218	1,008	80	X	22	201	10	342	15	11	11	7	0	872	115	4	
경남	2,257	129	655	168	32	4	12	96	X	128	8	X	9	15	12	34	946	4	
제주	422	69	14	19	7	14	X	9	X	77	0	X	4	6	4	X	10	179	

자료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귀농가구원수(귀농인수+동반가구원수)

〈그림 3-15〉 전북으로 귀농전 거주지역 현황



〈표3-33〉 귀농가구원 이동유형 현황 2018년도

구분	계	시도간 이동	시도내 이동		
			계	사군간 이동	도농통합시내이동
전국	17,856	12,161	5,695	3,558	2,137
부산	36	17	19	19	0
대구	113	13	100	100	0
인천	201	123	78	78	0
울산	127	48	79	79	0
세종	120	98	22	0	22
경기	1,534	704	830	613	217
강원	1,536	1,110	426	197	229
충북	1,341	994	347	154	193
충남	1,921	1,606	315	116	199
전북	2,080	1,163	917	674	243
전남	2,963	2,398	565	381	184
경북	3,205	2,333	872	428	444
경남	2,257	1,311	946	658	288
제주	422	243	179	61	118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귀농가구원수(귀농인수+동반가구원수)

나) 귀촌현황

- 전라북도의 귀촌가구는 2018년 기준 14,600 가구로 2013년 14,413 가구에 비해 187가구가 증가하였고 이 기간 동안 연평균 0.3%의 낮은 증가율을 보임
 - 2018년 전북의 귀촌가구는 전국 귀촌가구의 4.4%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귀촌가구의 비중이 많은 지역은 경기(26.4%), 경남(12.1%), 경북(11.7%)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2013년에서 2018년 까지의 귀촌가구의 증감추이를 보면 부산(4.0% 감소율)과 전남(0.3% 감소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귀촌가구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15.0% 증가율)이며 이어서 대구(14.7% 증가율), 충북(6.4% 증가율) 등의 순으로 귀촌가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귀촌 가구주의 연령구성을 보면 60대가 23.9%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2.1%로 그 뒤를 이어 많았음

〈표3-34〉 시도별 귀촌 가구 현황

시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전국	280,838	100.0	299,357	100.0	317,409	100.0	322,508	100.0	334,129	100.0	328,343	100.0	3.2
부산	7,731	2.8	8,598	2.9	7,289	2.3	6,807	2.1	6,338	1.9	6,299	1.9	-4.0
대구	5,154	1.8	5,055	1.7	7,428	2.3	12,076	3.7	14,033	4.2	10,253	3.1	14.7
인천	3,383	1.2	3,252	1.1	3,553	1.1	3,422	1.1	3,639	1.1	3,583	1.1	1.2
울산	6,285	2.2	7,390	2.5	8,451	2.7	6,399	2.0	6,484	1.9	6,892	2.1	1.9
세종	3,607	1.3	3,798	1.3	4,147	1.3	4,229	1.3	4,144	1.2	3,674	1.1	0.4
경기	72,423	25.8	73,602	24.6	81,465	25.7	85,441	26.5	89,551	26.8	86,552	26.4	3.6
강원	18,969	6.8	19,862	6.6	24,323	7.7	20,669	6.4	20,942	6.3	21,919	6.7	2.9
충북	17,695	6.3	18,731	6.3	20,854	6.6	21,415	6.6	22,783	6.8	24,168	7.4	6.4
충남	32,636	11.6	33,367	11.1	34,445	10.9	35,564	11.0	34,724	10.4	34,157	10.4	0.9
전북	14,413	5.1	16,494	5.5	16,183	5.1	15,672	4.9	15,127	4.5	14,600	4.4	0.3
전남	29,028	10.3	31,385	10.5	29,220	9.2	27,430	8.5	28,173	8.4	28,562	8.7	-0.3
경북	33,148	11.8	34,888	11.7	35,363	11.1	37,261	11.6	36,812	11.0	38,500	11.7	3.0
경남	31,589	11.2	37,338	12.5	37,541	11.8	37,732	11.7	41,906	12.5	39,594	12.1	4.6
제주	4,777	1.7	5,597	1.9	7,147	2.3	8,391	2.6	9,473	2.8	9,590	2.9	15.0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표3-35〉 2018년 귀촌가구주 연령별 현황

시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38,340	20,703	16,640	62,114	31,175	25,999	81,622	53,609	28,003	61,082	40,116	20,961	61,535	38,229	23,255	38,818	23,982	14,836
부산	6,229	3,661	2,668	1,052	511	541	1,852	1,166	686	1,213	789	424	922	560	362	727	400	327
대구	10,253	6,279	3,974	1,745	959	786	3,609	2,339	1,270	1,830	1,184	646	1,620	971	649	911	510	401
인천	3,583	2,233	1,350	774	545	229	583	366	217	541	322	169	753	437	316	559	339	220
울산	6,892	4,419	2,473	1,183	712	471	1,949	1,315	634	1,333	884	449	1,334	880	454	737	454	283
세종	3,674	2,244	1,430	981	523	458	881	555	326	667	464	203	643	407	236	361	219	142
경기	86,552	55,163	31,389	16,655	10,201	6,454	21,732	14,809	6,923	16,336	11,075	5,261	15,663	9,944	5,719	9,776	6,216	3,560
강원	21,919	13,411	8,508	4,754	2,979	1,775	4,752	3,060	1,692	3,652	2,319	1,333	4,248	2,546	1,702	2,988	1,855	1,108
충북	24,168	15,017	9,151	5,340	3,121	2,219	6,238	4,204	2,034	4,142	2,702	1,440	4,315	2,714	1,601	2,626	1,649	977
충남	34,157	21,339	12,788	6,956	4,210	2,746	8,447	5,759	2,688	6,403	4,284	2,119	6,210	3,889	2,321	3,816	2,283	1,533
전북	14,600	8,245	6,355	2,273	1,174	1,099	2,886	1,664	1,222	2,707	1,699	1,008	3,138	1,938	1,205	2,066	1,289	827
전남	28,562	16,466	12,096	5,229	2,781	2,448	6,331	3,830	2,501	5,289	3,391	1,898	5,851	3,557	2,294	3,588	2,134	1,454
경북	38,500	23,371	15,129	7,099	4,123	2,976	9,178	5,975	3,203	7,039	4,626	2,413	7,558	4,649	2,909	4,930	3,083	1,847
경남	39,594	24,334	15,260	6,669	3,625	3,044	10,618	7,076	3,542	7,331	4,815	2,516	7,488	4,630	2,858	4,789	3,028	1,761
제주	9,590	5,495	4,094	1,404	711	693	2,466	1,431	1,035	2,449	1,442	1,007	1,832	1,102	730	984	513	361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 전라북도 귀촌가구의 가구구성은 2018년 기준 1인 가구가 11,563 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인 가구(2,053가구), 3인 가구(690가구), 4인 가구(294가구) 등의 순으로 이루어짐

〈표3-36〉 귀촌가구구성 현황

시도	2017					2018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전국	334,129	232,137	59,943	28,922	13,127	328,343	236,068	56,647	25,214	10,414
부산	6,338	4,170	1,305	602	261	6,299	4,174	1,293	615	217
대구	14,033	6,940	3,657	2,362	1,074	10,253	6,248	2,239	1,269	497
인천	3,639	2,787	567	194	91	3,583	2,832	524	160	67
울산	6,484	4,454	1,191	603	236	6,892	4,732	1,342	588	230
세종	4,144	3,312	569	195	68	3,674	2,985	461	173	55
경기	89,551	58,561	17,452	9,218	4,320	86,552	59,241	16,166	7,735	3,410
강원	20,942	16,223	3,094	1,138	487	21,919	16,434	3,492	1,451	542
충북	22,783	16,256	3,936	1,836	755	24,168	17,612	4,002	1,800	754
충남	34,724	25,528	5,656	2,458	1,082	34,157	25,558	5,439	2,286	874
전북	15,127	11,805	2,166	780	376	14,600	11,563	2,053	690	294
전남	28,173	21,777	4,118	1,581	697	28,562	22,496	4,024	1,479	563
경북	36,812	26,803	6,003	2,752	1,254	38,500	28,409	6,268	2,722	1,101
경남	41,906	26,648	8,620	4,530	2,108	39,594	26,787	7,658	3,604	1,545
제주	9,473	6,873	1,609	673	318	9,590	6,997	1,686	642	265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표3-37〉 전라북도 시군별 귀촌 가구 현황

시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전북	14,413	16,494	16,183	15,672	15,127	14,600	0.3
군산	1,183	1,154	1,250	1,304	1,089	1,231	0.8
익산	1,864	1,599	1,657	1,606	1,718	1,610	-2.9
정읍	1,060	1,174	1,051	1,101	1,035	939	-2.4
남원	827	894	843	796	798	856	0.7
김제	1,162	1,267	1,208	1,086	1,142	1,154	-0.1
완주	2,798	4,186	4,459	3,699	3,331	3,055	1.8
진안	709	770	686	710	830	798	2.4
무주	538	604	565	516	544	594	2.0
장수	515	569	530	532	574	498	-0.7
임실	664	892	809	814	891	839	4.8
순창	763	747	712	712	707	752	-0.3
고창	1,248	1,412	1,221	1,365	1,190	1,174	-1.2
부안	1,082	1,226	1,192	1,431	1,278	1,100	0.3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 전라북도의 귀촌가구는 2017년 대비 2018년 귀촌가구의 수는 감소 하였으나 군산시의 경우 전년대비 142가구가 증가하였고 1인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임

〈표3-38〉 귀촌가구구성 현황

시도	2017					2018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전북	15,127	11,805	2,166	780	376	14,600	11,563	2,053	690	294
군산	1,089	766	198	87	38	1,231	822	241	113	55
익산	1,718	1,284	286	101	47	1,610	1,248	240	87	35
정읍	1,035	840	138	41	16	939	791	106	31	11
남원	798	653	92	35	18	856	681	117	42	16
김제	1,142	900	159	52	31	1,154	947	144	43	20
완주	3,331	2,387	551	259	134	3,055	2,252	504	195	104
진안	830	680	110	31	9	798	675	93	20	10
무주	544	443	79	15	7	594	514	57	17	6
장수	574	509	44	17	4	498	428	52	13	5
임실	891	707	121	37	26	839	693	113	28	5
순창	707	565	110	25	7	752	598	120	26	8
고창	1,190	998	131	41	20	1,174	983	138	43	10
부안	1,278	1,073	147	39	19	1,100	931	128	32	9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 전라북도에 귀촌하기전 거주지역으로는 전북(58.1%)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11.2%), 서울(10.7%) 등의 지역에서 이주한 귀촌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3-39〉 귀촌전 거주지역 현황 2018년도

구분	이동 전																		
이동 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472,474	67,083	32,411	31,350	18,464	16,645	13,805	13,325	2,002	110,331	17,723	18,057	20,008	16,574	15,603	31,512	40,725	6,856	
부산	9,515	310	6,791	147	89	37	49	456	11	326	33	32	30	43	40	161	921	39	
대구	16,592	356	371	13,326	92	52	71	251	18	420	43	45	75	47	28	953	417	27	
인천	4,650	1,004	60	42	1,760	45	44	22	5	1,320	39	18	38	40	22	78	85	28	
울산	10,143	360	1,392	277	57	49	81	6,189	8	384	41	36	49	36	51	297	798	38	
세종	4,653	564	100	83	149	71	1,062	30	685	665	64	373	443	131	45	89	80	19	
경기	132,613	35,188	1,816	1,392	7,002	1,171	1,906	641	216	72,577	1,992	1,200	1,756	1,565	740	1,351	1,632	468	
강원	30,023	5,256	460	437	1,490	262	636	202	42	5,950	13,172	662	299	244	114	347	342	108	
충북	34,287	4,435	584	562	1,449	340	2,768	322	304	5,974	585	13,952	824	545	239	731	562	111	
충남	46,969	6,456	862	693	2,932	551	4,907	365	423	9,526	592	794	15,234	1,333	435	741	966	159	
전북	18,978	2,030	216	144	601	928	623	93	50	2,130	122	126	243	11,034	274	108	193	63	
비중	100.0	10.7	1.1	0.8	3.2	4.9	3.3	0.5	0.3	11.2	0.6	0.7	1.3	58.1	1.4	0.6	1.0	0.3	
전남	37,349	3,266	882	206	902	12,441	385	257	84	3,464	175	142	288	873	12,938	184	648	214	
경북	53,767	2,985	2,350	11,862	797	180	630	3,030	78	3,099	530	336	352	209	172	25,374	1,590	193	
경남	59,524	2,335	15,869	1,842	567	269	459	1,313	44	2,238	206	194	248	289	396	924	32,150	181	
제주	13,411	2,538	658	337	577	249	184	154	34	2,258	129	147	129	185	109	174	341	5,208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귀농가구원수(귀농인수+동반가구원수)

〈표3-40〉 귀촌가구원 이동유형 현황 2018년도

구분	계	시도간 이동	시도내 이동		
			계	시군간 이동	도농통합시내이동
전국	472,474	242,084	230,390	131,037	99,353
부산	9,515	2,724	6,791	6,791	0
대구	16,592	3,266	13,326	13,326	0
인천	4,650	2,890	1,760	1,760	0
울산	10,143	3,954	6,189	6,189	0
세종	4,653	3,968	685	0	685
경기	132,613	60,036	72,577	52,037	20,540
강원	30,023	16,851	13,172	4,578	8,594
충북	34,287	20,335	13,952	3,719	10,233
충남	46,969	31,735	15,234	5,557	9,677
전북	18,978	7,944	11,034	7,724	3,310
전남	37,349	24,411	12,938	6,760	6,178
경북	53,767	28,393	25,374	9,437	15,937
경남	59,524	27,374	32,150	11,926	20,224
제주	13,411	8,203	5,208	1,233	3,975

자료 :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귀농가구원수(귀농인수+동반가구원수)

- 귀촌가구원 이동유형 현황은 시도간 이동이 7,944명, 시도내 이동이 11,034명 이었으며 시도내 이동의 경우 시군간 이동 7,724명, 도농 통합시내이동 3,310명 이었음

4

장

정책수요 분석

Jeonbuk Institute

-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4장 정책수요 분석

1. 조사개요

- 전라북도의 인구유입 활성화 정책의 개발을 위해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집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설문문항을 개발해 집단별 조사를 진행
- 전라북도로의 전입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첫째로 전라북도가 고향이나 현재는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살고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출향민 대상, 둘째로 지역발전과 인구유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층, 전라북도가 고향이나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층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및 은퇴 이후 정착지로서의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음
- 우편조사와 조사원을 활용한 1:1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출향민 265명, 대학생(수도권 대학생 포함) 232명,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 222명 등 총 7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표4-1〉 정책수요 조사 대상자

구분	계	출향민	대학생		공공기관 종사자
			전북소재 대학교 재학생	전북출신 수도권 대학교 재학생	
케이스	710case	265case	200case	32case	222case

2. 조사결과

가. 출향민 인식조사

- 전라북도가 고향인 출향민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성별로는 여성(140명, 52.8%)이 남성(100명, 37.7%)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145명(54.7%)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연평균 소득수준은 5천만원 이상이 62명(23.4%)로 많았고, 현재 직업으로는 고용직군과 자영업 직군이 각각 83명씩(31.3%)으로 많았음
- 한편, 전라북도를 떠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232명(87.5%)으로 매우 많았고 그 외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수도권 외 지역은 11명(4.2%)에 불과함

〈표4-2〉 출향민 대상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0	37.7	연평균 소득	1천만원 미만	38	14.3
	여성	140	52.8		1천-3천만원 미만	18	6.8
	결측	25	9.4		3천-5천만원 미만	32	12.1
	합계	265	100.0		5천만원 이상	62	23.4
연령	50세 미만	7	2.6	직업	결측	115	43.4
	50-59세	88	33.2		합계	265	100.0
	60세 이상	145	54.7		고용직	83	31.3
	결측	25	9.4		자영업	83	31.3
	합계	265	100.0		퇴직	27	10.2
현 거주지	수도권	232	87.5		결측	72	27.2
	수도권 외	11	4.2		합계	265	100.0
	결측	22	8.3				
	합계	265	100.0				

- 출향민이 전라북도에서 전출한 시기로는 전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가 72.3로 많았고, 전출 시 본인만 혼자 이주한 경우가 48.5%, 가족과 함께 동반이주한 경우 32.0%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4-3〉 전라북도 전출시기

구분		전출시기		전출 시 동반 이주			
		1970년대 이전	2000년대 이후	본인만 혼자 이주	부부와 함께 이주	가족과 함께 동반이주	혼자 이주 후 가족 전체
성별	남성	15.7	84.3	50.6	19.3	25.3	4.8
	여성	39.4	60.6	47.2	13.8	36.6	2.4
연령	50세 미만	33.3	66.7	85.7		14.3	
	50-59세	21.6	78.4	48.6	14.9	33.8	2.7
	60세 이상	34.8	65.2	47.2	17.9	30.1	4.9
소득	1천만원 미만	100.0		40.6	28.1	31.3	
	1천-3천만원 미만	38.9	61.1	58.8	11.8	23.5	5.9
	3천-5천만원 미만		100.0	55.6	11.1	22.2	11.1
	5천만원 이상		100.0	62.5	8.9	26.8	1.8
직업	고용직	30.4	69.6	48.7	15.8	31.6	3.9
	자영업	19.2	80.8	48.6	14.3	34.3	2.9
	퇴직	25.0	75.0	58.3	16.7	16.7	8.3
전체		27.7	72.3	48.5	16.0	32.0	3.4

- 전라북도에서 1차로 전출한 지역은 수도권이 86.9%로 가장 많았고, 2차, 3차 전출지 역시 수도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에 이어 1차 전출지는 전북 외 호남권이 6.5%, 2차 전출지는 충청권이 5.3%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으로의 전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4-4〉 전라북도에서 전출한 지역

구분		1차						2차				3차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호남권 (전북 이외)	제주권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전북 이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전북 이외)	제주권
성별	남성	91.9		1.2	1.2	5.8		93.5	3.2		3.2	95.8		4.2	
	여성	83.2	5.3		3.5	7.1	0.9	86.7	6.7	2.2	4.4	91.2	2.9	5.9	
연령	50세 미만	85.7				14.3		100.0							
	50-59세	87.8	4.1	1.4	2.7	4.1		85.2	7.4		7.4	96.0		4.0	
	60세 이상	89.1	2.5		2.5	5.9		94.3	3.8		1.9	91.7	2.8	5.6	
소득	1천만원 미만	92.9	3.6		3.6			100.0				100.0			
	1천-3천만원 미만	88.2			5.9	5.9		100.0				80.0		20.0	
	3천-5천만원 미만	82.1			3.6	14.3		80.0			20.0	83.3		16.7	
	5천만원 이상	89.5	1.8	1.8		7.0		95.2	4.8			100.0			
직업	고용직	91.3				8.7		88.5	3.8		7.7	95.5		4.5	
	자영업	93.1	1.4	1.4	1.4	2.8		96.2	3.8			95.2		4.8	
	퇴직	80.8	3.8			11.5	3.8	90.0		10.0		100.0			
전체		86.9	3.0	.5	2.5	6.5	.5	89.5	5.3	1.3	3.9	93.1	1.7	5.2	

- 전라북도에서 전출을 한 사유로는 전체적으로 직장과 관련한 이유가 4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의 문제 16.7%, 가족 및 친지의 권유 15.7%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4-5〉 전라북도에서 전출한 사유

구분		직장때문 (경제적 사유)	교육때문	가족/친지 권유	쾌적한 자연환경	편리한 편의시설	경제적 투자	기타
성별	남성	53.0	19.3	7.2	1.2	1.2	8.4	9.6
	여성	40.0	14.8	21.7	3.5	2.6	3.5	13.9
연령	50세 미만	57.1	14.3	28.6				
	50-59세	50.7	13.3	14.7	4.0	2.7	2.7	12.0
	60세 이상	44.2	18.6	13.3	1.8	1.8	8.0	12.4
소득	1천만원 미만	54.5	9.1	18.2			6.1	12.1
	1천-3천만원 미만	60.0	13.3	20.0				6.7
	3천-5천만원 미만	59.3	25.9	3.7				11.1
	5천만원 이상	50.0	23.2	10.7	1.8		5.4	8.9
직업	고용직	45.2	15.1	12.3	2.7	1.4	4.1	19.2
	자영업	52.8	12.5	11.1	2.8	2.8	9.7	8.3
	퇴직	41.7	20.8	12.5		4.2	8.3	12.5
전체		45.5	16.7	15.7	2.5	2.0	5.6	12.1

-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녀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가 52.5%로 높게 나타났고, 직장 등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51.6%로 높은 수준임

〈표4-6〉 현거주지 만족도 - 1

구분		자녀교육여건				직장 등 근로조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성별	남성	8.0	2.7	40.0	32.0	17.3	8.5	2.8	39.4	35.2
	여성	7.8	2.0	35.3	38.2	16.7	6.8	2.3	37.5	38.6
연령	50세 미만		14.3	28.6	57.1				16.7	66.7
	50-59세	4.3	5.7	37.1	32.9	20.0	4.8	3.2	38.7	30.6
	60세 이상	11.9		40.6	34.7	12.9	9.9	2.2	42.9	37.4
소득	1천만원 미만	3.4		51.7	31.0	13.8	3.8	3.8	53.8	26.9
	1천-3천만원 미만	7.1		28.6	42.9	21.4	6.7		33.3	40.0
	3천-5천만원 미만	8.7		43.5	26.1	21.7	8.7		43.5	34.8
	5천만원 이상	12.0	2.0	20.0	46.0	20.0	12.0	2.0	22.0	46.0
직업	고용직	9.7		38.7	37.1	14.5	10.0	1.7	35.0	35.0
	자영업	4.6	4.6	33.8	36.9	20.0	5.1	1.7	40.7	35.6
	퇴직	13.6	4.5	31.8	31.8	18.2	16.7	5.6	22.2	44.4
전체		7.9	2.3	37.3	35.6	16.9	7.5	2.5	38.4	37.1

- 주거 및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52.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57.8%로 높은 수준임

〈표4-7〉 현거주지 만족도 - 2

구분		주거 및 정주여건				교통 등 기반시설 연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5.7	4.3	44.3	31.4	14.3	5.7	4.3	37.1	34.3	18.6
	여성	8.5	2.4	30.5	42.7	15.9	10.7	1.2	26.2	41.7	20.2
연령	50세 미만	16.7		16.7	50.0	16.7	16.7		16.7	66.7	
	50-59세	6.6	3.3	31.1	37.7	21.3	6.7	3.3	31.7	30.0	28.3
	60세 이상	7.0	3.5	45.3	34.9	9.3	9.2	2.3	34.5	40.2	13.8
소득	1천만원 미만	7.4		51.9	29.6	11.1	12.0	4.0	24.0	32.0	28.0
	1천-3천만원 미만	8.3		33.3	33.3	25.0	7.7		30.8	38.5	23.1
	3천-5천만원 미만	8.7		26.1	47.8	17.4	9.1		31.8	40.9	18.2
	5천만원 이상	6.1	4.1	30.6	38.8	20.4	6.3	2.1	22.9	45.8	22.9
직업	고용직	8.3	5.0	38.3	33.3	15.0	10.3		32.8	37.9	19.0
	자영업	3.4	1.7	37.9	39.7	17.2	5.1	5.1	30.5	40.7	18.6
	퇴직	11.8		29.4	41.2	17.6	12.5		25.0	43.8	18.8
전체		7.2	3.3	36.8	37.5	15.1	8.4	2.6	31.2	38.3	19.5

-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59.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57.9%로 높게 나타남

〈표4-8〉 현거주지 만족도 - 3

구분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7.4	4.4	29.4	42.6	16.2	8.6	5.7	25.7	38.6	21.4
	여성	9.5	3.6	26.2	41.7	19.0	9.8	3.7	30.5	37.8	18.3
연령	50세 미만	16.7	16.7		50.0	16.7	14.3	14.3	14.3	42.9	14.3
	50-59세	10.2	3.4	20.3	42.4	23.7	9.8	4.9	26.2	32.8	26.2
	60세 이상	6.8	3.4	36.4	40.9	12.5	8.1	3.5	33.7	39.5	15.1
소득	1천만원 미만	7.7	7.7	23.1	38.5	23.1	7.7	11.5	26.9	26.9	26.9
	1천-3천만원 미만	7.1	7.1	35.7	28.6	21.4	7.1	7.1	35.7	28.6	21.4
	3천-5천만원 미만	9.1		27.3	45.5	18.2	9.1	4.5	31.8	31.8	22.7
	5천만원 이상	10.4	4.2	10.4	54.2	20.8	12.5	4.2	10.4	50.0	22.9
직업	고용직	8.6	3.4	24.1	41.4	22.4	8.8	8.8	22.8	35.1	24.6
	자영업	8.6	3.4	25.9	48.3	13.8	10.3	1.7	27.6	43.1	17.2
	퇴직	11.1		38.9	33.3	16.7	11.1		33.3	38.9	16.7
전체		8.6	3.9	27.6	42.1	17.8	9.2	4.6	28.3	38.2	19.7

○ 여가 및 문화환경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가 56.6%로 높게 나타났고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48.0%,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48.7%로 높게 나타남

-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여건과 근로조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50%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자연환경 만족도(48.0%)와 지역주민관계 만족도(48.7%)는 다른 여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표4-9〉 현거주지 만족도 - 4

구분		여가 및 문화환경					자연환경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7.1	2.9	34.3	35.7	20.0	7.2	8.7	37.7	31.9	14.5
	여성	10.0	2.5	30.0	35.0	22.5	12.3	2.5	35.8	28.4	21.0
연령	50세 미만	14.3	14.3	14.3	28.6	28.6			42.9	42.9	14.3
	50-59세	8.2	4.9	24.6	32.8	29.5	13.3	3.3	26.7	25.0	31.7
	60세 이상	8.3	2.4	40.5	35.7	13.1	8.1	7.0	45.3	31.4	8.1
소득	1천만원 미만	8.3	12.5	25.0	29.2	25.0	7.7	7.7	50.0	23.1	11.5
	1천-3천만원 미만	7.1		35.7	35.7	21.4	7.1		42.9	28.6	21.4
	3천-5천만원 미만	9.5		38.1	28.6	23.8	13.0	8.7	26.1	39.1	13.0
	5천만원 이상	10.0	2.0	22.0	42.0	24.0	10.6	8.5	21.3	34.0	25.5
직업	고용직	8.8	3.5	29.8	29.8	28.1	13.8	3.4	29.3	31.0	22.4
	자영업	8.9	3.6	26.8	44.6	16.1	7.1	5.4	35.7	33.9	17.9
	퇴직	10.5	5.3	36.8	31.6	15.8	10.5	5.3	47.4	26.3	10.5
전체		8.7	2.7	32.0	35.3	21.3	10.0	5.3	36.7	30.0	18.0

〈표4-10〉 현거주지 만족도 - 5

구분		지역주민과의 관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6.9	5.6	40.3	31.9	15.3
	여성	8.5	1.2	40.2	30.5	19.5
연령	50세 미만			42.9	42.9	14.3
	50-59세	9.8	3.3	31.1	26.2	29.5
	60세 이상	6.8	3.4	48.9	33.0	8.0
소득	1천만원 미만	3.8	3.8	42.3	34.6	15.4
	1천-3천만원 미만	7.7		46.2	23.1	23.1
	3천-5천만원 미만	13.6	4.5	27.3	27.3	27.3
	5천만원 이상	8.2	4.1	32.7	36.7	18.4
직업	고용직	10.0		35.0	30.0	25.0
	자영업	5.2	6.9	43.1	31.0	13.8
	퇴직	11.1	5.6	33.3	33.3	16.7
전체		7.8	3.2	40.3	31.2	17.5

-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전라북도인이다 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민이면서 이주한 지역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응답 22.1%, 이제는 이주한 지역의 시민이다라는 응답이 13.8%의 순으로 나타남

〈표4-11〉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지역 정체성

구분		여전히 전라북도인이다	이제는 이주한 지역의 시민이다	전라북도민이기도 하고 이주한 지역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
성별	남성	64.2	9.9	25.9
	여성	64.0	17.0	19.0
연령	50세 미만	71.4	14.3	14.3
	50-59세	71.0	14.5	14.5
	60세 이상	59.4	13.2	27.4
소득	1천만원 미만	55.2	24.1	20.7
	1천-3천만원 미만	66.7	16.7	16.7
	3천-5천만원 미만	54.2	8.3	37.5
	5천만원 이상	61.4	14.0	24.6
직업	고용직	64.7	14.7	20.6
	자영업	63.2	13.2	23.5
	퇴직	52.4	14.3	33.3
전체		64.1	13.8	22.1

- 향후 전라북도로 귀향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42.6%로 나타났고 귀향의 시기는 은퇴 이후 39.2%, 10년 이후 20.8% 등의 순으로 근 시일내 귀향의 의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4-12〉 전라북도로 귀향 의향

구분		귀향의향	귀향 계획 시기					
		있음	1년 이내	2~3년 이내	4~5년 이내	6~10년 이내	10년 이후	은퇴 이후
성별	남성	34.1		18.2	20.0	16.4	16.4	29.1
	여성	48.0		4.3	17.4	7.2	23.2	47.8
연령	50세 미만	80.0			20.0		20.0	60.0
	50-59세	53.6		3.6	14.5	14.5	27.3	40.0
	60세 이상	36.4	1.5	16.7	22.7	9.1	13.6	36.4
소득	1천만원 미만	61.5		22.2	16.7		5.6	55.6
	1천-3천만원 미만	42.9			30.0	10.0	20.0	40.0
	3천-5천만원 미만	28.6		17.6	17.6		11.8	52.9
	5천만원 이상	43.8	2.9	8.8	17.6	17.6	20.6	32.4
직업	고용직	45.2	2.0	7.8	15.7	5.9	19.6	49.0
	자영업	35.1		7.1	19.0	19.0	16.7	38.1
	퇴직	40.0		21.4	35.7	7.1	14.3	21.4
전체		42.6	0.8	10.8	18.5	10.0	20.8	39.2

- 귀향을 한다면 그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가 33.6%로 가장 많았고 귀향을 한다면 부부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음

〈표4-13〉 귀향의 이유

구분		귀향의 이유						귀향 시 동반할 사람		
		새로운 직장 위해	농사짓기 위해	고향사람과 지내려고	건강한 삶 위해	은퇴 후 삶 준비	기타	혼자	부부와 함께	가족 전체
성별	남성		1.8	32.1	28.6	30.4	7.1	14.5	80.0	5.5
	여성	2.9	8.6	21.4	41.4	14.3	11.4	17.2	76.6	6.3
연령	50세 미만		20.0	20.0	60.0				75.0	25.0
	50-59세	3.6	5.4	26.8	33.9	19.6	10.7	11.3	81.1	7.5
	60세 이상		6.1	25.8	36.4	24.2	7.6	21.9	75.0	3.1
소득	1천만원 미만		15.8	10.5	26.3	26.3	21.1	15.8	73.7	10.5
	1천-3천만원 미만		12.5	12.5	50.0	12.5	12.5	25.0	62.5	12.5
	3천-5천만원 미만			11.8	58.8	23.5	5.9	11.8	88.2	
	5천만원 이상	2.9		37.1	40.0	17.1	2.9	8.8	82.4	8.8
직업	고용직	3.9	7.8	19.6	39.2	17.6	11.8	20.8	68.8	10.4
	자영업		2.5	30.0	27.5	35.0	5.0	9.8	87.8	2.4
	퇴직		13.3	13.3	46.7	20.0	6.7	20.0	73.3	6.7
전체		1.5	6.1	26.0	33.6	22.9	9.9	15.7	78.0	6.3

- 귀향을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는 병원등 부족한 편의시설 문제 (30.1%)와 주거의 문제(22.1%),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의 불편 (21.2%)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4-14〉 귀향 시 가장 걱정되는 것

구분		주거문제	교육문제	부족한 편의시설	경제적 문제	가족반대/부적응	부족한 편의시설로 생활불편	기타
성별	남성	19.6	4.3	41.3	13.0		15.2	6.5
	여성	23.3	1.7	23.3	16.7	3.3	25.0	6.7
연령	50세 미만	25.0			50.0		25.0	
	50-59세	22.0	4.0	30.0	16.0		22.0	6.0
	60세 이상	23.6	3.6	32.7	10.9	3.6	20.0	5.5
소득	1천만원 미만	13.3	13.3	13.3	26.7	13.3	13.3	6.7
	1천-3천만원 미만	28.6		42.9			28.6	
	3천-5천만원 미만	13.3		20.0	13.3		53.3	
	5천만원 이상	12.9	3.2	48.4	12.9		16.1	6.5
직업	고용직	27.9		27.9	20.9	2.3	18.6	2.3
	자영업	11.1	5.6	38.9	11.1	2.8	19.4	11.1
	퇴직	28.6		28.6		7.1	28.6	7.1
전체		22.1	1.8	30.1	15.0	2.7	21.2	7.1

- 향후 전라북도로 귀향의 의향이 없는 경우는 57.4%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귀향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병원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아서가 23.7%로 가장 많았음

〈표4-15〉 귀향 의사가 없는 이유

구분		귀향의향	귀향의사 없는 이유						
		없음	현거주지 지역이 좋아서	이직이 어려워서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마땅한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가족의 적응 어려움	기타
성별	남성	65.9	19.4	16.7	5.6	8.3	25.0	16.7	8.3
	여성	52.0	22.4	17.2	1.7	5.2	20.7	12.1	20.7
연령	50세 미만	20.0	33.3	66.7					
	50-59세	46.4	27.5	17.5	7.5	7.5	25.0	2.5	12.5
	60세 이상	63.6	16.4	12.7		7.3	23.6	21.8	18.2
소득	1천만원 미만	38.5	28.6	14.3			14.3	21.4	21.4
	1천-3천만원 미만	57.1	16.7	33.3	16.7	16.7	16.7		
	3천-5천만원 미만	71.4	18.8	12.5			56.3	12.5	
	5천만원 이상	56.3	7.1	17.9	3.6	7.1	28.6	17.9	17.9
직업	고용직	54.8	15.0	15.0	2.5	10.0	27.5	15.0	15.0
	자영업	64.9	20.0	26.7	3.3	3.3	23.3	6.7	16.7
	퇴직	60.0	25.0			16.7	33.3		
전체		57.4	21.6	14.4	3.1	7.2	23.7	14.4	15.5

- 출향민의 귀향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보건 및 의료시설확충(35.7%),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26.5%), 교육환경의 향상(24.5%) 등이 많았음

〈표4-16〉 출향민의 귀향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구분		정주여건 개선	교육환경 향상	보건./의료시설 확충	문화/여가시설 확충
성별	남성	27.6	31.0	44.8	31.0
	여성	10.2	30.6	44.9	28.6
연령	50세 미만	20.0	40.0	20.0	20.0
	50-59세	14.7	38.2	47.1	32.4
	60세 이상	21.1	23.7	47.4	26.3
소득	1천만원 미만	22.2	22.2	55.6	11.1
	1천-3천만원 미만	12.5	25.0	37.5	37.5
	3천-5천만원 미만	33.3	20.0	33.3	20.0
	5천만원 이상	9.5	33.3	57.1	42.9
직업	고용직	0.0	36.4	40.9	31.8
	자영업	27.6	37.9	44.8	27.6
	퇴직	15.4	23.1	46.2	30.8
전체		13.3	24.5	35.7	26.5

- 본인의 자녀를 전라북도로 귀향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향이 없다는 56.9%, 의향이 있는 경우는 43.1%로 귀향을 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4-17〉 본인의 자녀를 전라북도로 귀향하게 할 의사

구분		전혀 의향이 없다	다소 의향이 없다	다소 의향이 있다	매우 의향이 있다
성별	남성	36.5	25.7	29.7	8.1
	여성	35.9	18.4	38.8	6.8
연령	50세 미만	42.9	28.6	28.6	
	50~59세	34.3	19.4	37.3	9.0
	60세 이상	36.9	23.3	31.1	8.7
소득	1천만원 미만	36.0	20.0	24.0	20.0
	1천~3천만원 미만	42.9	14.3	42.9	
	3천~5천만원 미만	36.0	24.0	40.0	
	5천만원 이상	44.0	16.0	30.0	10.0
직업	고용직	40.6	21.7	30.4	7.2
	자영업	36.2	25.9	29.3	8.6
	퇴직	25.0	35.0	40.0	
전체		34.8	22.1	35.4	7.7

나. 대학생 의식조사

1) 전라북도 소재 대학생 의식조사

-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이 111명(55.5%), 여성 89명(44.5%)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학년별로는 4학년이 66명(33.0%)으로 가장 많았음
- 태어난 고향으로는 전라북도가 133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31명(15.5%), 호남·제주권 20명(10.0%), 충청·경상권 16명(8.0%) 등으로 많았음
- 향후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보건의료 및 금융계통 희망이 70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무원 희망 47명(23.5%), 전자 및 건설관련 직종 45명(22.5%), 일반 사무직 직종 희망 27명(13.5%)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4-18〉 전북소재 대학교 대학생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11	55.5	고향	수도권	31	15.5
	여성	89	44.5		충청./경상권	16	8.0
	합계	200	100.0		전북권	133	66.5
학년	1학년	57	28.5		호남/제주/기타	20	10.0
	2학년	45	22.5		합계	200	100.0
	3학년	31	15.5	희망직종	공무원	47	23.5
	4학년	66	33.0		일반 사무직	27	13.5
	결측	199	99.5		전자/건설	45	22.5
	합계	1	.5		농산어업	11	5.5
					보건의료/금융/기타	70	35.0
					합계	200	100.0

- 전라북도가 고향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71.5%로 나타났고 전라북도 평균 거주기간은 전체적으로 21.5년 5.7개월로 나타났으며 졸업 이후 생활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라북도가 60.2%, 전라북도 외 지역이 39.8%로 나타남

〈표4-19〉 전북소재 대학교 대학생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 고향		평균 전북 거주기간		졸업 후 생활 지역	
		전라북도	전라북도 외	년	개월	전라북도	전라북도 외
성별	남성	72.1	27.9	22.0	5.7	67.2	32.8
	여성	70.7	29.3	20.8	5.7	51.1	48.9
학년	1학년	52.8	47.2	18.3	5.3	47.8	52.2
	2학년	69.8	30.2	22.1	5.9	56.5	43.5
	3학년	88.9	11.1	21.1	5.1	52.2	47.8
	4학년	80.6	19.4	23.2	6.1	74.4	25.6
태어난 고향	수도권	7.1	92.9	12.7	3.0	50.0	50.0
	충청/경상권	20.0	80.0	19.3	6.0	50.0	50.0
	전북	100.0		21.8	5.6	61.2	38.8
	호남/제주/기타	21.1	78.9	20.0	8.7		100.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76.2	23.8	21.6	5.3	76.9	23.1
	일반 사무직종	79.2	20.8	20.9	6.1	53.3	46.7
	전자통신/건설도목	74.4	25.6	22.5	5.1	64.0	36.0
	농·산·어업 분야	63.6	36.4	21.1	6.0	83.3	16.7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65.2	34.8	21.0	6.0	44.4	55.6
		71.5	28.5	21.5	5.7	60.2	39.8

- 졸업 이후 전라북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60.2%로 높게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전라북도가 익숙해서가 25.0%로 가장 많았음

〈표4-20〉 졸업 후 전라북도 생활을 계획한 이유

구분		졸업 후 생활지역	졸업 후 전라북도 생활 계획 이유					
		전라북도	고향을 떠나기가 싫어서	전공에 맞춰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서	타지생활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싶어서 (가족 반대등)	우리지역이 익숙해서	기타
성별	남성	67.2	24.6	19.3	8.8	15.8	29.8	1.8
	여성	51.1	10.3	20.5	20.5	28.2	17.9	2.6
학년	1학년	47.8	16.7	27.8	11.1	11.1	27.8	5.6
	2학년	56.5	9.1	18.2	13.6	22.7	31.8	4.5
	3학년	52.2	20.0	40.0	20.0	20.0		
	4학년	74.4	22.5	10.0	12.5	25.0	30.0	
태어난 고향	수도권	50.0	50.0	50.0				
	충청/경상권	50.0	50.0				50.0	
	전북	61.2	16.9	20.2	12.4	22.5	25.8	2.2
	호남/제주/기타		33.3		66.7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76.9	13.8	13.8	17.2	24.1	31.0	
	일반 사무직종	53.3	33.3	8.3	16.7	25.0	16.7	
	전자통신/건설도목	64.0	18.2	40.9	4.5	13.6	22.7	
	농·산·어업 분야	83.3	16.7	33.3	16.7		16.7	16.7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44.4	18.5	11.1	14.8	25.9	25.9	3.7
		60.2	18.8	19.8	13.5	20.8	25.0	2.1

○ 결혼을 한 이후 전라북도에서 생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가 59.5%로 가장 많았음

〈표4-21〉 결혼 후 전라북도 생활 여부

구분		졸업 후 생활지역	결혼 후 계속 전라북도 생활 여부		
		전라북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
성별	남성	72.1	37.3		62.7
	여성	70.7	36.4	9.1	54.5
학년	1학년	52.8	25.0		75.0
	2학년	69.8	28.6	4.8	66.7
	3학년	88.9	31.3	12.5	56.3
	4학년	80.6	51.6		48.4
태어난 고향	수도권	7.1			100.0
	충청/경상권	20.0	50.0		50.0
	전북	100.0	37.2	3.8	59.0
	호남/제주/기타	21.1	50.0		50.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76.2	48.1	3.7	48.1
	일반 사무직종	79.2	15.4	7.7	76.9
직종	전자통신/건설도목	74.4	36.4	4.5	59.1
	농·산·어업 분야	63.6	25.0		75.0
	보건의료/금융/기타	65.2	38.9		61.1
전체		71.5	36.9	3.6	59.5

〈표4-22〉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

구분		졸업 후 생활지역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이동 이유				
		전라북도 외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처우가 좋지 않아서 (연봉, 근로조건)	전공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기타
성별	남성	32.8	30.8	10.3	12.8	38.5	7.7
	여성	48.9	24.2	6.1	27.3	39.4	3.0
학년	1학년	52.2	19.0	4.8	9.5	52.4	14.3
	2학년	43.5	25.0	10.0	20.0	45.0	
	3학년	47.8	38.5	7.7	23.1	30.8	
	4학년	25.6	29.4	11.8	29.4	23.5	5.9
태어난 고향	수도권	50.0	33.3	66.7			
	충청/경상권	50.0				100.0	
	전북	38.8	28.8	6.1	21.2	37.9	
	호남/제주/기타	100.0				100.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3.1	14.3	7.1	14.3	57.1	7.1
	일반 사무직종	46.7	45.5	9.1		45.5	
직종	전자통신/건설도목	36.0	20.0	6.7	26.7	33.3	13.3
	농·산·어업 분야	16.7	50.0		25.0	25.0	
	보건의료/금융/기타	55.6	28.6	10.7	25.0	32.1	3.6
전체		39.8	27.8	8.3	19.4	38.9	5.6

- 졸업 후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는 39.8%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마땅한 일자리 없어서가 27.8%로 많았음
-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시기는 졸업 후 준비기간을 가진 후(47.5%)와 졸업하자마자(30.5%)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음

〈표4-23〉 졸업 후 타지역으로 이동 하려는 시기

구분		타 지역으로 이동 하려는 시기			
		졸업 하자마자	졸업 후 준비기간을 거치고 난 후	지역 내 일자리를 최대한 알아보고 여의치 않을 때	기타
성별	남성	24.2	39.4	33.3	3.0
	여성	38.5	57.7		3.8
학년	1학년	29.4	41.2	23.5	5.9
	2학년	27.8	44.4	27.8	
	3학년	60.0	40.0		
	4학년	14.3	64.3	14.3	7.1
태어난 고향	수도권			100.0	
	충청/경상권		100.0		
	전북	32.7	49.1	16.4	1.8
	호남/제주/기타			50.0	50.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0.0	60.0	20.0	
	일반 사무직종	36.4	36.4	27.3	
	전자통신/건설토목	33.3	40.0	26.7	
직종	농·산·어업 분야		66.7	33.3	
	보건의료/금융/기타	35.0	50.0	5.0	10.0
전체		30.5	47.5	18.6	3.4

- 전라북도지역의 대학생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제공 등 고용환경의 개선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 및 여가시설확충 18.9%, 전북지역의 일자리와 여가문화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17.4%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고용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년별로 보게되면 2학년이 64.5%, 1학년이 57.6%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3학년(48.1%)과 4학년(53.8%)의 경우보다 2학년 이하의 저학년층에서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남
- 4학년의 경우 고용환경개선에 이어서 종합적인 정보제공의 수요(36.5%)가 높았으나 3학년 이하의 학년에서는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표4-24〉 전북지역의 대학생들이 타지로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

구분		정주 여건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보건 /의료 시설 확충	문화 /여가 시설 확충	기초 기반 시설 확대	고용 환경 개선	대졸자 대상 인턴제도 확대	지역일자리 · 여가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성별	남성	6.2	12.3	3.7	25.9	2.5	53.1	7.4	21.0
	여성	4.8	3.2	1.6	23.8	4.8	58.7	9.5	25.4
학년	1학년	6.1	9.1	0.0	27.3	0.0	57.6	3.0	21.2
	2학년	9.7	9.7	3.2	29.0	6.5	64.5	9.7	16.1
	3학년	3.7	0.0	7.4	29.6	7.4	48.1	14.8	7.4
	4학년	3.8	11.5	1.9	17.3	1.9	53.8	7.7	36.5
태어난 고향	수도권	20.0	0.0	0.0	20.0	0.0	40.0	40.0	20.0
	충청/경상권	0.0	0.0	0.0	66.7	0.0	33.3	0.0	33.3
	전북	4.5	7.6	3.0	22.7	3.8	58.3	7.6	22.7
	호남/제주/기타	25.0	50.0	0.0	75.0	0.0	0.0	0.0	25.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10.8	2.7	2.7	27.0	8.1	64.9	5.4	18.9
	일반 사무직종	0.0	10.0	0.0	15.0	0.0	65.0	20.0	25.0
	전자통신/건설토목	3.0	12.1	6.1	21.2	3.0	60.6	6.1	21.2
	농·산·어업 분야	0.0	14.3	0.0	28.6	0.0	57.1	0.0	0.0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6.4	8.5	2.1	29.8	2.1	40.4	8.5	29.8
		4.2	6.3	2.1	18.9	2.6	42.1	6.3	17.4

- 전북이 고향이 아닌 대학생이 졸업 후 전북에서 생활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28.6%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전북의 생활이 익숙해서 44.8%, 맞는 일자리가 있어서 4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25〉 졸업 후 전라북도에서 생활 여부

구분		응답자 고향	졸업 후 전북 생활 여부	전라북도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			
		전라북도 외	그렇다	내게 맞는 일자리 있어서	전라북도생활 익숙해서	주거문제 등 생활비 저렴해서	기타
성별	남성	27.9	36.4	36.8	52.6	5.3	5.3
	여성	29.3	20.0	50.0	30.0	10.0	10.0
학년	1학년	47.2	29.2	33.3	44.4	11.1	11.1
	2학년	30.2	22.2	57.1	42.9		
	3학년	11.1					
	4학년	19.4	50.0	36.4	54.5		9.1
태어난 고향	수도권	92.9	30.4	53.8	30.8	15.4	
	충청/경상권	80.0	33.3	22.2	55.6		22.2
	호남/제주/기타	78.9	23.1	42.9	57.1		
	공무원(교사)	23.8	60.0	62.5	25.0	12.5	
장래 희망 직종	일반 사무직종	20.8	16.7		66.7		33.3
	전자통신/건설토목	25.6	14.3	66.7	33.3		
	농·산·어업 분야	36.4	50.0	50.0			50.0
	보건의료/금융/기타	34.8	25.0	20.0	70.0	10.0	
전체		28.5	28.6	41.4	44.8	6.9	6.9

- 결혼 이후 전라북도에서 생활할 의향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본 적 없음이 63.3%로 많았고, 전라북도에서 거주 시 가장 고민되는 것은 병원 등 부족한 편의시설 문제가 27.6%로 가장 많았음

〈표4-26〉 결혼 후 전라북도 생활 여부 및 생활여건 고민

구분		결혼 후 전라북도 생활 여부			생활 시 가장 고민 되는 것					
		그렇다	그렇지 않다	구체적 고민하지 않음	주거문제	교육문제	부족한 편의시설	경제적 문제	가족반대/부적응	기타
성별	남성	15.0	5.0	80.0	10.5		26.3	26.3	26.3	10.5
	여성	10.0	60.0	30.0	10.0	20.0	30.0	10.0	20.0	10.0
학년	1학년	20.0	40.0	40.0	22.2	22.2	22.2	22.2	11.1	
	2학년		14.3	85.7			14.3	14.3	42.9	28.6
	3학년			100.0			50.0		50.0	
	4학년	18.2	18.2	63.6	9.1		36.4	27.3	18.2	9.1
태어난 고향	수도권	14.3	21.4	64.3	7.7	7.7	23.1	15.4	38.5	7.7
	충청/경상권	11.1	33.3	55.6	11.1		44.4	11.1	22.2	11.1
	호남/제주/기타	14.3	14.3	71.4	14.3	14.3	14.3	42.9		14.3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11.1	33.3	55.6	12.5		25.0	12.5	50.0	
	일반 사무직종		33.3	66.7				33.3		66.7
	전자통신/건설토목	16.7		83.3	16.7		16.7	33.3	33.3	
	농·산·어업 분야		50.0	50.0			50.0	50.0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20.0	20.0	60.0	10.0	20.0	40.0	10.0	10.0	10.0
		13.3	23.3	63.3	10.3	6.9	27.6	20.7	24.1	10.3

- 졸업 이후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본인의 고향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가 53.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북에서의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21.3%, 전라북도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졸업 이후 이동하고자 하는 타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6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충청권 13.6%, 전북 외 전라권과 경상권이 각각 9.1%로 많았음

〈표4-27〉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유

구분		졸업 후 전북생활	타지역으로 이동 이유						
		그렇지 않다	고향에서 취업하고 싶어서	전북에서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할수 있는 환경 안될 것 같아서	병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가족이 반대할 것 같아서	전북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기타
성별	남성	63.6	42.3	26.9	3.8	3.8	3.8	7.7	11.5
	여성	80.0	66.7	14.3	4.8			4.8	9.5
학년	1학년	70.8	60.0	20.0				10.0	10.0
	2학년	77.8	41.7	16.7	16.7			8.3	16.7
	3학년	100.0	60.0	20.0			20.0		
	4학년	50.0	50.0	30.0		10.0			10.0
태어 난 고향	수도권	69.6	62.5	16.7	4.2		4.2	8.3	4.2
	충청/경상권	66.7	54.5	18.2		9.1			18.2
	호남/제주/기타	76.9	33.3	33.3	8.3			8.3	16.7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0.0	88.9		11.1				
	일반 사무직종	83.3	28.6	57.1			14.3		
	전자통신/건설토목	85.7	40.0	30.0	10.0				20.0
	농·산·어업 분야	50.0	50.0						50.0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75.0	52.6	15.8		5.3		15.8	10.5
		71.4	53.2	21.3	4.3	2.1	2.1	6.4	10.6

〈표4-28〉 이동하고자 하는 타지역

구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전북 외)	경상권	제주
성별	남성	50.0	20.8	4.2	16.7	8.3	
	여성	80.0	5.0			10.0	5.0
학년	1학년	70.0	5.0	5.0	10.0	5.0	5.0
	2학년	70.0	20.0		10.0		
	3학년	100.0					
	4학년	30.0	30.0		10.0	30.0	
태어 난 고향	수도권	90.9	4.5				4.5
	충청/경상권	18.2	45.5			36.4	
	전북						
장래 희망 직종	호남/제주/기타	54.5		9.1	36.4		
	공무원(교사)	55.6	22.2			22.2	
	일반 사무직종	100.0					
	전자통신/건설토목	40.0	30.0	10.0	20.0		
전체	농·산·어업 분야	100.0					
	보건의료/금융/기타	64.7	5.9		11.8	11.8	5.9
전체		63.6	13.6	2.3	9.1	9.1	2.3

- 전라북도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문화 및 여가 시설의 확충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용환경의 개선이 22.2%로 많았음

〈표4-29〉 전라북도 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

구분		정주여건	교육환경	보건/의료	문화/여가	기초기반	고용환경	대학생	기타
		개선	향상	시설 확충	시설 확충	시설확대	개선	인턴 확대	
성별	남성	12.0		12.0	24.0	12.0	24.0		16.0
	여성	10.0	5.0	5.0	50.0		20.0	5.0	5.0
학년	1학년	22.2	5.6		22.2	11.1	22.2	5.6	11.1
	2학년	8.3		8.3	58.3		16.7		8.3
	3학년				40.0	20.0	20.0		20.0
	4학년			30.0	30.0		30.0		10.0
태어난 고향	수도권	21.7	4.3	4.3	34.8	13.0	17.4		4.3
	충청/경상권			18.2	45.5		18.2		18.2
	호남/제주/기타			9.1	27.3		36.4	9.1	18.2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11.1		11.1	66.7	11.1			
	일반 사무직종	28.6		14.3			42.9	14.3	
	전자통신/건설토목		10.0		30.0		40.0		20.0
	농·산·어업 분야				50.0				50.0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11.8		11.8	35.3	11.8	17.6		11.8
		11.1	2.2	8.9	35.6	6.7	22.2	2.2	11.1

- 현재 생활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가 4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직장 등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25.6%로 낮은 수준이었음

〈표4-30〉 현재 거주지(전라북도) 만족도 - 1

구분		교육여건					직장 등 근로조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0.9	6.3	48.6	39.6	4.5	3.6	20.9	48.2	25.5	1.8
	여성	1.1	10.1	50.6	34.8	3.4	1.1	21.3	53.9	19.1	4.5
학년	1학년	1.8	7.0	50.9	36.8	3.5		12.3	63.2	19.3	5.3
	2학년		8.9	55.6	31.1	4.4	2.2	28.9	55.6	11.1	2.2
	3학년		6.5	51.6	41.9			19.4	51.6	29.0	
	4학년	1.5	9.1	43.9	39.4	6.1	6.2	24.6	36.9	29.2	3.1
태어난 고향	수도권	3.2	6.5	48.4	38.7	3.2		16.1	54.8	22.6	6.5
	충청/경상권			37.5	50.0	12.5		18.8	37.5	37.5	6.3
	전북	0.8	10.5	51.1	35.3	2.3	3.8	24.8	49.6	21.8	
장래 희망 직종	호남/제주/기타			50.0	40.0	10.0		5.3	63.2	15.8	15.8
	공무원(교사)			44.7	46.8	8.5		19.1	51.1	25.5	4.3
	일반 사무직종		7.4	63.0	29.6			26.9	50.0	23.1	
	전자통신/건설토목	2.2	6.7	55.6	31.1	4.4	4.4	22.2	55.6	15.6	2.2
전체	농·산·어업 분야	9.1	9.1	45.5	27.3	9.1		27.3	36.4	18.2	18.2
	보건의료/금융/기타		14.3	44.3	40.0	1.4	4.3	18.6	50.0	25.7	1.4
전체		1.0	8.0	49.5	37.5	4.0	2.5	21.1	50.8	22.6	3.0

- 주거 및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가 47.0%로 나타났고,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7.5%로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남

〈표4-31〉 현재 거주지 만족도 - 2

구분		주거 및 정주여건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1.8	6.3	43.2	41.4	7.2	4.5	19.8	33.3	36.9	5.4
	여성		7.9	47.2	38.2	6.7	9.0	25.8	33.7	29.2	2.2
학년	1학년		3.5	45.6	40.4	10.5	5.3	19.3	38.6	29.8	7.0
	2학년		11.1	53.3	28.9	6.7	2.2	31.1	35.6	24.4	6.7
	3학년		6.5	45.2	48.4		12.9	19.4	25.8	41.9	
	4학년	3.0	7.6	39.4	42.4	7.6	7.6	21.2	31.8	37.9	1.5
태어난 고향	수도권		6.5	54.8	32.3	6.5	9.7	35.5	32.3	22.6	
	충청/경상권		6.3	31.3	50.0	12.5	12.5	37.5	18.8	25.0	6.3
	전북	1.5	7.5	43.6	42.1	5.3	4.5	18.0	33.8	39.8	3.8
	호남/제주/기타		5.0	50.0	30.0	15.0	10.0	20.0	45.0	15.0	10.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6.4	38.3	42.6	12.8	6.4	29.8	25.5	31.9	6.4
	일반 사무직종		7.4	48.1	40.7	3.7	7.4	18.5	25.9	48.1	
직종	전자통신/건설토목	4.4	6.7	53.3	31.1	4.4	4.4	26.7	35.6	31.1	2.2
	농·산·어업 분야		9.1	27.3	45.5	18.2	18.2		36.4	27.3	18.2
	보건의료/금융/기타		7.1	45.7	42.9	4.3	5.7	20.0	40.0	31.4	2.9
전체		1.0	7.0	45.0	40.0	7.0	6.5	22.5	33.5	33.5	4.0

-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46.5%,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52.0%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4-32〉 현재 거주지 만족도 - 3

구분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0.9	5.4	42.3	45.9	5.4	0.9	5.4	39.6	44.1	9.9
	여성	3.4	10.1	46.1	38.2	2.2		5.6	44.9	42.7	6.7
학년	1학년	3.5	1.8	45.6	40.4	8.8		1.8	38.6	45.6	14.0
	2학년	2.2	11.1	46.7	35.6	4.4		6.7	51.1	37.8	4.4
	3학년		6.5	45.2	48.4			6.5	32.3	58.1	3.2
	4학년	1.5	10.6	40.9	45.5	1.5	1.5	7.6	43.9	37.9	9.1
태어난 고향	수도권	6.5	12.9	45.2	32.3	3.2			54.8	35.5	9.7
	충청/경상권		12.5	43.8	37.5	6.3		6.3	37.5	37.5	18.8
	전북	0.8	5.3	45.1	45.9	3.0	0.8	7.5	41.4	44.4	6.0
	호남/제주/기타	5.0	10.0	35.0	40.0	10.0			30.0	55.0	15.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6.4	48.9	42.6	2.1		4.3	48.9	40.4	6.4
	일반 사무직종		11.1	22.2	66.7			14.8	25.9	51.9	7.4
직종	전자통신/건설토목	2.2	6.7	55.6	28.9	6.7	2.2	2.2	40.0	44.4	11.1
	농·산·어업 분야	18.2		18.2	45.5	18.2			36.4	36.4	27.3
	보건의료/금융/기타	1.4	8.6	45.7	41.4	2.9		5.7	45.7	42.9	5.7
전체		2.0	7.5	44.0	42.5	4.0	0.5	5.5	42.0	43.5	8.5

○ 여가 및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불만족도가 34.0%로 여가 및 문화환경의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자연환경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55.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47.5%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4-33〉 현재 거주지 만족도 - 4

구분		여가 및 문화환경					자연환경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12.6	16.2	34.2	33.3	3.6	9.9	9.9	24.3	47.7	8.1
	여성	11.2	29.2	32.6	23.6	3.4	5.6	4.5	36.0	46.1	7.9
학년	1학년	7.0	8.8	43.9	33.3	7.0	3.5	3.5	42.1	40.4	10.5
	2학년	13.3	24.4	31.1	26.7	4.4	11.1	13.3	26.7	44.4	4.4
	3학년	12.9	25.8	35.5	22.6	3.2	6.5	6.5	19.4	54.8	12.9
	4학년	15.2	30.3	25.8	28.8		10.6	7.6	25.8	50.0	6.1
태어난 고향	수도권	25.8	12.9	29.0	22.6	9.7	19.4	3.2	25.8	48.4	3.2
	충청/경상권	37.5	18.8	18.8	25.0		37.5	6.3	31.3	18.8	6.3
	전북	6.0	24.1	37.6	30.1	2.3	1.5	8.3	28.6	51.9	9.8
	호남/제주/기타	10.0	25.0	25.0	35.0	5.0	10.0	10.0	40.0	35.0	5.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1.3	19.1	34.0	21.3	4.3	14.9	4.3	27.7	42.6	10.6
	일반 사무직종		25.9	37.0	37.0			11.1	29.6	55.6	3.7
	전자통신/건설도목	15.6	13.3	33.3	33.3	4.4	11.1	8.9	33.3	42.2	4.4
	농·산·어업 분야	9.1	9.1	27.3	36.4	18.2			18.2	45.5	36.4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8.6	30.0	32.9	27.1	1.4	5.7	8.6	30.0	50.0	5.7
		12.0	22.0	33.5	29.0	3.5	8.0	7.5	29.5	47.0	8.0

〈표4-34〉 현재 거주지 만족도 - 5

구분		지역주민과의 관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0.9	3.6	42.3	40.5	12.6
	여성		1.1	58.4	30.3	10.1
학년	1학년		1.8	54.4	33.3	10.5
	2학년		4.4	57.8	26.7	11.1
	3학년			38.7	48.4	12.9
	4학년	1.5	3.0	45.5	37.9	12.1
태어난 고향	수도권			48.4	35.5	16.1
	충청/경상권			31.3	37.5	31.3
	전북	0.8	3.8	49.6	38.3	7.5
	호남/제주/기타			65.0	20.0	15.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1	46.8	27.7	23.4
	일반 사무직종		3.7	44.4	48.1	3.7
	전자통신/건설도목	2.2	6.7	48.9	37.8	4.4
	농·산·어업 분야			36.4	36.4	27.3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55.7	35.7	8.6
		0.5	2.5	49.5	36.0	11.5

- 향후 결혼 시기에 있어서는 취업 후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후가 82.5%로 가장 많았고, 결혼 이후 생활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라북도 외 지역이 52.7%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6.7%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4-35〉 향후 결혼여부 및 생활 지역

구분		향후 결혼 시기				결혼 이후 생활 지역	
		대학졸업 이후 바로	취업 이후 바로	취업 후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후	기타	전라북도 외	전라북도
성별	남성	2.7	11.7	81.1	4.5	48.1	51.9
	여성	1.1	4.5	84.3	10.1	58.0	42.0
학년	1학년	3.5	7.0	78.9	10.5	75.0	25.0
	2학년		11.1	80.0	8.9	50.0	50.0
	3학년	3.2		93.5	3.2	51.9	48.1
	4학년	1.5	12.1	81.8	4.5	34.0	66.0
태어난 고향	수도권	3.2	9.7	83.9	3.2	84.2	15.8
	충청/경상권		6.3	87.5	6.3	60.0	40.0
	전북	1.5	8.3	83.5	6.8	42.3	57.7
	호남/제주/기타	5.0	10.0	70.0	15.0	86.7	13.3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3	14.9	80.9		41.9	58.1
	일반 사무직종		7.4	85.2	7.4	60.9	39.1
	전자통신/건설도목		11.1	86.7	2.2	50.0	50.0
	농·산·어업 분야			90.9	9.1	44.4	55.6
	보건의료/금융/기타	2.9	4.3	78.6	14.3	58.2	41.8
전체		2.0	8.5	82.5	7.0	52.7	47.3

〈표4-36〉 결혼 이후 생활하고자 하는 타 지역

구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전북 외)	경상권	세종	제주
성별	남성	60.3	9.5	3.2	17.5	4.8	3.2
	여성	73.7	7.0		8.8	7.0	1.8
학년	1학년	59.5	4.8	2.4	16.7	9.5	4.8
	2학년	70.4	7.4		14.8		3.7
	3학년	76.5	11.8		11.8		
	4학년	66.7	12.1	3.0	9.1	9.1	
태어난 고항	수도권	85.7	3.6		3.6	3.6	3.6
	충청/경상권	35.7	28.6		7.1	28.6	
	전북	68.9	8.2	1.6	13.1	3.3	1.6
	호남/제주/기타	52.9		5.9	35.3		5.9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8.1	22.2		18.5	7.4	3.7
	일반 사무직종	81.3			12.5	6.3	
직종	전자통신/건설도목	59.3	11.1	3.7	14.8	7.4	3.7
	농·산·어업 분야	83.3					16.7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75.0	2.3	2.3	11.4	6.8	2.3
		66.7	8.3	1.7	13.3	5.8	2.5

- 결혼 이후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일자리, 취업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 52.7%로 가장 많았음

〈표4-37〉 결혼 이후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유

구분		일자리, 취업 등이 용이함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가문화환경 좋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기타
성별	남성	65.6	6.6	19.7	8.2	8.2	6.6
	여성	53.8	7.7	34.6	1.9	11.5	3.8
학년	1학년	47.4	5.3	34.2	2.6	7.9	7.9
	2학년	60.7	3.6	17.9	3.6	10.7	10.7
	3학년	68.8	18.8	12.5	12.5	6.3	0.0
	4학년	70.0	6.7	33.3	6.7	13.3	0.0
태어난 고향	수도권	56.0	16.0	24.0	0.0	8.0	4.0
	충청/경상권	46.2	0.0	30.8	0.0	15.4	7.7
	전북	70.2	5.3	26.3	7.0	12.3	1.8
	호남/제주/기타	44.4	5.6	27.8	11.1	0.0	16.7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56.0	8.0	12.0	12.0	12.0	0.0
	일반 사무직종	73.3	13.3	26.7	0.0	6.7	0.0
	전자통신/건설토목	74.1	7.4	22.2	7.4	11.1	3.7
	농·산·어업 분야	0.0	0.0	66.7	16.7	0.0	16.7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57.5	5.0	32.5	0.0	10.0	10.0
		52.7	6.2	23.3	4.7	8.5	4.7

- 결혼 이후 전라북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고향의 익숙한 환경이 좋아서가 27.1%,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23.7%, 전북에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2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38〉 결혼 이후 전라북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유

구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	전북에 원하는 일자리 있어서	고향의 익숙한 환경이 좋아서	주거비 등 물가 저렴해서	쾌적한 자연환경 좋아서	기타
성별	남성	25.4	26.9	34.3	16.4	9.0	1.5
	여성	26.8	22.0	22.0	12.2	19.5	0.0
학년	1학년	20.0	35.0	20.0	15.0	10.0	0.0
	2학년	20.0	24.0	40.0	8.0	24.0	4.0
	3학년	18.8	31.3	18.8	25.0	6.3	0.0
	4학년	32.6	19.6	32.6	15.2	10.9	0.0
태어난 고향	수도권	0.0	66.7	8.3	16.7	25.0	0.0
	충청/경상권	11.1	66.7	11.1	22.2	0.0	0.0
	전북	31.7	13.4	34.1	13.4	13.4	1.2
	호남/제주/기타	20.0	40.0	40.0	20.0	0.0	0.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3.5	23.5	29.4	23.5	8.8	0.0
	일반 사무직종	33.3	33.3	41.7	8.3	8.3	0.0
	전자통신/건설토목	16.7	33.3	33.3	16.7	12.5	0.0
	농·산·어업 분야	40.0	0.0	20.0	20.0	0.0	20.0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30.3	21.2	24.2	6.1	21.2	0.0
		23.7	22.9	27.1	13.6	11.9	0.8

- 같은 급여를 받을 경우 전라북도에서 근무할 의향으로는 그렇다가 66.5%로 높게 나타났고,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익숙함이 42.0%로 많았음

〈표4-39〉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전라북도에서 근무할 의향 여부

구분		같은 급여시 전라북도 근무 의향		전라북도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그렇다	아니다	생활비 부담 적어서	고향(전북)이 익숙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주거정주환경 좋아서	기타
성별	남성	72.5	27.5	32.1	58.3	13.1	10.7	1.2
	여성	58.9	41.1	41.4	29.3	20.7	12.1	0.0
학년	1학년	46.0	54.0	33.3	50.0	13.3	16.7	0.0
	2학년	72.2	27.8	38.2	47.1	17.6	8.8	2.9
	3학년	74.1	25.9	34.8	39.1	13.0	13.0	0.0
	4학년	78.4	21.6	35.2	48.1	18.5	9.3	0.0
태어난 고향	수도권	31.8	68.2	43.8	37.5	6.3	31.3	0.0
	충청/경상권	50.0	50.0	50.0	50.0	8.3	0.0	0.0
	전북	78.0	22.0	31.7	49.0	18.3	10.6	1.0
	호남/제주/기타	37.5	62.5	50.0	30.0	20.0	0.0	0.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80.0	20.0	43.6	41.0	15.4	7.7	0.0
	일반 사무직종	70.8	29.2	35.0	40.0	30.0	15.0	0.0
	전자통신/건설도목	63.9	36.1	38.7	58.1	9.7	9.7	0.0
	농·산·어업 분야	50.0	50.0	33.3	66.7	16.7	16.7	16.7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61.0	39.0	28.3	43.5	15.2	13.0	0.0
		66.5	33.5	32.5	42.0	14.6	10.2	0.6

〈표4-40〉 타지역 근무: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구분		타지생활이 익숙해서	전북의 생활이 불편해서	문화여가시설 부족해서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초기반시설 부족해서	기타
		익숙해서	불편해서	부족해서	좋지 않아서	부족해서	기타
성별	남성	17.5	10.0	27.5	22.5	12.5	15.0
	여성	22.5	7.5	35.0	17.5	22.5	2.5
학년	1학년	37.5	9.4	21.9	12.5	12.5	9.4
	2학년	6.3	6.3	37.5	25.0	25.0	12.5
	3학년	20.0	10.0	40.0	10.0	30.0	10.0
	4학년	4.8	9.5	33.3	33.3	14.3	4.8
태어난 고향	수도권	47.8	13.0	26.1	8.7	8.7	0.0
	충청/경상권	22.2	0.0	22.2	33.3	11.1	11.1
	전북	2.8	5.6	41.7	22.2	25.0	11.1
	호남/제주/기타	16.7	16.7	16.7	25.0	16.7	16.7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5.9	11.8	41.2	11.8	17.6	11.8
	일반 사무직종	12.5	12.5	25.0	25.0	25.0	0.0
	전자통신/건설도목	10.5	10.5	21.1	31.6	15.8	15.8
	농·산·어업 분야	16.7	0.0	50.0	33.3	0.0	0.0
전체	보건의료/금융/기타	36.7	6.7	30.0	13.3	20.0	6.7
		18.8	8.2	29.4	18.8	16.5	8.2

- 동일급여의 조건이어도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이유에 있어서는 문화 및 여가시설이 부족해서가 29.4%로 가장 많았음

〈표4-41〉 전라북도가 가진 최고의 강점

구분		수려한 자연환경	저렴한 생활물가	안전한 도시환경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	기타
성별	남성	14.5	35.5	44.5	7.3	2.7
	여성	17.0	47.7	25.0	6.8	6.8
학년	1학년	17.9	42.9	19.6	16.1	5.4
	2학년	15.9	43.2	45.5	0.0	6.8
	3학년	9.7	41.9	45.2	3.2	0.0
	4학년	16.7	37.9	37.9	6.1	4.5
태어난 고향	수도권	16.1	48.4	25.8	3.2	9.7
	충청/경상권	25.0	56.3	18.8	0.0	0.0
	전북	13.7	36.6	43.5	6.9	4.6
	호남/제주/기타	20.0	45.0	15.0	20.0	0.0
장래 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8.5	40.4	46.8	6.4	0.0
	일반 사무직종	25.9	22.2	44.4	14.8	0.0
직종	전자통신/건설토목	13.6	38.6	31.8	9.1	9.1
	농·산·어업 분야	27.3	36.4	18.2	0.0	27.3
	보건의료/금융/기타	15.9	50.7	30.4	4.3	2.9
전체		15.0	39.3	34.5	6.8	4.4

-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렴한 생활물가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안전한 도시환경 34.5%, 수려한 자연환경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전북출신 대학생 인식조사

- 전라북도가 고향이나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 성별로는 남성이 23명(71.9%), 학년별로는 4학년이 26명(81.3%)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에 거주한 기간은 20년 이상 거주가 22명 (68.8%)으로 많았음
- 졸업 이후 희망직종으로는 공무원 및 교사가 24명(75.0%)으로 많았고 이외 일반 사무직종, 기타 전문직종을 희망하고 있었음

〈표4-42〉 전북출신 대학생 의식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3	71.9	전북 거주기간	20년 미만	10	31.3
	여성	9	28.1		20년 이상	22	68.8
	합계	32	100.0		합계	32	100.0
학년	1학년	0	.0	희망직종	공무원(교사)	24	75.0
	2학년	1	3.1		일반사무직종	4	12.5
	3학년	4	12.5		기타 전문직	4	12.5
	4학년	26	81.3		합계	32	100.0
	결측	1	3.1				
	합계	32	100.0				

〈표4-43〉 대학 졸업 후 귀향 의향

구분		졸업 이후 귀향 의향		귀향 시기			
		있다	없다	재학중	대학졸업 후 바로	대학졸업 후 현거주지에서 취업 못했을 경우	기타
성별	남성	19.0	81.0		40.0	20.0	40.0
	여성	75.0	25.0			57.1	42.9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66.7	33.3			100.0	
	4학년	29.2	70.8		11.1	33.3	55.6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22.2	77.8		33.3	33.3	33.3
	20년 이상	40.0	60.0		11.1	44.4	44.4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33.3	66.7		11.1	44.4	44.4
	일반 사무직종	50.0	50.0		50.0	50.0	
	기타 전문직종	25.0	75.0				100.0
전체		34.5	65.5		16.7	41.7	41.7

- 졸업 이후 전라북로 귀향에 대한 의향은 전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65.5%로 매우 높았고, 귀향의향이 있다면 그 시기는 대학 졸업 후 현 거주지에서 취업이 어려울 경우가 41.7%로 많았음

〈표4-44〉 대학 졸업 후 귀향 이유 및 귀향시 걱정 되는 것

구분		귀향의 이유					귀향시 걱정 되는 것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향친구들과 지내고 싶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기타	주거문제	교육문제	경제적 문제	부족한 편의시설 생활상의 불편	기타
성별	남성	4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여성	28.6			57.1	14.3			57.1	28.6	14.3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100.0							100.0		
	4학년	22.2			55.6	22.2	11.1	11.1	22.2	44.4	11.1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33.3			66.7		33.3		33.3	33.3	
	20년 이상	33.3		11.1	33.3	22.2		11.1	44.4	33.3	11.1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4.4			44.4	11.1	11.1	11.1	33.3	33.3	11.1
	일반 사무직종			50.0	50.0				100.0		
	기타 전문직종					100.0				100.0	
전체		33.3		8.3	41.7	16.7	8.3	8.3	41.7	33.3	8.3

- 졸업 이후 귀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귀향을 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 41.7%로 가장 많았음

〈표4-45〉 귀향의사 없는 경우 그 이유

구분		현거주지 지역이 좋아서	취직이 어려울거 같아서	결혼 할 환경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결혼 후 자녀교육 문제	기타
성별	남성	16.7	61.1	5.6	5.6	11.1
	여성	50.0	50.0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50.0			50.0
	4학년	17.6	64.7	5.9	5.9	5.9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28.6	57.1			14.3
	20년 이상	15.4	61.5	7.7	7.7	7.7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13.3	66.7	6.7	6.7	6.7
	일반 사무직종	50.0	50.0			
	기타 전문직종	33.3	33.3			33.3
전체		20.0	60.0	5.0	5.0	10.0

- 졸업 이후 귀향을 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전북에서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60.0%로 가장 많았고, 현재 거주지역이 좋아서가 20.0%로 많았음

〈표4-46〉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

구분		여전히 전라북도인이다	이제는 이주한 지역의 시민이다	전라북도민이기도 하고 이주한 지역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
성별	남성	52.2		47.8
	여성	44.4	11.1	44.4
학년	1학년			
	2학년	100.0		
	3학년		25.0	75.0
	4학년	57.7		42.3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20.0		80.0
	20년 이상	63.6	4.5	31.8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50.0	4.2	45.8
	일반 사무직종	50.0		50.0
	기타 전문직종	50.0		50.0
전체		50.0	3.1	46.9

-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인이다가 50.0%로 가장 많았고, 전북도민이면서 현 거주지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가 46.9%로 높았음
- 전북이 대학생의 귀향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은 청년일자리 제공 등 고용환경개선정책이 59.4%로 가장 많았음

〈표4-47〉 전북이 대학생의 귀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구분		정주 여건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보건 의료 시설 확충	문화 여가 시설 확충	기초 기반 시설 확대	고용 환경 개선	귀향청년 직업교육 확대	지역의 일자리, 여가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성별	남성	4.3	8.7		4.3		56.5	13.0	13.0
	여성		11.1				66.7		22.2
학년	1학년								
	2학년						100.0		
	3학년	25.0					50.0	25.0	15.4
	4학년		11.5		3.8		61.5	7.7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10.0				50.0	10.0	30.0
	20년 이상	4.5	9.1		4.5		63.6	9.1	9.1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2	12.5		4.2		58.3	12.5	8.3
	일반 사무직종						75.0		25.0
	기타 전문직종						50.0		50.0
전체		3.1	9.4		3.1		59.4	9.4	15.6

○ 향후 결혼 시기에 대해서는 취업 후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이후가 71.9%로 가장 많았고, 결혼 후 살고자 하는 지역은 전라북도 외 지역이 84.2%로 많았음

- 결혼 이후 전북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와 고향의 익숙한 환경이 좋아서가 각각 50%로 나타남

〈표4-48〉 향후 결혼 의향

구분		향후 결혼 계획			결혼 후 생활 지역		결혼 후 전북 생활 이유	
		취업 후 바로	취업 후 경제적조건 충족 이후	기타	전라북도 외 타지역	전라북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익숙한 환경이 좋아서
성별	남성	13.0	69.6	17.4	82.4	17.6	33.3	66.7
	여성		77.8	22.2	100.0		100.0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100.0
	3학년		100.0		100.0			
	4학년	11.5	69.2	19.2	86.7	13.3	66.7	33.3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10.0	80.0	10.0	85.7	14.3		100.0
	20년 이상	9.1	68.2	22.7	83.3	16.7	66.7	33.3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2	75.0	20.8	84.6	15.4	66.7	33.3
	일반 사무직종		100.0		50.0	50.0		100.0
	기타 전문직종	50.0	25.0	25.0	100.0			
전체		9.4	71.9	18.8	84.2	15.8	50.0	50.0

○ 결혼 후 생활하고 싶은 지역은 세종시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로는 일자리, 취업 등의 용이함이 90.9%로 가장 많았음

〈표4-49〉 향후 결혼 이후 생활하고 싶은 지역

구분		결혼 후 생활 지역			타 지역 생활 이유	
		수도권	충청권 (세종 이외)	세종	일자리, 취업 등이 용이함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성별	남성	36.8	10.5	52.6	86.7	13.3
	여성	57.1		42.9	100.0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00.0	75.0	25.0
	4학년	47.6	9.5	42.9	94.1	5.9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66.7		33.3	88.9	11.1
	20년 이상	29.4	11.8	58.8	92.3	7.7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1.1	10.5	68.4	87.5	12.5
	일반 사무직종	100.0			100.0	
	기타 전문직종	100.0			100.0	
전체		42.3	7.7	50.0	90.9	9.1

- 동일 급여를 받는다면 전북에서 근무할 의향으로는 없다가 51.9%로 의향이 있는 경우 48.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전북에서 근무하고 싶은 경우 그 이유로는 전북의 익숙함이 47.1%로 가장 많았음

〈표4-50〉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전라북도에서 근무할 의향 여부

구분		같은 급여시 전라북도 근무 의향		전라북도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그렇다	아니다	생활비 부담 적어서	고향(전북)이 익숙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주거정주환경 좋아서	기타
성별	남성	42.1	57.9	9.1	54.5	18.2	18.2	
	여성	62.5	37.5		33.3	50.0	16.7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33.3	66.7		50.0		50.0	
	4학년	50.0	50.0	7.1	42.9	35.7	14.3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30.0	70.0		25.0	25.0	50.0	
	20년 이상	58.8	41.2	7.7	53.8	30.8	7.7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50.0	50.0	7.7	38.5	30.8	23.1	
	일반 사무직종	33.3	66.7		50.0	50.0		
	기타 전문직종	50.0	50.0		100.0			
전체		48.1	51.9	5.9	47.1	29.4	17.6	

〈표4-51〉 동일 급여 수령 시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구분		타지생활이 익숙해서	전북의 생활이 불편해서	문화여가시설 부족해서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초기반시설 부족해서	기타
성별	남성	33.3	8.3	16.7	33.3	8.3	
	여성	33.3			33.3		33.3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50.0	50.0		
	4학년	33.3	8.3	8.3	33.3	8.3	8.3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33.3	16.7		33.3		16.7
	20년 이상	33.3		22.2	33.3	11.1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7.3	9.1	18.2	27.3	9.1	9.1
	일반 사무직종	50.0			50.0		
	기타 전문직종	50.0			50.0		
전체		33.3	6.7	13.3	33.3	6.7	6.7

- 동일 급여 조건이나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로는 타지의 생활이 익숙해서와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서가 33.3%로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고향)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요도는 64.3%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고향의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이유로는 고향의 소식이 궁금해서 47.6%, 전라북도인이라는 지역정체성 때문에 38.1%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4-52〉 고향(전북)에 대한 소식 및 정보제공 수요

구분		정보제공 수요		고향의 정보제공 받고 싶은 이유			
		그렇다	아니다	고향소식이 항상 궁금해서	졸업이후 귀향을 위해서	고향에서 취업 원해서	전북사람이라는 지역정체성
성별	남성	65.0	35.0	40.0	6.7	6.7	46.7
	여성	62.5	37.5	66.7		16.7	16.7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33.3	66.7	50.0			50.0
	4학년	65.2	34.8	47.1	5.9	11.8	35.3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40.0	60.0	75.0	25.0		
	20년 이상	77.8	22.2	41.2		11.8	47.1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66.7	33.3	37.5	6.3	12.5	43.8
	일반 사무직종	33.3	66.7	50.0			50.0
	기타 전문직종	75.0	25.0	100.0			
전체		64.3	35.7	47.6	4.8	9.5	38.1

- 고향의 정보를 제공받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취득이 가능해서가 72.7%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4-53〉 고향의 정보제공 받고 싶지 않은 이유

구분		정보제공 수요		고향의 정보제공 받고 싶은 이유			
		그렇다	아니다	다양한 매체로 정보취득 가능	고향에 대한 관심이 적음	졸업이후 귀향 생각없음	기타
성별	남성	65.0	35.0	75.0	12.5	12.5	
	여성	62.5	37.5	66.7			33.3
학년	1학년						
	2학년	100.0					
	3학년	33.3	66.7	100.0			
	4학년	65.2	34.8	66.7	11.1	11.1	11.1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40.0	60.0	66.7	16.7		16.7
	20년 이상	77.8	22.2	80.0		20.0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66.7	33.3	75.0		12.5	12.5
	일반 사무직종	33.3	66.7	50.0	50.0		
	기타 전문직종	75.0	25.0	100.0			
전체		64.3	35.7	72.7	9.1	9.1	9.1

- 타 지역 소재 대학생이 생각하는 전라북도의 강점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저렴한 생활물가가 21.9%로 많았음

〈표4-54〉 전라북도가 가진 최고의 강점

구분		수려한 자연환경	저렴한 생활물가	안전한 도시환경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	기타
성별	남성	43.5	26.1	13.0	13.0	4.3
	여성	44.4	11.1	22.2	11.1	11.1
학년	1학년					
	2학년	100.0				
	3학년	75.0	25.0			
	4학년	38.5	23.1	19.2	15.4	3.8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40.0	10.0	20.0	10.0	20.0
	20년 이상	45.5	27.3	13.6	13.6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1.7	29.2	16.7	12.5	
	일반 사무직종	75.0			25.0	
	기타 전문직종	25.0		25.0		50.0
전체		43.8	21.9	15.6	12.5	6.3

- 현재 거주지의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직장 등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62.6%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4-55〉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1

구분		교육여건					직장 등 근로조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4.3	34.8	30.4	30.4		8.7	30.4	39.1	21.7
	여성			11.1	77.8	11.1		11.1	22.2	55.6	11.1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100.0				50.0	50.0	
	4학년		3.8	30.8	34.6	30.8		7.7	26.9	42.3	23.1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70.0	30.0		10.0	10.0	50.0	30.0
	20년 이상		4.5	40.9	31.8	22.7		9.1	36.4	40.9	13.6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2	33.3	45.8	16.7		8.3	33.3	45.8	12.5
	일반 사무직종			25.0	50.0	25.0		25.0		50.0	25.0
	기타 전문직종				25.0	75.0			25.0	25.0	50.0
전체			3.1	28.1	43.8	25.0		9.4	28.1	43.8	18.8

- 주거 및 정주여건의 만족도는 46.9%로 다른 여건의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의 만족도는 78.2%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4-56〉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2

구분		주거 및 정주여건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4.3	17.4	39.1	30.4	8.7		4.3	17.4	43.5	34.8
	여성			33.3	55.6	11.1			22.2	44.4	33.3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25.0		75.0					50.0	50.0
	4학년	3.8	7.7	46.2	30.8	11.5			23.1	42.3	34.6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10.0	20.0	60.0	10.0			10.0	60.0	30.0
	20년 이상	4.5	13.6	45.5	27.3	9.1		4.5	22.7	36.4	36.4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2	4.2	45.8	41.7	4.2			25.0	50.0	25.0
	일반 사무직종		25.0		25.0	50.0		25.0		25.0	50.0
	기타 전문직종		50.0	25.0	25.0					25.0	75.0
전체		3.1	12.5	37.5	37.5	9.4		3.1	18.8	43.8	34.4

-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78.1%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의 만족도 역시 75.0%로 높게 나타남

〈표4-57〉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3

구분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26.1	47.8	26.1		4.3	21.7	43.5	30.4
	여성			11.1	55.6	33.3			22.2	33.3	44.4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100.0					50.0	50.0
	4학년			23.1	42.3	34.6			23.1	42.3	34.6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70.0	30.0			10.0	60.0	30.0
	20년 이상			31.8	40.9	27.3		4.5	27.3	31.8	36.4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5.0	54.2	20.8			25.0	45.8	29.2
	일반 사무직종			25.0	50.0	25.0		25.0		50.0	25.0
	기타 전문직종				25.0	75.0			25.0		75.0
전체				21.9	50.0	28.1		3.1	21.9	40.6	34.4

- 여가 및 문화환경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84.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연환경의 만족도는 40.6%로 다른 만족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편의시설과 여가 및 문화환경 여건에 대한 불만족도는 0%로 나타나 전라북도에 비해 편의시설과 문화환경에 대한 여건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4-58〉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4

구분		여가 및 문화환경					자연환경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17.4	39.1	43.5		13.0	39.1	47.8	
	여성			11.1	55.6	33.3	11.1	11.1	55.6	11.1	11.1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25.0	50.0	25.0		25.0	25.0	50.0	
	4학년			11.5	42.3	46.2	3.8	11.5	46.2	34.6	3.8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60.0	40.0	40.0	10.0	10.0	40.0	40.0	
	20년 이상			22.7	36.4	40.9		13.6	45.5	36.4	4.5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16.7	50.0	33.3	4.2	16.7	41.7	37.5	
	일반 사무직종			25.0	25.0	50.0			50.0	25.0	25.0
	기타 전문직종				25.0	75.0			50.0	50.0	
전체				15.6	43.8	40.6	3.1	12.5	43.8	37.5	3.1

-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3.1%로 매우 높았고, 만족도는 43.7%로 다소 높게 나타남

〈표4-59〉 현 거주지역의 만족도 - 5

구분		지역주민과의 관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4.3	47.8	43.5	4.3
	여성			66.7	33.3	
학년	1학년					
	2학년			100.0		
	3학년			50.0	50.0	
	4학년		3.8	50.0	42.3	3.8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70.0	30.0	
	20년 이상		4.5	45.5	45.5	4.5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2	54.2	41.7	
	일반 사무직종			50.0	50.0	
	기타 전문직종			50.0	25.0	25.0
전체			3.1	53.1	40.6	3.1

- 현재 거주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의 교육여건은 좋지않다가 65.7%로 높게 나갔고, 직장등의 근로조건 역시 75.0%로 전라북도의 교육여건과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4-60〉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1

구분		교육여건				직장 등 근로조건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성별	남성	17.4	47.8	21.7	8.7	4.3	17.4	56.5	8.7	13.0	4.3
	여성	22.2	44.4	22.2		11.1	33.3	44.4	11.1		11.1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75.0	25.0				75.0	25.0			
	4학년	11.5	50.0	23.1	7.7	7.7	15.4	61.5	7.7	7.7	7.7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10.0	70.0	10.0		10.0	30.0	50.0	10.0		10.0
	20년 이상	22.7	36.4	27.3	9.1	4.5	18.2	54.5	9.1	13.6	4.5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0.8	41.7	25.0	8.3	4.2	20.8	58.3	8.3	8.3	4.2
	일반 사무직종	25.0	50.0	25.0			50.0	25.0		25.0	
	기타 전문직종		75.0			25.0		50.0	25.0		25.0
전체		18.8	46.9	21.9	6.3	6.3	21.9	53.1	9.4	9.4	6.3

- 주거 및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여건이 좋다가 40.7%, 좋지 않다 43.8%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에 대해서는 좋지 않음이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4-61〉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2

구분		주거 및 정주여건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성별	남성	4.3	34.8	17.4	30.4	13.0	17.4	52.2	17.4	13.0	
	여성	11.1	44.4	11.1	33.3		22.2	44.4	22.2		11.1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25.0	50.0		25.0		75.0	25.0			
	4학년	3.8	38.5	19.2	26.9	11.5	11.5	53.8	23.1	7.7	3.8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10.0	30.0	10.0	50.0		10.0	80.0			10.0
	20년 이상	4.5	40.9	18.2	22.7	13.6	22.7	36.4	27.3	13.6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4.2	41.7	20.8	29.2	4.2	20.8	41.7	25.0	8.3	4.2
	일반 사무직종	25.0	50.0		25.0		25.0	50.0		25.0	
	기타 전문직종				50.0	50.0		100.0			
전체		6.3	37.5	15.6	31.3	9.4	18.8	50.0	18.8	9.4	3.1

- 병원, 보육 등의 편의시설을 비교 했을 경우 전라북도의 편의시설이 안좋은 경우가 67.7%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여건 역시 안좋다가 62.5%로 높게 나타남

〈표4-62〉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3

구분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성별	남성	13.6	59.1	18.2	9.1		13.0	52.2	21.7	13.0	
	여성	11.1	44.4	44.4			22.2	33.3	22.2	22.2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50.0	50.0				50.0	50.0			
	4학년	8.0	60.0	24.0	8.0		11.5	50.0	26.9	11.5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11.1	55.6	33.3			10.0	50.0	20.0	20.0	
	20년 이상	13.6	54.5	22.7	9.1		18.2	45.5	22.7	13.6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13.0	52.2	26.1	8.7		16.7	41.7	29.2	12.5	
	일반 사무직종	25.0	50.0	25.0			25.0	50.0		25.0	
	기타 전문직종		75.0	25.0				75.0		25.0	
전체		12.9	54.8	25.8	6.5		15.6	46.9	21.9	15.6	

- 여가 및 문화환경의 여건은 좋지 않음이 78.1%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연환경의 경우엔 현 거주지보다 전라북도의 여건이 좋은 편이 43.8%로 높게 나타남

〈표4-63〉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4

구분		여가 및 문화환경				자연환경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성별	남성	30.4	43.5	21.7	4.3		17.4	39.1	30.4	13.0	
	여성	22.2	66.7			11.1	22.2	33.3	33.3	11.1	
학년	1학년										
	2학년			100.0				100.0			
	3학년	75.0	25.0					75.0			25.0
	4학년	23.1	53.8	15.4	3.8	3.8	19.2	34.6	34.6	11.5	
전북거주 기간	20년 미만	40.0	50.0			10.0	10.0	30.0	50.0	10.0	
	20년 이상	22.7	50.0	22.7	4.5		22.7	40.9	22.7	13.6	
장래희망 직종	공무원(교사)	29.2	54.2	8.3	4.2	4.2	16.7	37.5	33.3	12.5	
	일반 사무직종	50.0	25.0	25.0			50.0	25.0	25.0		
	기타 전문직종		50.0	50.0				50.0	25.0	25.0	
전체		28.1	50.0	15.6	3.1	3.1	18.8	37.5	31.3	12.5	

-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비교 했을 경우엔 동일하다라는 응답이 59.4%로 높게 나타났고, 전라북도의 여건이 더 좋다는 응답이 25.0%로 안 좋은 경우인 15.6% 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남

〈표4-64〉 현 거주지역과 비교한 전라북도의 생활여건 - 5

구분		지역주민과의 관계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동일하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성별	남성		21.7	56.5	17.4	4.3
	여성			66.7	33.3	
학년	1학년					
	2학년			100.0		
	3학년			75.0	25.0	
	4학년		19.2	57.7	19.2	3.8
전북	20년 미만		10.0	60.0	30.0	
거주기간	20년 이상		18.2	59.1	18.2	4.5
장래	공무원(교사)		16.7	66.7	12.5	4.2
희망	일반 사무직종		25.0	50.0	25.0	
직종	기타 전문직종			25.0	75.0	
전체			15.6	59.4	21.9	3.1

다. 전라북도소재 공공기관 근로자 인식조사

- 전라북도 소재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222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이 126명(56.8%)이 여성이 96명(43.2%)응답 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02명(45.9%), 40대 58명(26.1%)등의 순으로 많았음
- 가구구성의 경우 2세대 가구가 91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 자녀의 경우 없는 경우가 142명(64.0%)로 나타남
- 연평균 소득으로는 5천만원 이상이 87명(39.2%)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으로는 20년 이상 거주자가 95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년 미만 거주자 57명(25.7%)으로 많았음

〈표4-65〉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근로자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26	56.8	학령기 자녀유무	있음	66	29.7
	여성	96	43.2		없음	142	64.0
	합계	222	100.0		결측	14	6.3
연령	30대 미만	45	20.3	연평균 소득	합계	222	100.0
	30대	102	45.9		3천만원 미만	50	22.5
	40대	58	26.1		3천만원대	39	17.6
	50대	16	7.2		4천만원대	25	11.3
	결측	1	0.5		5천만원 이상	87	39.2
	합계	222	100.0		결측	21	9.5
가구 구성	1인가구	78	35.1	전북 거주기간	합계	222	100.0
	부부가구	19	8.6		3년 미만	57	25.7
	2세대가구	91	41.0		3년~5년	45	20.3
	3세대가구/기타	33	14.9		6년~10년	12	5.4
	결측	1	0.5		11년~20년	9	4.1
	합계	222	100.0		20년 이상	95	42.8
					결측	4	1.8
					합계	222	100.0

- 전라북도가 고향인 경우는 51.9%, 고향이 아닌 경우 48.1%로 나타났고 현재 직장의 평균 근무년수는 8.6년으로 나타남
- 동거가족 수는 3명 이상이 66.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명이 18.2% 였음

〈표4-66〉 전라북도 고향 여부 및 근무기간

구분		전라북도 고향 여부		현재 직장 근무기간		동거가족 수		
		그렇다	아니다	평균 년	평균 월	1명	2명	3명이상
성별	남성	47.1	52.9	9.1	5.2	24.1	17.2	58.6
	여성	56.6	43.4	7.7	5.4	11.1	13.0	75.9
연령	30대 미만	37.8	62.2	2.9	4.8	5.6	22.2	72.2
	30대	52.7	47.3	5.3	5.2	28.8	21.2	50.0
	40대	59.5	40.5	14.0	6.2	6.3	6.3	87.5
	50대	60.0	40.0	20.1	3.6	20.0		8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57.1	42.9	4.7	5.0	17.9	14.3	67.9
	3천만원대	44.8	55.2	4.4	5.8	31.6	26.3	42.1
	4천만원대	71.4	28.6	9.9	5.0	22.2	16.7	61.1
	5천만원 이상	40.0	60.0	13.0	5.5	12.5	12.5	75.0
학령기 자녀	있음	53.8	46.2	13.7	5.2	2.6	7.9	89.5
	없음	47.6	52.4	5.6	5.3	28.1	21.9	50.0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9.8	90.2	7.0	5.6	33.3	23.8	42.9
	10년 초과	96.2	3.8	9.2	5.1	14.6	13.5	71.9
전체		51.9	48.1	8.6	5.3	18.2	15.5	66.4

- 전라북도가 고향이 아닌 경우 동거 가족의 수는 전체적으로 3명 이상이 59.5%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로 이주한 시기는 2016년 이후가 55.9%로 가장 많았고, 2011년~2015년 전출이 25.5%로 많았음

〈표4-67〉 전라북도가 고향이 아닌 경우 가족형태

구분		전라북도 고향 여부		동거가족 수			전라북도 이주 시기			
		그렇다	아니다	1명	2명	3명이상	2000년 이전	2000-2010년	2011-2015년	2016년 이후
성별	남성	47.1	52.9	31.0	11.3	57.7	10.6	6.1	25.8	57.6
	여성	56.6	43.4	23.8	14.3	61.9	15.8	7.9	23.7	52.6
연령	30대 미만	37.8	62.2	48.0	12.0	40.0	11.1	3.7	25.9	59.3
	30대	52.7	47.3	25.0	15.4	59.6	10.9	6.5	15.2	67.4
	40대	59.5	40.5	21.4	3.6	75.0	12.5	12.5	41.7	33.3
	50대	60.0	40.0	12.5	25.0	62.5	28.6		28.6	42.9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57.1	42.9	26.1	17.4	56.5	18.2	9.1	22.7	50.0
	3천만원대	44.8	55.2	52.4	14.3	33.3	15.8	15.8	26.3	42.1
	4천만원대	71.4	28.6	25.0	8.3	66.7	28.6			71.4
	5천만원 이상	40.0	60.0	23.4	8.5	68.1	6.3	2.1	27.1	64.6
학령기 자녀	있음	53.8	46.2	3.3	3.3	93.3	15.4	3.8	42.3	38.5
	없음	47.6	52.4	38.7	17.3	44.0	11.3	5.6	19.7	63.4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9.8	90.2	34.2	11.4	54.4		2.4	28.0	69.5
	10년 초과	96.2	3.8	12.5	15.6	71.9	65.0	20.0	15.0	
전체		51.9	48.1	27.9	12.6	59.5	12.7	5.9	25.5	55.9

- 전라북도로 전출 시의 이주 형태는 본인만 혼자 이주가 67.6%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경우 27.5%로 그 뒤를 이어 나타남

〈표4-68〉 전라북도로 전출 시 이주 형태

구분		본인만 혼자 이주	부부와 함께 이주	가족과 함께 이주	혼자 이주 했다 가족전체 이주
성별	남성	69.7	1.5	27.3	1.5
	여성	63.2	5.3	28.9	2.6
연령	30대 미만	88.0	4.0	8.0	
	30대	66.0	4.3	29.8	
	40대	52.0		44.0	4.0
	50대	57.1		28.6	14.3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77.3	4.5	18.2	
	3천만원대	65.0	5.0	30.0	
	4천만원대	75.0		25.0	
	5천만원 이상	65.2	2.2	28.3	4.3
학령기 자녀	있음	40.0		56.0	4.0
	없음	78.9	4.2	16.9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75.0	3.6	20.2	1.2
	10년 초과	33.3		61.1	5.6
전체		67.6	2.9	27.5	2.0

-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형태로는 혼자 생활한다가 52.3%로 가장 많았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형태가 28.1%로 뒤이어 많았음

〈표4-69〉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구 형태

구분		혼자 생활	부부함께 생활	부부+자녀 생활	부부+자녀+ 노부모 생활	기타
성별	남성	52.9	5.9	31.8	1.2	8.2
	여성	50.0	11.4	22.7		15.9
연령	30대 미만	60.7	10.7			28.6
	30대	47.5	10.2	35.6		6.8
	40대	54.8		38.7	3.2	3.2
	50대	40.0	10.0	40.0		1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41.7	12.5	12.5		33.3
	3천만원대	65.0	10.0	10.0		15.0
	4천만원대	54.5	9.1	36.4		
	5천만원 이상	55.4	4.6	36.9	1.5	1.5
학령기 자녀	있음	34.3	2.9	60.0	2.9	
	없음	58.0	10.2	15.9		15.9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60.7	5.6	25.2		8.4
	10년 초과	9.5	19.0	42.9	4.8	23.8
전체		52.3	7.8	28.1	.8	10.9

-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없어서가 56.1%로 가장 많았고, 향후 자녀와 함께 전라북도에서 생활할 계획은 없는 경우가 68.3%로 많았음

〈표4-70〉 자녀와의 생활형태

구분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이유				자녀와 향후 전북 생활 계획	
		자녀없어서	자녀교육문제	자녀취업때문에	기타	그렇다	아니다
성별	남성	48.9	25.5	2.1	23.4	38.1	61.9
	여성	71.4	9.5		19.0	15.8	84.2
연령	30대 미만	81.3			18.8	28.6	71.4
	30대	69.0	3.4		27.6	37.0	63.0
	40대	23.5	58.8		17.6	26.7	73.3
	50대	16.7	50.0	16.7	16.7	20.0	8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72.7			27.3	20.0	80.0
	3천만원대	92.3			7.7	44.4	55.6
	4천만원대	80.0			20.0		100.0
	5천만원 이상	33.3	38.9	2.8	25.0	34.3	65.7
학령기 자녀	있음		63.6	9.1	27.3	20.0	80.0
	없음	67.9	9.4		22.6	33.3	66.7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55.0	21.7	1.7	21.7	24.1	75.9
	10년 초과	66.7	16.7		16.7	100.0	
전체		56.1	21.2	1.5	21.2	31.7	68.3

- 향후 가족과 전라북도에서 생활할 의향은 51.2%로 높게 나타났고 전라북도에서 생활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은퇴 후 고향에 가고 싶어서가 27.4%로 많았음

〈표4-71〉 향후 가족과 전라북도 생활 의향

구분		가족과 전북 생활 의향		전라북도 생활 의향이 없는 이유				
		있다	없다	가족이 싫어서	자녀교육 문제	은퇴후 고향가고 싶어서	전북의 정주환경 안좋아서	기타
성별	남성	53.0	47.0	12.8	20.5	30.8	10.3	25.6
	여성	44.7	55.3	11.5	7.7	23.1	19.2	38.5
연령	30대 미만	41.4	58.6	12.5	6.3	31.3	18.8	31.3
	30대	52.5	47.5	14.3	10.7	25.0	14.3	35.7
	40대	53.1	46.9	6.7	33.3	20.0	13.3	26.7
	50대	55.6	44.4	20.0	20.0	40.0		2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44.0	56.0	14.3	7.1	21.4	7.1	50.0
	3천만원대	54.5	45.5		11.1	44.4	22.2	22.2
	4천만원대	54.5	45.5			40.0	20.0	40.0
	5천만원 이상	50.0	50.0	18.8	25.0	18.8	15.6	21.9
학령기 자녀	있음	50.0	50.0	5.9	35.3	17.6	11.8	29.4
	없음	48.9	51.1	15.6	6.7	31.1	15.6	31.1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41.9	58.1	13.1	13.1	27.9	14.8	31.1
	10년 초과	95.5	4.5		100.0			
전체		51.2	48.8	12.9	14.5	27.4	14.5	30.6

- 전라북도의 자녀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25.4%로 높게 나타났고, 직장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54.6%로 많았음

〈표4-72〉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1

구분		자녀교육여건					직장 등 근로조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7.4	16.5	48.8	20.7	6.6	.8	8.1	29.8	46.8	14.5
	여성	7.7	20.9	58.2	12.1	1.1	2.1	11.5	42.7	39.6	4.2
연령	30대 미만	6.7	22.2	60.0	11.1		4.4	17.8	31.1	44.4	2.2
	30대	10.3	14.4	52.6	16.5	6.2	1.0	10.8	38.2	40.2	9.8
	40대	3.8	24.5	41.5	26.4	3.8		3.5	31.6	49.1	15.8
	50대	6.3	12.5	68.8	6.3	6.3			40.0	46.7	13.3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8.2	22.4	59.2	6.1	4.1		14.0	50.0	32.0	4.0
	3천만원대	5.1	17.9	59.0	17.9		5.1	15.4	41.0	35.9	2.6
	4천만원대	4.3	17.4	60.9	13.0	4.3		12.0	36.0	48.0	4.0
	5천만원 이상	8.5	17.1	46.3	20.7	7.3		4.7	27.1	51.8	16.5
학령기 자녀	있음	9.4	25.0	37.5	21.9	6.3		3.0	30.3	45.5	21.2
	없음	7.4	15.6	59.3	14.1	3.7	2.1	12.7	36.6	43.0	5.6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7.5	17.9	52.8	15.1	6.6	.9	8.0	29.5	47.3	14.3
	10년 초과	6.8	18.4	53.4	19.4	1.9	1.9	10.6	40.4	41.3	5.8
전체		7.2	18.2	53.1	17.2	4.3	1.4	9.3	34.7	44.4	10.2

- 주거 및 정주여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42.9%로 많았고,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은 불만족이 40.8%로 많았음

〈표4-73〉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2

구분		주거 및 정주여건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2.4	14.4	35.2	41.6	6.4	18.5	25.0	33.1	20.2	3.2
	여성	2.1	13.5	50.0	31.3	3.1	17.7	20.8	38.5	19.8	3.1
연령	30대 미만	6.7	17.8	28.9	46.7		28.9	28.9	22.2	20.0	
	30대	1.0	18.6	43.1	30.4	6.9	20.6	24.5	31.4	19.6	3.9
	40대	1.8	7.0	45.6	40.4	5.3	8.9	19.6	51.8	16.1	3.6
	50대			50.0	43.8	6.3	6.3	12.5	37.5	37.5	6.3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16.0	48.0	32.0	4.0	20.0	28.0	30.0	20.0	2.0
	3천만원대	7.7	17.9	30.8	41.0	2.6	25.6	23.1	28.2	20.5	2.6
	4천만원대	8.0	8.0	52.0	28.0	4.0	20.0	4.0	60.0	16.0	
	5천만원 이상		14.0	41.9	37.2	7.0	15.3	25.9	36.5	16.5	5.9
학령기	있음	1.5	9.1	42.4	40.9	6.1	15.2	18.2	43.9	18.2	4.5
자녀	없음	2.8	16.9	40.1	35.2	4.9	21.3	25.5	30.5	19.9	2.8
전북	10년 이하	3.5	18.6	37.2	34.5	6.2	24.8	28.3	26.5	17.7	2.7
거주기간	10년 초과	1.0	9.6	44.2	41.3	3.8	10.7	16.5	45.6	23.3	3.9
전체		2.3	14.3	40.6	37.8	5.1	18.1	22.7	35.6	20.4	3.2

-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 만족도는 불만족이 33.5%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에 있어서는 불만족과 만족이 27%대로 매우 유사함

〈표4-74〉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3

구분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					도서관·학교 등 교육여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9.7	26.6	41.1	19.4	3.2	7.4	23.8	41.8	22.1	4.9
	여성	10.5	20.0	45.3	21.1	3.2	4.2	17.9	50.5	23.2	4.2
연령	30대 미만	6.8	29.5	38.6	22.7	2.3	4.5	25.0	40.9	29.5	
	30대	14.7	23.5	40.2	18.6	2.9	8.0	24.0	43.0	21.0	4.0
	40대	7.1	21.4	51.8	16.1	3.6	5.4	16.1	53.6	16.1	8.9
	50대		18.8	37.5	37.5	6.3		6.3	50.0	37.5	6.3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8.2	26.5	49.0	12.2	4.1	4.0	22.0	52.0	20.0	2.0
	3천만원대	7.7	23.1	41.0	28.2		7.7	28.2	33.3	28.2	2.6
	4천만원대	12.0	20.0	48.0	20.0		4.2	20.8	58.3	16.7	
	5천만원 이상	11.8	28.2	37.6	16.5	5.9	7.1	21.4	45.2	17.9	8.3
학령기 자녀	있음	9.2	24.6	43.1	18.5	4.6	9.5	15.9	42.9	23.8	7.9
	없음	11.3	24.1	42.6	19.1	2.8	5.0	24.8	45.4	21.3	3.5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12.5	30.4	39.3	14.3	3.6	6.3	24.3	44.1	20.7	4.5
	10년 초과	6.8	16.5	46.6	27.2	2.9	4.9	18.6	46.1	25.5	4.9
전체		9.8	23.7	42.8	20.5	3.3	5.6	21.6	45.1	23.0	4.7

- 여가 및 문화환경에 있어서는 불만족이 46.3%로 많았고,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54.9%로 높게 나타남

〈표4-75〉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4

구분		여가 및 문화환경					자연환경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19.2	28.8	28.0	19.2	4.8	4.0	6.4	28.8	47.2	13.6
	여성	13.7	31.6	35.8	18.9		4.3	9.6	39.4	39.4	7.4
연령	30대 미만	13.3	31.1	31.1	24.4		8.9	15.6	33.3	35.6	6.7
	30대	24.5	31.4	26.5	14.7	2.9	2.9	8.8	36.3	41.2	10.8
	40대	8.9	32.1	37.5	21.4		3.6	1.8	30.4	53.6	10.7
	50대		12.5	43.8	25.0	18.8			26.7	46.7	26.7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12.0	28.0	42.0	18.0			6.0	46.0	40.0	8.0
	3천만원대	17.9	28.2	35.9	17.9		7.7	12.8	38.5	33.3	7.7
	4천만원대	25.0	45.8	12.5	16.7		4.3	13.0	21.7	52.2	8.7
	5천만원 이상	18.6	27.9	27.9	18.6	7.0	5.8	5.8	24.4	48.8	15.1
학령기 자녀	있음	10.8	30.8	30.8	23.1	4.6	4.6	3.1	30.8	50.8	10.8
	없음	21.1	31.0	30.3	15.5	2.1	4.2	10.6	33.1	41.5	10.6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20.4	28.3	32.7	14.2	4.4	5.3	8.8	30.1	40.7	15.0
	10년 초과	12.6	31.1	30.1	25.2	1.0	2.9	6.9	36.3	47.1	6.9
전체		16.7	29.6	31.5	19.4	2.8	4.2	7.9	33.0	43.7	11.2

-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도가 35.6%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가 56.9%, 불만족한다가 7.4%의 순으로 나타남

〈표4-76〉 전라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 5

구분		지역주민과의 관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1.6	4.8	54.0	29.8	9.7
	여성	1.0	8.3	61.5	28.1	1.0
연령	30대 미만	4.4	11.1	55.6	24.4	4.4
	30대	1.0	6.9	61.4	26.7	4.0
	40대		3.5	50.9	36.8	8.8
	50대			56.3	31.3	12.5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4.0	64.0	28.0	4.0
	3천만원대	5.1	7.7	59.0	28.2	
	4천만원대		4.0	60.0	24.0	12.0
	5천만원 이상	1.2	7.1	52.9	30.6	8.2
학령기 자녀	있음		3.0	59.1	31.8	6.1
	없음	2.1	8.5	56.0	27.7	5.7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1.8	7.1	61.6	21.4	8.0
	10년 초과	1.0	4.8	51.9	38.5	3.8
전체		1.4	6.0	56.9	29.6	6.0

- 공공기관직원이 전라북도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생활기반시설확충이 2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이 28.8%로 많았음

〈표4-77〉 공공기관직원이 전라북도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구분		보육/교육 여건개선	청년일자 리확대	생활편의 시설확충	문화여 가 기반 확대	공공기관직원 자원정책 확대	생활기반 시설확충	쾌적한 환경기 반조성	기타
성별	남성	28.2	19.4	22.6	21.8	27.4	27.4	9.7	2.4
	여성	29.5	30.5	23.2	28.4	21.1	34.7	11.6	2.1
연령	30대 미만	15.6	33.3	15.6	28.9	17.8	46.7	6.7	.0
	30대	32.0	21.0	22.0	28.0	29.0	32.0	10.0	2.0
	40대	34.5	19.0	29.3	19.0	25.9	19.0	15.5	5.2
	50대	26.7	40.0	26.7	13.3	13.3	13.3	6.7	.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22.0	32.0	20.0	24.0	26.0	36.0	6.0	2.0
	3천만원대	26.3	34.2	26.3	34.2	26.3	39.5	15.8	.0
	4천만원대	36.0	24.0	16.0	36.0	32.0	20.0	4.0	.0
	5천만원 이상	31.4	15.1	29.1	22.1	20.9	26.7	15.1	3.5
학령기 자녀	있음	43.1	20.0	29.2	21.5	26.2	27.7	15.4	4.6
	없음	22.1	25.0	20.0	27.9	23.6	33.6	8.6	1.4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23.4	5.4	27.0	22.5	28.8	42.3	12.6	2.7
	10년 초과	34.6	44.2	18.3	26.9	21.2	16.3	8.7	1.0
전체		28.8	24.2	22.8	24.7	25.1	29.8	10.7	1.9

- 향후 전라북도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은 전체적으로 63.8%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 생활하고 싶은 이유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38.8%로 높게 나타남

〈표4-78〉 향후 전라북도 거주 의향

구분		거주 의향		계속 생활하고 싶은 이유			
		그렇다	아니다	쾌적한생활환경	편리한정주여건	안정적인교육기반	기타
성별	남성	60.7	39.3	42.3	12.8		44.9
	여성	66.3	33.8	33.3	17.5	1.6	47.6
연령	30대 미만	61.9	38.1	61.5			38.5
	30대	61.4	38.6	27.3	16.7	1.5	54.5
	40대	63.3	36.7	36.8	15.8		47.4
	50대	76.9	23.1	54.5	36.4		9.1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68.9	31.1	50.0	12.5		37.5
	3천만원대	59.4	40.6	30.8	15.4	3.8	50.0
	4천만원대	69.6	30.4	29.4	23.5		47.1
	5천만원 이상	57.5	42.5	38.0	12.0		50.0
학령기 자녀	있음	64.4	35.6	32.6	16.3		51.2
	없음	60.5	39.5	39.5	15.1	1.2	44.2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40.0	60.0	58.3	6.3		35.4
	10년 초과	90.9	9.1	28.6	19.8	1.1	50.5
전체		63.8	36.2	38.8	15.1	.7	45.3

-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교육의 문제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문제가 20.7%로 많았음

〈표4-79〉 전라북도 거주 의향 없는 이유

구분		전북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기타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부족한 편의시설	경제적 문제	가족반대 /부적응	편의시설부족 /생활상불편	
성별	남성	9.8	25.5	15.7	19.6		15.7	13.7
	여성	8.8	23.5		20.6	5.9	23.5	17.6
연령	30대 미만	16.7	16.7		33.3		16.7	16.7
	30대	7.7	25.6	7.7	17.9	5.1	25.6	10.3
	40대	9.1	31.8	18.2	9.1		9.1	22.7
	50대		20.0	20.0	40.0			2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12.5	12.5		25.0		18.8	31.3
	3천만원대	21.4	21.4	7.1	7.1	7.1	35.7	
	4천만원대	11.1	44.4	11.1			33.3	
	5천만원 이상	5.0	27.5	15.0	22.5	2.5	12.5	15.0
학령기 자녀	있음	4.2	50.0	12.5	12.5		4.2	16.7
	없음	11.9	13.6	8.5	23.7	3.4	25.4	13.6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10.0	18.6	11.4	21.4	2.9	20.0	15.7
	10년 초과	8.3	58.3		16.7		16.7	
전체		9.8	24.4	9.8	20.7	2.4	19.5	13.4

- 은퇴 이후 희망하고 있는 거주지역으로는 수도권이 46.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호남권이 21.1%, 충청권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80〉 은퇴 이후 희망 거주지

구분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권
성별	남성	41.7	20.8	14.6	20.8	2.1
	여성	54.8	12.9	12.9	19.4	
연령	30대 미만	41.2	11.8	17.6	29.4	
	30대	48.6	16.2	10.8	24.3	
	40대	45.0	30.0	10.0	10.0	5.0
	50대	50.0		5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43.8	12.5	6.3	37.5	
	3천만원대	33.3	8.3	25.0	33.3	
	4천만원대	50.0	16.7	16.7	16.7	
	5천만원 이상	48.7	23.1	12.8	12.8	2.6
학령기 자녀	있음	57.1	14.3	14.3	9.5	4.8
	없음	43.9	17.5	14.0	24.6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47.0	18.2	16.7	16.7	1.5
	10년 초과	40.0	10.0		50.0	
전체		46.1	17.1	14.5	21.1	1.3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전북이 91.8%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로 그 뒤를 이었음

- 전북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주시 거주가 7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군산(9.0%), 완주(6.3%) 등의 순이었음

〈표4-81〉 현재 거주지역

구분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성별	남성	3.3	.8	.8	1.7	2.5	.8	.8	.8	88.3	
	여성	1.1		1.1						96.6	1.1
연령	30대 미만									97.6	2.4
	30대	4.2		1.0				1.0	1.0	92.7	
	40대	1.9	1.9		1.9	1.9	1.9			90.7	
	50대			6.7	6.7	13.3				73.3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97.9	2.1
	3천만원대			2.7						97.3	
	4천만원대	4.5								95.5	
	5천만원 이상	3.6	1.2	1.2	1.2	3.6	1.2	1.2	1.2	85.7	
학령기 자녀	있음	1.6	1.6			4.9	1.6		1.6	88.5	
	없음	3.0		.8	1.5			.8		93.2	.8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4.6	.9	1.8	1.8	2.8	.9	.9	.9	84.4	.9
	10년 초과									100.0	
전체		2.4	.5	1.0	1.0	1.4	.5	.5	.5	91.8	.5

〈표4-82〉 현재 거주지 전북인 경우 시군

구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성별	남성	88.3	70.3	6.8	4.1		4.1	2.7	10.8	1.4
	여성	96.6	77.1	11.4	1.4	4.3	4.3		1.4	
연령	30대 미만	97.6	69.7	18.2	6.1				6.1	
	30대	92.7	72.7	7.6	3.0	1.5	7.6	1.5	4.5	1.5
	40대	90.7	75.0	2.8		5.6	2.8	2.8	11.1	
	50대	73.3	87.5	12.5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97.9	66.7	12.8	2.6		12.8		5.1	
	3천만원대	97.3	73.3	10.0	6.7	6.7		3.3		
	4천만원대	95.5	72.2	5.6	5.6				16.7	
	5천만원 이상	85.7	79.2	8.3		2.1		2.1	8.3	
학령기 자녀	있음	88.5	70.7	9.8		4.9	4.9	2.4	4.9	2.4
	없음	93.2	75.3	7.5	4.3		4.3	1.1	7.5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84.4	65.6	13.1	6.6	1.6			13.1	
	10년 초과	100.0	79.5	6.0		2.4	7.2	2.4	1.2	1.2
전체		91.8	73.6	9.0	2.8	2.1	4.2	1.4	6.3	.7

○ 태어난 고향으로는 전북이 48.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2.9%, 전남 7.2%, 광주와 충북 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83〉 태어난 고향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성별	남성	15.0	1.9	4.7	3.7	3.7		.9	.9	2.8	1.9	6.5	2.8	40.2	9.3	2.8	2.8	
	여성	10.1	1.1	2.2	4.5	7.9	2.2			3.4		4.5		57.3	4.5		1.1	1.1
연령	30대 미만	14.0	2.3	2.3	2.3	9.3				4.7		4.7		46.5	11.6			2.3
	30대	17.6	1.1	4.4	7.7	5.5	1.1	1.1		3.3	1.1	4.4		45.1	3.3	2.2	2.2	
	40대	4.0		4.0		2.0	2.0		2.0			10.0	4.0	58.0	8.0		4.0	
	50대		9.1			9.1				9.1		9.1		36.4	18.2	9.1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8.7	2.2		6.5	6.5	2.2			4.3		4.3		60.9	4.3			
	3천만원대	11.1		5.6	5.6	11.1								50.0	11.1	2.8		2.8
	4천만원대	15.0	5.0	5.0									5.0	70.0				
	5천만원 이상	14.5	1.3	5.3	2.6	5.3	1.3	1.3	1.3	5.3	2.6	11.8	2.6	28.9	9.2	2.6	3.9	
학령기 자녀	있음	8.6		1.7	1.7	1.7			1.7	5.2	1.7	5.2	3.4	51.7	10.3	1.7	5.2	
	없음	14.3	2.4	4.8	5.6	7.1	.8	.8		2.4	.8	5.6	.8	45.2	6.3	1.6	.8	.8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21.5	2.8	6.5	6.5	9.3		.9	.9	4.7	1.9	10.3	2.8	12.1	13.1	2.8	2.8	.9
	10년 초과	2.3			1.1	1.1	1.1							93.1			1.1	
전체		12.9	1.5	3.6	4.1	5.7	.5	.5	.5	2.6	1.0	5.7	1.5	48.5	7.2	1.5	2.1	.5

○ 태어난 고향이 전북인 경우 전주가 59.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제 9.5%, 남원 7.1%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4-84〉 태어난 고향 전북인 경우 시군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성별	남성	51.4	5.4	2.7		10.8	8.1	8.1		2.7	10.8	
	여성	66.0	4.3		4.3	4.3	10.6	2.1	2.1	2.1		2.1
연령	30대 미만	58.8	17.6				17.6	5.9				
	30대	64.1	2.6		2.6	15.4	2.6	2.6			7.7	2.6
	40대	54.2		4.2	4.2		16.7	8.3		4.2	4.2	
	50대	50.0							25.0		25.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57.7	7.7			15.4	11.5	3.8		3.8		
	3천만원대	55.6	5.6		5.6	11.1	5.6		5.6		5.6	5.6
	4천만원대	71.4	7.1	7.1			7.1	7.1				
	5천만원 이상	57.9			5.3		15.8	10.5			10.5	
학령기 자녀	있음	48.0	4.0	4.0	4.0	8.0	20.0		4.0		8.0	
	없음	63.5	5.8			7.7	5.8	7.7		3.8	3.8	1.9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16.7	8.3			8.3	8.3	33.3		8.3	8.3	
	10년 초과	66.7	4.2	1.4	2.8	6.9	9.7		1.4		1.4	4.2
전체		59.5	4.8	1.2	2.4	7.1	9.5	4.8	1.2	1.2	2.4	4.8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북이 80.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주소지가 전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군별로는 전주 73.6%, 군산 9.1%, 완주 5.0%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4-8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성별	남성	3.8	.9		1.9	1.9	.9	5.7	.9	1.9	79.2	1.9
	여성	4.7	1.2	1.2	1.2	1.2		2.3	1.2	2.3	81.4	2.3
연령	30대 미만	4.7	2.3					4.7	2.3	2.3	76.7	4.7
	30대	6.7		1.1	2.2	1.1		2.2		2.2	80.9	2.2
	40대		2.1			2.1	2.1	4.2	2.1	2.1	85.4	
	50대				9.1	9.1		18.2			63.6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4.3		2.2				4.3		2.2	80.4	4.3
	3천만원대		2.9		5.7			2.9			82.9	5.7
	4천만원대	10.5									89.5	
	5천만원 이상	3.9	1.3		1.3	2.6	1.3	6.6	1.3	3.9	76.3	
학령기 자녀	있음	1.9	1.9				1.9	9.3	1.9		83.3	
	없음	5.6	.8	.8	1.6	2.4		2.4	.8	3.2	77.8	3.2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6.5	1.9	.9	2.8	2.8	.9	6.5	1.9	3.7	67.3	2.8
	10년 초과	1.2									97.6	1.2
전체		4.2	1.1	.5	1.6	1.6	.5	3.7	1.1	2.1	80.5	2.1

〈표4-86〉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북인 경우 시군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성별	남성	70.5	6.6	3.3	1.6	3.3	3.3	8.2	1.6	1.6
	여성	76.7	11.7	1.7	5.0	3.3		1.7		
연령	30대 미만	71.4	17.9	7.1				3.6		
	30대	72.2	9.3	1.9	3.7	5.6	1.9	3.7		1.9
	40대	71.9	3.1		6.3	3.1	3.1	9.4	3.1	
	50대	10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74.2	9.7	3.2		9.7		3.2		
	3천만원대	73.1	11.5	3.8	7.7		3.8			
	4천만원대	68.8	6.3	6.3				18.8		
	5천만원 이상	75.0	10.0		5.0		2.5	5.0	2.5	
학령기 자녀	있음	66.7	11.1		5.6	5.6	2.8	2.8	2.8	2.8
	없음	76.3	7.9	3.9	1.3	2.6	1.3	6.6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64.6	14.6	6.3	4.2			10.4		
	10년 초과	79.5	5.5		2.7	5.5	2.7	1.4	1.4	1.4
전체		73.6	9.1	2.5	3.3	3.3	1.7	5.0	.8	.8

〈표4-87〉 은퇴 후 희망거주지 1순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성별	남성	14.2	3.8	2.8	1.9	2.8	4.7	.9	2.8	8.5	.9	3.8	1.9	42.5	1.9	2.8		3.8
	여성	11.4	1.1	1.1	1.1	4.5	5.7			5.7	1.1	2.3	1.1	54.5	3.4		2.3	4.5
연령	30대 미만	9.1	6.8			6.8	9.1			4.5		2.3		50.0	4.5		2.3	4.5
	30대	18.2	1.1	1.1	2.3	3.4	3.4	1.1	1.1	6.8	2.3	3.4	1.1	44.3	3.4	2.3		4.5
	40대	8.2	2.0	6.1	2.0		4.1		4.1	8.2		4.1	4.1	53.1				4.1
	50대					8.3	8.3			16.7				50.0		8.3	8.3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4.7	2.3		4.7	4.7	7.0			4.7		2.3		53.5	7.0		2.3	7.0
	3천만원대	5.6	5.6			8.3	8.3			5.6	2.8			58.3	2.8	2.8		
	4천만원대	5.0		5.0						10.0		5.0	5.0	65.0				5.0
	5천만원 이상	20.0	2.7	2.7	1.3	2.7	5.3	1.3	2.7	10.7	1.3	5.3	2.7	33.3		2.7	1.3	4.0
학령기 자녀	있음	10.7	3.6	3.6	1.8		1.8		1.8	12.5			3.6	51.8		1.8		7.1
	없음	14.2	2.4	1.6	1.6	4.7	6.3	.8	1.6	5.5	.8	3.9	.8	45.7	3.9	1.6	1.6	3.1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21.5	4.7	3.7	2.8	6.5	6.5	.9	2.8	12.1	.9	5.6	2.8	17.8	3.7	2.8	1.9	2.8
	10년 초과	1.2					2.4				1.2			88.0	1.2			6.0
전체		12.6	2.6	2.1	1.6	3.7	4.7	.5	1.6	6.8	1.1	3.2	1.6	48.4	2.6	1.6	1.1	4.2

○ 은퇴 후 희망하고 있는 거주지역으로 1순위는 전북이 48.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2.6%, 경기도 6.8% 등의 순으로 희망지역이 나타남

○ 은퇴 후 희망 거주지가 전북인 경우 시군별 희망 지역은 전주가 8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군산과 남원이 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88〉 은퇴 후 희망거주지 1순위 전복인 경우 시군

구분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성별	남성	75.6	2.4		2.4	4.9	4.9	2.4		2.4	2.4
	여성	87.2	4.3	2.1	4.3			2.1			
연령	30대 미만	85.7	14.3								
	30대	86.1			5.6	2.8				2.8	2.8
	40대	68.0		4.0	4.0	4.0	8.0	4.0	4.0		
	50대	10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85.7	9.5		4.8						
	3천만원대	81.0	4.8		4.8	4.8		4.8			
	4천만원대	91.7								8.3	
	5천만원 이상	75.0		4.2		4.2	8.3	4.2	4.2		
학령기 자녀	있음	71.4		7.1	3.6		3.6	3.6	3.6	3.6	
	없음	87.0	5.6	1.9	1.9	3.7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76.5	5.9				11.8		5.9		
	10년 초과	82.9	2.9	1.4	4.3	2.9		1.4		1.4	1.4
전체		81.6	3.4	1.1	3.4	2.3	2.3	1.1	1.1	1.1	1.1

○ 은퇴 후 희망하고 있는 거주지의 2순위와 3순위 또한 각각 전북의 응답률이 38.1%, 43.0%로 가장 많았음

- 전북 시군별로 2순위 희망지역은 전주(26.7%), 완주(21.7%)가 많았고, 3순위 희망지역은 전주(33.9%), 익산(14.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4-89〉 은퇴 후 희망거주지 2순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성별	남성	10.5	2.1	1.1	1.1	3.2	5.3	3.2	14.7	3.2	2.1	3.2	32.6	6.3	2.1	2.1	7.4
	여성	14.5	1.3	1.3	2.6	1.3	2.6	3.9	7.9	1.3	1.3	3.9	43.4	3.9		2.6	7.9
연령	30대 미만	7.3	2.4	2.4	4.9	7.3	7.3	2.4	7.3	2.4		2.4	41.5	2.4		4.9	4.9
	30대	15.4	1.3	1.3	1.3	1.3	3.8	6.4	17.9	1.3		3.8	29.5	3.8	1.3	1.3	10.3
	40대	10.0					2.5		2.5	2.5	7.5	5.0	50.0	7.5	2.5	2.5	7.5
	50대	18.2	9.1						9.1	9.1			36.4	18.2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7.9			2.6	5.3	5.3	2.6	10.5	2.6		5.3	44.7	5.3		5.3	2.6
	3천만원대	6.5	3.2	6.5		3.2	6.5	3.2	6.5				45.2	3.2		3.2	12.9
	4천만원대	21.1					5.3	5.3	5.3	5.3			42.1	5.3	5.3		5.3
	5천만원 이상	14.9	3.0		1.5	1.5	3.0	4.5	14.9	3.0	4.5	6.0	23.9	7.5	1.5	1.5	9.0
학령기 자녀	있음	14.0					2.0		8.0	4.0	2.0	8.0	42.0	4.0		4.0	12.0
	없음	12.4	2.7	1.8	2.7	3.5	5.3	4.4	13.3	1.8	1.8	1.8	36.3	4.4	1.8	1.8	4.4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17.5	3.1	2.1	3.1	4.1	2.1	3.1	18.6	3.1	3.1	4.1	19.6	6.2	2.1	3.1	5.2
	10년 초과	2.8					7.0	2.8	2.8	1.4		2.8	63.4	4.2		1.4	11.3
전체		11.3	1.8	1.2	1.8	2.4	4.2	3.0	11.9	2.4	1.8	3.6	38.1	5.4	1.2	2.4	7.7

〈표4-90〉 은퇴 후 희망거주지 2순위 전복인 경우 시군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
성별	남성	25.0	10.7	3.6		7.1	7.1	25.0	3.6	3.6	7.1	7.1
	여성	28.1	12.5	6.3	3.1	6.3	15.6	18.8		6.3	3.1	
연령	30대 미만	35.3	23.5	11.8			17.6	5.9		5.9		
	30대	30.0	15.0	5.0		15.0	5.0	30.0				
	40대	15.8			5.3	5.3	15.8	21.1	5.3	5.3	15.8	10.5
	50대	25.0						50.0		25.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25.0	6.3	6.3		6.3	25.0	18.8		6.3	6.3	
	3천만원대	42.9	14.3		7.1	14.3	7.1	14.3				
	4천만원대	12.5	12.5	12.5			12.5	50.0				
	5천만원 이상	28.6	14.3					28.6	7.1		14.3	7.1
학령기 자녀	있음	25.0	10.0		5.0	5.0	15.0	15.0	5.0		10.0	10.0
	없음	28.9	13.2	7.9		7.9	10.5	21.1		7.9	2.6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55.6	5.6		5.6	5.6	5.6	16.7		5.6		
	10년 초과	14.3	14.3	7.1		7.1	14.3	23.8	2.4	4.8	7.1	4.8
전체		26.7	11.7	5.0	1.7	6.7	11.7	21.7	1.7	5.0	5.0	3.3

〈표4-91〉 은퇴 후 희망거주지 3순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성별	남성	12.9	2.4	2.4	3.5		11.8	3.5	7.1	2.4	3.5	1.2	38.8	1.2	1.2	2.4	5.9
	여성	7.5	1.5		7.5	1.5	4.5	6.0	7.5				46.3	10.4			7.5
연령	30대 미만	13.5	2.7		5.4		5.4	5.4	8.1				35.1	13.5		2.7	8.1
	30대	14.5	2.9	1.4	8.7		10.1	4.3	8.7	1.4		1.4	36.2	2.9		1.4	5.8
	40대	2.9				2.9	8.6	5.7	5.7	2.9	8.6		54.3	2.9	2.9		2.9
	50대			10.0									70.0				20.0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16.7	2.8		5.6		11.1		2.8				41.7	11.1			8.3
	3천만원대	10.0			10.0		6.7		6.7	3.3			46.7	6.7	3.3	3.3	3.3
	4천만원대		7.7				7.7	15.4	7.7				46.2				15.4
	5천만원 이상	10.0	1.7	3.3		1.7	8.3	6.7	10.0	1.7	5.0	1.7	40.0	1.7		1.7	6.7
학령기 자녀	있음	4.5	2.3	2.3			4.5	2.3	6.8	4.5	4.5	2.3	61.4	2.3		2.3	
	없음	13.7	2.0	1.0	7.8	1.0	10.8	5.9	7.8		1.0		34.3	4.9	2.0	7.8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14.0	2.3	2.3	4.7	1.2	10.5	7.0	10.5	1.2	3.5	1.2	30.2	2.3		2.3	7.0
	10년 초과	4.8	1.6		4.8		6.3	1.6	1.6	1.6			60.3	9.5	1.6		6.3
전체		10.1	2.0	1.3	4.7	.7	8.7	4.7	6.7	1.3	2.0	.7	43.0	5.4	.7	1.3	6.7

〈표4-92〉 은퇴 후 희망거주지 3순위 전북인 경우 시군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순창	고창	부안
성별	남성	35.5	9.7	9.7	6.5		9.7	9.7	9.7	3.2	3.2	3.2	
	여성	32.3	9.7	19.4		6.5		12.9	6.5	3.2			9.7
연령	30대 미만	28.6	21.4	21.4				28.6					
	30대	36.4	9.1	27.3			4.5	4.5	9.1			4.5	4.5
	40대	27.8	5.6		11.1	5.6		11.1	11.1	11.1	5.6		11.1
	50대	50.0				12.5	25.0		12.5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18.8	12.5	12.5		6.3	6.3	18.8	6.3	6.3			12.5
	3천만원대	28.6	7.1	28.6			7.1	7.1	7.1			7.1	7.1
	4천만원대	50.0	16.7					16.7	16.7				
	5천만원 이상	47.6	9.5	9.5	9.5		4.8	4.8	4.8	4.8	4.8		
학령기 자녀	있음	40.0	8.0	4.0	8.0	4.0	4.0	4.0	12.0	8.0	4.0		4.0
	없음	29.4	11.8	23.5		2.9	2.9	17.6	2.9			2.9	5.9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58.3	12.5	12.5				12.5				4.2	
	10년 초과	18.4	7.9	15.8	5.3	5.3	7.9	10.5	13.2	5.3	2.6		7.9
전체		33.9	9.7	14.5	3.2	3.2	4.8	11.3	8.1	3.2	1.6	1.6	4.8

〈표4-93〉 은퇴 후 주거지역으로서 전북의 매력

구분		쾌적한 자연환경	저렴한 생활물가	풍부한 농생명 특화자원	다양한 여가문화자원	도민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	기타
성별	남성	49.1	16.4	12.1	4.3	.9	17.2
	여성	38.9	17.8	11.1	7.8		24.4
연령	30대 미만	47.6	16.7	9.5	4.8	2.4	19.0
	30대	39.1	20.7	12.0	7.6		20.7
	40대	48.2	14.3	10.7	3.6		23.2
	50대	53.3	6.7	20.0	6.7		13.3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48.9	8.5	6.4	4.3	2.1	29.8
	3천만원대	40.0	22.9	11.4	8.6		17.1
	4천만원대	37.5	29.2	25.0			8.3
	5천만원 이상	50.0	15.9	9.8	6.1		18.3
학령기 자녀	있음	43.5	9.7	16.1	4.8		25.8
	없음	44.3	21.4	9.9	4.6	.8	19.1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46.6	17.5	13.6	5.8		16.5
	10년 초과	43.0	16.0	10.0	6.0	1.0	24.0
전체		44.8	16.7	11.8	5.9	.5	20.2

○ 은퇴 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전북의 매력은 쾌적한 자연환경이 44.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향후 전라북도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동거주지역을 조성 시 입주할 의향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56.2%로 가장 많았고, 공동거주 지역을 조성한다면 고려해야할 여건으로 기초 인프라가 좋은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을 하는 것이 63.8%로 가장 많았음

〈표4-94〉 전북에 공공기관 종사자 위한 공동거주지역 조성시 입주 의향

구분		향후 입주 의향		공동거주지역 조성지역 여건			
		그렇다	아니다	자연환경 좋은 농촌지역	기초인프라 좋은 혁신도시 인근	자연환경+ 인프라 좋은 도농복합지역	기타
성별	남성	57.3	42.7	4.1	66.2	27.0	2.7
	여성	53.4	46.6	1.9	59.3	38.9	
연령	30대 미만	58.1	41.9		74.1	22.2	3.7
	30대	53.3	46.7	5.2	67.2	27.6	
	40대	56.4	43.6	2.9	44.1	50.0	2.9
	50대	57.1	42.9		77.8	22.2	
연평균 소득	3천만원 미만	52.2	47.8		71.4	28.6	
	3천만원대	57.6	42.4	4.0	60.0	32.0	4.0
	4천만원대	60.9	39.1	6.7	66.7	26.7	
	5천만원 이상	55.3	44.7	4.2	58.3	35.4	2.1
학령기 자녀	있음	65.6	34.4	4.7	51.2	41.9	2.3
	없음	50.4	49.6	2.7	72.0	24.0	1.3
전북 거주기간	10년 이하	56.9	43.1	1.5	67.7	27.7	3.1
	10년 초과	55.4	44.6	4.8	59.7	35.5	
전체		56.2	43.8	3.1	63.8	31.5	1.6

5

장

정책방향 및 대상선정

-
1. 인구유입 정책의 전제조건
 2. 인구유입 대상선정
 3. 인구유입 대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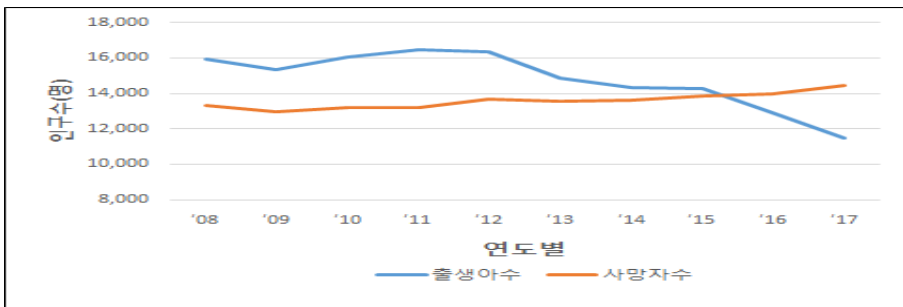
제5장 정책방향 및 대상선정

1. 인구유입 정책의 전제조건

가. 인구증가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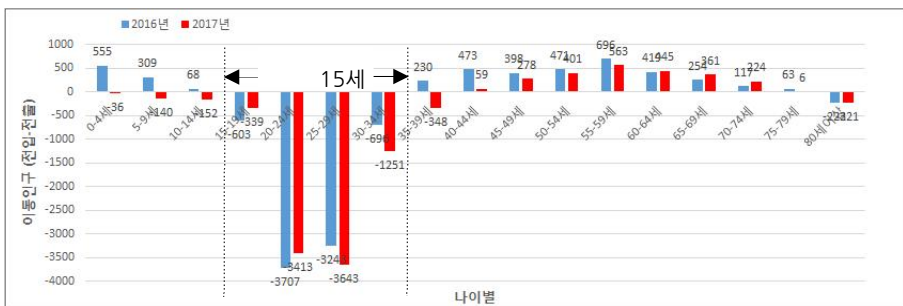
- 현재 전라북도 인구감소는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인구감소와 청년층을 위주로 한 인구유출이 인구감소를 견인
- 전라북도는 2016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현상이 발생한 이후 2017년 2,929명의 자연감소현상이 나타남

〈그림5-1〉 전라북도 출생아수와 사망자수 현황



- 전라북도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5세~39세 사이의 청년인구유출이 심각하여 2017년 한해만 8,994명의 청년인구 순수출이 나타남

〈그림5-2〉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이동



- 인구의 자연감소와 인구유출 등 인구감소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이를 타계할 인구증가정책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 인구이동 자체가 하나의 요건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나. 정주지역선택

-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정책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통한 단시간적 인구유입이 아닌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전라북도의 생활입지선택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인구유입정책은 현재 주소이동에 따른 현금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단시일적 인구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인구확대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자녀학자금, 주택수리비, 주민세, 의료비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유입효과를 꾀하고자 노력 중
- 인센티브 위주의 인구정책은 지방소멸시대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일본에서는 최근 지방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전통적 매력을 토대로 청년세대나 출향인들의 고향 회귀정책이 추진 중에 있음
- 일본은 지방도시의 청년층들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한 연구와 대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이 특정한 라이프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지방도시 또는 출신지역으로 이주하는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이현옥, 2019)¹⁾

1) 청년과 인구정책: 일본 청년들의 장소선택, 이현옥, 2019, 제1회 전라북도 도란도란토크콘서트 발표자료

- 지방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자기실현을 위한 창업, 6차 산업과 관련한 농업분야, 대도시에서 익힌 기술수준 및 정보수준을 활용한 재취업, 육아친화적 환경(Saknuo, 2016) 등이 있음

〈표5-1〉 지역별 인구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 장려금	결혼 장려금	전임 세대 소득 공제	전임 (학생) 대학생 지원금	대학교 장학 사업	전임세대 기념품	전임		주택 수리비 (공과금)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지원	전임세대 취업 우선지원	전임세대 공공 주차장 이용권	자동차 번호 변경 등록	관광지 무료 입장	기초 건강 검진 (의료비)	상품권 지원	주민세
						세대	정착 지원 (장려금)									
강릉	●	●	●	●	●			●		●						
고성	●				●		●	●								
강원 동해	●		●	●		●	●			●						
(6) 속초			●									●				
정선		●											●	●	●	
태백		●				●	●		●						●	
횡성	●		●										●		●	
금강		●				●	●				●					
무주		●														
전북 부안			●			●	●									
(4) 임실			●			●	●								●	
진안			●			●	●								●	
강진	●		●			●	●							●		●
광양		●				●	●					●		●		●
장성	●					●	●		●							
구례	●					●	●		●					●		
전남 담양	●	●				●	●	●				●				
(10) 무안			●					●						●		●
영광			●			●	●					●				●
진도	●		●			●	●		●					●	●	
함평				●				●						●	●	
해남		●				●	●				●		●			
경북 영진		●		●					●				●			
(2) 함양	●													●		

다. 제도적 한계

-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인구관련 법이 검토단계에 있을 뿐 제정된 법이 없는 상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구관련 유일한 법률이나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관한 내용이 부재
 - 인구감소지역발전 특별법은 그동안 인구문제를 출산에서 종합적 관점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충돌하여 현재 계류중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의 경우 과소화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안이 제정되지 못함
 - 마을공동체기본법 또한 모든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이를 모범으로 청년유입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
 - 현재 의안접수중인 청년기본법의 경우 청년정책 종합적 성격을 띄고 있어 청년유입 특별법과 중첩되거나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인구유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동반이주의 경우 지자체는 방문이나 이주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가족의 동반이주를 위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
 - 해외에서 결혼이나 이주를 통해 영주권을 확보한 사람이 그 가족의 동반이주를 추진할 경우 이를 허가하는 가족초청이민제도가 있지만 최근 가족초청이민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시행할 이민청이나 가족초청이민제도가 없는 상황
 - 현재 총리실산하 외국인 정책 위원회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향후 지자체 차원의 이민자유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 필요

라. 예산의 한계

- 전라북도는 인구종합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유아·청소년, 청년·일자리, 고령화·중장년,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체류인구, 제2고향만들기 등의 분야에서 40대 핵심과제에 2조 1,770억원을 투입할 예정

〈표5-2〉 전라북도 인구정책 핵심과제

분야별	핵심과제명	사업기간	예산	비고
계	40 개		2,177,041	
출산유아청소년	난임부부지원	‘18~’22	590	계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8~’22	22,175	계속
	거점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지원	‘19~’22	4,400	신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18~’22	3,892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22	12,503	계속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8~’22	90,965	계속
	다함께 돌봄사업	‘18~’22	12,252	계속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18~’22	19,160	계속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18~’22	비예산	계속
청년·일자리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19~’22	비예산	신규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	‘18~’22	17,000	계속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18~’22	14,430	계속
	대학생 직무인턴 운영	‘18~’22	3,098	계속
	전북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	‘18~’22	23,870	계속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19~’22	84,272	신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8~’22	17,818	계속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18~’22	456,434	계속
	청년정책 포럼 운영	‘18~’22	150	계속
고령화중장년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18~’22	6,750	계속
	청년활동 지원사업	‘19~’22	150,000	신규
	공익활동 및 취업형 일자리 지원	‘18~’22	347,504	계속
농촌활력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8~’22	9,980	계속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8~’22	11,700	계속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	‘18~’22	3,600	계속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22	15,500	계속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8~’22	24,781	계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8~’22	300,000	계속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18~’22	8,514	계속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18~’19	7,313	계속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	‘18~’22	600	신규
다문화	농촌다움 복원사업	‘19~’22	8,000	신규
	결혼이민자 학력 지원	‘18~’22	1,005	계속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18~’22	800	계속
도시재생·활력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18~’22	7,630	계속
	‘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8~’22	114,300	계속
	저출산극복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18~’20	369,600	계속
체류인구	전북 투어패스 숲 지역 운영	‘18~’22	6,455	계속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18~’22		계속
제 2고향 만들기	사업구체화 방안 연구용역	‘19		신규
	제 2고향만들기 사업추진	‘20~’22		신규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예산계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차원의 인구대응전략은 예산의 한계가 분명

2. 인구유입 대상선정

- 전라북도 인구유입 및 유출의 현황 분석은 지역의 인구증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 현황 및 추이를 공인통계를 중심으로 분석
- 전라북도의 인구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출산율이라고 하는 자연인구의 증감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인구유출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구유출은 주로 출향민 그리고 순인구이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향민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 출생 타지역거주자(출향민)을 추정해 보면, 약 180만명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전라북도의 출향민 중 대다수는 20세에서 29세의 청년층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순인구이동은 약 9.5천명으로, 순이동율은 4.3%정도로 다른 연령대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임, 특히, 20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인구유출은 전라북도 전체 순인구이동율인 0.8%보다도 다섯배가 높은 4.3%로 청년의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수준임
- 다만, 이 같은 인구유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이전 전후로 혁신도시의 인구는 약 2.6만명이 증가함
- 따라서 전라북도 인구대책은 출향민, 대학생 등 청년층의 인구이동 그리고 인구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 이전 공공기관 인구추이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필요

〈표5-3〉 전라북도 인구유입·유출 대상 선정

구분	현황	관련통계
출향민	· 전라북도 출생인구 318만명 · 전북거주인구 186만명 · 타지역거주 전북출향민 132만명	출생지별 거주인구 (인구주택총조사)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전북 공공기관 이전 전 혁신도시인구(2014년) 1.5만명 · 전북공공기관 이전 후 혁신도시인구(2017년) 2.6만명 · 전북공공기관 이전 이후 1.1만명 증가(인구증가율 73.0%)	공공기관 이전 전후 인구이동 (인구이동통계)
대학생	· 전북청년인구 유출심화 (20-29세 인구 순이동) 9.5천명 (2018년 말기준) · 전북청년인구(20세-29세) 순이동율-4.3%↔전체 평균순이동율 0.8% · 전북전체 세대 중 청년세대의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수준 ※ 전북의 청년인구유출이 전연령평균 유출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	연령대별 인구이동현황 (인구이동통계)

3. 인구유입 대상현황

가. 전북 출향인

- 출향인구 추정은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 중 출생지 거주비율은 평균 60.2%에 달하며 수도권 42.2%, 지방 64.4%로 수도권 거주인구는 출생자보다 타지역 출생자가 많고 지방은 고향출생자의 거주비율이 높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 출생인구는 총 약 318만명이며 이중 175만명(55%)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거주자 중 전북 출생은 82.1%이며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는 17.9%
- 이를 다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입하여 출향민을 추정해 보면 전라북도의 출생주민은 2015년 기준 약 332.9만명이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186.5만명임
- 전라북도의 출생주민 중 전라북도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은 152.5만명이고 전라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도민은 180.4만명으로 추정

〈표5-4〉 지역별·출생지별 거주인구 비율

출생지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특별시	46.5	2.4	1.6	1.4	1.4	0.9	0.4	7.9	3.5	3.1	5.8	6.3	8.1	5.0	3.2	0.5
부산광역시	1.8	53.7	1.4	0.3	0.3	0.3	1.6	1.0	1.4	1.0	1.0	1.4	4.0	8.0	20.7	0.5
대구광역시	1.5	1.7	53.2	0.3	0.1	0.3	0.5	1.0	1.2	1.0	0.7	0.7	0.7	30.0	6.0	0.1
인천광역시	11.4	1.5	0.8	41.7	0.8	0.7	0.2	9.1	4.0	3.0	7.5	4.5	6.7	3.8	2.0	0.3
광주광역시	2.4	0.6	0.2	0.4	49.0	0.2	0.1	1.4	0.4	0.3	0.6	4.3	38.2	0.4	0.6	0.2
대전광역시	5.8	1.6	1.1	0.9	0.7	42.0	0.4	3.7	1.8	8.1	19.0	5.4	2.7	3.6	1.9	0.2
울산광역시	2.1	8.7	2.8	0.5	0.3	0.4	47.4	1.4	3.0	1.9	1.3	1.4	2.4	15.1	10.1	0.3
경기도	18.9	2.0	1.3	2.3	1.0	0.9	0.4	38.5	4.3	3.4	6.1	5.3	6.6	4.5	2.6	0.4
강원도	5.8	1.0	0.8	1.1	0.3	0.4	0.2	5.5	69.5	2.8	1.9	1.4	1.7	4.2	1.4	0.2
충청북도	4.8	1.1	0.8	1.0	0.4	1.8	0.3	5.0	4.1	65.9	4.6	1.8	1.8	4.0	1.4	0.2
충청남도	5.8	1.4	0.9	1.8	0.6	2.6	0.5	5.9	2.0	3.1	63.5	3.4	2.8	2.6	1.7	0.2
전라북도	2.7	0.5	0.3	0.6	1.0	0.5	0.3	1.8	0.6	0.6	2.2	82.1	4.6	0.6	0.8	0.1
전라남도	1.9	1.0	0.3	0.4	3.6	0.2	0.2	1.3	0.5	0.4	0.7	2.6	83.7	0.7	1.4	0.3
경상북도	1.9	2.5	6.4	0.4	0.2	0.4	1.1	1.5	1.9	1.4	1.0	0.8	1.0	74.7	3.6	0.2
경상남도	1.7	10.5	1.5	0.4	0.3	0.3	1.0	1.1	1.1	0.7	0.8	1.1	2.2	4.2	71.7	0.3
제주도	3.3	1.7	0.5	0.5	0.5	0.3	0.2	1.4	0.8	0.5	0.9	1.1	3.7	1.2	1.5	80.7

자료 :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재분석

〈표5-5〉 지역별 전입 및 전출자 현황(2015년 기준)

전출지 전입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7,755,285	1,726,687	520,591	364,364	463,665	233,675	241,330	170,473	30,960	1,983,302	222,362	213,188	279,680	264,662	246,168	345,307	450,279	83,323
서울	1,589,431	1,123,529	19,441	13,038	33,570	10,860	13,559	6,954	2,228	239,557	20,080	13,197	19,144	14,830	13,884	16,478	16,781	6,351
부산	507,081	17,009	376,345	5,182	2,930	1,418	2,054	11,255	364	14,973	2,333	1,757	2,548	1,731	3,308	10,473	51,578	1,773
대구	351,424	10,191	4,553	283,165	1,691	547	1,667	3,189	219	10,043	1,735	1,450	1,999	861	873	43,828	8,669	734
인천	473,223	44,915	3,185	1,987	314,622	2,167	2,516	1,249	451	71,513	5,058	3,509	6,636	3,395	3,496	3,773	3,464	1,287
광주	224,603	9,216	1,195	629	1,894	150,777	1,321	482	236	9,323	945	711	1,468	5,660	37,578	920	1,455	793
대전	220,774	13,453	2,209	2,085	2,755	1,481	139,609	890	3,694	15,266	2,902	7,749	15,551	4,396	2,019	3,508	2,613	603
울산	170,388	5,950	11,810	3,675	1,359	538	939	116,131	116	6,089	1,103	1,057	1,468	1,391	1,158	8,642	8,526	441
세종	83,994	7,550	929	879	1,496	926	25,788	306	13,990	9,672	765	9,061	8,384	1,422	699	977	952	188
경기	1,993,080	359,337	16,441	12,322	66,353	10,788	15,354	5,847	2,585	1,346,264	28,238	20,075	33,277	17,553	15,749	20,107	16,945	5,845
강원	227,125	22,659	2,305	1,884	5,904	1,029	2,423	1,128	316	30,961	140,018	4,725	3,172	1,616	1,601	4,069	2,708	607
충북	214,626	14,379	2,023	1,957	4,624	970	8,265	1,162	2,308	23,692	4,706	133,264	6,253	2,271	1,442	4,225	2,464	621
충남	289,952	22,299	3,164	2,509	9,101	2,053	16,030	1,555	2,905	37,791	3,743	6,580	163,466	6,259	3,389	4,511	3,671	896
전북	261,632	14,835	1,680	940	3,581	5,632	3,766	935	411	18,131	1,577	1,753	5,563	193,076	5,551	1,570	2,148	683
전남	250,104	14,598	3,586	953	3,876	40,882	1,798	1,222	251	16,804	1,589	1,344	2,593	5,304	147,703	1,797	4,742	1,052
경북	344,730	15,113	10,768	46,900	3,982	1,008	2,914	8,715	403	20,166	3,999	3,859	3,554	1,508	1,826	209,109	10,003	903
경남	455,384	15,220	58,222	8,922	3,670	1,643	2,420	8,772	344	17,483	2,772	2,259	3,480	2,329	4,551	10,089	311,703	1,500
제주	97,580	10,434	2,735	1,317	2,276	1,155	967	681	139	10,584	839	838	1,094	1,060	1,341	1,231	1,852	49,036

자료 : 통계청(2015) 연간 국내인구이동 자료

- 전라북도 인구감소는 주로 인구이동에 따른 결과로서 2018년 기준 순이동율을 보면, 전북은 -1.4만명의 순이동이 있었고, 순이동율은 -0.8%로 부산, 대전, 울산, 서울 등에 이어서 가장 높은 마이너스대의 순이동율을 보임
- 전라북도의 인구이동현황을 보면, 총전입자는 2018년 기준 24.3만명으로 이는 2008년 32.2만명보다도 크게 감소한 것이고 전출자는 2018년 기준 25.7만명으로 2008년 총 전입자 33.3만명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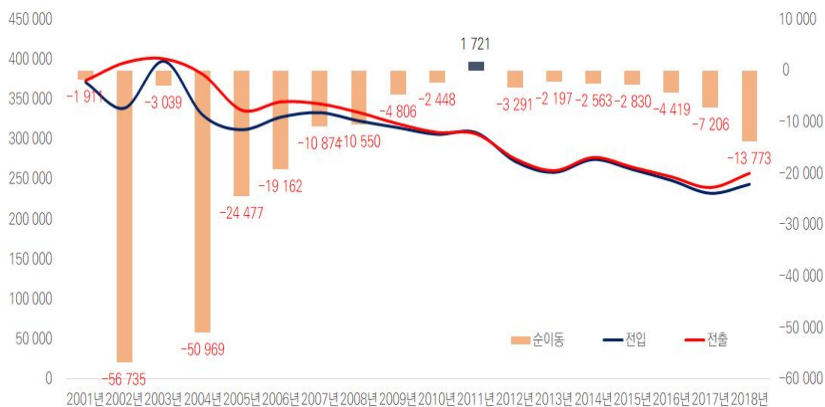
〈표5-6〉 지역별 순이동인구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년대비		
													증감률(%)		증감
	2008	2013	2017	2018	2008	2013	2017	2018	2008	2013	2017	2018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 국	8,808	7,412	7,154	7,297	8,808	7,412	7,154	7,297	0	0	0	0	2.0	2.0	0
서울	2,025	1,520	1,473	1,440	2,083	1,621	1,571	1,550	-58	-101	-98	-110	-2.3	-1.4	-12
부산	515	478	439	416	549	496	467	443	-35	-18	-28	-27	-5.2	-5.3	2
대구	410	352	321	321	423	363	333	335	-13	-11	-12	-14	0.0	0.7	-2
인천	566	462	409	434	556	440	411	434	9	22	-2	-0	5.9	5.5	2
광주	269	227	208	219	268	229	216	225	0	-3	-8	-6	5.2	4.1	2
대전	264	231	211	213	269	231	228	228	-6	0	-16	-15	0.7	0.0	1
울산	182	159	135	128	178	157	147	141	4	2	-12	-13	-5.4	-4.4	-1
세종	-	24	82	86	-	15	47	55	-	9	35	31	5.3	16.1	-3
경기	2,196	1,895	1,888	2,042	2,095	1,821	1,772	1,872	101	74	116	170	8.1	5.6	54
강원	252	218	212	216	251	215	210	220	1	3	2	-4	2.2	5.1	-6
충북	245	216	197	219	238	213	195	214	7	3	2	5	11.0	9.7	3
충남	355	281	289	292	340	268	269	282	16	13	19	10	1.2	4.8	-9
전북	322	258	232	243	333	260	239	257	-11	-2	-7	-14	4.9	7.5	-7
전남	278	244	228	224	291	247	231	232	-13	-2	-3	-8	-1.4	0.8	-5
경북	363	329	311	309	377	331	317	319	-14	-2	-6	-9	-0.5	0.6	-4
경남	487	428	413	390	474	424	409	396	13	4	4	-6	-5.7	-3.3	-10
제주	80	89	105	104	82	81	91	95	-2	8	14	9	-0.8	4.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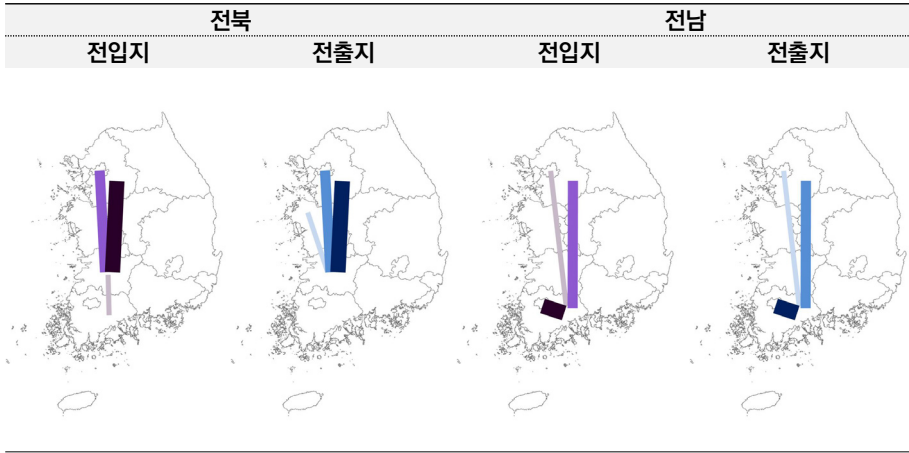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9) 국내인구이동 현황

- 전라북도의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순이동인구에서 2011년에만 유출 보다는 유입이 많았지만 2012년 이후 다시 인구유입보다는 유출의 폭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5-3〉 전라북도 연도별 인구이동 추이



〈그림5-4〉 전북-전남 주요 전입 및 전출지



- 2018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타지로 전출한 지역은 전라북도를 제외하면 경기도가 1.8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6만명 등임
- 다만, 전출지역의 추이에서는 최근 서울지역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 광주와 제주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5-7〉 전라북도 전출지역 추이

구분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증감율
전국	380,222	395,786	371,479	372,218	336,014	308,237	264,662	257,097	-1.2%
서울	70,106	58,962	31,316	32,637	24,989	18,777	14,830	15,664	-4.6%
부산	6,605	5,355	2,182	2,285	1,602	1,518	1,731	1,344	-4.9%
대구	1,989	1,318	1,090	1,074	844	924	861	863	-2.6%
인천	6,767	8,134	5,031	5,587	5,408	3,844	3,395	3,724	-1.8%
광주	5,447	7,650	5,526	7,143	6,843	6,355	5,660	6,186	0.4%
대전	0	6,373	5,849	6,427	6,372	4,814	4,396	4,634	
울산	-	-	-	838	836	743	1,391	1,099	
세종	-	-	-	-	-	-	1,422	1,574	
경기	24,285	28,658	21,458	26,700	29,676	22,008	17,553	18,439	-0.9%
강원	2,091	1,591	1,373	1,640	1,573	1,480	1,616	1,326	-1.4%
충북	1,706	1,930	1,671	1,990	2,103	2,216	2,271	2,415	1.1%
충남	11,381	5,584	5,376	5,990	7,541	6,514	6,259	6,310	-1.8%
전북	232,559	254,933	279,534	268,054	237,072	228,881	193,076	183,346	-0.7%
전남	8,527	7,863	5,621	7,317	6,352	5,745	5,304	5,690	-1.3%
경북	2,436	1,924	1,773	1,630	1,738	1,569	1,508	1,352	-1.8%
경남	5,704	4,742	3,062	2,142	2,333	2,291	2,329	2,000	-3.2%
제주	619	769	617	764	732	558	1,060	1,131	1.9%

자료 : 통계청(2019) 국내인구이동 현황(2018년 말 기준)

- 특히, 전라북도도는 2008년 순이동인구율 -0.6%대에서 2018년에는 -0.8%로 인구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에서 타지로 전출한 지역은 주로 경기 25.0%, 서울 21.2% 그리고 충남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대별 순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대는 전북(-4.3%), 강원·전남(-3.9%)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14.9%), 서울(2.7%), 경기(1.5%)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나 전북이 20대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
- 한편, 전라북도의 순이동자의 전입사유별 현황을 보면, 직업, 교육 등은 높은 순유출의 사유로 제시되고 있고, 자연환경은 순유입의 주된 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5-8〉 시도별 3대 전입지 및 전출지(단위 : 천 명, %)

구분	타시도에서 전입					타시도로 전출				
	전입자 수	1위	2017년	2위	3위	전출자 수	1위	2017년	2위	3위
서울	460	경기 (50.7)	(51.6)	인천 (7.0)	강원 (4.4)	570	경기 (64.6)	(62.0)	인천 (7.2)	충남 (3.6)
부산	107	경남 (39.3)	(40.2)	서울 (12.2)	경기 (11.1)	134	경남 (40.1)	(44.6)	서울 (14.7)	경기 (12.5)
대구	86	경북 (47.0)	(46.1)	경기 (10.4)	경남 (10.1)	100	경북 (42.8)	(43.0)	서울 (13.8)	경기 (13.3)
인천	146	경기 (43.3)	(43.2)	서울 (28.2)	충남 (4.3)	146	경기 (49.8)	(46.9)	서울 (22.1)	충남 (5.6)
광주	69	전남 (53.8)	(51.4)	경기 (10.7)	서울 (10.7)	75	전남 (46.7)	(47.4)	서울 (14.4)	경기 (14.2)
대전	80	충남 (19.3)	(18.9)	경기 (16.9)	서울 (14.6)	94	세종 (23.5)	(24.7)	경기 (16.3)	충남 (15.6)
울산	39	부산 (23.1)	(23.3)	경남 (17.2)	경북 (15.7)	52	부산 (18.6)	(20.0)	경북 (17.2)	경남 (14.8)
세종	58	대전 (38.3)	(40.3)	경기 (12.3)	충남 (11.6)	27	대전 (24.0)	(24.3)	경기 (16.3)	충남 (15.7)
경기	675	서울 (54.6)	(54.4)	인천 (10.8)	충남 (5.1)	505	서울 (46.2)	(45.7)	인천 (12.5)	충남 (7.4)
강원	76	경기 (36.0)	(35.6)	서울 (25.6)	인천 (6.7)	80	경기 (36.7)	(35.2)	서울 (25.5)	인천 (6.0)
충북	80	경기 (28.8)	(29.1)	서울 (16.8)	대전 (9.9)	75	경기 (28.0)	(26.4)	서울 (18.4)	대전 (10.6)
충남	123	경기 (30.3)	(30.9)	서울 (16.7)	대전 (12.0)	113	경기 (30.8)	(29.1)	서울 (17.3)	대전 (13.6)
전북	60	경기 (24.6)	(25.7)	서울 (20.0)	전남 (9.3)	74	경기 (25.0)	(25.1)	서울 (21.2)	충남 (8.6)
전남	89	광주 (39.4)	(38.9)	경기 (16.0)	서울 (12.5)	97	광주 (38.2)	(36.3)	경기 (16.6)	서울 (14.3)
경북	117	대구 (36.4)	(35.4)	경기 (12.9)	서울 (10.2)	127	대구 (31.8)	(31.8)	경기 (16.6)	서울 (13.0)
경남	124	부산 (43.5)	(47.4)	경기 (10.9)	서울 (9.5)	130	부산 (32.6)	(35.4)	경기 (14.2)	서울 (13.8)
제주	39	경기 (26.5)	(27.0)	서울 (25.1)	부산 (7.2)	30	경기 (25.6)	(26.0)	서울 (25.4)	부산 (6.5)

자료 : 통계청(2019) 국내인구이동 현황(2018년 말 기준)

〈표5-9〉 시도 전입사유별 순이동자 수, 2017~2018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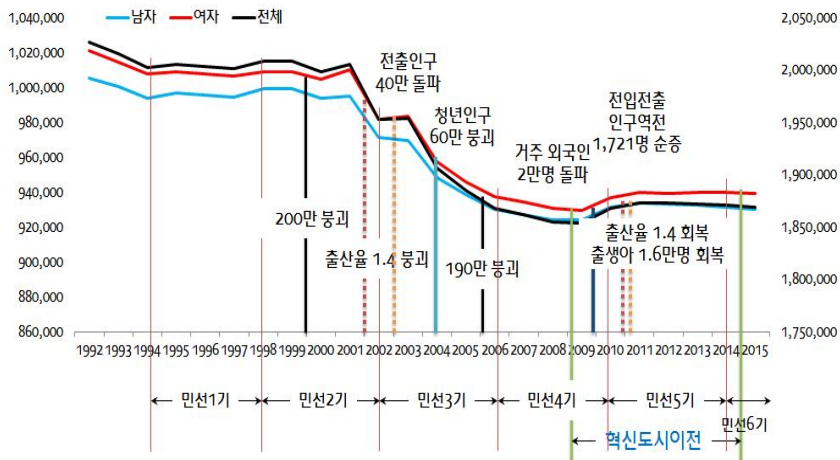
	시도	전입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7년	서울	-98.5	21.8	-44.3	-79.8	20.8	-0.0	-9.7	-7.2
	부산	-28.4	-7.6	-4.7	-14.6	0.8	-0.1	-1.8	-0.4
	대구	-11.9	-11.3	2.8	-0.6	-1.5	-0.1	-1.6	0.4
	인천	-1.7	-4.3	2.6	3.9	-2.3	-0.8	-1.0	0.3
	광주	-8.1	-9.3	4.0	-0.0	-1.6	0.1	-1.5	0.2
	대전	-16.2	-2.4	-0.7	-11.4	0.6	-0.2	-0.9	-1.2
	울산	-11.9	-4.7	1.7	-3.6	-3.2	-0.3	-0.5	-1.4
	세종	34.7	8.9	5.1	16.4	1.1	0.9	0.1	2.2
	경기	116.2	13.0	23.0	78.1	-2.4	-0.3	-0.7	5.4
	강원	2.0	0.8	-1.1	-0.3	1.5	0.4	3.3	-2.6
	충북	2.3	1.4	-0.2	-2.1	0.1	-0.1	1.4	1.9
	충남	19.4	12.9	2.4	3.6	-0.8	0.1	2.1	-0.9
	전북	-7.2	-10.6	0.8	-0.8	-0.1	0.2	1.2	2.1
	전남	-3.0	-2.3	0.4	-0.6	-3.4	-0.1	3.0	-0.0
	경북	-5.6	-3.5	-0.9	-2.1	-2.9	0.3	2.6	0.8
	경남	4.0	-11.8	8.0	12.2	-6.8	-0.1	2.1	0.4
	제주	14.0	8.8	1.2	1.7	0.3	0.2	1.8	0.0
2018년	서울	-110.2	29.6	-45.8	-98.1	22.6	-1.1	-9.5	-7.9
	부산	-26.8	-10.7	-5.5	-8.8	1.2	-0.2	-1.5	-1.3
	대구	-14.2	-12.1	2.8	-2.4	-1.8	0.2	-1.7	0.8
	인천	-0.1	-2.7	3.3	3.8	-2.1	-1.2	-0.7	-0.4
	광주	-6.2	-8.6	4.2	-0.2	-1.0	0.4	-1.3	0.3
	대전	-14.8	-3.0	-1.3	-9.6	0.9	-0.5	-0.8	-0.5
	울산	-12.7	-5.8	1.7	-3.4	-3.2	-0.4	-0.4	-1.2
	세종	31.4	7.8	5.8	14.3	1.5	1.2	0.1	0.8
	경기	170.1	26.1	31.8	102.5	-2.4	2.6	-0.1	9.5
	강원	-3.9	-3.1	-2.4	-0.1	0.9	0.3	2.9	-2.3
	충북	5.1	5.0	-0.5	-1.1	-0.8	-0.2	1.3	1.5
	충남	10.1	8.8	1.1	0.7	-1.1	-0.3	1.8	-1.0
	전북	-13.8	-11.3	-0.5	-1.5	-1.7	-0.1	1.0	0.4
	전남	-8.0	-4.5	-0.9	-1.6	-3.2	-0.4	2.6	0.0
	경북	-9.2	-7.0	-1.6	-1.0	-3.0	-0.3	2.8	0.8
	경남	-5.8	-14.3	8.0	5.8	-6.6	-0.0	1.5	-0.2
	제주	8.9	5.7	-0.1	0.7	-0.1	0.1	1.9	0.7
전년대비	서울	-11.7	7.8	-1.5	-18.4	1.8	-1.1	0.2	-0.6
	부산	1.6	-3.1	-0.7	5.9	0.4	-0.1	0.3	-0.8
	대구	-2.3	-0.8	-0.1	-1.8	-0.3	0.3	-0.0	0.4
	인천	1.6	1.6	0.7	-0.1	0.2	-0.4	0.3	-0.7
	광주	1.9	0.7	0.3	-0.2	0.6	0.3	0.2	0.1
	대전	1.4	-0.6	-0.6	1.8	0.3	-0.2	0.1	0.6
	울산	-0.7	-1.0	0.0	0.2	-0.0	-0.1	0.1	0.2
	세종	-3.3	-1.1	0.8	-2.1	0.5	0.2	-0.0	-1.4
	경기	53.9	13.1	8.8	24.4	0.1	3.0	0.6	4.1
	강원	-5.9	-4.0	-1.3	0.2	-0.6	-0.1	-0.3	0.3
	충북	2.9	3.6	-0.3	1.0	-0.9	-0.1	-0.1	-0.3
	충남	-9.3	-4.1	-1.3	-2.9	-0.3	-0.4	-0.2	-0.1
	전북	-6.6	-0.7	-1.3	-0.7	-1.6	-0.3	-0.2	-1.7
	전남	-5.0	-2.2	-1.3	-1.1	0.2	-0.3	-0.4	0.1
	경북	-3.6	-3.5	-0.8	1.1	-0.1	-0.6	0.2	0.0
	경남	-9.8	-2.5	-0.0	-6.3	0.2	0.0	-0.6	-0.6
	제주	-5.2	-3.1	-1.3	-1.0	-0.4	-0.1	0.0	0.7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이동통계

나. 전북소재 공공기관 종사자

- 전라북도의 인구는 200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09년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함
- 공공기관은 이전은 다양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이전 공공기관 인근 지역의 인구증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국토연구원(2018)의 분석에 따르면, 10개의 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5.9만명에서 2017년 17.4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인구가 2014년 3.5만명에서 2017년 13.1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국토연구원, 2018)

〈그림5-5〉 전라북도 인구추이와 시기별 경향



자료 : 김동영 외(2016)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 전북연구원

- 2012년 혁신도시 기반조성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개시한 이전과 이후 인구증감현황을 보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도의 인구는 1.5만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말 기준 인구는 2.6만명으로 약 1.1만명 증가(73.0%)한 것으로 나타남

〈표5-10〉 혁신도시 유형별 인구 현황

구분	계획인구	인구		증감 (B-A)	증감율 [(B-A)/A]	
		2014년				
대도시 입지	부산혁신도시(부산)	7,000	7,680	7,548	-132	-1.70%
	대구혁신도시(대구)	22,000	2,111	14,483	12,372	586.10%
	울산혁신도시(울산)	20,000	14,361	21,166	6,805	47.40%
	소계	49,000	24,152	43,197	19,045	78.90%
중소도시 입지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	49,000	4,092	28,267	24,175	590.80%
	강원혁신도시(원주)	31,000	3,907	21,556	17,649	451.70%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39,000	2,638	15,801	13,163	499.00%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29,000	15,327	26,519	11,192	73.00%
	경북혁신도시(김천)	27,000	2,076	18,961	16,885	813.30%
	경남혁신도시(진주)	38,000	5,963	15,575	9,612	161.20%
	제주혁신도시(서귀포)	5,000	1,050	4,401	3,351	319.10%
	소계	218,000	35,053	131,080	96,027	273.90%
계	267,000	59,205	174,277	115,072	194.40%	

자료 : 윤영모(2018)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 전라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현원 5,239명 중에서 가족동반이주는 2,616명으로 전체 이주자 중 49.9%를 차지하고 있음

○ 가족이주가 이외에는 단독이주 1,524명, 미혼 및 독신 1,0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가족이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5-11〉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현황

기관명	현원	이 주 형 태										비율(%)	
		계	가족동반								가족동반		출 퇴근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출 퇴근	가족 동반	(미혼 ·독신 제외)	(미혼 ·독신 포함)	단신 이주	미혼 ·독신	출 퇴근	
소계	5,239	5,239	2,616	1,524	1,059	40	49.9%	62.6%	70.1%	29.1%	20.2%	0.8%	
한국국토정보공사	322	322	111	159	52	0	34.5%	41.1%	50.6%	49.4%	16.1%	0.0%	
농촌진흥청(본청)	553	553	337	119	94	3	60.9%	73.4%	77.9%	21.5%	17.0%	0.5%	
국립농업과학원	1,223	1,223	828	193	199	3	67.7%	80.9%	84.0%	15.8%	16.3%	0.2%	
국립식량과학원	328	328	265	20	40	3	80.8%	92.0%	93.0%	6.1%	12.2%	0.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56	456	283	86	87	0	62.1%	76.7%	81.1%	18.9%	19.1%	0.0%	
국립축산과학원	267	267	144	58	65	0	53.9%	71.3%	78.3%	21.7%	24.3%	0.0%	
한국농수산대학	188	188	112	42	26	8	59.6%	69.1%	73.4%	22.3%	13.8%	4.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1	61	16	22	23	0	26.2%	42.1%	63.9%	36.1%	37.7%	0.0%	
국민연금공단	1,075	1,075	292	466	317	0	27.2%	38.5%	56.7%	43.3%	29.5%	0.0%	
한국전기안전공사	394	394	150	194	44	6	38.1%	42.9%	49.2%	49.2%	11.2%	1.5%	
한국식품연구원	267	267	57	110	85	15	21.3%	31.3%	53.2%	41.2%	31.8%	5.6%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05	105	21	55	27	2	20.0%	26.9%	45.7%	52.4%	25.7%	1.9%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18. 12월말 기준

- 전라북도에는 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외에도 24개의 공공기관이 소재해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인구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전북이주와 더불어 은퇴 후 전북 정주를 위한 사업 발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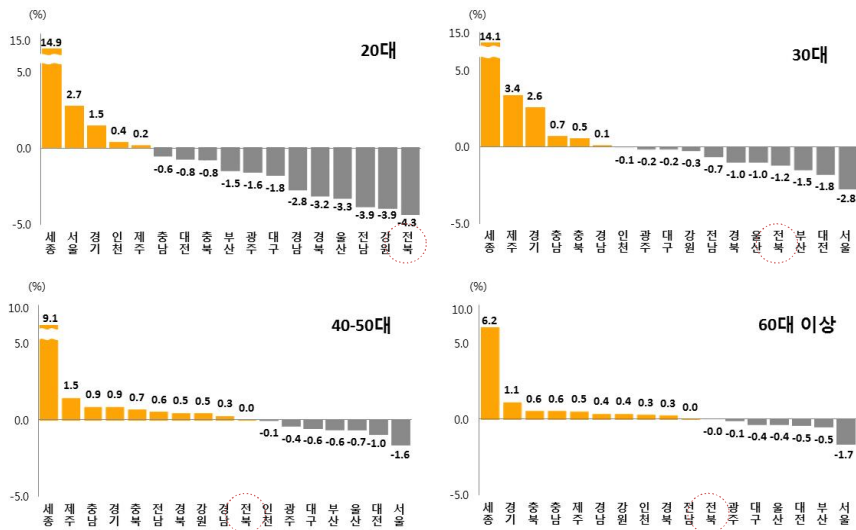
〈표5-12〉 전라북도 소재 공공기관 현황

연번	기관	종사자	타지역종사자	전북전입신고자	전북출신
1	건설기계부품연구원	83	54	34	29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188	16	12	172
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4	국립농업과학원	1,223		1,021	
5	국립식량과학원	328		285	
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56		369	
7	국립축산과학원	267		202	
8	국민연금공단	1075		758	
9	군산세관				
1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1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80	226	150	61
12	농촌진흥청	553		456	
13	북전주세무서				
14	서부지방산림청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6	전북개발공사	76			76
17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8	전북동부보훈지청	28	7	0	21
19	전북신용보증재단	58	3	3	55
20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53	7	7	46
21	전북지발조달청	33	7	0	26
22	전북지방병무청	73	6	0	67
23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36	3	2	33
24	전북지방환경청				
25	전북테크노파크				
26	전주보호관찰소				
27	전주세관				
28	전주세무서				
29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33	17	3	16
3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09			
31	한국국토정보공사	357	297	240	60
32	한국농수산대학교	188		154	
33	한국식품연구원	267		167	
34	한국전기안전공사	406	300	106	106
3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1		38	
36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82	2	1	80

다. 도내 대학생 및 도내출신 수도권 대학생

- 전라북도 인구감소는 주로 인구이동에 따른 결과로서 2018년 기준 순이동율을 보면, 전북은 -1.4만명의 순이동이 있었고, 순이동율은 -0.8%로 부산, 대전, 울산, 서울 등에 이어서 가장 높은 마이너스대의 순이동율을 보임

〈그림5-6〉 지역별 세대별 순인구이동률



자료 : 통계청(2019) 국내인구이동 현황(2018년 말 기준)

- 연령대별 순이동율을 보면, 전북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고, 순유입은 50대에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전라북도는 20세에서 29세의 청년이 2018년 한해에만 약 9.5천명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았고, 다음으로 30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도 약 2.5천명 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 순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대는 전북(-4.3%), 강원·전남(-3.9%)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14.9%), 서울(2.7%), 경기(1.5%)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나 전북이 20대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

〈표5-13〉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자 수와 순이동률, 2018

(단위: 천 명, %)

순이동자 수(천 명)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5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서울	-110.2	-23.2	-0.1	39.3	-42.5	-50.8	-26.5	-24.3	-32.9	-19.7	-9.5	-3.8
부산	-26.8	-0.9	-0.4	-6.8	-6.9	-7.2	-3.2	-4.0	-4.6	-3.4	-1.0	-0.2
대구	-14.2	0.6	-1.5	-6.0	-0.6	-4.7	-1.8	-2.9	-1.9	-1.6	-0.4	0.1
인천	-0.1	-2.0	-0.4	1.6	-0.3	-0.6	-0.3	-0.3	1.7	0.1	0.9	0.7
광주	-6.2	1.0	-1.0	-3.4	-0.4	-2.1	-0.8	-1.3	-0.4	-0.7	-0.0	0.4
대전	-14.8	-2.0	-1.3	-1.6	-3.8	-4.8	-2.2	-2.6	-1.2	-1.3	-0.1	0.1
울산	-12.7	-1.0	-1.4	-5.1	-1.7	-2.7	-1.2	-1.5	-0.7	-0.9	0.0	0.2
세종	31.4	4.9	3.1	4.8	7.8	8.3	5.0	3.3	2.6	1.8	0.5	0.2
경기	170.1	23.9	7.3	25.4	49.6	38.5	22.6	15.9	25.4	13.7	7.5	4.3
강원	-3.9	0.2	-0.2	-7.2	-0.5	2.3	0.3	2.0	1.5	1.6	0.1	-0.2
충북	5.1	0.1	-0.2	-1.6	1.1	3.7	1.5	2.2	2.1	1.6	0.5	-0.0
충남	10.1	0.8	0.1	-1.5	2.0	5.9	2.3	3.5	2.8	2.3	0.6	-0.0
전북	-13.8	-0.4	-1.4	-9.5	-2.5	0.0	-0.6	0.6	-0.0	0.4	-0.0	-0.4
전남	-8.0	-1.4	-0.7	-8.0	-1.4	3.4	0.9	2.5	0.0	1.4	-0.2	-1.2
경북	-9.2	-2.2	-0.6	-9.6	-3.2	4.4	1.0	3.4	2.0	2.2	0.2	-0.4
경남	-5.8	0.1	-1.6	-11.0	0.4	3.3	0.9	2.4	2.9	2.1	0.8	0.1
제주	8.9	1.5	0.3	0.1	2.9	3.2	2.0	1.2	0.7	0.6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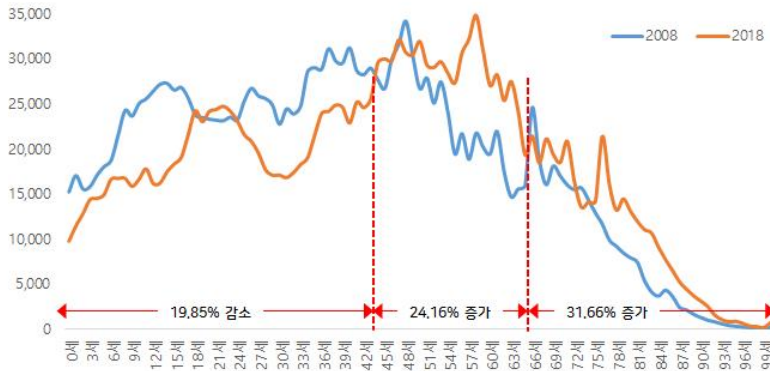
순이동률(%)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5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서울	-1.1	-3.3	-0.0	2.7	-2.8	-1.6	-1.7	-1.6	-1.7	-1.8	-1.5	-1.5
부산	-0.8	-0.4	-0.1	-1.5	-1.5	-0.6	-0.6	-0.7	-0.5	-0.7	-0.4	-0.2
대구	-0.6	0.3	-0.6	-1.8	-0.2	-0.6	-0.4	-0.7	-0.4	-0.6	-0.2	0.1
인천	-0.0	-0.8	-0.1	0.4	-0.1	-0.1	-0.1	-0.1	0.3	0.0	0.6	0.9
광주	-0.4	0.8	-0.6	-1.6	-0.2	-0.4	-0.3	-0.6	-0.1	-0.5	-0.0	1.0
대전	-1.0	-1.5	-0.8	-0.8	-1.8	-1.0	-0.9	-1.1	-0.5	-0.9	-0.1	0.4
울산	-1.1	-0.9	-1.1	-3.3	-1.0	-0.7	-0.6	-0.7	-0.4	-0.8	0.0	1.0
세종	10.6	11.6	9.1	14.9	14.1	9.1	9.1	9.2	6.2	8.1	4.2	3.6
경기	1.3	2.0	0.5	1.5	2.6	0.9	1.0	0.8	1.1	1.1	1.1	1.3
강원	-0.3	0.2	-0.2	-3.9	-0.3	0.5	0.1	0.7	0.4	0.8	0.1	-0.2
충북	0.3	0.1	-0.1	-0.8	0.5	0.7	0.6	0.8	0.6	0.8	0.5	-0.0
충남	0.5	0.4	0.1	-0.6	0.7	0.9	0.7	1.1	0.6	1.0	0.4	-0.0
전북	-0.8	-0.3	-0.7	-4.3	-1.2	0.0	-0.2	0.2	-0.0	0.2	-0.0	-0.4
전남	-0.4	-0.9	-0.4	-3.9	-0.7	0.6	0.3	0.8	0.0	0.6	-0.1	-1.1
경북	-0.3	-1.0	-0.2	-3.2	-1.0	0.5	0.2	0.7	0.3	0.6	0.1	-0.3
경남	-0.2	0.0	-0.5	-2.8	0.1	0.3	0.2	0.4	0.4	0.5	0.3	0.1
제주	1.3	2.4	0.4	0.2	3.4	1.5	1.8	1.2	0.5	0.9	0.3	0.2

자료 : 통계청(2019) 국내인구이동 현황(2018년 말 기준)

- 연령대별 순이동율을 보면, 전북은 20대와 30대의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고, 순유입은 50대에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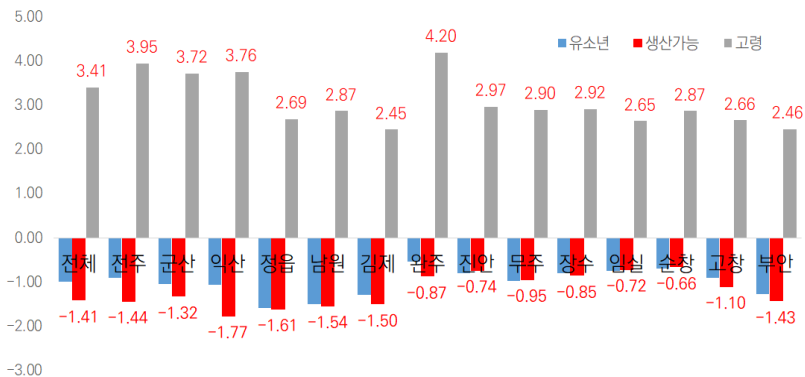
-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08년과 2018년 연령별 인구추이에서 40세 이하 청장년까지의 인구는 19.85%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5-7〉 전라북도 연령대별 인구감소추이



- 특히, 전라북도는 20세에서 29세의 청년이 2018년 한해에만 약 9.5천명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았고, 다음으로 30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도 약 2.5천명 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5-8〉 전라북도 시군별 평균 증감율 추이(2020~2023년)



- 전라북도의 시군별 인구의 평균 증감율 추이를 보면, 고령인구는 모든 시군에서 평균 3%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소년과 생산가능인구는 모든 시군에서 연평균 1.5%p내외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익산, 정읍, 남원 등의 시부지역에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다른 시군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전라북도의 세대별 인구추이를 보면, 유소년인구는 2020년 22.3만명에서 2035년 19.2만명으로 연평균 1.0%p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생산가능인구도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1.41%p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익산, 정읍, 남원 등의 시부지역에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다른 시군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전라북도의 세대별 인구추이를 보면, 유소년인구는 2020년 22.3만명에서 2035년 19.2만명으로 연평균 1.0%p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생산가능인구도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1.41%p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5-14〉 전라북도 세대별 인구구성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연평균 증가율
유소년인구	223,833	221,752	219,008	215,520	213,129	211,147	207,657	204,575	201,927	200,397	198,634	197,564	196,662	195,407	194,008	192,396	-1.00
성년가능인구	1,228,163	1,215,491	1,202,844	1,189,342	1,173,868	1,154,010	1,134,972	1,121,216	1,104,833	1,092,021	1,076,889	1,060,588	1,044,803	1,029,461	1,010,128	993,026	-1.41
고령인구	371,521	384,707	398,387	413,647	429,878	450,204	471,396	487,086	505,079	518,396	534,129	550,189	565,356	580,159	598,676	614,682	3.41
유소년인구	89,483	88,790	87,806	86,511	85,728	84,917	83,748	82,641	81,651	81,049	80,457	80,002	79,706	79,212	78,658	78,013	-0.91
성년가능인구	467,486	462,240	457,133	452,114	445,986	438,505	431,453	426,137	419,709	414,700	408,502	402,121	395,904	389,897	382,693	376,295	-1.44
고령인구	95,509	99,797	104,236	108,903	114,169	120,820	127,377	132,148	137,875	141,770	146,748	151,696	156,227	160,636	166,140	170,753	3.95
유소년인구	36,548	36,209	35,759	35,188	34,745	34,370	33,784	33,249	32,766	32,475	32,119	31,980	31,850	31,650	31,439	31,194	-1.05
성년가능인구	187,871	185,895	183,845	181,693	179,541	176,889	174,315	172,390	170,186	168,357	166,415	164,081	161,855	159,550	156,691	154,002	-1.32
고령인구	47,629	49,624	51,841	54,304	56,666	59,519	62,498	64,812	67,345	69,291	71,358	73,509	75,524	77,573	80,102	82,387	3.72
유소년인구	35,813	35,461	34,991	34,422	34,071	33,773	33,226	32,631	32,254	32,033	31,737	31,518	31,339	31,077	30,805	30,506	-1.06
성년가능인구	206,309	202,878	199,633	196,385	192,805	188,704	184,779	181,993	178,538	175,885	172,933	169,935	166,985	164,273	160,894	157,921	-1.77
고령인구	54,398	56,803	59,211	61,796	64,579	67,962	71,501	74,039	77,115	79,288	81,865	84,401	86,871	89,171	92,090	94,566	3.76
유소년인구	11,373	11,165	10,898	10,643	10,420	10,296	9,994	9,782	9,586	9,459	9,316	9,235	9,165	9,095	9,019	8,938	-1.59
성년가능인구	67,494	66,708	65,906	64,929	63,969	62,731	61,489	60,551	59,593	58,733	57,852	56,889	55,920	55,056	53,874	52,882	-1.61
고령인구	28,817	29,444	30,158	31,039	31,898	32,978	34,268	35,210	36,195	37,041	37,950	38,903	39,864	40,740	41,926	42,925	2.69
유소년인구	8,410	8,224	8,022	7,823	7,625	7,537	7,324	7,200	7,059	6,993	6,908	6,862	6,814	6,785	6,743	6,699	-1.50
성년가능인구	48,901	48,443	47,963	47,412	46,820	45,815	44,953	44,278	43,558	43,064	42,411	41,694	41,004	40,366	39,438	38,764	-1.54
고령인구	21,878	22,453	23,033	23,705	24,416	25,434	26,440	27,202	28,044	28,601	29,365	30,171	30,953	31,678	32,688	33,440	2.87
유소년인구	7,880	7,799	7,655	7,508	7,379	7,286	7,112	6,968	6,859	6,783	6,711	6,669	6,627	6,583	6,536	6,482	-1.29
성년가능인구	48,920	48,258	47,721	47,030	46,346	45,450	44,571	44,004	43,355	42,853	42,242	41,625	41,068	40,468	39,729	39,020	-1.50
고령인구	25,452	26,048	26,599	27,323	28,046	28,974	30,006	30,716	31,494	32,109	32,835	33,563	34,227	34,938	35,785	36,599	2.45

원주	유소년인구	13,457	13,477	13,442	13,394	13,336	13,263	13,151	13,026	12,921	12,878	12,808	12,750	12,700	12,617	12,525	12,412	-0.54
	생산가능인구	65,899	65,741	65,668	65,400	65,081	64,460	63,706	63,312	62,768	62,316	61,754	61,056	60,373	59,648	58,699	57,783	-0.87
고령인구	고령인구	21,220	22,222	23,142	24,225	25,343	26,745	28,314	29,512	30,802	31,898	33,086	34,334	35,515	36,710	38,061	39,342	4.20
	유소년인구	2,005	1,972	1,951	1,921	1,916	1,908	1,867	1,848	1,831	1,837	1,813	1,827	1,813	1,806	1,790	1,777	-0.80
진안	생산가능인구	13,525	13,651	13,722	13,727	13,678	13,525	13,342	13,271	13,148	13,060	12,944	12,756	12,623	12,482	12,268	12,098	-0.74
	고령인구	8,223	8,396	8,585	8,832	9,090	9,451	9,877	10,157	10,489	10,763	11,079	11,423	11,727	12,027	12,413	12,757	2.97
무주	유소년인구	2,212	2,172	2,145	2,091	2,064	2,063	2,005	1,984	1,962	1,966	1,948	1,941	1,938	1,934	1,924	1,908	-0.98
	생산가능인구	13,740	13,766	13,732	13,666	13,590	13,419	13,256	13,120	12,979	12,901	12,757	12,601	12,437	12,296	12,080	11,910	-0.95
장수	고령인구	7,837	8,030	8,253	8,525	8,780	9,091	9,452	9,748	10,049	10,262	10,541	10,833	11,128	11,397	11,742	12,038	2.90
	유소년인구	2,181	2,169	2,154	2,110	2,079	2,081	2,022	2,018	1,985	1,972	1,967	1,971	1,962	1,959	1,948	1,933	-0.80
임실	생산가능인구	12,852	12,864	12,853	12,834	12,774	12,582	12,492	12,384	12,299	12,237	12,093	11,953	11,825	11,664	11,479	11,311	-0.85
	고령인구	7,181	7,359	7,541	7,767	8,000	8,339	8,644	8,895	9,169	9,381	9,669	9,937	10,199	10,474	10,780	11,059	2.92
순창	유소년인구	2,369	2,358	2,337	2,305	2,283	2,276	2,251	2,226	2,201	2,193	2,167	2,174	2,156	2,144	2,131	2,115	-0.75
	생산가능인구	15,362	15,448	15,504	15,566	15,532	15,322	15,169	15,079	14,935	14,834	14,717	14,529	14,388	14,213	13,990	13,787	-0.72
고령인구	고령인구	9,424	9,619	9,826	10,021	10,279	10,675	11,032	11,310	11,641	11,911	12,215	12,545	12,860	13,199	13,587	13,947	2.65
	유소년인구	2,694	2,664	2,631	2,588	2,575	2,555	2,541	2,507	2,485	2,481	2,475	2,455	2,449	2,447	2,435	2,425	-0.70
고창	생산가능인구	15,943	16,070	16,156	16,185	16,148	15,950	15,770	15,694	15,564	15,481	15,360	15,203	15,043	14,872	14,611	14,426	-0.66
	고령인구	9,189	9,396	9,613	9,869	10,142	10,553	10,950	11,255	11,615	11,894	12,211	12,565	12,911	13,254	13,697	14,052	2.87
고성	유소년인구	4,960	4,932	4,902	4,805	4,741	4,727	4,632	4,576	4,513	4,466	4,440	4,420	4,404	4,378	4,360	4,328	-0.90
	생산가능인구	33,127	33,059	32,859	32,652	32,299	31,844	31,380	31,081	30,709	30,452	30,096	29,711	29,349	29,009	28,495	28,080	-1.10
부안	고령인구	18,156	18,552	19,013	19,523	20,150	20,795	21,541	22,099	22,732	23,232	23,812	24,416	24,992	25,548	26,276	26,899	2.66
	유소년인구	4,448	4,360	4,315	4,211	4,167	4,095	4,000	3,919	3,854	3,822	3,768	3,760	3,739	3,720	3,695	3,666	-1.28
자료 : 통계청 인구추이	생산가능인구	30,724	30,470	30,129	29,749	29,289	28,814	28,297	27,922	27,492	27,148	26,823	26,404	26,029	25,667	25,187	24,747	-1.43
	고령인구	16,608	16,964	17,336	17,815	18,320	18,868	19,496	19,983	20,514	20,955	21,395	21,893	22,358	22,814	23,389	23,918	2.46

자료 : 통계청 인구추이

6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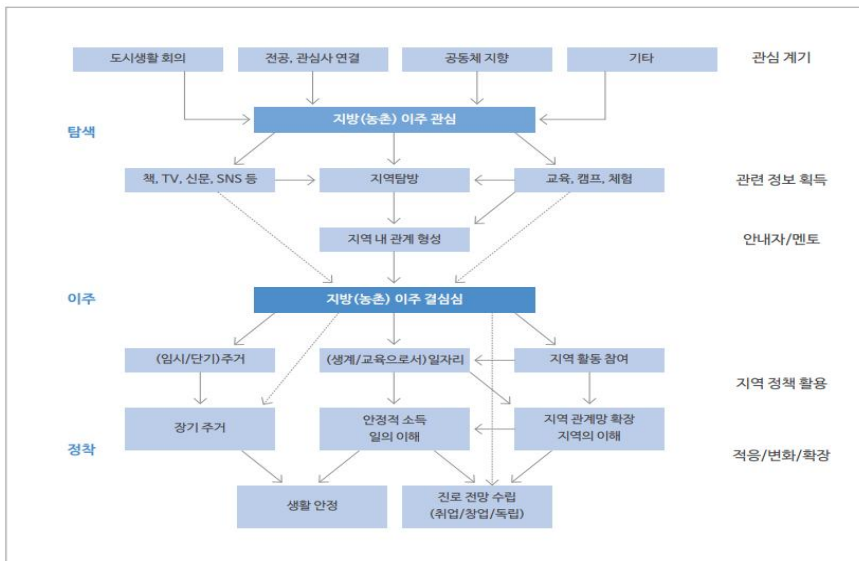
인구유입 추진전략

-
1. 제비(JB) 고향회귀센터
 2. 체류도시 시범사업
 3.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4. 공유농업(공유농장)
 5. 청년참여형 리빙랩
 6.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7.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제6장 인구유입 추진전략

- 도시민의 지방이주는 연구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관심단계, 방문단계, 정착단계 3단계를 거치며 이루지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귀촌정책 진단 및 성과 평가 보고서 (2018)에 의하면 귀농·귀촌은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구분
 - 관심단계에서는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박람회,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교육 및 상담,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결심을 하고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실행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있는 귀농인의 집 임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같은 지원이 제공(김귀영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재인용)
 - 정착단계에서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도농가 실습지원 등이 추진 됨(김귀영,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재인용)

〈그림6-1〉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과정



자료: 청년허브, 청년의 지방이주지원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2018

- 청년허브의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2018)
연구에서는 청년의 지방이주를 탐색, 이주, 정착의 세 단계로 구분
 - 탐색단계에서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이주 결심동기, 정보획득 경로, 관련교육 경험, 지역결정요인 등
 - 이주단계에서는 정주환경, 일자리, 생계, 활용정책, 지역사회관계 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 정착단계에서는 지역의 이해, 진로와 전망, 관계망 확장, 적응과 변화를 고려요인으로 생각
- 전라북도 인구유입정책 또한 귀농·귀촌인의 이주단계와 청년의 이주 단계를 고려하여 관심단계, 방문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추진 필요
- 단계별 정책추진의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6-1〉 단계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현황

단계	지원방향	주요사업
관심단계	지역 정보제공 지역이주 관련 교육 지방이주의 가치와 의미파악 도시생활의 자원 활용 진로탐색	귀농·귀촌지원센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귀농박람회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농촌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방문단계	현장 방문 중장기체류 지방이주 경험 일자리연계 지역생활 경험	귀농인의 집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도농교류 산촌 마당캠프 청년세어하우스 청년 직무인턴 출향인 및 출향자녀 고향방문
정착단계	거주지 확보 정착을 위한 자본문제 해소 비즈니스모델 개발 창업 및 취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보 정착 애로사항 해소 전문역량 활용 지역문제해결	귀농귀촌 주거지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전북 스마트공장배움터 전북청년 지역정착 수당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여 인구유입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사업의 완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
- 본 연구에서 주요대상으로 선정한 출향인,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은퇴자, 대학생 및 청년이 지방이주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제시



- 관심단계에서는 지방이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매칭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제비(JB) 고향회귀센터조성을, 방문단계에서는 체류도시시범사업,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공유농업, 청년참여형 리빙랩 사업을, 정착단계에서는 하늘·바람·물 전북청정지역 지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사업을 제안

〈표6-2〉 인구유입 대표사업 및 세부사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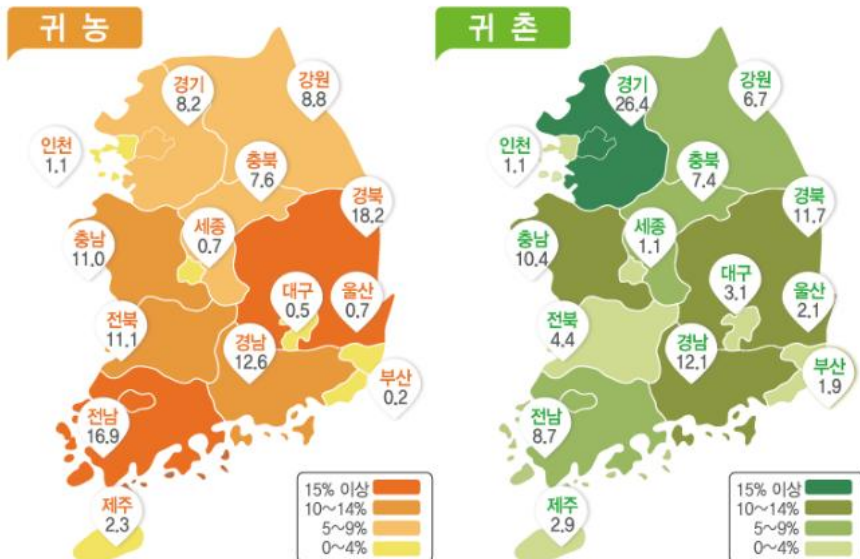
단계	사업명	세부사업
관심단계	제비(JB)고향회귀센터	제비(JB)로컬카페 & 콜센터 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전북이주 업무협약
방문단계	체류도시 시범사업	사이버 도민증 발급 논밭 소셜 다이닝 동부권 대지예술제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베이비붐 노후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베이비붐 직업훈련 교육관 및 직업 체험관 전북이주자 인재은행
	공유농업	공유농업 지원조례 제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유형별 공유농장운영: 배당 공유형, 생산물 공유형
	청년참여형 리빙랩	지역대학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혁신기업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정착단계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유형별 조성: 정주형, 체험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지역 선정 ICT기업의 전북지부 유치 5G 인프라 구축 ICT 청년업무지구 지원단 구성·운영

1. 제비(JB) 고향회귀센터

가. 필요성

- 전라북도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기구로는 전라북도귀농귀촌센터가 유일하며 현재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귀농귀촌 콜센터운영, 홈페이지, SNS 운영
 - 귀농귀촌 홍보 및 교육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 농촌유학 활성화
- 전라북도 인구유입 정책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농업에 토대를 둔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지역 또는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전라북도로 유입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

〈그림6-3〉 시도별 귀농귀촌 현황



자료: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농업중심의 귀농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귀농은 경북(18.2%), 전남(16.9%), 경남(12.6%)에 이어 전북(11.1%)은 네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귀촌은 4.4%로 광역도 기준 제주(2.9%) 다음으로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전라북도이주지역을 확장하고 농업이나 어업 등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문직,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군의 전라북도 유입을 위한 종합적 지원센터 역할 필요
- 전북고향회귀센터의 명칭을 제비고향회귀센터로 작명하여 봄이면 고향을 돌아오는 제비와 JB의 영어발음인 제이비의 상관성을 연계한 명칭설정
 - 제비가 흥부에게 복이 담긴 박씨를 물어다준 흥부전의 배경지가 전북 남원이라는 점 또한 제비고향회귀센터라는 명칭에 영감을 줌

나. 사업내용

- 서울에 소재를 둔 제비(JB)고향회귀센터를 설립하여 전북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
- 전북에 대한 상시적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및 세미나, 다양한 기관과의 전북이주 업무협약 등 전북이주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제비고향회귀센터를 전북이주 컨트롤타워로 하고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을 연계기관으로 14개 시군에 전문 상담원을 두고 연계추진

1) 제비(JB) 로컬카페 & 콜 센터

- 고향회귀에 관한 팸플렛이나 자료를 상비해 전북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14개 시군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
- 전라북도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공간과 다양한 음료나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카페형으로 조성하여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와 내장객의 자연스러운 유도를 통한 전라북도에 대한 대화의 시간 유도

- 전라북도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 상담원을 두고 전라북도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전북이주에 따른 지원정책 및 전북이주 사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상시적 상담진행
-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전북출신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제비로컬카페를 찾는 사람이나 제비 콜센터 상담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북이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 지원
- 제비 콜 센터는 상담직원을 위한 매뉴얼북을 작성하여 관심단계, 결심단계, 정착단계별 상담내용의 숙지 및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현황 및 전북이주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 제비 콜 센터는 결심단계 이상의 전북이주 희망자들이 선택한 시군의 상담원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전북이주 추진연계

2) 교육 및 일자리 매칭

- 귀농·귀촌의 경우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귀농귀촌센터의 교육이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음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경우도 교육이수를 인정하고 있어 일단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교육창구역할을 겸하고 있는 상황
- 제비고향회귀센터의 교육 및 세미나를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전라북도나 14개 시군의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혜택 또는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

〈표6-3〉 〈표〉 귀농·귀촌인의 현 거주지 선택이유

구분	현재 거주지역 선택 이유		구분	현재 거주지역 선택 이유	
귀농	부모, 친척 또는 지인이 살고 있는 연고지라서	43.8%	귀촌	부모, 친척 또는 지인이 살고 있는 연고지라서	28%
	이전에 살던 곳 근처라서	17.8%		타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우수해서	14.6%
	타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우수해서	8.4%		이전에 살던 곳 근처라서	1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실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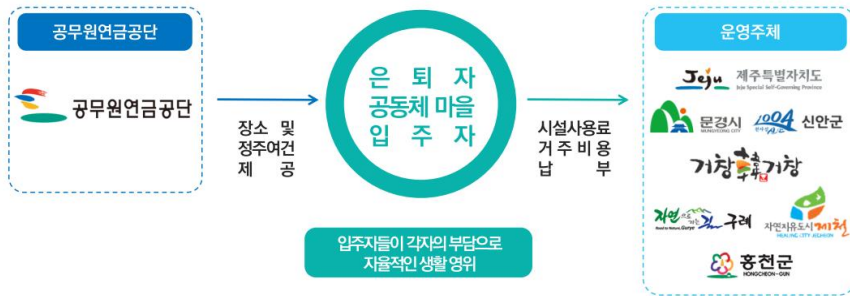
- 전북출신, 전북 근무경험자, 전북 군복무자, 부모고향 등 전북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1차 타겟으로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전북이주 홍보 및 교육생 모집
 - 지역과 연고를 맺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북과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 제공 필요
 - 귀농귀촌실태조사(2018)에 의하면 현재 거주지역을 선택한 이유 1위는 부모, 친척 또는 지인이 살고 있는 연고지라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장을 별도로 두고 14개 시군이 순환 주최하면서 지역이주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전북이주 성공사례, 전북이주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세미나 이벤트 개최
- 14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전북이주 상담홍보전을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권역별 개최
- 전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과 전북의 역사와 문화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시절부터 전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전북이주시 농림어업 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첨단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이주신청자의 경력연계를 위한 일자리 매칭사업 필요
 - 이주예정자의 일자리 희망분야를 조사하여 시군의 일자리 또는 창업사업과 연계

3) 전북이주 업무협약

- 공무원연금공단,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건설기술인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은행연합회는 물론 대기업 등과의 전북이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전라북도 이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직기간 동안 전북과 상호교류를 통해 은퇴 후 전라북도 이주를 유도
 -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자연 및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14개 시군과 연계한 봉사활동 추진 등 전라북도와 연고를 맺도록 유도

-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업무협약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지원하고 지자체는 교육 및 은퇴자공동체마을 등과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 중

〈그림6-4〉 은퇴자마을 운영계획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공동체마을 운영계획, 2019

다. 사례: 일본 고향회귀지원센터²⁾

1) 설립취지

- 지방의 풍부함을 아는 전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지방의 젊은이들이 정년을 맞이하게 된 현재,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 지역부흥이나 마을의 문화와 생활을 계승해 지역사회를 재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에 의해 2002년 설립
- 단카이 세대가 퇴직 후 지방에서 생활기반을 만드는 것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도쿄(관동)와 오사카(관서)에 운영 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
- 2011년 동일본지진 이후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자체를 찾아 직접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기능과 역할

- 도시로부터 자연이 풍부한 농산어촌에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제공과 농림어업연수 등의 지원활동

2) <http://www.furusatokaiki.net/>, 검색일 2019. 8

- 도시민들의 이주상담건수는 2017년보다 8000건 이상이 증가한 2018년 4만 1518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
- 도쿄와 오사카에 운영사무소를 두고 지자체는 전속상담원을 배치하거나 홍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18년 현재 352개의 지자체가 정회원으로 등록

〈표6-4〉 단체회원 현황

구분		2018년	신규회원	2017년	전년대비
정회원	지자체	352	44	313	39
	단체	23	1	24	-1
	소계	375	45	337	38
찬조 회원	지자체	18	3	18	0
	단체	50	1	48	2
	소계	68	4	66	2
신규기업회원		9	2	8	1
합계		452	51	411	41

자료: 고향회귀지원센터, 연차보고서 2018

-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주 지원사업이나 빈집, 유희지 정보제공 및 ‘고향회귀순환운동’을 주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고향으로 회귀한 도시생활자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농업, 임업, 어업의 기술지원이나 생활상담

		
상담	정보지	세미나

출처: <http://www.furusatokaiki.net/>

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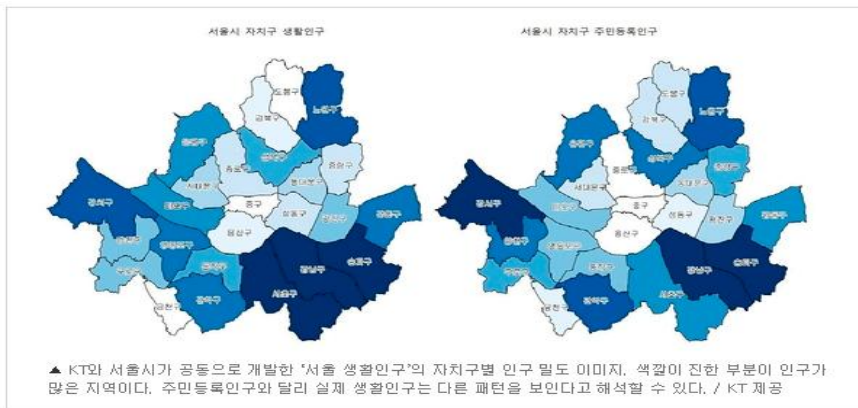
- 상시적인 전라북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북이주의 이니셔티브 선점
- 농업에 기반을 둔 귀농 외에도 도시와 다양한 직업군의 전라북도 이주를 통해 전북이주의 대상 확대
- 전북이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을 연계하여 전북이주의 종합적 플랫폼 역할 수행

2. 체류도시 시범사업

가. 필요성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거주인구의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유동인구를 반영한 체류인구를 새로운 인구정책의 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도는 연간 관광객수를 동시체재율과 관광객 집중률을 적용하여 거주인구수로 환산한 후 거주인구와 관광체류인구를 합산한 체류인구를 도식계획의 기준인구로 활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스마트폰사용, 교통이용, 카드사용 등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특정시간에 서울시 내에 생활하고 있는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생활인구를 측정하고 이를 반영한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6-5〉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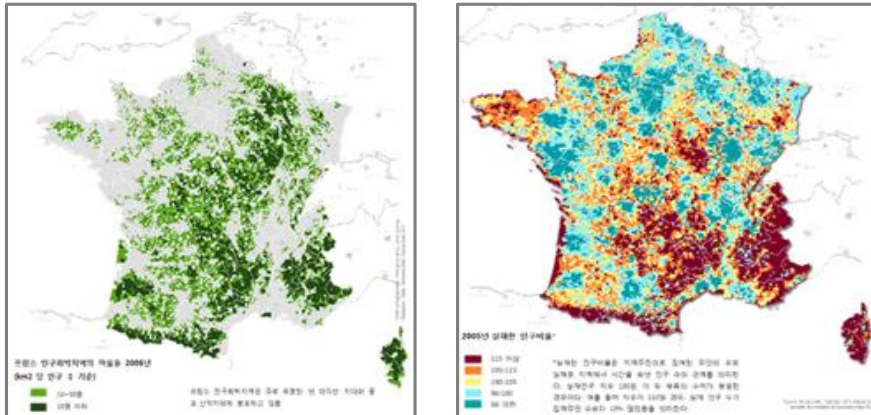


자료: ChosunBiz, 2018. 3. 4

- 일본 관광청은 관광객의 소비액을 거주인구의 1인당 소비액과 비교하여 거주인구 소비액에 맞먹는 관광객인구를 거주인구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체재·교류인구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관광의 경제효과를 기준으로 거주인구로 환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프랑스는 거주인구에 관광객수를 합한 인구를 체류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니스, 아비뇽, 마르세유 등은 거주인구는 적지만 체류인구는 오히려 거주인구가 많은 파리나 리옹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6-6〉 프랑스 인구분포(左)와 체류인구(右) 현황



자료: 국토연구원, 2018

- 이렇듯 최근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나 거주인구가 아닌 인구의 유동성 즉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서의 체류인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시의 생활인구와 제주도의 체류인구는 직장, 쇼핑,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인구를 지역인구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음
- 고창, 남원, 무주와 같이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체류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규제완화나 예산지원 등의 사업 지원

나. 사업내용

1) 사이버 도민증 발급

- 주된 생활은 현거주지에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등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사이버 도민증 발급

- 현 거주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소지는 가족이 있는 곳에 남겨두고 통근하는 사람
 -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같이 직장생활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사람
 - 주말농장이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주말이나 주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 교육이나 군생활과 같이 일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거주해야하지만 주소지를 현 거주지로 옮기지 않은 사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은 복수주소제(Second Address)도입방안 연구에서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바 있음
- 도 지역 중에서 중간인구지수가 높은 시·군
 -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임시 거주 및 출퇴근 비율이 높은 시·군
 - 대학, 공공, 교육기관, 군부대 등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기 주민등록상 주소없이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시·군
- 사이버 도민증 발급은 전라북도에서 일괄 진행하되 현재 운영 중인 시·군의 명예 시·군민 제도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시군과 협의
- 사이버 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에 대해 거주하는 도민과 같은 혜택 부여
- 관광지 입장 및 관람료나 주차장 등에 주민할인율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 도민홍보지 또는 시·군을 선정할 경우 시군 홍보지 제공
 - 축제나 이벤트, 공연 등 다양한 행사에 우대 초대

사례: 논산시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

- 논산시는 논산시 사이버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2017. 7. 11)를 제정하고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관광 등 논산시와 연고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사이버 논산 시민으로 등록하여 교류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사이버 시민으로 등록할 경우 가맹점 할인쿠폰, 문화공연이나 축제의 입장권할인, 농산물 알선 및 할인쿠폰, 펜션이나 농촌 공사 등의 정보제공, 경작 및 수확 등 농지사용권한 주선, 판촉용 농특산물 제공, 지역소식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 논밭 소셜 다이닝

- 체류인구 특히 관광체류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관광객을 유입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고, 신규 관광객을 발굴하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등의 관광전략 필요(김형오·김동영, 2018)
-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소셜 다이닝을 전라북도의 매력상품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할 수 있는 신규 체류인구를 개발하고 마을단위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새로운 경제활력 도모
- 1인가구의 확산과 SNS를 통한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이 확산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 문화로 ‘소셜 다이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 소셜 다이닝은 호스트가 특정한 주제의 모임을 선정한 후 다양한 게스트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도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다이닝을 농촌지역의 신선한 식품과 자연적 경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연 속에서 특별한 소셜 다이닝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시스템 제공
- 전라북도에 자연적 경관이 우수하면서 실제 논이나 밭 한가운데에 소셜 다이닝을 위한 레스토랑을 설립·운영할 수 지역을 선정하여 규제완화
 -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절대농지의 경우 농지전용이 되지 않아 식당을 건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인 논과 밭에서도 레스토랑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절대농지의 변경이나 해제 또는 용도변경 허용
- 소셜다이닝으로 지정된 레스토랑에 대해 전라북도 차원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디자인, 식품개발, 서비스 등에 관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건축가, 예술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소셜다이닝 디자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레스토랑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 음식연구가나 셰프와 연계한 지역별 메뉴개발과 그릇, 서비스 등 식당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지원
 - 전라북도 소셜다이닝 가이드 앱을 개발하여 전라북도의 특색있는 곳에서 식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3) 동부권 대지예술제

- 전라북도 동부권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곳이지만, 자연적 경관이나 문화적 매력이 매우 뛰어난 지역
- 동부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만들어 식품·관광산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동부권의 6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부권 특별회계사업 중 일부예산을 투자하여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예술과 자연을 결합한 대지예술제 제안
- 동부권 대지예술제는 국내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논이나 밭과 같은 농촌지역의 자연스런 경관과 휴경지나 공공부지 등 폐공간이나 빈집이나 폐교 등 폐건물을 활용하여 지역과 어울리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로 운영
- 2년이나 3년 단위로 예술제를 개최하되 6개 시·군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예술제가 개최되는 해에는 공동의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곳에 위치한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동의 축제위원회 구성 운영
- 축제의 개최장소를 한 지역이나 장소에 집중하지 않고 6개 시군의 전체지역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매력장소를 발굴하고 이를 예술과 결합하는 예술적 시도

일본 에초고츠마리 대지예술제

- 에초고츠마리는 니가타현 남단에 위치한 도오카마치시와 츠난마치시를 합친 지역으로 760km²에 75,000명이 사는 대표적 인구과소지역으로 65세 인구가 3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지역
- 예술을 통해 지역을 매력을 끌어내고 교류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시작되었으며, 3년에 1번 풀인 트리엔날레형식으로 개최 중
- 예술로 지역자원의 발견과 지역의 지혜를 학습하여, 주민과의 협동, 공간을 숨쉬도록 만드는 원칙하에 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색
-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매 행사마다 산과 강, 밭과 그림 같은 것이 주제인 예술 작품들이 뿔뿔이 흩어져 광대한 지역에 전시
- 예술전시와 함께 빈집을 미술관이나 갤러리, 레스토랑, 숙박시설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와 폐교를 예술가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지역식재료를 이용한 메뉴개발 등을 도시에 추진



다. 전라북도 체류인구 현황

-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산한 관광객 중심의 체류인구를 보면 2014년 30,111,036명, 2015년 31,529,214명, 2016년 32,865,949명, 2017년 38,831,676명, 2018년 39,929,84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하지만 전라북도 인구는 2014년 1,871,560명에서 2018년 1,836,83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시군의 경우 거주인구가 많은 곳과 체류인구가 많은 곳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관광객이 많은 고창, 남원, 무주 등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이 체류인구가 많은 특성을 보임
 - 2017년 기준 체류인구는 고창군 6,028,802명, 무주군 5,220,604명, 남원시 5,210,042명 순
 - 2018년 기준 체류인구는 군산시 6,116,205명, 고창군 6,047,059명, 남원시 5,250,319명 순으로 2017년도와 약간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음
 - 군산시의 관광객 증가와 무주군의 관광객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지속적 관광객 유치전략 모색 필요

〈표6-5〉 전라북도 체류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라 북도	계	30,111,036	31,529,214	32,865,949	38,831,676	39,929,848
	거주인구	1,871,560	1,869,711	1,864,791	1,854,607	1,836,832
	관광객수	28,239,476	29,659,503	31,001,158	36,977,069	38,093,016
전주	계	3,128,932	3,075,855	3,117,138	3,285,704	3,763,590
	거주인구	652,877	652,282	651,744	648,964	651,091
	관광객수	2,476,055	2,423,573	2,465,394	2,636,740	3,112,499
군산	계	950,647	1,633,959	2,466,758	3,525,895	6,116,205
	거주인구	278,098	278,398	277,551	274,997	272,645
	관광객수	672,549	1,355,561	2,189,207	3,250,898	5,843,560
익산	계	1,145,680	947,380	785,860	906,907	1,135,807
	거주인구	304,117	302,061	300,479	300,187	294,062
	관광객수	841,563	645,319	485,381	606,720	841,745
정읍	계	1,611,696	1,425,455	1,401,536	1,573,944	1,391,916
	거주인구	117,183	115,977	115,173	113,776	112,169
	관광객수	1,494,513	1,309,478	1,286,363	1,460,168	1,279,747
남원	계	4,908,475	4,771,376	4,762,048	5,210,042	5,250,319
	거주인구	85,643	84,856	84,188	83,281	82,554
	관광객수	4,822,832	4,686,520	4,677,860	5,126,761	5,167,765
김제	계	1,505,861	1,258,791	1,467,749	2,011,046	1,273,291
	거주인구	90,108	88,721	87,782	86,926	85,331
	관광객수	1,415,753	1,170,070	1,379,967	1,924,120	1,187,960
완주	계	864,877	3,538,711	3,796,578	4,096,005	4,134,816
	거주인구	90,377	95,303	95,480	95,975	94,444
	관광객수	774,500	3,443,408	3,701,098	4,000,030	4,040,372
진안	계	1,035,518	1,319,502	1,245,107	1,415,779	1,231,891
	거주인구	26,474	26,203	26,069	26,271	25,963
	관광객수	1,009,044	1,293,299	1,219,038	1,389,508	1,205,928
무주	계	5,243,257	4,642,319	4,729,706	5,220,604	4,408,797
	거주인구	25,390	25,220	24,949	24,809	24,589
	관광객수	5,217,867	4,617,099	4,704,757	5,195,795	4,384,208

장수	계	530,235	320,354	380,366	480,727	589,464
	거주민구	23,335	23,277	23,628	23,003	23,221
	관광객수	506,900	297,077	356,738	457,724	566,243
임실	계	475,251	558,295	606,807	703,998	672,091
	거주민구	29,966	30,271	30,197	30,162	30,072
	관광객수	445,285	528,024	576,610	673,836	642,019
순창	계	1,439,454	1,310,918	1,358,043	1,616,406	1,594,401
	거주민구	30,368	30,248	29,949	29,698	29,209
	관광객수	1,409,086	1,280,670	1,328,094	1,586,708	1,565,192
고창	계	5,069,066	4,728,337	4,868,011	6,028,802	6,047,059
	거주민구	60,090	60,046	60,597	60,472	57,041
	관광객수	5,008,976	4,668,291	4,807,414	5,968,330	5,990,018
부안	계	2,202,087	1,997,962	1,880,242	2,755,817	2,320,201
	거주민구	57,534	56,848	57,005	56,086	54,441
	관광객수	2,144,553	1,941,114	1,823,237	2,699,731	2,265,760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9

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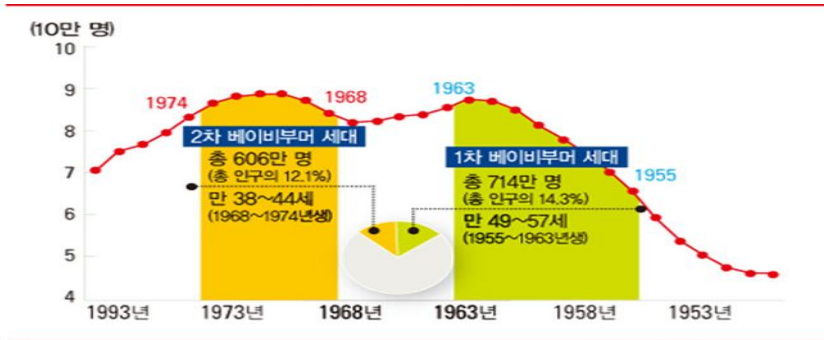
- 인구정책에서 인구의 이동성과 정주성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으로써 체류인구에 대한 환기와 체류인구의 이니셔티브를 전라북도가 선점하여 국가적 차원의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하는데 기여가능
- 유동인구 중에서도 전라북도에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여 향후 전라북도 이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전라북도와의 인연과 연고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하여 인구유입으로 견인

3.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가. 필요성

-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와 2차를 모두 포함할 경우 약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은 주로 지자체 중심의 일자리 연계 이외에는 특수한 지원 정책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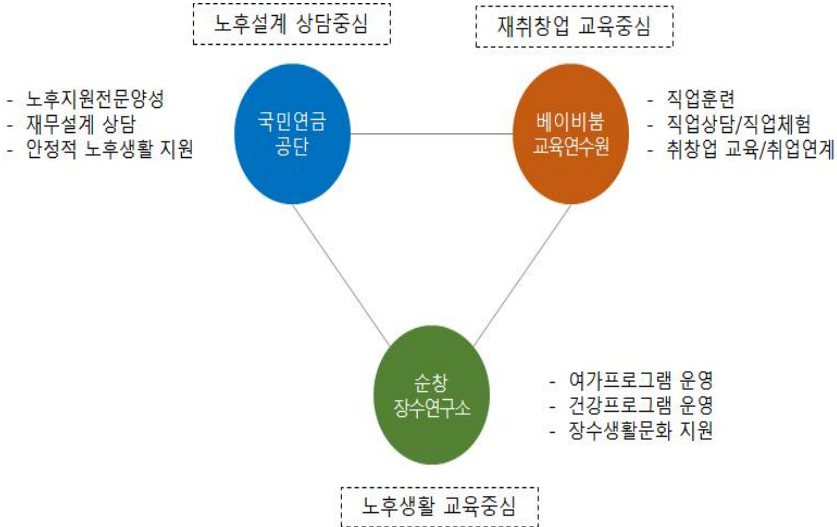
〈그림6-7〉 베이비붐 세대 현황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https://m.blog.naver.com> 재인용, 2019

- 2020년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대량은퇴로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지원체계는 부재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설계 뿐만 아니라 전직 경험을 활용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노후설계 인프라 기반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 베이비붐 세대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교육연수기관 필요

〈그림6-8〉 베이비붐 세대 교육연수원 연계방안



-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을 기초로 한 노후생활지원과 전라북도 순창장수 연구소의 노후건강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베이비붐 교육연수원을 통한 베이비붐세대의 직업훈련을 연계하는 전략 필요
- 국민연금공단 DB 연계 베이비붐 세대 전직 경험 재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상권에 적합한 창업지원

나. 사업내용

1) 베이비붐 노후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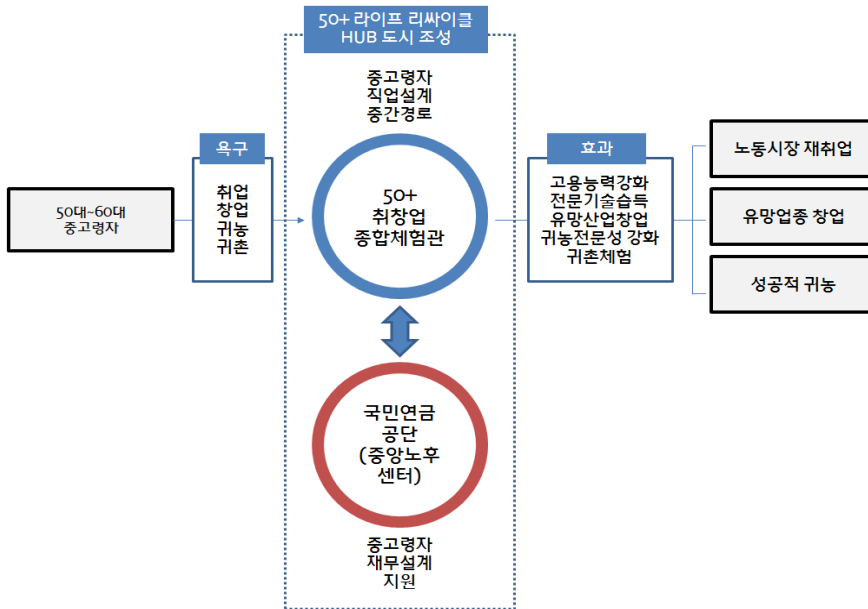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의 체계적인 노후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노후지원 프로그램 개발
-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 여가, 교육, 노동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연수기관 설치 운영
- 베이비붐 노후지원 전문인력 양성으로 베이비붐 세대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 창출 지원

-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설치를 통해 노후지원센터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약 7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2) 베이비붐 직업훈련 교육관 및 직업체험관

- 베이비붐 세대의 전직경험을 활용한 직업훈련 연계, 직업상담, 취업 및 창업 관련 상담
-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계 베이비붐 세대 전직 경험 관련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베이비붐세대 구인구직 정보관리, 베이비붐 세대 유망직종 관리
-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 유망직종 직업훈련, DB활용 적합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이후 유망직종 창업과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 시장 진입 지원
 - 국민연금공단의 DB자료 활용 베이비붐 세대 적합 직종 개발과 지역별 상권분석에 따른 적합한 창업지원
- 베이비붐 세대 유망직종 및 창업직종 개발과 관련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을 통해 신규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적응력 강화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
 - 베이비붐 세대에게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의 유망직종을 개발하고 관련 직업체험관을 설치하여 신규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어려움 해소
 - 직업체험관 설치운영을 통한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그림6-9〉 베이비붐세대 취창업 지원체계



3) 전북이주자 인재은행

-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장년층의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을 위한 고령자인재은행 제도를 시행 중
-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사회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함(고용노동부, 2019)
- 전라북도에는 전주YWCA, 원광효마을 시니어클럽, 익산YWCA,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고령자인재은행과 연계하여 전북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전북이주자들의 경력을 토대로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북 이주자들을 취업, 창업, 사회적 공헌, 봉사활동, 사회적 문제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연계

〈그림6-10〉 전북이주자 인재은행 지원체계



자료: <https://50plus.or.kr>

다. 사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만50~64, 베이비부머/신노년 등으로 일컫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
- 서울시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50+세대가 50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노년의 상과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지원
- 기관별로 산재한 일자리, 복지, 교육, 상담 등의 중장년정책을 통합해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50+세대가 갖고 있는 경력과 취미, 관심거리가 교육과 결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50플러스캠퍼스를 통해 2018년 총489개 교육과정 에 12,673명 참여



- 50+세대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수요의 유형을 통해 유형별 맞춤 정책지원



라.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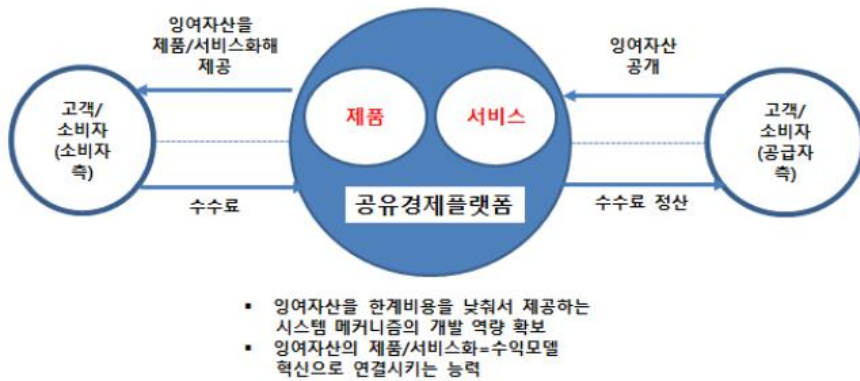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전문 교육연수기관 설치로 대량은퇴에 따른 실업자 양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 베이비붐 세대 적합 일자리 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과 교육으로 베이비부머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 베이비붐 세대 유망 업종 창업교육과 창업유인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 베이비붐 세대 대상 노후지원서비스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양질의 노후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정책 만족도 향상
- 각 부처별 산재해 있는 노후지원서비스의 통합제공으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실습과 취업, 사후관리로 연계되는 원스톱 노후지원서비스 제공

4. 공유농업(공유농장)

가. 필요성

- 공유경제란 “기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쓰는 협력적 소비를 기본으로 교환되는 경제방식”(Lessig, 2008)으로 정의되거나 “한계비용 제로로 재생산이 쉬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잉여자산을 사회 구성원이나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공유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이현정, 2017)

〈그림6-11〉 공유경제 플랫폼



자료: 이현정, 2017, 세계농업 제200호

- 공유경제는 공유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을 중간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공유

〈표6-6〉 공유경제 주요 국내 서비스 사례

공유 자산 유형	세부분류	국내서비스 사례
유형자산	교통(Transportation) 공간(Property) 물건(Utility)	쏘카/ 그린카/ 코자자/ 따릉이/ 플러스/ 벅스 비앤비히어로/ 상상우리/ 더허브/ 모두의주차장 국민도서관책꽂이/ 키플
무형자산/ 서비스	재능/기술(Talent) 개인생활(Personal)	크몽/ 숨고/ 오투잡/ 탈링/ 커넥트튜터/ 공감인 리화이트/ 집밥/ 품앗이파워
무형자산/금융	크라우드펀딩 개인간대출(P2P Lending)	팝펀딩/ 씨앗펀딩 텀블벅

자료: 노태협·최화열, 2018, 공유경제 모형에서 협력적 소비 영향요인, 정보시스템연구, 제27권

- 농업종사자와 농지가 많은 전라북도는 농지를 공유하여 농지로부터 생산된 식품이나 파생되는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농업추진 필요
- 공유농업은 먹거리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생산품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판로가 개척되어 안정적인 농업종사가 가능
- 공유농업은 지방이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이주지역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인 지역과의 연고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용이
- 전북이주 결심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라북도의 정기적 방문과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

나. 사업내용

1) 공유농업 지원조례 제정

- 공유농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방정부가 농지라는 사유자산을 소비자와 연계하여 그 생산물과 서비스를 공유하는데 있어 신뢰담보역할을 수행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
- 전라북도 공유농업 지원조례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정의하고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의 역할설정 필요

전라북도 공유농업 지원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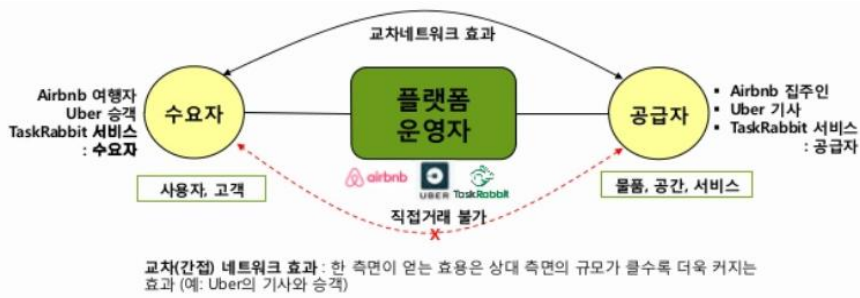
- 제1조 목적 : 공유경제 지원조례의 목적을 밝힘(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지원과 이를 통한 농촌과 도시 소비자의 신뢰증진)
- 제2조 정의 : 공유농업, 공유농업 플랫폼, 공유농장 등 사업에 필요한 개념의 정의
- 제3조 기본원칙 : 공유농업 추진을 위한 원칙 공유
- 제4조 전라북도 책무 :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의 노력
- 제5조 공유농업플랫폼: 공유농업 플랫폼 운영자의 지정과 운영방안
- 제6조 공유농업 연구개발 : 공유농업 모델 개발 및 기술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제7조 공유농업 교육 :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 제8조 업무의 위탁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위탁 추진

참조: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

2)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 공유경제는 유희 또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와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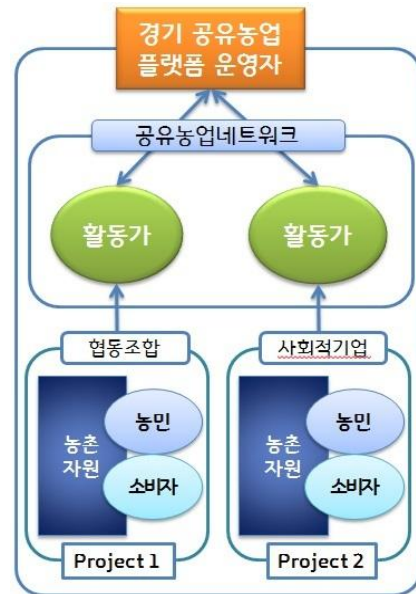
〈그림6-12〉 공유경제 플랫폼



자료: 경기도 공유경제와 플랫폼, 2017

- 공유경제와 마찬가지로 공유농업은 농장소유자와 농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 구축 필요

〈그림6-13〉 경기도 공유농업 개념도



- 공유농업 플랫폼은 플랫폼 비즈니스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회원가입 및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한 IT앱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농업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자로 지정
- 공유농업 플랫폼 운영자는 단순한 앱운영이 아닌 홍보와 마케팅, 소비자와 생산자 회원관리, 활동가의 육성 등 공유농업의 총괄운영책임
- 공유농장은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농장정보나 농작물의 재배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구축 필요

3) 유형별 공유농장운영: 배당 공유형, 생산품 공유형

- 배당공유형 농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농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농장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참여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
- 전라북도공유농업에 대한 투자자는 단순한 자금의 투자만이 아니라 농산물 재배에 참여하기 위한 정기적인 농장방문 조건이 필요하며 농장주는 상시적인 재배정보 제공

공유농업벤처 팜잇(FARM IT)		
- 카이스트 출신의 박아론·전태병 대표가 2013년 교내기업으로 만나CEA를 창립한 이후 좋은 농작물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농민과 예비 농업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자회사로 공유농장 팜잇을 설립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 700여명의 예비농업인들을 주주로 펀딩에 성공하여 700평 규모의 농장 2개를 조성하여 공유농장에서 나오는 이익은 전액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중 - 농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반인 또는 농업인들을 만나씨이에이의 IC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농장 설립을 위한 투자자로 모집해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		
		

- 생산품 공유형 농장은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직접 참여하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공유하는 방식
- 농장주는 농작물의 재배는 물론 공유농업 참여자들에게 농업관련 교육이나 문화이벤트 등의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제공

당신의 과수원

- 당신의 과수원은 사람들과 꿀농장을 공유하는 제주도의 '쉐어 과수원'으로 1년단위 또는 3~5년 단위로 골나무를 공유하고 골나무에서 생산된 꿀을 공유
- 회원들에게 꿀농장 무료체험, 농장 오두막 무료사용, 주변펜션 및 렌트 할인 제공, 생과를 및 가공품 수령 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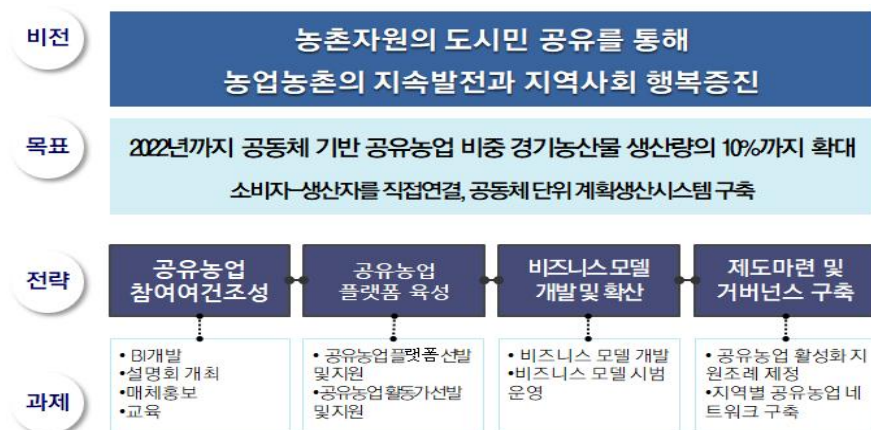




다. 사례: 경기도 공유농업

- 경기도는 농업인의 자원과 소비자의 자원(영농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소비방법 등 지식과 정보 등의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영농 산출물을 나눔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기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유농업 추진
- 경기도는 2021년까지 4,000백만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경기농산물의 10%를 공유농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4대추진전략 10대 세부추진과제를 추진 중

〈그림6-14〉 경기도 공유농업 추진계획



자료: 경기도, 2018

- 재배방법은 반드시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공유주체들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하여 맛과 품질의 향상 및 식품위생안전을 준수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추구

라. 기대효과

- 공유농업은 IT와 농업을 결합하고 농장주와 도시민을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과 소비모델을 만드는 미래형 농업모델
- 공유농업 참여자들을 전라북도에 방문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강화와 전북이주 유도

5. 청년참여형 리빙랩

가. 필요성

- 전라북도 주요업무추진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는 전라북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자신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전라북도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에 기여
- 전라북도 인구유출에서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인데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를 직접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한다면 도내유출 청년인력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시행 중
-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도내 대학과 함께 전라북도의 핵심시책 반영을 위해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추진 중

전라북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성공모델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행정·재정 사항의 상호 협력을 위해 2015년부터 창의학교 진행
- 도에서는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새만금 개발, 토탈관광, 삼락농정 등 도정 핵심시책에 대한 정규과목을 개설하여 현장방문, 워크숍 등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 매년 사업공고를 통해 6개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은 3월에서 6월까지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7월에 최종발표 및 성과보고회 개최



- 2018년 6개 대학 30개팀 150여명이 참여하여 30건의 아이디어(전북대5, 군산대4, 우석대5, 원광대5, 전주대6, 기전대5)를 발굴하였으나 그 중 13건(삼락농정2, 새만금1, 생태관광1, 토탈관광2, 켄버리7)이 도정에 반영
- 창의학교는 대학생들이 직접 전라북도의 문제현장을 찾아가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아이디어 발굴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간의 괴리로 정책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실행을 해보지 않아 아이디어의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대학생이나 청년이 직접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발굴, 필요한 기술연계 또는 기술개발, 프로토타입 개발, 현장에 접목, 피드백을 통한 개선,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전체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은 물론 창업이나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 정주의 효과를 높이는 전략 필요
- 최근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³⁾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전라북도에 반영해 아이디어발굴에서 그치는 창의학교의 후속사업으로 청년참여형 리빙랩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 독려

〈그림6-15〉 리빙랩 운영과정

기술개발 단계	아이디어발굴	개념화	프로토타입 개발	출시 전	출시	출시 후
리빙랩 단계	A. 대안 탐색(exploration)		B. 대안 실험(experimentation)	C. 대안 평가(evaluation)		
리빙랩 수행	사용자 행태분석 및 개념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및 구현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확산		
	① 문제관련 최종 사용자 행태 분석 ②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념 설계 -사용자와 협업을 통한 공동설계		① 프로토타입 개발 - 공동작업을 통한 프로토타입 개발 ② 프로토타입 테스트 - 프로토타입 설치 및 피드백 - 참여관찰, 참여자 만족도 조사	① 제품·서비스 개발 - 프로토타입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 ② 제품·서비스 실증·확산 - 사용자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증 - 제품·서비스 및 성과 확산		
						
리빙랩 운영 기획	• 사회문제 구체화 및 비즈니스 모델 탐색 - 해결해야할 문제 구체화와 비즈니스 모델 탐색 • 리빙랩 추진체제 설계 - 리빙랩 유형 및 참여조직 선정			• 사용자 그룹 선정 및 참여 활성화 - 리빙랩에 참여하는 최종 사용자 그룹 선정 - 최종 사용자 참여 활성화 - 사용자 및 연구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리빙랩 운영 환경 형성 - 리빙랩 운영을 위한 하부구조 구성 - 제도 개선과 안전·윤리문제 대응		

자료: 송위진 외, 2017 일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빙랩길잡이 재인용

- 3) 리빙랩이란 사용자와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해 대안과 탐색을 통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

- 전라북도가 직면한 고령화, 양극화, 안전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이나 청년, 전문가, 지방정부, 기업체 등 민·산·학·관 개방형 참여를 통한 혁신 모델로 리빙랩 도입
- 특히 리빙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형 기업으로 진화하는 계기 마련

나. 사업내용

1) 지역대학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 지역대학(학부나 학과)이나 대학교내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운영에 관한 공모사업 추진
- 본 사업의 주관은 중간 관리자(예를들면 2019년 7월에 도내 20개 기관이 참여하여 발족한 전라북도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고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 전라북도는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고 관리주체인 전북리빙랩 네트워크는 전라북도와 관련사업을 조율하고 연구책임자에게는 리빙랩 지침을 제공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 추진 및 대안모색

〈그림6-16〉 리빙랩 운영단계와 각 주체의 활동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1개 과제당 1억 이상 3억 미만의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이나 연구소가 지역문제 현장에 리빙랩을 설치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실증
- 이를 통해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창업 인센티브 제공 및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관련 지원

2) 혁신기업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 도내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 또는 청년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전라북도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실증 지원
- 혁신기술을 4차산업 혁명 관련 핵심기술로 제한하고 이러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나 장치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기술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기반으로 관련부서 추진 중인 사업에 적용 가능하거나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역대학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과 마찬가지로 중간관리기관을 두고 운영하되 지원금의 경우 건당 최대 5억원 까지 지원

〈그림6-17〉 혁신기업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추진과정(안)



다-① 사례: 대전시 오정농수산물 시장 악취해결 리빙랩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동조합 세상 속의 과학은 공동으로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소음, 악취, 주차문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행
- 연구팀은 상인과 시설관리그룹, 시장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직접만나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간환경, 시설환경, 생활환경, 자원환경 등 4개 분야 44개 항목의 현장 문제 발굴
- 주요해결과제로 폐기 농산물 악취, 경매동 협소, 주차장의 비효율적 운영, 가공수산물 HACCP 적용, 도매시장 진입환경 개선 등 5개 항목을 선정

- 이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악취와 주차장 문제가 선정되었으며 시장구성원과 연구진은 악취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로 결정
- 연구팀은 패시브 에어 샘플러(Passive Air Sampler)라는 포집방식을 이용해 2차에 걸쳐 악취 측정결과 폐기물처리장, 양파저장동 등이 악취의 주요 발생원임을 확인
- 특히 농산물 폐기물 파쇄·탈수과정에서 입자상 물질(먼지)이 발생하고 악취물질이 입자상 물질에 묻어 확산·이동한다고 파악
- 주요악취장소에 소형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평균 83%악취 저감효과를 거뒀고 센서를 설치하여 이후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이후 농산물폐기물 탈취기 도입)

〈그림6-18〉 오정동농수산물시장 리빙랩 진행과정



자료: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협동조합 세속속의과학, 2017

다-② 사례: 테스트베드 서울

- 서울시와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 추진

-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접수하며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2개월 내 심사를 통해 결과발표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 종결
- 총 100억원을 과제당 5억원까지 지원하며 실증에 필요한 제품설치, 유지보수, 개선, 철거비용은 물론 공공 수요처 명의의 성능확인서 제공
- 참가자격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이며 서울시정이나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한정

〈표6-7〉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30)	혁신성(10)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5) · 첨단성, 독창성 및 창의성 (5)
	우수성(10)	· 기존 기술 대비 성능수준 (10) - 효율, 정확도, 안정성, 안전성 등
	기술 완성도(10)	· 기술 완성도 및 TRL 단계 (5) · 현장 적용 가능성 (5)
사업성 (20)	사업화가능성(20)	· 확산 및 보급 가능성 (5) · 경제성 및 수익성 (10) · 기술사업의 지속가능성, CEO의 사업화 의지 (5)
시정 적합성 (30)	수요기관 적합성(30)	· 질의 및 검토의견에 대한 응답 및 보완 내용 (10) · 기대효과, 파급효과 (10) · 현행법·규제 적합성 (10)
실증가능성 (20)	실증가능성(20)	· 실증계획의 적절성 (10) · 실증평가 수행 가능성 (10)

자료: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공고문, 2019

라. 기대효과

- 도내 출신 또는 타 지역 출신 도내 대학생들의 전라북도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로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 증가로 강력한 연대감 형성
- 정책참여를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통한 기업창업을 지원하여 전라북도 지속 정주를 유도

6.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가. 필요성

- 최근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지역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연환경이 부각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의하면 귀농과 귀촌의 첫 번째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로 자연환경을 지역이주의 가장 주요한 요소로 선택

〈그림6-19〉 귀농귀촌 이유

귀농		귀촌	
① 자연환경이 좋아서	26.1%	① 자연환경이 좋아서	20.4%
②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	17.9%	② 가족 및 친지와 살기 위해서	16.4%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14.4%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13.8%
가족 및 친지와 살기 위해서	10.4%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13.6%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10.4%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11.9%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5.6%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 그런 점에서 최근까지 전라북도는 산업화에서 뒤쳐져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중공업 공장이 적어 환경오염이 덜 되고 개발이 비교적 덜 돼 자연환경 훼손이 적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었음
- 하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축산업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악취문제가 대두되고, 농업용수와 같은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새만금 호수의 수질악화가 나타나 새만금 개발에 차질을 빚는 등 환경적 측면의 전라북도 이미지 실추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3 금융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악취로 인해 사람이 살기도 힘든 지역이라는 조롱 섞인 보도를 할 정도로 악취문제는 전라북도의 주요 환경이슈

○ 전국적인 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도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오염정도가 높아 전북이 미세먼지 오염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음

- 미세먼지 측정이 이루어지는 6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지역인 익산시 $36\mu\text{g}/\text{m}^3$ 외에도 김제 $29\mu\text{g}/\text{m}^3$, 정읍·고창 $28\mu\text{g}/\text{m}^3$, 남원·부안 $27\mu\text{g}/\text{m}^3$ 등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

〈표6-8〉 초미세먼지(PM2.5) 도시별 오염도

순위	도시	연평균($\mu\text{g}/\text{m}^3$)
1	사천	18
2	서귀포, 목포	19
4	김해, 순천, 여수, 서산, 동해	20
9	광양, 가평, 대전	21
12	진주, 포항, 삼척	22
15	제주, 거제, 하동, 구미, 단양, 부천, 세종, 대구	23
23	창원, 영암, 춘천, 광주	24
27	양산, 김천, 전주, 강릉, 연천, 울산, 인천, 서울	25
35	군산, 양평, 안성, 하남, 군포, 수원, 부산	26
42	영주, 부안, 남원, 천안, 진천, 충주, 여주, 이천, 김포	27
51	고창, 정읍, 제천, 용인	28
55	김제, 청주, 포천, 파주, 오산	29
60	광주(경기), 구리	30
61	원주	32
62	평택	33
63	익산	36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2017

○ 미세먼지를 떠나 쉬는 ‘미캉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경오염지역을 벗어나 휴식하거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라북도를 가장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

○ 약취 없는 맑은 공기, 수질오염 없는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전라북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개발규제 필요

○ 전라북도 청정지역지정을 통해 단기 휴식이나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전북이주를 유도하는 정책 필요

나. 사업내용

1)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 지정

- 전라북도 차원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청정한 지역의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늘·바람·물 전복청정지역으로 지정 인증하고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보존과 지원 추진
-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구와는 별도로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 지정
-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 지정조건은 민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 지침을 정하고 실증을 통해 검증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제한하여 인증조건을 엄격하게 준수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 지정 조건(안)

- 하천, 산간계곡, 해양 등 자연적경관이 우수한 지역
- 주변에 환경훼손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는 지역
 - * 환경훼손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축사, 공장, 쓰레기매립장, 발전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원회에서 결정
- 하천수질이 1급수인 지역
- 식수오염(붉은수돗물, 냄새 등)이 없는 지역
- 약취가 없는 지역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지역(미세먼지 $20\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10\mu\text{g}/\text{m}^3$)
- 기타 등등

-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청정지역의 보전을 위해 노력
 - 건물의 최대 높이는 주변지역의 가장 키가 큰 나무보다 낮게 건립
 - 지정된 지역의 주변지역도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환경오염시설 건립 규제
 - 자연적 경관의 훼손 제한적 허용 등

2) 유형별 조성: 정주형, 체험형

- 하늘·바람·물 전복 청정지역은 사람들의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형과 휴양 및 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지정

- 하늘·바람·물 청정지역에 주택이나 건물을 건립할 경우 친환경 자재 사용과 패스브하우스 등 친환경건축을 위한 지원
- 생태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 오폐수 등의 처리에 대한 지원으로 오염물질 원천 차단
-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센서를 장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 지원
- 휴양형의 경우 지정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선에서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방안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유지관리 조치를 받도록 조건을 제시
-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 전북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리 및 지원하는 책임 담당자를 지정운영
 - 전북 청정지역 주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전북 청정지역 예산지원
 - 전북 청정지역 현장 점검 및 연례평가서 작성
- 생태환경을 활용한 휴양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방안 모색
 - 유아숲체험원 등록 등과 같은 연계사업의 경우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전북 청정지역의 대내외적 브랜드 확립

〈표6-9〉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구분	내용
입지조건	식생이 다양하고 위험시설이 없으며, 차량접근이 용이한 곳
규모	1만㎡(1ha)이상
시설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
기타	운영프로그램, 교구, 구급약, 재해대비기구 등 구비
인력	유아 25인당 유아숲지도사 1명 고용

다. 사례: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특성과 경관적 특성을 감안하여 생태경관보전지구와 생태마을을 지정할 수 있음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절차는 생태·경관우수지역 발굴조사, 지정계획 수립,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지정·고시의 순
- 2019년 1월 기준 전국에 33개 지역 285.711km²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주체에 따라 환경부지정 9개소, 시·도지사 지정 24개소
-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및 훼손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는 등 규제를 통한 보전
- 규제와는 별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주택증축시 하수처리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등의 주민지원

자연환경 보전법(1991. 12. 31 제정)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 생태마을의 지정절차는 자연생태마을 신청서 제출, 시군구 신청서 취합, 광역자치단체 심사, 현지조사, 환경청 심사, 국가지정 생태마을 심사위원회 평가심의, 선정결과 통보, 지정서 수여 순

〈표6-10〉 생태마을 지정현황

지정기간	마을명	소재지	생태·경관보전지역명
'17.01.01 ~ '19.12.31 (9개소)	화정마을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섬진강 수달서식지(內)
	홍연마을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거금도 적대봉(外)
	서촌마을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초당마을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3리	소한계곡(外)
	문산1리마을 (병창마을)	강원 영월군 영월읍 문산1리	동강유역(內)
	달뜨락마을	강원 정선군 정선읍 용탄2리	동강유역(外)
	굴구지마을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3리	왕피천유역(外)
	수평마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1리	
	막금, 두전마을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2리	
'17.01.01 ~ '19.12.31 (4개소)	청석마을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거금도 적대봉(外)
	동강할미꽃마을	강원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동강유역(外)
	문산2리마을	강원 영월군 영월읍 문산2리	동강유역(內)
	대티골마을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	왕피천유역(外)
'18.01.01 ~ '20.12.31 (3개소)	동정마을	전남 고흥군 금산면 박골길	거금도 적대봉(外)
	가수리마을	강원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동강유역(內)
	한농마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왕피천유역(內)

자료: 환경부, 2019

라. 기대효과

- 전라북도는 생태적으로 가장 잘 보전되어 있다는 내부적인 평가와는 달리 환경부의 생태경관보전지구, 생태마을 등에 등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생태브랜드 발굴로 생태우수지역으로서 전북 브랜드 구축
-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에 대한 방문과 체류를 통해 전라북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 및 지방이주시 우선선택 유도
- 주거지역의 선택으로 가장 우선시 고려하는 자연환경분야에 대해 전라북도가 가장 환경보전이 잘 되어 있음을 홍보하여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북이주를 유도

7.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가. 필요성

- 전라북도 인구유출에서 15~34세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가장 많아 인구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지만 청년세대는 다른 어떤 계층보다 인구의 유동성이 큰 집단
- 청년은 인구의 유입도 많은 집단중 하나이며 최근 청년의 지방이주는 실패자의 귀환이 아닌 또 다른 기회이자 지역활력을 위한 새로운 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짐
-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지방이주관련 정책은 대부분 농업관련분야에 집중돼 있어 문화, 관광, IT 등 최근 청년들의 관심이 높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첨단업종에 대한 지원이 부족

〈표6-11〉 청년지방이주 관련 정책현황

사업명	주관기관	지원내용								
		정보 제공	교육	취업	생활비	주거	융자	창업 보조	기간 (1년기준)	분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				장기	농업
청년귀농 장기교육농장	농식품부		○		○				단기	농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지원	농식품부		○						단기	농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농식품부						○		단기	농업
귀농인 정착지원	강원도						○		단기	농업
청년취업농지원	강원도		○						단기	농업
청년창업농인정지원	충청남도		○		○				단기	농업
청년초보농부 플랫폼조성	충청남도		○						단기	농업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충청남도	○	○						단기	농업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충청남도	○						○	단기	농업
귀농창업활성화	농식품부							○	단기	농업
청년창업공동체육성	원주군							○	단기	비농업
청년인턴사업	원주군							○	단기	비농업
청년쉐어하우스	원주군					○			단기	-
청년창업농장조성	전라남도							○	단기	농업
농촌청년사업기양성	전라남도							○	단기	농업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전라남도				○				단기	농업
청년농산업창업지원	경상남도		○					○	단기	농업
청년 귀농인턴지원	포항시			○					단기	농업
서울농장	서울시	○	○			○		○	장기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행안부			○				○	장기	비농업
도시청년시골파견제	경상북도				○			○	단기	비농업
농촌과소화대응인력	전라북도			○					단기	비농업
1939행복공동체	충청북도		○	○				○	장기	비농업
강화청춘마을	노동부		○	○					단기	비농업
목포 켄잡아 마을	행안부		○			○		○	단기	비농업

자료: 청년허브, 2018

- 최근 전북연구원(김동영, 2018)의 연구에 의하면 로컬을 지향하는 청년세대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추구,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추구, 지역적 자원에 기반 한 장소기반산업추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첨단업종추구 등의 성향을 갖고 있음

- 청년의 지방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첨단산업 관련 다양한 기업이 존재해야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수도권에 비해 첨단산업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그렇지만, 지방은 자연친화적환경과 농업분야와 연관된 첨단산업,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IT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실제로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배우고 익힌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북에서 첨단산업관련 창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표6-12〉 타지역출신 전북창업 정착사례

구분	기업명	대표	주사업분야	내용	비고
관광	질마재 농장	주지은	유기농아기과자	서울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부모님 사업을 이어받음	http://www.jilmajae.com
ICT	클루진	오별	블록체인	2013년 1인기업창업 아내를 만나 정착	서울 (한게임에서 근무, 게임개발경력)
	나래트랜드	최승욱	스마트팜	전라북도가 스마트팜을 많이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도▶진안▶전주
	퍼펙트 JB시스템	나경성	스마트팜원격 컨트롤 시스템		강원도 원주에서 전주로
	5웨이크업	반준길	웨어하우스 관리시스템 아지트	인천과 양쪽에서 운영	스마트창작터 지원
문화	카본플레이	유재업	탄소전자해금개발	대구에서 전통문화지원이 많은 전북도로 이전	탄소융합기술원 입주
	문화기획 달	이유진	마을과 여성,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지인소개로 들어옴, 남편과 귀촌	지리산 산내마을 https://mooncult.blog.me

자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8

- 전라북도차원에서 자연친화적 환경과 ICT첨단산업이 결합된 청년업무지구를 조성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종의 전북진입과 그에 따른 전문인력의 유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내용

1)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지역 선정

- 생태적 환경이 우수하면서 ICT 첨단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곳을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사업을 추진 한 후 성과를 보고 14개 시군으로 확대

-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지방소멸위험이 높아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장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6-13〉 전라북도 지방소멸 위험지수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39세 여성	65세이상	소멸위험지수
전주시	24,320	18,456	21,030	23,823	87,629	78,634	1.11
군산시	7,527	6,033	8,487	9,447	31,494	39,709	0.79
익산시	10,820	7,191	8,147	9,418	35,576	45,842	0.78
정읍시	2,369	1,981	2,283	2,900	9,533	26,742	0.36
남원시	1,595	1,428	1,619	2,197	6,839	19,901	0.34
김제시	1,651	1,535	1,621	1,867	6,674	23,682	0.28
완주군	2,636	1,959	2,874	2,984	10,453	17,823	0.59
진안군	308	344	448	426	1,526	7,572	0.20
무주군	377	353	453	548	1,731	7,110	0.24
장수군	323	340	379	467	1,509	6,488	0.23
임실군	405	428	467	464	1,764	8,903	0.20
순창군	423	442	501	566	1,932	8,740	0.22
고창군	861	972	982	1,048	3,863	16,988	0.23
부안군	885	852	981	1,091	3,809	15,418	0.25

자료: 시도연구원 협의회, 2017

-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되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단순한 기업유치가 아닌 인구유입을 위한 인구 정책으로 추진
 -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고창군 순
- ICT청년업무지구는 업무공간, 숙박공간, 문화공간, 휴식공간, 텃밭공간, 생태공간 등 업무와 휴식 및 주거가 가능한 생태적 라이프스타일 복합지구로 조성

2) ICT기업의 전북지부 유치

- 청년업무지구의 규모는 작은 마을 단위로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기 보다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전북지부를 유치하여 앵커기업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
- 초기 ICT관련 전북지부 사무소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등 개인 전문인력 또는 소규모 업체의 입주가 용이하므로 앵커기업으로써 전북지부 사무소 유치가 반드시 필요

- 전북지부 유치기업에는 사무소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지원과 세금 감면은 물론 사무공간 외에 공동의 텃밭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센터 등을 제공
- ICT기업의 전북지부 유치를 위해 농산어촌의 경관에 어울리는 비즈니스 숙박시설을 건립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출장에 대비한 숙박과 업무공간 제공
- 단기출장 또는 중장기 체류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공동의 사무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개인이나 기업 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제공

3) 5G 인프라 구축

- ICT첨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위치한 청년업무지구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최첨단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 과학기술통신부와 기가코리아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5G융합 서비스 시범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간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5G 빌리지 구축사업 추진
 - 판교는 KT컨소시엄과 함께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5G융합 서비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창 의야지마을은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5G빌리지 구축
- 공모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 IT기업인 효성 ITX와 연계하여 5G인프라 구축사업 자체사업으로 추진 필요

4) ICT 청년업무지구 지원단 구성·운영

- 전라북도가 설립 운영예정 중인 전북청년종합지원센터에 ICT 청년업무지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청년업무지구 조성에 필요한 제반업무 지원
- 지원단은 ICT 청년업무지구에 적합한 장소물색, 유희공간과 빈집 조사 및 리모델링 지원, 업무지구에 맞는 앵커기업 지부유치, 청년창업과 연계기업 지원, 인재육성과 전문인력 유치, 자연과 전통적 삶에 대한 교육과 실습, 문화적 활동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추진

- 특히, 지역의 전통이나 자연환경 속에서 창조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생태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지원하여 새로운 업무라이프를 창조하는데 기여

다. 사례: 일본 가미야마⁴⁾

- 가미야마는 도쿄에서 600km떨어진 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로 1995년 인구가 21,000명이었으나 1995년 6,000명까지 인구가 줄어든 전형적인 과소화지역
- 2011년 이후로 IT분야종사자들이 자연환경과 전원생활이 결합된 창조적 업무환경을 추구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해 현재 거주인구의 2.5%인 200명 이상이 IT종사자 청년인구로 채워져 있음
- 영상편집회사인 플랫이즈가 인터넷으로 대용량 영상편집이 가능해지면서 도쿄가 아닌 창조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지방이주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그린베레의 도움을 받아 2010년 낡은 집을 수리하여 입주한 것이 시초
- 플랫이즈는 가미야마에 위성사무실을 내고 오래된 건물과 전통적인 삶을 젊은 감각과 융합해 전통과 창조산업이 융합된 독창적인 업무스타일을 구축
- 이후 2013년에는 명함관리 IT벤처기업인 산산이 위성사무실을 내고 텃밭농사, 그물침대 휴식, 숲 산책 등 기본적인 업무외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무실 운영 중이며 현재 IT관련 16개 기업이 입주한 상황
- 가미야마에서 일하는 방식은 상주하면서 일하는 방식, 일시적 체류방식, 팀이 단기간 체류하는 방식, 중장기 합숙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본사의 직원을 위성사무실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

4) 마쓰나가 게이코의 「로컬지향의 시대」 제1장 '지역 간 차이가 사라진다' 참조, 전북연구원, 2018,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재인용

- 가미야마 정착을 지원하는 그린베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초기에는 해외 예술가들의 단기와 중기 레지던스를 지원하던 것에서 위성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 빈집제공, 고택재생, 빈점포 활용, 기업지원 등의 기업이나 창업자가 원하는 점포나 사람을 유치하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까지 전담
- IT분야 위성사무실과 창업자들이 가미야마에 정착하면서 IT분야 종사자들이나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등 IT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들기 시작
- 가미야마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창조적 인재들의 일과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크 가미야마”와 위성사무실을 위한 공동 사무공간 “가미야마 밸리 위성사무소 콤플렉스”조성하여 운영 중
- 워크 가미야마에서는 가미야마 식재료로 준비한 소셜 다이닝 이벤트가 개최되고 위성사무실 콤플렉스는 봉제공장을 재생하여 개인자격으로 들어온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들이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음
 - 이용료는 기업이나 그룹은 월 3만엔, 개인은 월 7,500엔, 창업하려는 스타트업은 월 1만엔으로 칸이나 벽이 없는 개방형 공간



자료: <https://ppss.kr/archives/117185>

라. 기대효과

- 농업이 아닌 IT첨단산업과 같은 창조적 청년들의 지역유치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모델구축 및 청년인구 유입
- ICT첨단산업을 통한 지역재생의 새로운 모델도입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계전문가의 유입으로 자연 속 첨단업무지구 모델 구축

7

장

요약 및 결론

제7장 요약 및 결론

- 전라북도의 인구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출산율이라고 하는 자연인구의 증감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인구유출이라고 할 수 있음
- 인구유출은 주로 출향민 그리고 순인구이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
- 인구유입측면에서 전라북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는 전북혁신도시 조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인구는 2010년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이 당시 가장 큰 사건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혁신도시조성이 전북인구의 유출방지와 유입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
- 국토연구원(2018)의 분석에 따르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인구가 2014년 3.5만명에서 2017년 13.1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라북도 인구대책은 출향민, 대학생 등 청년층의 인구이동 그리고 인구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표7-1〉 전라북도 인구유입·유출 대상 선정

구분	현황	관련통계
출향민	· 전라북도 출생인구 318만명	출생지별
	· 전북거주인구 186만명	거주인구
	· 타지역거주 전북출향민 132만명	(인구주택총조사)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전북 공공기관 이전 전 혁신도시인구(2014년) 1.5만명 · 전북공공기관 이전 후 혁신도시인구(2017년) 2.6만명 · 전북공공기관 이전 이후 1.1만명 증가(인구증가율 73.0%)	공공기관 이전 전후 인구가동 (인구가동통계)
대학생	· 전북청년인구 유출심화 (20-29세 인구 순이동) 9.5천명 (2018년 말기준)	
	· 전북청년인구(20세-29세) 순이동율-4.3%↔전체 평균순이동율 0.8%	연령대별 인구가동현황
	· 전북전체 세대 중 청년세대의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수준	(인구가동통계)
	※ 전북의 청년인구유출이 전연령평균 유출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 출생인구는 총 약 318만명이며 이중 175만명(55%)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거주자 중 전북 출생은 82.1%이며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는 17.9%
- 이를 다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입하여 출향민을 추정해 보면 전라북도의 출생주민은 2015년 기준 약 332.9만명이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186.5만명임
- 전라북도의 출생주민 중 전라북도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은 152.5만명이고 전라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도민은 180.4만명으로 추정
- 출향인은 여전히 전라북도인이다 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민이면서 이주한 지역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응답 22.1%, 이제는 이주한 지역의 시민이다라는 응답이 13.8%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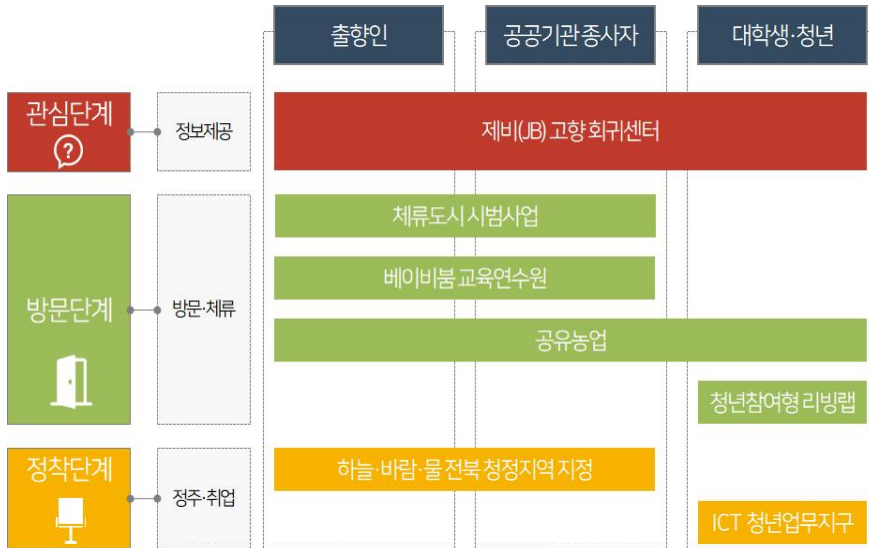
- 향후 전라북도로 귀향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42.6%로 나타났고 귀향의 시기는 은퇴 이후 39.2%, 10년 이후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귀향을 한다면 그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가 33.6%로 가장 많았고 귀향을 한다면 부부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음
- 귀향을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는 병원등 부족한 편의시설 문제(30.1%)와 주거의 문제(22.1%),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의 불편(21.2%)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혁신도시 기반조성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개시한 이전과 이후 인구증감현황을 보면,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4년도의 인구는 1.5만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말 기준 인구는 2.6만명으로 약 1.1만명 증가(73.0%)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주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현원 5,239명 중에서 가족동반이주는 2,616명으로전체 이주자 중 49.9%를 차지하고 있음
- 가족이주가 이외에는 단독이주 1,524명, 미혼 및 독신 1,0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가족이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개 외에도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고용노동청전주지청 등 24개의 추가 공공기관까지 36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이들 종사자의 전북이주 및 은퇴 후 전북정주사업 필요
- 전라북도 소재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222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전라북도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은 전체적으로 63.8%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 생활하고 싶은 이유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38.8%로 높게 나타남

- 은퇴 후 희망하고 있는 거주지역으로 1순위는 전북이 48.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2.6%, 경기도 6.8% 등의 순으로 희망지역이 나타남
- 은퇴 후 희망 거주지가 전북인 경우 시군별 희망 지역은 전주가 8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군산과 남원이 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전라북도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동거주지역을 조성 시 입주할 의향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56.2%로 가장 많았고, 공동거주 지역을 조성한다면 고려해야할 여건으로 기초 인프라가 좋은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을 하는 것이 63.8%로 가장 많았음
- 연령대별 순이동율을 보면, 전북은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고, 순유입은 50대에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전라북도는 20세에서 29세의 청년이 2018년 한해에만 약 9.5천명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았고, 다음으로 30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도 약 2.5천명 정도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 순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대는 전북(-4.3%), 강원·전남(-3.9%) 등 12개 시도에서 순유출되고 세종(14.9%), 서울(2.7%), 경기(1.5%)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나 전북이 20대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
-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졸업 후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는 39.8%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마땅한 일자리 없어서가 27.8%로 많았음
- 전라북도지역의 대학생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제공 등 고용환경의 개선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 및 여가시설확충 18.9%, 전북지역의 일자리와 여가문화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17.4%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같은 급여를 받을 경우 전라북도에서 근무할 의향으로는 그렇다가 66.5%로 높게 나타났고,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익숙함이 42.0%로 많았음
-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렴한 생활물가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안전한 도시환경 34.5%, 수려한 자연환경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출신 수도권 대학생 의식조사결과 졸업 이후 전라북로 귀향에 대한 의향은 전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65.5%로 매우 높았고, 귀향의향이 있다면 그 시기는 대학 졸업 후 현 거주지에서 취업이 어려울 경우가 41.7%로 많았음
- 졸업 이후 귀향을 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전북에서 취직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60.0%로 가장 많았고, 현재 거주지역이 좋아서가 20.0%로 많았음
-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인이다가 50.0%로 가장 많았고, 전북도민이면서 현 거주지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가 46.9%로 높았음
- 전라북도(고향)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요도는 64.3%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고향의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이유로는 고향의 소식이 궁금해서 47.6%, 전라북도인이라는 지역정체성 때문에 38.1% 등의 순으로 많았음
- 타 지역 소재 대학생이 생각하는 전라북도의 강점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저렴한 생활물가가 21.9%로 많았음
- 전라북도 인구유입정책은 귀농·귀촌인의 이주단계와 청년의 이주단계를 고려하여 관심단계, 방문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추진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여 인구유입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사업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 주요대상으로 선정된 출향인,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은퇴자, 대학생 및 청년이 지방이주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제시

〈그림7-1〉 전북이주 단계별 사업



- 관심단계에서는 지방이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매칭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제비(JB) 고향회귀센터조성을, 방문단계에서는 체류도시 시범사업,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공유농업, 청년참여형 리빙랩 사업을, 정착단계에서는 하늘·바람·물 전북청정지역 지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사업을 제안

〈표7-2〉 인구유입 대표사업 및 세부사업 제안

단계	사업명	세부사업
관심단계	제비(JB)고향회귀센터	제비(JB)로컬카페 & 콜센터 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전북이주 업무협약
	체류도시 시범사업	사이버 도민증 발급 논밭 소셜 다이닝 동부권 대지예술제
방문단계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베이비붐 노후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원 베이비붐 직업훈련 교육관 및 직업 체험관 전북이주자 인재은행
	공유농업	공유농업 지원조례 제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유형별 공유농장운영: 배당 공유형, 생산물 공유형
	청년참여형 리빙랩	지역대학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혁신기업 연계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단계	사업명	세부사업
정착단계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유형별 조성: 정주형, 체험형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ICT 청년업무지구 시범지역 선정 ICT기업의 전북지부 유치 5G 인프라 구축 ICT 청년업무지구 지원단 구성·운영

- 본 연구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인구정책수요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분야별 세부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를 통한 세부사업 발굴 필요

부 록

II. 다음은 개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전라북도에서 전출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도

2. 전라북도에서 전출시 누구와 함께 이주하였습니까?

- __① 본인만 혼자 이주
 __② 부부와 함께 이주
 __③ 가족과 함께 동반이주
 __④ 혼자 이주했다가 가족 전체가 이주

3. 전라북도에서 전출한 지역은 모두 어디입니까?

- | | | |
|-------------------|-------------------|-------------------|
| 1차() | 2차() | 3차() |
|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 ② 충청권 | ② 충청권 | ② 충청권 |
| ③ 강원권 | ③ 강원권 | ③ 강원권 |
| ④ 경상권 | ④ 경상권 | ④ 경상권 |
| ⑤ 호남권(전라북도 이외) | ⑤ 호남권(전라북도 이외) | ⑤ 호남권(전라북도 이외) |
| ⑥ 제주권 | ⑥ 제주권 | ⑥ 제주권 |

4. 전라북도에서 전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 |
|----------------------------|-----------------|
| __① 직장 때문에(경제적 사유) | __② 교육 때문에 |
| __③ 가족(배우자)이나 친지의 권유로 | __④ 쾌적한 자연환경때문에 |
| __⑤ 편리한 편의시설(병원, 학교 등) 때문에 | __⑥ 경제적 투자때문에 |
| __⑦ 건강 때문에 | __⑧ 기타() |
| __⑨ 기타() | |

5.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자녀교육여건	①	②	③	④	⑤
직장 등 근로조건	①	②	③	④	⑤
주거 및 정주여건	①	②	③	④	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	①	②	③	④	⑤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	①	②	③	④	⑤
여가 및 문화환경(극장, 공연장 등)	①	②	③	④	⑤
자연환경	①	②	③	④	⑤
지역주민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본인의 지역정체성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여전히 전라북도인이다.
 __② 이제는 이주한 지역의 시민이다
 __③ 전라북도민이기도하고 이주한 지역의 새로운 시민이기도 하다

II. 다음은 귀향 의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향후 전라북도로 다시 돌아오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① 있다

1-1. 언제쯤 다시 돌아오실 계획이십니까?

- ☐ ① 1년 이내 ☐ ② 2년~3년 이내 ☐ ③ 4년~5년 이내
☐ ④ 6년~10년 이내 ☐ ⑤ 10년 이후 ☐ ⑥ 은퇴 이후

1-2. 돌아오신다면 어떤 이유로 돌아오실 계획이십니까?

- ☐ ①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 ② 농사를 짓기 위해
☐ ③ 고향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 ④ 건강한 삶을 위해서
☐ 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싶어서
☐ ⑥ 가족들이 원해서
☐ ⑦ 기타()

1-3. 돌아오신다면 누구와 함께 오실 계획이십니까?

- ☐ ① 혼자
☐ ② 부부와 함께
☐ ③ 가족 전체

1-4.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 ① 주거문제(주택구입 등)
☐ ② 교육문제(본인 및 자녀교육문제)
☐ ③ 병원 등 부족한 편의시설 문제
☐ ④ 경제적 문제(직장 및 직업의 문제)
☐ ⑤ 가족의 반대와 부적응
☐ ⑥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
☐ ⑦ 기타()

—② 없다

1-5. 돌아오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좋아서
☐ ② 직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 ③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④ 마땅한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 ⑤ 병원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 ⑥ 가족의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기타()

2. 전라북도가 출향민의 귀향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정주여건 개선 ☐ ② 교육환경 향상
☐ ③ 보건 및 의료시설 확충 ☐ ④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 ⑤ 도로 등 기초기반시설 확대 ☐ ⑥ 일자리 등 고용환경 개선
☐ ⑦ 귀향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⑧ 기타()

3. 귀하의 자녀를 전라북도로 귀향하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전혀 의향이 없다 ☐ ② 다소 의향이 없다 ☐ ③ 다소 의향이 있다 ☐ ④ 매우 의향이 있다

전라북도 소재 대학생 의식조사 설문지

ID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전라북도의 인구위기에 대응하여 전라북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구증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적인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안심하고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07월

문의연락처 : 김동영 책임연구위원

송용호 공동연구위원

1. 다음은 개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세
3. 현재 학년	대학 (학년)	4. 전라북도 거주기간	(년)
5. 태어난 고향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 충청권 ③ 경상권 ④ 호남권(전라북도 제외) ⑤ 전라북도 ⑥ 제주도 ⑦ 기타()		
6.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은	_① 인문사회계열(경제, 사회) _② 사범계열(교대포함) _③ 자연과학계열 _④ 공학계열(전자, 토목, 건축) _⑤ 의학계열 _⑥ 예체능계열 _⑦ 기타()		
7. 장래 희망하는 직종	_① 공무원(교사) _② 일반 사무직종 _③ 전자, 통신 IT직종 _④ 농산어업분야 _⑤ 건설 토목직종 _⑥ 보건의료서비스 직종 _⑦ 금융계통 _⑧ 출판업종 _⑨ 기타()		

II. 다음은 향후 거주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__① 전라북도 (02번 문항으로)

__② 전라북도 외 지역 (05번 문항으로)

[전라북도가 고향인 경우 응답]

2. 귀하께서는 전라북도에서 생활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주기간

()년 ()개월

3. 귀하께서는 졸업 후에 어디에서 생활하실 계획입니까?

__① 전라북도

3-1. 전라북도에서 생활하실 계획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고향을 떠나기가 싫어서
- __② 내 전공에 맞춰 우리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 __③ 타지생활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 __④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가족의 반대 등)
- __⑤ 우리지역이 익숙해서
- __⑥ 기타 ()

3-2. 귀하께서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전라북도에서 생활하실 계획입니까?

- __① 그렇다
- __② 그렇지 않다
- __③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__② 전라북도
외 지역

3-3. 졸업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우리지역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 __② 우리지역의 일자리는 처우가 좋지 않아서(연봉, 근로조건 등)
- __③ 우리지역은 내 전공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 __④ 우리지역을 벗어나 다양한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 __⑤ 기타 ()

3-4.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언제쯤 이동하실 계획이십니까?

- __① 졸업하자마자
- __② 졸업 후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 __③ 우리지역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알아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 __④ 기타 ()

4. 우리지역의 대학생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__① 정주여건 개선(주택제공 등)
- __② 교육환경 향상
- __③ 보건 및 의료시설 확충
- __④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 __⑤ 도로 등 기초기반시설 확대
- __⑥ 청년일자리 제공 등 고용환경 개선
- __⑦ 대졸자 대상 인턴제도 확대
- __⑧ 전북지역의 일자리, 여가문화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 __⑨ 기타 ()

[전라북도 외 지역이 고향인 경우 응답]

5. 귀하께서는 대학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전라북도에서 생활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그렇다

5-1. 전라북도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내게 맞는 일자리가 있어서
- ☐ ② 전라북도 생활이 익숙해서
- ☐ ③ 주거문제 등 생활비가 저렴해서
- ☐ ④ 기타()

5-2. 귀하께서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전라북도에 거주하실 계획이십니까?

- ☐ ① 그렇다
- ☐ ② 그렇지 않다
- ☐ ③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못했다

5-3. 계속해서 전라북도에 거주하신다면 가장 걱정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 ☐ ① 주거문제(주택구입 등)
- ☐ ② 교육문제(본인 및 자녀교육문제)
- ☐ ③ 병원 등 부족한 편의시설 문제
- ☐ ④ 경제적 문제(직장 및 직업의 문제)
- ☐ ⑤ 가족의 반대와 부작용
- ☐ ⑥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
- ☐ ⑦ 기타()

② 그렇지
않다

5-4. 졸업이후에 전라북도를 떠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고향에서 직장을 잡고 싶어서
- ☐ ② 전라북도에서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 ☐ ③ 전라북도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 ④ 전라북도에서는 결혼이후 자녀 교육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 ☐ ⑤ 전라북도는 병원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 ☐ ⑥ 전라북도에서의 생활에 대해 가족이 반대할 것 같아서
- ☐ ⑦ 전라북도에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 ☐ ⑧ 기타()

5-5. 타지로 이동하신다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 ☐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 ② 충청권(세종 이외 충남,충북,대전)
- ☐ ③ 강원권
- ☐ ④ 전라권(전북 이외 전남,광주)
- ☐ ⑤ 경상권(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 ☐ ⑥ 세종
- ☐ ⑦ 제주권

5-6. 귀하께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생활하실 것 같습니까?

- ☐ ① 정주여건 개선(주택제공 등)
- ☐ ② 교육환경 향상
- ☐ ③ 보건 및 의료시설 확충
- ☐ ④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 ☐ ⑤ 도로 등 기초기반시설 확대
- ☐ ⑥ 청년일자리 제공 등 고용환경 개선
- ☐ ⑦ 대학생을 위한 인턴제도 확대
- ☐ ⑧ 기타()

III. 다음은 거주지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입니다. (전체 응답)

6.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6-1. 교육여건	①	②	③	④	⑤
6-2. 직장 등 근로조건	①	②	③	④	⑤
6-3. 주거 및 정주여건	①	②	③	④	⑤
6-4.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	①	②	③	④	⑤
6-5. 병원, 보육 등 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6-6.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여건	①	②	③	④	⑤
6-7. 여가 및 문화환경(극장, 공연장 등)	①	②	③	④	⑤
6-8. 자연환경	①	②	③	④	⑤
6-9. 지역주민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는 언제 결혼할 생각이십니까?

- ☐ ① 대학졸업 이후 바로
☐ ② 취업 이후 바로
☐ ③ 취업 이후 주거 등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 된 이후
☐ ④ 기타 ()

8. 귀하께서는 결혼 이후에 어디에서 생활하실 예정입니까?

- ☐ ① 전북의 타지역 — 8-1. 타지역 어디에서 생활하실 예정입니까?
 ☐ 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② 충청권(세종 이외 충남,충북,대전)
 ☐ ③ 강원권 ☐ ④ 전라권(전북 이외 전남,광주)
 ☐ ⑤ 경상권(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 ⑥ 세종
 ☐ ⑦ 제주권
 8-2. 타지에서 생활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자리, 취업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 ② 자녀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 ③ 여가 문화 환경이 좋기 때문에
☐ ④ 주택 등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 ⑤ 교통 등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 ⑥ 기타 ()

- ☐ ② 전라북도 — 8-3. 전라북도에서 생활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 ② 전북에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 ③ 고향의 익숙한 환경이 좋아서
☐ ④ 주거비 등 물가가 저렴해서
☐ ⑤ 복잡한 대도시보다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 ⑥ 기타 ()

9.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고향(전라북도)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__① 그렇다

9-1. 고향(전라북도)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 __② 고향(전라북도)가 익숙해서
- __③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 __④ 주거 및 정주환경이 좋아서
- __⑤ 기타()

__② 아니다

9-2.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타지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서
- __② 전북에서의 생활이 불편해서
- __③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 __④ 생활여건이 그리 좋지 않아서
- __⑤ 기초 기반시설(도로, 교통, 의료시설 등)이 부족해서
- __⑥ 기타 ()

10. 귀하께서는 전라북도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 수려한 자연환경

__② 저렴한 생활물가(주택 등)

__③ 안전한 도시환경

__④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

__⑤ 기타 ()

정책연구 2019-20

전라북도 인구유입활성화(제2고향만들기) 정책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9년 9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70-7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